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언어학박사 학위논문

한국어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 합성 유형
- ‘V-어 가다/오다’, ‘V-어 주다’를 중심으로 -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김 호 진

한국어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 합성 유형
- ‘V-어 가다/오다’, ‘V-어 주다’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남 승 호

이 논문을 언어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김 효 진

김효진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한국어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 합성 유형 - ‘V-어 가다/오다’, ‘V-어 주다’를 중심으로 -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V-어 가다/오다’, ‘V-어 주다’가 생성 기제면에서 범언어적으로 나타나는 연쇄동사 구문(Serial Verb Construction)의 특성을 지닌 구문임을 밝히고 ‘가다/오다’, ‘주다’가 다른 동사들과 연쇄되어 나타날 때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가 합성되는 방식을 유형화하여 제시한다.

연쇄동사 구문이 다른 복합 동사 구문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두 동사가 결합할 때 ‘적어도 하나 이상의 논항을 공유’하며 ‘하나의 단일 사건’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심층적인 통사 구조를 상징하지는 않지만 동사가 갖는 의미 구조를 반영하는 표면적 통사 구조로, ‘논항 구조’의 합성 방식을 먼저 제시한다. 다음으로 ‘술어 분해(predicate decomposition)’ 방식을 이용한 Rappaport Hovav & Levin(1998; 2010)식의 ‘사건 구조’를 통해 동사가 갖는 의미 구조를 표상하여 ‘가다/오다’, ‘주다’가 다른 동사들과 연쇄동사 구문을 이룰 때, 두 동사의 하위 사건이 어떻게 하나의 사건으로 합성되는지를 밝힌다.

‘가다/오다’, ‘주다’는 착점 논항을 필수 성분으로 취하며 ‘처소 변화’라는 결과 상태를 하위 사건으로 갖는 처소 이동 사건을 나타낸다. 이러한 ‘가다/오다’, ‘주다’가 다른 동사들과 결합하여 하나의 문장을 구성할 때, ‘가다/오다’는 기본적으로 주어(행동주)를, ‘주다’는 주어(행동주)와 목적어(대상)를 공유한다. 여기서는 ‘가다/오다’, ‘주다’가 취하는 착점 논항이 합성되는 방식에 주목한다. 그런데 ‘가다/오다’는 처소 논항의 [±처소 변화 <BE-AT z>]의 속성에 따라 다른 동사와의 합성 여부가 결정되거나 합성 양상이 달라진다. ‘주다’는 V1의 착점 논항 여부, V1의 대상 논항이 구체물인가 또는 추상물인가, 그러한 대상 논항이 이동이나 소유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에 따라 착점 ‘-에게’ 논항의 실현 여부와 합성 유형이 달라진다.

여기서는 ‘가다/오다’, ‘주다’가 다른 동사들과 결합하여 연쇄동사 구문을 이룰 때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가 합성되는 방식을 크게 (1) ‘병렬적 합성 유형(Summation Type)’, (2) ‘통합적 합성 유형(Unification Type)’, (3) ‘혼합적 합성

유형(Mixed Composition Type)’으로 구분한다. 사건 구조에서 ‘병렬적 합성 유형’은 (1-1) ‘부가적 병렬 합성’과 (1-2) ‘부분적 병렬 합성’으로, ‘통합적 합성 유형’은 (2-1) ‘완전 통합’, (2-2) ‘내포 통합’, (2-3) ‘부분 흡수 통합’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병렬적 합성 유형’은 V1이 V2와 결합하면서 동일한 논항은 하나로 합치되 V2에 의해 착점 논항과 사건 구조 내에 <BE-AT__>라는 결과 상태가 포함된 하위 사건을 새로이 도입하게 된다. 이러한 유형은 V2에 의해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가 주도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통합적 합성 유형’은 V1과 V2가 취하는 동일한 속성의 처소 논항과 동일하거나 합의 관계에 있는 사건 함수(event function) 및 결과 상태를 내포한 하위 사건을 하나로 통합하여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경우이다. 표면적으로는 V1의 논항 구조가 V2와 결합한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 V2보다는 V1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혼합적 합성 유형’에 속하는 부류들은 V1과 V2의 처소 논항의 속성이 상충되어 하나로 통합되지 않거나 V2가 결합된 형태로만 쓰이는 등 사건 구조상에서 통합되지 않는 논항들은 논항 구조상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들이다. 몇몇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의 합성 방식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나지만 논항 구조에 새로이 도입된 논항은 사건 구조 내에서 동일하게 하나의 하위 사건으로 도입되며 반대로 논항 구조에 변화가 없으면 사건 구조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등 두 동사가 결합하여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경우에도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 사이에 일정한 대응 관계가 성립됨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어 : 연쇄동사 구문, 논항 구조, 사건 구조, 처소 이동,
병렬적 합성 유형, 통합적 합성 유형, 혼합적 합성 유형**

학 번 : 2006-30727

목 차

국문 초록	i
1. 서론	1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1.2. 연구 대상과 방법	2
1.3. 논의의 구성	4
2. 연쇄동사 구문의 유형론과 한국어의 [V1+어+V2] 구문	6
2.1. 연쇄동사 구문	6
2.2. 한국어 [V1+어+V2] 구문의 형성	17
2.2.1. 접속에 의한 통사적 구성 또는 합성동사	18
2.2.2. 부동사 구문	23
2.2.3. 한국어의 연쇄동사 구문	30
2.2.3.1. 형태적 특성	31
2.2.3.2. 통사적 특성	36
2.2.3.2.1. 논항 공유	37
2.2.3.2.2. 단일절 속성	42
2.2.3.2.3. 연쇄동사 구문과 합성동사의 통사적 특성 비교	54
2.2.3.3. 의미적 특성	62
3. 동사의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	68
3.1.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	68
3.2. ‘가다/오다’의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	73
3.3. ‘주다’의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	79
3.3.1. 영어 ‘give’의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	79
3.3.2. 한국어 ‘주다’의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	81
3.4. [V1+어+V2(가다/오다, 주다)] 연쇄동사 구문의 형성	86
4. 한국어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 합성 유형	94
4.1.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 합성 방식과 유형	94
4.1.1. 논항 구조와 의미역 위계 구조	94
4.1.2. ‘가다/오다’, ‘주다’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 합성 규칙	101
4.2. [V1+어+V2(가다/오다)]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 합성 유형	102

4.2.1. 병렬적 합성 유형	102
4.2.2. 통합적 합성 유형	109
4.2.2.1. 주어 논항과 처소 논항 공유	110
4.2.2.2. ‘V1의 목적어(대상)-V2의 주어(대상)’ 논항과 처소 논항 공유	120
4.2.3. 혼합적 합성 유형	123
4.2.3.1. [V1] - ‘-를’: [행로]	123
4.2.3.2. [V1+V2] - ‘-를’: [행로]	124
4.2.4. 정리: [V1+어+V2{가다/오다}]의 논항 구조 합성 유형	126
4.3. [V1+어+V2{주다}]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 합성 유형	130
4.3.1. 병렬적 합성 유형	130
4.3.2. 통합적 합성 유형	141
4.3.2.1. 완전 통합	141
4.3.2.2. 내포 통합	145
4.3.3. 혼합적 합성 유형	146
4.3.3.1. V1의 구문 유지: 수혜 구문	146
4.3.3.2. ‘-(어)서’ 구문	152
4.3.3.3. V2에 의해 별도의 수혜자를 요구하는 구문	157
4.3.3.4. V1의 행동주가 V2의 착점이 되는 경우	158
4.3.3.5. 어휘적 합성어	159
4.3.4. 정리: [V1+어+V2{주다}]의 논항 구조 합성 유형	162
5. 한국어 연쇄동사 구문의 사건 구조 합성 유형	166
5.1. ‘가다/오다’, ‘주다’ 연쇄동사 구문의 사건 구조 합성	166
5.1.1. 사건 구조의 합성 규칙과 합성 유형	168
5.1.2. 사건 함수와 연산자 목록	177
5.1.3. 사건 구조의 결합 유형 구분: ‘-어’와 ‘-(어)서’의 교체	178
5.2. [V1+어+V2{가다/오다}] 연쇄동사 구문의 사건 구조 합성 유형	180
5.2.1. 통합적 합성 유형	180
5.2.1.1. 완전 통합	180
5.2.1.2. 내포 통합	183
5.2.2. 병렬적 합성 유형	187
5.2.2.1. 부분적 병렬 합성	188
5.2.2.2. 부가적 병렬 합성	196

5.2.3. 혼합적 합성 유형	203
5.2.4. 정리: [V1+어+V2{가다/오다}]의 사건 구조 합성 유형	208
5.3. [V1+어+V2{주다}] 연쇄동사 구문의 사건 구조 합성 유형	209
5.3.1. 통합적 합성 유형	209
5.3.1.1. 완전 통합	209
5.3.1.2. 내포 통합	212
5.3.1.3. 부분 흡수 통합	213
5.3.2. 병렬적 합성 유형: 부분적 병렬 합성	217
5.3.3. 혼합적 합성 유형	221
5.3.3.1. V1의 사건 구조 유지, V2 ‘주다’의 수혜 사건	221
5.3.3.2. ‘-(어)서’ 구문	226
5.3.3.3. 의미항의 속성 전환 또는 일치 여부	228
5.3.4. 정리: [V1+어+V2{주다}]의 사건 구조 합성 유형	230
6. 한국어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의 상관성	234
6.1.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의 대응 관계	234
6.2. [V1+어+V2{가다/오다}]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의 상관성	238
6.2.1. 합성 방식이 일치하는 부류	240
6.2.2. 합성 방식이 일치하지 않는 부류	241
6.3. [V1+어+V2{주다}]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의 상관성	243
6.3.1. 합성 방식이 일치하는 부류	245
6.3.2. 합성 방식이 일치하지 않는 부류	247
6.4. 정리	248
7. 결론	251
참 고 문 헌	255
Appendix	267
Abstract	274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한 문장 내에 둘 혹은 그 이상의 동사들이 나타나는 다중 동사 구문(multiple verb construction) 또는 복합 술어(complex predicate)는 범언어적으로 발견된다. 그러한 복합 동사 구문에는 대등(coordination)이나 종속(subordination) 접속에 의한 단순한 절(clause)의 연결에 의해 형성된 구문이나 부동사(副動詞, converb), 연쇄동사(serial verb), 보조동사(auxiliary verb) 구문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아직 학자들 간에 복합 동사 구문의 특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양한 정의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언어 유형론적 관점에서 복합 동사 구문에 관한 연구는 기능주의, 인지적 접근법, 구문론적 접근법 등의 다양한 이론적 틀 안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둘 이상의 동사가 단일절 내에 나타나며 하나의 술어로 기능하는 구문들의 통사적 변이(variation)가 존재함을 밝히고 복합 동사 구문의 논항들의 형태·통사적 실현에 어휘 의미론과 사건 구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의미-통사적 접면(interface)을 다루거나 범언어적으로 복합 술어의 형성 과정을 비교하고 공시적 또는 통시적으로 설명하려는 연구 등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Nolan & Diedrichsen 2017). 국어학계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복합 동사 구문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들은 대부분 형태·통사적 측면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왔으며 통사적 구조는 의미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미적 측면에서는 면밀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어의 복합 동사 구문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하는 구문의 유형들을 확장하여 통합적이고 범언어적인 타당성을 제고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두 동사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구문의 다양한 합성 유형을 통합적으로 설명함과 동시에 형태·통사적 특성과 의미 특성 간의 상관성을 구명해 줄 수 있는 기제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가다/오다’, ‘주다’가 다른 동사들과 연쇄되어 나타나는 구문을 다룬다. 먼저 한국어의 [V1+어+V2{가다/오다, 주다}] 구문을 어떤 범주에 속하는 복합 동사 구문으로 보아야 할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한국어에서는 두 동사가 연쇄되어 나타나는 [V1+어+V2] 동사 구성을 접속에 의한 통사적 구

성, 보조동사, 합성동사 중 한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하거나 언어 유형론적 범주에서 연쇄동사 구문 또는 부동사 구문으로 다루기도 하였다. 여기에서는 [V1+어+V2{가다/오다, 주다}] 구문을 중심으로 한국어에서도 둘 이상의 동사가 연쇄되어 나타날 때 접속에 의한 통사적 구성과도 다른 특성을 보이며 어휘적 합성동사와도 구분되는 특성을 지닌 부류가 있음에 주목한다. 한국어에서는 ‘-아/어’나 ‘-고’에 의해 두 동사가 연결되어 혹은 연쇄되어 나타는데 이러한 형태적인 특성으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이 연쇄동사 구문보다는 부동사 구문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V1+어+V2{가다/오다, 주다}] 구문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범언어적으로 나타나는 연쇄동사 구문 (Serial Verb Construction)의 특성을 지닌 구문으로 보고자 한다.

(1) 연쇄동사 구문(SVC)으로서의 [V1+어+V2{가다/오다, 주다}]

- (i) V1과 V2가 하나의 단일절 내에 나타나 시제와 상 등을 공유한다.
- (ii) 적어도 하나 이상의 논항을 공유하며, 논항 구조 합성시 V2가 착점 (Goal) 논항을 요구한다.
- (iii) 어휘적(lexical) 의미를 갖는 V1과 V2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일 사건으로 통합된다.

이러한 [V1+어+V2{가다/오다, 주다}] 구문을 구성하는 V1과 V2{가다/오다, 주다}의 통사·의미적 결합 양상, 구체적으로 논항 구조(argument structure)와 사건 구조(event structure)의 합성이라는 체계적인 생성 기제를 기반으로 그 합성 방식에 따라 유형화하여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한국어에서 두 동사가 연쇄되어 나타나는 동사 구성의 생성 기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두 동사의 합성 유형뿐만 아니라 통사적 특성을 보여주는 논항 구조와 의미적 특성을 나타내는 사건 구조 간에 유기적인 상관성이 존재함을 포착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1.2. 연구 대상과 방법

한국어에서 ‘-아/어’에 의해 연결되어 나타나는 [V1+어+V2] 동사 구성 중에서도 V2에 ‘가다/오다’, ‘주다’가 오는 경우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다/오다’, ‘주다’는 인간의 언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이동’¹⁾의 개념을 나타내는 사용 빈도수가 높은 어휘임과 동시에 다른 동사들과 결합하여 [V1+어+V2] 동사 구성을 이룰 때에도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어휘들이기 때문이다. 「21세기 세종 계획 최종 성과물(2011 수정판, 국립국어원)」의 형태 분석 말뭉치(15,293,877어절) 통계에 따르면, 다른 용언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용언(VX)은 총 54개로 집계된다. 그중 1위에서 10위까지 해당하는 목록들을 보면 ‘-있’(122,945), ‘-하’(81,948), ‘-않’(67,674), ‘-지’(40,177), ‘-주’(30,134), ‘-보’(26,744), ‘-못하’(18,628), ‘-오’(14,535), ‘-싶’(11,463), ‘-가’(11,199) 순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있’(122,945), ‘-하’(81,948) 외에 독립적으로 어휘적인 의미를 가진 용언으로 쓰이지 않거나 전통적으로 보조용언으로만 분류되는 어휘를 제외하고, ‘이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류로 굳이 제한하지 않더라도 ‘가다/오다’, ‘주다’가 현대 한국어에서 다른 동사와 연쇄되어 하나의 구문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동사 부류임을 알 수 있다.²⁾ 그런데 다른 어휘들에 비해 통시적·공시적으로나 문법화 등의 이유로도 원래 의미에서 보다 확장된 의미들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연유에서인지 V2에 ‘가다/오다’, ‘주다’가 오는 동사 구성은 대부분 보조동사 구문으로 다루어져 왔다. 기존에는 [V1+어+V2{가다/오다}] 구문에서 ‘가다/오다’가 ‘이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어휘적인 의미가 아닌 ‘진행’이나 ‘지속’과 같은 상적인 의미와 관련된 보조적인 쓰임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문장의 의미를 사건의 개념으로 보는 사건의 의미론적 관점에서 ‘가다/오다’는 ‘처소 이동’의 사건을 나타내며 그러한 ‘이동’의

-
- 1) ‘주다’가 본동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처소 이동 사건과 소유 이전 또는 수여 사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소유 이전 또는 수여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이 이동한 사건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주다’가 나타내는 사건의 일차적인 의미를 ‘이동’으로 보았다. 또한 ‘주다’는 [NP1-가 + NP3-에게 + NP2-를 + V]의 논항 구조를 갖는데 이때 ‘-에게’가 통시적으로 ‘처소/장소성’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논의에(안병희·이광호 1990, 이기문 1998, 고영근 2010, 정해권 2012 등) 근거하여 ‘주다’가 나타내는 사건의 일차적인 의미를 ‘이동’으로 설정하였다.
 - 2) ‘가다/오다’, ‘주다’와 같이 처소 이동의 의미를 지니며 다른 동사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동사들은 ‘놓다’(8,798:12위), ‘내다’(7,628:14위), ‘나가다’(4,303:15위), ‘두다’(4,231:16위), ‘나다’(3,872:17위), ‘들다’(1,658:21위), ‘나오다’(44:33위) 등이 있다. 이러한 이동 동사들이 다른 동사들과 합성되는 방식도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합성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다’, ‘나다’는 대표적인 다의어 중 하나로 다양한 동사들과 결합이 가능하므로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이러한 이동 동사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 부류의 동사들이 다른 동사들과 합성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별도의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유현경 2010, 이민우 2012, 홍달오 2013, 박용배 2014 등).

의미를 ‘가다/오다’의 어휘적인 의미로 본다. ‘주다’ 역시 기존에는 보조동사 구문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동사 중 하나로, ‘수혜’라는 의미를 중심으로 연구자마다 다양한 보조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는 기존의 논의들에서 제시되었던 ‘주다’의 ‘수혜’라는 보조적인 의미의 쓰임을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의미론적 관점에서 ‘주다’의 기본 의미를 ‘처소 이동’ 사건으로 보되, 맥락이나 상황적 함축에 따라 ‘주다’의 의미가 ‘소유 이전’이나 ‘수혜’ 사건으로 확장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둘째, ‘가다/오다’와 ‘주다’는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어휘들로 다른 동사들과 연쇄되어 나타날 때의 다양한 통사·의미적 결합 유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동사 구성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21세기 세종 계획 최종 성과물(2011 수정판, 국립국어원)」의 용언 상세 검색기와 말뭉치 검색을 통해 [V1+어+V2{가다/오다, 주다}]의 어휘 목록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어휘를 중심으로 V1과 V2{가다/오다, 주다}의 통사·의미적 결합 방식에 따라 유형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통사적 결합 유형은 논항 구조의 합성 유형을 통해 살펴보고, 의미적 결합 유형은 Rappaport Hovav & Levin(1998; 2010)에서 제시된 사건 구조 표상 방식을 활용하여 V1과 V2{가다/오다, 주다}의 사건 구조가 합성되는 방식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두 동사가 통사·의미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합성되어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고 하나의 사건을 나타내게 되는지를 알 수 있으며 동시에 각 동사가 문장을 구성하는 데 통사·의미적으로 어떻게 관여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V1+어+V2{가다/오다, 주다}] 구문의 통사적 구조와 의미적 구조의 결합 양상 간에 일정한 대응 관계가 성립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3. 논의의 구성

본고는 한국어의 [V1+어+V2{가다/오다, 주다}] 구문이 범언어적으로 나타나는 연쇄동사 구문(SVC)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구문임을 밝히고 ‘가다/오다’, ‘주다’가 다른 동사들과 결합할 때의 통사·의미적 결합 양상을 유형화하여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다음 2장에서는 먼저 한 문장 내에 둘 이상의 동사들이 연속해서 나타나는 범언어적인 현상을 연쇄동사 구문으로 정의한 Sebba(1987), Aikenvald(2006)의 논의를 중심으로 연쇄동사 구문의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이러한 일반적인 논의

후에 한국어의 [V1+어+V2] 동사 구성에 대한 국어학에서의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본다. 대개 기존에는 [V1+어+V2] 동사 구성을 접속에 의한 통사적 구성, 보조동사, 합성동사 중의 한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하거나(김창섭 1994; 1996), 그러한 세 부류의 경계 사이에 중첩되는 속성을 지닌 부류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좀 더 세분화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김기혁 1994, 강현화 1998 등). 이어서 부동사 구문에 대한 논의도 함께 살핀다(Haspelmath 1995, 채희락 2015 나). 이러한 논의 후에 한국어의 [V1+어+V2{가다/오다, 주다}] 구문이 유형론적 범주의 연쇄동사 구문과 어떠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그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V1+어+V2{가다/오다, 주다}] 구문이 생성 기제면에서 범언어적으로 나타나는 연쇄동사 구문과 공통된 특성을 지닌 구문임을 명시한다.

3장에서는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가다/오다’, ‘주다’가 논항 구조상에서는 ‘-에’와 ‘-에게’로 실현되는 착점 논항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사건 의미론적 관점에서 ‘처소 이동’의 사건을 나타내는 공통된 의미 성분을 지닌 동사들임을 밝히고 Rappaport Hovav & Levin(1998; 2010)에서 제시된 사건 구조의 표상 방식을 활용하여 ‘가다/오다’, ‘주다’의 사건 구조를 제시한다. 또한 ‘가다/오다’, ‘주다’가 다른 동사들과 연쇄동사 구문을 구성하는 방식과 제약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4장과 5장에서는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V1과 V2{가다/오다, 주다}의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가 합성되는 방식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제시한다. 본고에서는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의 합성 유형을 크게 병렬적 합성 유형(Summation type), 통합적 합성 유형(Unification Type), 혼합적 합성 유형(Mixed Composition Type)으로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앞서 제시된 통사적 구조를 반영하는 논항 구조와 의미 구조로 제시된 사건 구조의 합성 유형 간에 일정한 상관성이 존재함을 보이 고자 한다.

2. 연쇄동사 구문의 유형론과 한국어의 [V1+어+V2] 구문

2.1. 연쇄동사 구문

주로 서아프리카 언어들에 속하는 Yoruba, Ewe, Fon, Ijo(Izon) 등, 카리브 해 지역 크리올어(Caribbean Creoles)에 속하는 Sranan 등, 동남아 언어들 중에는 베트남어, 타이어 등과 만다린 중국어(Mandarin Chinese) 등이 연쇄동사 구문이 존재하는 대표적인 언어들(serializing language)로 거론된다.

Aikenvald(2006)에 따르면, 한 문장 내에서 동사들이 연쇄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Akan을 다룬 Christaller(1875:144)에 의해 처음 거론되었다. 그 이후 Balmer & Grant(1929)에 의해 연쇄동사 구문(Serial Verb Construction)이라는 용어가 도입되었고 이 외에 동사 연속체(verb concatenations: Matisoff 1969, 1973) 또는 다중 동사 구문(multi-verb construction)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기존에 연쇄동사 구문이 다른 복합 술어에 적용되는 복잡한 규칙을 지닌 기저의 복합문에서 도출된 것으로 분석되었던 것과 달리 Foley & Olson(1985)에 의해 처음으로 단일절 문장(monoclausal sentence)으로 분석되었다. 그 밖에 연쇄동사 구문에 대한 논의로는 Sebba(1987), Awoyale(1987), Barker(1989), Lefebvre(1991), Collins(1997), Stewart(2001), Aikenvald(2006) 등 다수가 있다. 그중 여기서는 연쇄동사 구문에 관한 논의들에서 널리 인용되고 있는 Sebba(1987)와 Aikenvald(2006)을 중심으로 연쇄동사 구문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Sebba(1987)에서는 전형적인 연쇄동사 구문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Sebba(1987:39)

- ① 두 동사가 모두 반드시 어휘적(lexical) 동사여야 한다.
즉, 각각의 동사만으로 단일문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V1과 V2가 별개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된다면,
그때 그 두 동사는 동일한 시제와 상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V2가 '미래'로 해석된다면 V1이 과거로 해석될 수 없다.

- ③ V1과 V2 사이에 분명한 절 경계가 없어야 하며 두 동사가 동일절 내에 나타나야만 한다.
- ④ 연쇄되어 나타나는 일련의 동사들은 어떠한 접속사에 의해서도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Sebba(1987)에서는 다음과 같은 Sranan의 예를 제시하면서 전형적인 연쇄동사 구문과 동사가 연쇄되어 나타나지만 접속 구문으로 해석되는 문장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2) Sranan(Sebba 1987)

- a. Kofi naki Amba (*,) kiri
 Kofi hit Amba kill
 ‘Kofi struck Amba dead.’
- b. Kofi naki Amba (,) kiri en³⁾
 Kofi hit Amba kill him/her
 ‘Kofi struck Amba and killed her.’

(2a)는 ‘naki(hit)’와 ‘kiri(kill)’ 두 동사가 목적어 ‘Amba’를 공유하며 동일절 내에 나타나는 연쇄동사 구문이다.⁴⁾ 이와 달리 (2b)는 두 번째 동사가 별도의 목

3) ‘en’은 ‘Amba’의 대용어이다. Sebba(1987)에서는 Sranan의 일반적인 대용어(anaphora) 조건에 따르면 접속사(coordination)가 포함되어 있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재귀대명사(non-reflexive pronoun)는 동일절 내에 있는 선행하는 명사구(NP)의 대용어가 될 수 없다고 한다.

- (i) a. Mi ben taki nanga Rudy abra en
 I T/A talk with Rudy about him
 ‘I talked to Rudy about him (*him=Rudy).’
- b. Mi ben taki nanga Rudy en abra en
 I T/A talk with Rudy and about him
 ‘I talked with Rudy and about him (him=Rudy or a third person).’

Sebba(1987:109~110)의 설명에 따르면 Sranan의 (ia)와 같은 문장에서 ‘en’은 동일절 내에 있는 ‘Rudy’를 대용할 수 없다. 그러나 (ib)와 같은 접속문에서는 ‘en’이 ‘Rudy’를 지칭할 수도 있고, 제3자를 지칭할 수도 있다. 즉 본문의 (2b)와 같은 문장에는 접속 표지가 없지만 접속 구문의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적어 ‘en’을 취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각각의 동사가 별개의 논항을 취하는 접속 구문이다. Sebba(1987:62)에서는 쉼표 억양(comma intonation)에서도 두 구문이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였다. (2a)와 같이 V1 뒤에 나타나는 V1의 목적어를 V2가 공유하고 있는 연쇄동사 구문에서는 쉼표와 같은 휴지 억양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2b)와 같이 한 문장에 두 동사가 나타났을 때, 그 동사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보어를 가지고 있다면 쉼표와 같은 휴지 억양이 V2 앞에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Sebba(1987)에서는 (2)의 두 구문이 나타내는 의미가 분명히 다르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의미 차이는 연쇄동사 구문의 의미적 특성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Aikenvald(2006)에서는 다음과 같이 범언어적으로 나타나는 연쇄동사 구문의 일반적인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3) Aikenvald(2006)

- ① 단일 서술어(simple predicate)이다.
- ② 단일절 속성(monoclausality)을 지닌다.
- ③ 단일 동사의 운율적 특성을 지닌다.
- ④ 시제/상, 서법, 양태, 극성(polarity)을 공유한다.
- ⑤ 하나의 사건을 나타낸다.⁵⁾

4) Barker(1989)에서는 (2a)와 같은 예를 들어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성분 동사들은 하나의 공통된 목적어를 공유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Durie(1997), Aikenvald(2006) 등에서 언어 유형론적으로 개별적인 언어들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은 데서 나온 결과라는 비판을 받았다. Stahlke(1970), Bamgbose(1974), Sebba(1987) 등에서도 이미 여러 다른 언어들에서 동사들이 연쇄동사 구문을 이룰 때 목적어보다는 주어를 반드시 공유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Barker(1989)에서는 이러한 연쇄동사 구문을 이중 핵(double-headness)을 지닌 VP 구조로 분석하였는데 Aikenvald(2006)에서는 연쇄동사 구문에서 두 동사 중 어느 것이 핵성(headness)을 가지고 있는가는 연쇄동사 구문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전형적인 연쇄동사 구문의 구조로 일반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5) Aikenvald(2006)에서는 문화적이나 화용론적 제약에 의해 두 동사가 결합되고 관습화된 하위 사건들의 연속이 하나의 사건을 나타내게 되는 범위까지 포함한다.

(i) Alambhak(Bruce 1988:29)

- a. miyt ritm muh-hambray-an-m
- tree insects climb-search:for-1sg-3pl
- ‘I climbed the tree searching for insects’

⑥ 적어도 하나 이상의 논항을 공유한다.

Aikenvald(2006)에서는 범언어적으로 나타나는 연쇄동사 구문의 공통된 특성 외에도 언어마다 존재하는 매개변인(parameter)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4) 연쇄동사 구문(SVC)의 매개변인(parameter)

a. 결합(Composition)

(i) 비대칭적 연쇄동사 구문(Asymmetrical SVC)

(ii) 대칭적 연쇄동사 구문(Symmetrical SVC)

b. 연속성 vs. 비연속성(Contiguity vs. Non-contiguity)

c. 구성 성분들의 단어성(Wordhood of components)

d. 표시(Marking): 연쇄동사의 문법 범주 표시

먼저 Aikenvald(2006)는 연쇄동사 구문을 의미적 또는 문법적으로 제한되는 부류와의 결합 여부에 따라 비대칭적 연쇄동사 구문과 대칭적 연쇄동사 구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언어에 따라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동사들이 서로 붙어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 사이에 다른 구성 성분이 개입되어 나타날 수도 있으며,⁶⁾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성분들이 문법적 또는 음운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단어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인지도 언어마다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어와 목적어의 인칭, 시제, 상, 양태, 부정소, 또는 자릿수 변화(valency change) 등 동사 범주와 관련된 문법 표시들이 한 번씩만 표시되는지 아니면 각각의 성분에 모두 일치되어 표시되어야 하는지도 언어마다 다르게

-
- b. *miyt guñm muh-hëti-an-m
tree stars climb-see-1sg-3pl
?'I climbed the tree seeing the stars'

Alamblak에서는 (ia)에서와 같이 '곤충을 잡으러 나무에 올라가는(climb the tree searching for insects)' 행위는 그 문화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인식되어 연쇄동사 구문으로 나타낼 수 있으나 (ib)와 같이 '별을 보러 나무에 올라가는(climb the tree seeing the stars)' 행위는 하나의 사건으로 인식될 수 없기 때문에 연쇄동사 구문으로 나타낼 수 없다고 설명한다.

6) Aikenvald(2006)에서는 연쇄동사를 이루는 두 동사가 서로 붙어서 나타나는 언어 들로는 Khwe, Tariana 등이 있고, 두 동사 사이에 다른 성분이 개입되어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언어들은 Cantonese, Goemai, Ewe 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Aikenvald(2006)가 제시한 매개변인(parameter) 중에 (4a)는 의미적 특성과 관련된 구분이고 (4b)~(4d)는 형태·통사적 속성에 따른 구분이라 할 수 있다. Aikenvald(2006)에서는 의미적 핵성(headness)에 따라 비대칭적 연쇄동사 구문과 대칭적 연쇄동사 구문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5) 비대칭적 연쇄동사 구문(Asymmetrical SVC)

- a. 방향, 지향(direction and orientation)
- b. 상, 정도, 상태 변화(aspect, extent, and change of state)
- c. 2차 개념 연쇄화(secondary concept serialization)
- d. 보어절을 취하는 동사의 연쇄화
(serialization of complement-clause-taking verbs)
- e. 논항의 자릿수 증가와 명세(increasing valency and specifying arguments)
- f. 논항의 자릿수 감소(reducing valency)
- g. 비교급과 최상급(comparatives and superlatives)
- h. 사건 논항 연쇄동사 구문(event-argument SVC)

(6) 대칭적 연쇄동사 구문(Symmetrical SVC)

- a. 계기적 행위 또는 서로 연관되어 동시에 일어나는 행위의 연속
(sequence of actions or concomitant actions related together)
- b. 원인-결과를 나타내는 연쇄동사 구문
(cause-effect serial verb constructions)
- c. 양태를 나타내는 연쇄동사 구문(manner serial verb constructions)
- d. 동의적 연쇄동사(synonymous verb serialization)

Aikenvald(2006)에 따르면, 비대칭적 연쇄동사 구문은 어휘적 의미를 갖는 동사와 문법적 의미를 갖는 폐쇄 부류에 속하는 비주류의 동사가 결합된 것이고, 대칭적 연쇄동사 구문은 두 동사가 모두 어휘적인 의미를 갖는 즉 개방 부류에 속하는 동사들이 결합된 것이다. Aikenvald(2006)는 위 두 부류가 의미적 핵성에 따른 구분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동사의 의미 부류와 같은 동사가 갖고 있는 의미적 특성에 근거한 구분이 아니라 동사(어휘)의 의미를 어휘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로 구분하여 V1과 V2에 어떤 형태 또는 문법론적 단어 범주에 속

하는 동사들이 오는가에 따라 연쇄동사 구문을 두 유형으로 분류하였다는 데 문제가 있다. Aikenvald(2006)에 따르면, 개방 부류에 속하는 동사들만이 의미적 핵성을 가질 수 있다. 비대칭적 연쇄동사 구문에서는 개방 부류에 속하는 동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동사만이 핵(head)을 가질 수 있으므로 분명한 핵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연쇄동사 구문 전체의 타동성(transitivity)이 대개 개방 부류에 속하는 동사의 타동성에 따라 결정되며 개방 부류에 속하는 동사에 의해 표현되는 하나의 단일 사건을 나타내게 되고 폐쇄 부류에 속하는 동사는 문법적 기능과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⁷⁾ 이와 달리 대칭적 연쇄동사 구문과 같이 개방 부류에 속하는 동사들로만 이루어진 연쇄동사 구문에서는 핵(head)이 정해져 있지 않고 모든 성분 동사가 의미·통사적으로 동일한 위상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Aikenvald(2006)는 이러한 대칭적 연쇄동사 구문이 비대칭적 연쇄동사 구문과 달리 성분 동사들의 실현 순서가 하위 사건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도상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⁸⁾ 또한 비대칭적

7) 여기에는 V2가 상(aspect)과 같은 보조적 의미로 쓰이는 구문도 포함된다. 이선웅(2011)에서는 비대칭적 연쇄동사 구문(Asymmetric SVC)이 보조동사 구문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그는 복합 술어(complex predicate) 내에 보조동사 구문과 연쇄동사 구문이 각각의 하위 부류로 포함되는 것이지 연쇄동사 구문에 보조동사 구문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한국어의 ‘주다’가 구성하는 구문을 보조동사 구문(Auxiliary Verb Construction)으로 분류하면서 그것을 연쇄동사 구문의 하위 부류로 포함시킨 S. Lee(1992)의 논의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선웅(2011)에 따르면, 보조동사 구문을 이루는 V2는 상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독립적으로 쓰일 때와는 의미가 달라지며 V2가 V1을 보절(complement clause)로 취하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Aikenvald(2006)가 제시한 비대칭적 연쇄동사 구문과는 다른 구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Aikenvald(2006)가 제시하고 있는 예들을 보면 보조동사 구문과 분명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i) Kristang(Baxter 1988:213) (Aikenvald 2006:23)

a. kora yo ja chegá naí sli ja kaba bai
 when 1sg PER arrive there 3sg PER finish go
 ‘When I arrived there he had gone’

위의 예에서 동사 ‘*kaba(finish)*’가 ‘*bai(go)*’를 보절로 취하는 구조를 갖진 않지만 ‘*kaba(finish)*’는 문법화되어 완료상(completive aspect)을 나타내는 표지로 쓰인 경우이다. 그렇다면 ‘*finish*’의 의미를 가지고 있던 ‘*kaba*’의 어휘적 의미와는 다른 문법적 의미를 갖게 된 것으로 분명히 독립적으로 쓰일 때와는 의미가 달라진 것이기 때문이다.

8) Aikenvald(2006)에서는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동사들의 실현 순서는 사건의 시간적, 논리적 순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마다 달리 상세화된 문법

연쇄동사 구문이 폐쇄 부류에 속하는 비주류의 동사가 동사로서의 지위를 잃고 문법 표지가 되는 문법화를 겪게 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달리 대칭적 연쇄동사 구문은 어휘화되고 관용화된 의미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다른 속성을 지닌 것으로 구분된다.

위와 같은 Aikenvald(2006)의 구분에 따르면, 앞서 Sebba(1987)가 제시한 (2a)는 행동주가 대상을 때리는 행위(V1)로 인해 대상이 죽게 되는(V2) ‘원인-결과’를 나타내는 대칭적 연쇄동사 구문에 해당된다. 또한 아래 (7)과 같은 예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연속되어 일어나는 계기적 행위를 나타내는 대칭적 연쇄동사 구문이다.

(2) Sranan(Sebba 1987)

- a. Kofi naki Amba kiri
 Kofi hit Amba kill
 ‘Kofi struck Amba dead.’

(7) Ewe(Aikenvald 2006)

- a. Áma â-da nú du
 Ama POT-cook thing eat
 ‘Ama will cook and eat’

이와 달리 다음과 같은 예들은 비대칭적 연쇄동사 구문으로 분류된다. 여기서는 본고의 논의 대상과 관련된 구문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한다.

(8) Cantonese(Aikenvald 2006)

- a. lei⁵ lo² di¹ saam¹ lai⁴
 you take PL clothing come
 ‘Bring some clothes’

Aikenvald(2006)에서는 범언어적으로 ‘go/come’과 같은 이동 동사(motion verb)가 가장 빈번하게 연쇄동사 구문을 형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8)과 같은

규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칭적 연쇄동사 구문이라고 해서 반드시 도상성(iconicity)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Cantonese의 예를 들면서, V2에 오는 동사 *'lai⁴(come)'*는 문법화된 비주류 동사로 직시적(deictic) 의미와 기능만을 갖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V2 *'lai⁴(come)'*가 V1 *'lo²(take)'*와 결합하더라도 V2에 의해 문장 내의 논항 구조에도 변화가 없고 문장 전체의 타동성이 V1의 타동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V2는 단지 V1의 방향(direction/orientation)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⁹⁾ 그런데 (8)의 예문은 명령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이미 이동의 방향이나 착점이 화자

9) Sebba(1987)와 Barker(1989) 등에서도 Sranan의 *'waka(walk)'*, *'kon(come)'*나 Yoruba의 *'lo(go)'*와 같은 동사들을 모두 단순히 방향만을 나타내는 동사(directional verb)로 보았다.

(i) Sranan(Sebba 1987:116~117)

- a. Kofi waka kon.
Kofi walk come
'Kofi walks hither(in this direction).'
- b. Kofi waka kon na ini a oso.
Kofi walk come LOC in the house
'Kofi walked into the house.'

(ii) Yoruba(Barker 1989:533)

- a. Èyẹ̀ fò lọ́ s'órí igi.
bird fly go to-top tree
'The bird flew to the top of the tree.'

한국어에서 '가다/오다'가 다른 동사와 결합하는 [V1+어+V2] 구문을 기준에 국어학의 다른 연구들에서와 달리 보조동사 구문이 아닌 연쇄동사 구문으로 본 I. Jo(1990), J. Kim(1993) 등에서도 V2 '가다/오다'가 방향(direction)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J. Kim(1993)에서는 '가다'가 구성하는 연쇄동사 구문을 (i) '이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본동사로 쓰인 경우, (ii) 화자의 관점에서 목적어의 방향에 관한 정보만을 나타내는 경우, (iii) '지속(duration)'과 같은 상적(aspectual)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그는 '기어 가다', '걸어 가다'와 같이 V1이 양태 부사로 기능하는 경우에만 (i)와 같이 V2 '가다'가 이동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제시하였다. (ii)의 경우에는 '존이 그 카드를 자기 쪽으로 끌어갔다'와 같은 예문을 들어 이러한 구문에서는 '가다/오다'에 의해 주어 명사구(NP)의 이동을 나타내지 않고 화용적인 직시적(deictic) 의미만을 갖는다고 설명한 I. Jo(1990)의 주장을 덧붙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예문에서는 이동의 방향이 주어 명사구로 실현된 '존' 자신 쪽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주어 명사구는 이동하지 않고 목적어만 이동한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착점이나 방향의 처소 표현이 실현된 문장이라면 주어와 목적어 명사구가 함께 이동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주어로 실현된 행동주와 목적어로 실현된 대상 논항이 함께 이동하는 사건을 나타내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V2 *'lai'*(*come*)가 명시적으로 논향을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한국어에서도 다음과 같은 문장이 가능하다.

(9) a. (네가) 옷을 가져와.

b. (네가) 나에게/이리로 옷을 가져와.

(9a)는 명령문으로 명시적으로 착점이나 방향이 실현되지 않았을 뿐, (9b)와 같이 V2 ‘오다’에 의해 ‘나에게’ 또는 ‘이리로’와 같은 착점이나 방향을 나타내는 성분(논향)을 문장 내에 도입할 수 있다. 즉 V2 ‘오다’ 자체가 홀로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도입되는 성분(논향)들과 공동 합성되어 방향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를 단순히 직시적 의미만을 갖거나 문법화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상적인 의미만을 더하는 동사와 동일한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Aikenvald(2006)에서는 *'give'*나 *'take'*와 같이 명시적으로 문장 내에 논향을 새로이 도입시키는 동사가 결합된 연쇄동사 구문도 *'go/come'*과 마찬가지로 비대칭적 연쇄동사 구문으로 분류하고 있다.¹⁰⁾

(10) Saramaccan(Byrne 1990)

a. Kófi bi báí dí búku dá dí muyé

Kofi TENSE buy the book give the woman

‘Kofi had bought the woman the book.’

10) Haspelmath(1995:44~45)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give'*는 그 절 내에 새로운 수혜 논향을 도입하면서 추가격(applicative) 표지의 종류로 기능하는 것으로, 추가격 표지로 문법화된 부동사 형태가 아니라 추가격 조동사로서 부동사형 기능이 결합된 상위 동사로 분석하였다.

(1) Tamil (Bisang 1995)

Raajaa Kumaar-ukku.k katav-ai.t tira-ntu kotu-tt-aan.

Raja Kumar-DAT door-ACC open-CONV give-PAST-3SG.M

‘Raja opened the door for Kumar.’

(2) Japanese (Bisang 1995)

Mary ga ootoo ni hon o yon-de kure-ta.

Mary NOM brother DAT book ACC read-CONV give-PAST.

‘Mary read the book to my brother (for me).’

(11) Tetun Dili(Aikenvald 2006)

a. abó lori tudik ko'a paun
 'grandparent take knife cut bread.'

Aikenvald(2006)에 따르면, (10)의 '*dá(give)*'는 수혜를 나타내는 연쇄동사 구문으로 논항의 자릿수(valency) 증가에 관여하며 수용자(recipient)나 수혜자(beneficiary)의 의미역을 추가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11)의 '*lori(take)*'도 문장 내에 '*tudik(knife)*'라는 논항을 새로이 도입하며 도구격(instrumentals)이 포함된 연쇄동사 구문을 이룬다. 물론 Aikenvald(2006)가 언급한 대로 '*go/come*', '*give*', '*take*' 등이 여러 언어에서 문법화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 동사들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위의 예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명시적으로 전체 문장의 논항 구조의 구성에 관여하는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형태 또는 문법론적 단어 범주상 폐쇄 부류에 속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핵성을 지니지 못하고 비대칭적 연쇄동사 구문으로 분류하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¹¹⁾

Aikenvald(2006)의 이러한 비대칭적 연쇄동사 구문과 대칭적 연쇄동사 구문의 구분은 언어마다 다른 매개변인(parameter)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실현 양상을 보이는 연쇄동사 구문을 포괄적으로 아울러 설명하려는 데 주력하고자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Aikenvald(2006)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비대칭' 또는 '대칭'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도 아니며, 언어마다 개방 부류 또는 폐쇄 부류에 속하는 어휘수가 다르기 때문에 폐쇄 부류에 속하는 동사가 극히 적은 언어의 경우에는 대칭적 연쇄동사 구문만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또 다른 언어에서는 반대의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Aikenvald(2006)가 연쇄동사 구문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논항을 공유한다'고 제시한 것은 분명히 두 동사가 연쇄동사 구문을 이룰 때, 비대칭적 또는 대칭적 두 구문 유형에 상관없이 동사들이 각기 가지고 있던 논항들이 결합되는 생성 기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

11)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만들어 주다', '사 주다' 등에서 '주다'가 전체 문장의 논항 구조를 구성하는 데 관여하며 어휘적인 의미(처소 이동)를 가진 채 결합된 구문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Aikenvald(2006)가 제시한 연쇄동사 구문의 유형 중에 V2 '주다'가 V1과 통사적·의미적으로 대등하게 결합되는 대칭적 연쇄동사 구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어를 공유하되 V2에 의해 또 다른 논항을 문장 내에 새로이 도입하게 되는 연쇄동사 구문으로, 논항의 합성 방식에 있어 차이를 보일 뿐이다. 비대칭적 연쇄동사 구문으로 분류되는 (8)~(11)의 예들도 대칭적 연쇄동사 구문과 같이 V1의 행위와 V2의 행위가 계기적 또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의미 해석이 가능한 연쇄동사 구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단지 폐쇄 부류에 속하는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연쇄동사 구문이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 유형을 나타내는 구문인데도 서로 다른 부류로 구분된다. 이러한 비대칭적 또는 대칭적 두 유형의 구분은 언어마다 존재하는 매개변인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연쇄동사 구문의 생성 원리나 기제를 일관된 기준에 의해 통합적으로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그러므로 V1과 V2에 오는 동사의 형태 또는 문법론적 단어 범주에 따른 구분이 아닌 V1과 V2의 논항(구조)들이 합성되는 방식과 또 두 동사가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에 어떻게 관여하는지와 그 관여도에 따라 그 핵성(headness)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또한 언어마다 매개변인의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동사의 부류가 달라 다른 구문으로 구분된다면 즉 다른 형태·통사적 결합 방식에 의해 구성된 구문이라면 동사가 갖는 의미 구조가 결합되는 방식도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의미 구조와 형태·통사적 구조가 항상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동사들의 논항의 합성 방식과 함께 각각의 동사가 지닌 의미 구조의 결합 유형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2.2. 한국어 [V1+어+V2] 구문의 형성

한국어에서 한 문장 내에 두 동사들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형태는 [V1+어+V2], [V1+고+V2], [V1+(어)다+V2], [V+V] 등이 있다.¹³⁾¹⁴⁾ 그중에서 [V1+어

13) 「21세기 세종 계획 최종 성과물(2011 수정판, 국립국어원)」의 형태 분석 말뭉치(15,293,877어절) 통계에 따르면, 연결 어미로 ‘-아/어’(406,479)와 ‘-고’(316,698)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어)다’(30,160)는 제한적으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구(1993:58)에서는 두 동사 사이에 연결 어미로 나타나는 ‘-어’는 두 개의 하위 사건이 하나로 융합된 하나의 단일 사건을 나타내는데 반해, ‘-고’는 전형적인 접속 구문으로 계기적으로 일어난 별개의 두 사건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메리가 아기를 안아 갔다’와 ‘메리가 아기를 안고 갔다’와 같은 예문을 들어, 두 구문이 ‘메리가 아기를 안은 채로 또는 안은 상태로 이동한 사건’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어’와 ‘-고’가 의미상 공통된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

+V2]의 구성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 할 수 있으며, 합성동사, 복합동사, 연쇄동사 또는 연속동사, 부동사 구문 등 연구자 간에 그 관점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논의의 대상으로 활발하게 다루어져 왔다.

2.2.1. 접속에 의한 통사적 구성 또는 합성동사

한국어에서 [V1+어+V2]의 동사 구성을 범언어적으로 나타나는 연쇄동사 구문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는 대개 접속에 의한 통사적 구성이나 합성동사로 설명될 수 있는 부류로 별도의 범주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김기혁 1994, 강현화 1998, 이호승 2007 등).

문장의 접속에 의한 통사적 구성에서 합성동사가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한 대표적인 논의로는 남기심(1970)이 있다(김창섭 1994, 주지연 2008).

(12) ‘잡아먹다’(남기심 1970)

- a. [나는 고기를 잡았다] + [나는 고기를 먹었다] → 문장의 접속
- b. 나는 [[고기를 잡았다] [고기를 먹었다]] → 임자말(주어) 합일
- c. 나는 고기를 [[잡아] [먹었다]] → 부림말(목적어) 합일
- d. 나는 고기를 잡아먹었다. → 합성동사 형성

남기심(1970)에서는 ‘잡아먹다’를 합성동사로 분류하였으나 위와 같이 ‘논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 공통된 논항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기제가 작용하여 도출된 동사 구성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잡아먹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합성어로 처리되어 ‘동물을 죽여 그 고기를 먹다’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합성동사라고 하면 두 동사 사이에 다른 요소가 개입되어 분리될 수 없

아니라 그 어미들과 결합된 동사의 어휘적 속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끌어 가다’, ‘몰아 가다’도 ‘-어’와 ‘-고’가 서로 교체가 가능하여 ‘끌고 가다’, ‘몰고 가다’가 가능하다. 그러나 어떠한 의미 차이에서인지 ‘끌어 가다’의 경우에는 ‘끌고 가다’로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여기는 화자들도 있다. 그러나 [V1+어+V2]와 [V1+고+가다]의 차이는 본고의 논의 대상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14) [V1+고+V2]형은 ‘놀고먹다’, ‘먹고살다’, ‘사고팔다’, ‘주고받다’ 등, [V1+(어)다+V2]형은 ‘가져다주다’, ‘올려다보다’, ‘들여다보다’ 등, [V+V]형은 ‘오가다’, ‘뛰놀다’, ‘기대서다’ 등이 있다.

어야 하는데 ‘잡아먹다’는 ‘잡아서 먹다’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13)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었다. ↔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서 먹었다.

(i) ‘잡아먹다’ ≠ ‘잡는’ 사건 + ‘먹는’ 사건

‘잡아먹다’: 동물을 죽여 그 고기를 먹다 → 총칭문(generic sentence)

(ii) ‘잡아서 먹다’ = ‘잡는’ 사건 + ‘먹는’ 사건 → 계기적 사건

합성동사로서의 의미는 ‘잡아먹다’에서 ‘먹는’ 사건에 중점을 두며 좀 더 총칭적인(generic) 습성을 나타낼 때 쓰이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잡아서 먹다’로 해석되는 경우는 현재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사태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일련화된 사건으로 기술하는 경우로 ‘-(어)서’가 생략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완전한 통사적 구성으로도 그렇다고 합성동사로도 볼 수 없는 부류라 할 수 있다.

김창섭(1994; 1996)에서는 [V1+어+V2]형의 동사를 ‘-(어)서’ 개입 여부, 접미사 등에 의한 어근 분리 가능 여부, V1의 대동사화와 대등 접속 가능 여부에 따라 접속에 의한 통사적 구성, 보조동사 구문, 그리고 합성동사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그는 각각의 구성을 분류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이전의 논의들과 달리 접속과 같은 통사적 기제에 의한 것으로 한정짓기에는 그 형성 규칙을 설명할 수 없는 [V1+어+V2]형의 동사 부류가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러한 부류들을 설명하기 위해 ‘-어’형 합성동사의 형성 규칙¹⁵⁾을 제안하였다. 별도의 형성 규칙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예들로는 두 동사의 결합 순서가 실제 동작이 일어난 순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예: ‘깨물다’), 구조적으로는 통사적으로 투명한 구성으로 보이나 의미적으로는 단순한 접속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신어나 임시어의 경우(예: ‘쳐넣다(컴퓨터에 원고를)’, 두 동사가 결합하여 [V1+어+V2]형의 동사를 이룰 때, 결합하기 이전에 각각의 동사가 가지고 있던 격자질이 결

15) 김창섭(1994:70)에서는 다음과 같은 ‘-어’형 합성동사의 형성 규칙을 제시하였다.

(i) [X]_v, [Y]_v → [[[X]_v-어]_{ADV?}+ [Y]_v]_v에서

X와 Y의 격자질은 ‘X-어+V’에 계승된다.

단, X와 Y의 격자질이 동일할 때는 그 중 하나만이 계승된다.

X와 Y의 격자질들은 계승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어’가 V1이 V2를 수식하는 방식 부사가 되도록 굴절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으나 그에 대한 범주 설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며 [[[X]_v-어]의 범주를 _{ADV?}와 같이 표기하여 제시하고 있다.

합한 이후에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예: ‘달려가다’, ‘파묻다’, ‘잡아가다’, ‘넘어오다’, ‘꿨어났다’)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창섭(1994)에서는 통사적 구성, 보조동사 구문, 합성동사가 통사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이유가 V1과 V2의 의미론적 결합 방식이 다른 데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도 “통사론적 기준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합성동사는 두 동사의 의미가 단일화되어 한 동작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진다는 의미론적 기준을 보조적으로 사용하여 통사적 구성과 합성동사를 구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김창섭1994:60~61). 김창섭(1994; 1996)에서는 그 이전에 두 동사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구성을 다루는 논의들에서 간과했던 부분들을 지적하고 새로운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두 동사가 결합하여 [V1+어+V2]형의 동사를 이룰 때 의미론적 기준 또한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합성동사’¹⁶⁾라는 범주 안에서 혼재되어 다루어진 동사들이 통사적으로 분리 가능한 다시 말해 투명한 구조를 보이는 [V1+어+V2]형의 동사 구성과 그렇지 않은 어휘적 합성동사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김기혁(1994)와 강현화(1998)에서는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에서 [V1+어+V2]형의 동사 구성을 통사적 구성, 보조동사 구문 또는 합성동사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 그 경계를 엄밀히 구분하려고 했던 것과 달리 각각의 동사 구성 사이에 존재하는 부류들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김기혁(1994:420)에서는 [V1+어+V2]형의 동사 구성 중에 ‘통사적인 절차에 의해 구성되지만 합성동사와 같은 형태적 구성으로 기능하는 형태·통어적(통사적) 구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강현화(1998)에서는 ‘논항’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 [V1+어+V2]형의 동사가 구성하는 문장 내에 실현된 성분에 V1과 V2가 의미역을 할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V2가 의존적인 구성’, ‘V1이 의존적인 구성’, ‘복합적인 구성’, ‘접속 구성’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¹⁷⁾ 여기서 주목할 것은 V1과 V2가

16) 기존에 ‘합성’이라는 용어는 형태론적인 ‘합성’과 의미론적인 ‘합성’이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다. 의미론적 합성성 원리를 준수하는 의미라면 ‘A+B=AB’가 될 것이고 형태론적 측면에서 말하는 합성은 ‘A+B=C’가 되는 경우이다. 본고에서는 두 동사가 결합하여 연쇄동사 구문을 이룰 때 더 다양한 합성 유형이 존재하며,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가 합성되는 방식에 따라 연쇄동사 구문을 분류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7) 강현화(1998:204)에서는 ‘접속 구성’을 주어와 목적어를 공유하는 부류, 주어만을 공유하는 부류, 서로 주어를 공유하지 않고 두 접속문의 동사가 우연히 연결되어 나타나는 부류로 구분하였다. 그중 ‘잡아 먹다’류와 같이 V1과 V2가 주어와 목적어를 공유하며 하나의 동사 구성을 이루는 경우는 일반적인 통어적(통사적) 구성과 구분되는 형태적 구성과 통어적(통사적) 구성의 경계에 있는 동사 연결로 ‘일

반드시 하나로 합쳐져서 문장 내의 성분들에 의미역을 할당하는 부류들을 ‘복합적인 구성’으로 분류하였다는 것이다. ‘복합적인 구성’은 ‘통사적으로는 별개의 두 문법 요소가 논리 해석(LF)상에서 한 단위를 이루어 하나의 동사로 기능하는 재구조화(restructuring)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강현화 1998:269). 이러한 ‘복합적인 구성’은 V2의 동사에 따라 더 세분화된다. 본고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가다/오다’와 ‘주다’의 경우만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V2의 동사가 ‘가다/오다’인 복합적인 구성은 ‘동사 복합 구성’과 ‘동사 결합 구성’으로, V2의 동사가 ‘주다’인 복합적인 구성은 ‘연결 제약 동사 구성’과 ‘동사 결합 구성’으로 나뉜다. 여기서 공통되는 ‘동사 결합 구성’은 V2가 본동사로서의 의미와 보조동사로서의 의미를 동시에 지닌, ‘준보조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구성으로 이러한 V2가 생산적으로 V1과 결합할 수 있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다.

강현화(1998)에 따르면, V2에 ‘가다/오다’가 오는 ‘동사 복합 구성’은 ‘자동사+자동사’가 연결된 부류인 ‘뛰어가다’류, ‘-를’을 취하는 V1과 자동사가 연결된 부류인 ‘건너가다’류¹⁸⁾, ‘타동사+타동사’가 연결된 부류인 ‘잡아끌다’류로 나뉜다. 강현화(1998)에서는 ‘뛰어가다’류의 V2 ‘가다’는 ‘경로’를 통해 이동함을 나타내고 ‘건너가다’류의 V2 ‘가다’는 ‘이동’과 동시에 ‘이동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두 동사 구성의 ‘가다’를 다른 속성을 지닌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동사 결합 구성’으로 분류된 ‘끌어가다’¹⁹⁾류의 V2 ‘가다’는 본동사로서의 ‘이동’의 의

렬동사 구성’으로 칭하였다. V1과 V2가 나타내는 동작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부사가 [V1+어+V2] 전체를 수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통어적(통사적) 구성과 구분되나 두 동사 사이에 ‘-서’가 개입될 수 있으며 연속적이지만 두 동작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통어적인(통사적인) 구성에 속한다고 보았다. 강현화(1998)에서는 한국어에서 별도의 ‘연쇄동사 구문’ 범주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접속에 의한 통사적 구문과 구분되는 부류를 구분하여 별도의 ‘일렬동사 구성’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어만의 별도의 범주를 설정하는 것과 언어 유형론적 관점에서 연쇄동사 구문을 인정하는 것이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오히려 후자의 관점에서 한국어의 [V1+어+V2]형의 동사 구성이 다른 언어와 공유하고 있는 속성을 밝힘으로써 언어 현상을 기술하는 데 범언어적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 18) 강현화(1998:195)에서는 ‘건너가다’류를 본래는 ‘자동사+자동사’ 구성에 속하는 것들인데 ‘-를’을 취하는 경우라고 설명하며 따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건너가다’의 ‘건너다’가 ‘철수가 *(다리를) 건넜다’와 같이 ‘다리를’이 없으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는 점에서 ‘건너다’를 ‘-를’을 필수 논항으로 취하는 타동사로 본다. 이에 대해서는 논항 구조를 다루면서 더 자세히 밝힐 것이다.
- 19) 강현화(1998:48)에서는 (ia)의 ‘끌어가다’가 (ib)와 같이 두 문장으로 분리될 수 없으며, 두 동사가 각각 구성하던 문장의 의미의 합만으로는 [V1+어+V2]형의 동사가 구성하는 문장의 전체 의미를 산출할 수 없는 부류라고 설명하고 있다.

설명대로라면 두 부류 모두 연결된 두 동사가 하나의 단위로 기능하여 문장 내에 실현될 선행 성분을 결정한다. 그러나 강현화(1998)의 주장대로 ‘풀다’가 ‘주다’와 결합하여 의미가 달라진다고 해도 V1 ‘풀다’의 논항 구조는 V2 ‘주다’와 결합하여도 변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읽어주다’의 V1 ‘읽다’는 V2 ‘주다’와 결합하여 ‘-에게’를 전체 문장 내에 새로이 도입하게 되어 논항 구조가 달라진다. 다시 말해 ‘풀어주다’의 V2 ‘주다’는 그 전체 문장의 구조를 결정하는 데 관여하지 못하지만 ‘읽어주다’의 V2 ‘주다’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동일한 V2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다른 동사들과 결합할 때 그것들의 논항들이 어떻게 합성되어 [V1+어+V2]형의 동사 구성을 이루는지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V2에 의해 전체 문장의 논항 구조의 변화 여부가 달라지는 데에는 V2와 결합하는 V1의 의미 부류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김창섭(1994; 1996), 강현화(1998) 등에서도 그 범주의 명칭을 달리했을 뿐이지 [V1+어+V2]형의 동사들 중 통사적 구성과 합성동사의 속성이 혼재되어 있는 부류가 있음을 간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홍식(2000)에서는 [V1+어+V2]형의 동사를 복합 서술어의 범주 안에 속하는 연쇄동사(그에 따르면 연속동사) 구성으로 보았다. 그는 연쇄동사를 통사적 구조에서는 접속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보되 의미 구조에서 재구조화가 일어난 구성으로 분석하였다. 이선웅(2011)²¹⁾에서는 한국어에서 연쇄동사 구문을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언어에서 나타나는 연쇄동사 구문이 핵문(kernel sentence)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과 달리 한국어에서 연쇄동사 구성이라 하는 것은 재구조화로 인한 표층 구조(surface structure)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2.2.2. 부동사 구문

한국어에서 연쇄동사 구문을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입장에서는 [V1+어+V2]

21) 이선웅(2011; 2016)에서는 Aikenvald(2006)의 논의를 들어 유형론적 관점에서 한국어의 연쇄동사 구문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선웅(2011)에서는 한국어에서 동사가 연쇄되어 나타나는 구문이 범언어적으로 나타나는 연쇄동사 구문과는 다른 S-구조에서 재구조화된 것으로 보았으나, 이선웅(2016)에서는 “연쇄동사(연속동사) 구문이 뚜렷한 실체가 있는 것이라기보다 다양한 특성들의 집합적 개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연쇄동사(연속동사) 구문의 특성으로 제시되어 있는 특성을 많이 공유할수록 더 원형적인 연쇄동사(연속동사) 구문이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내에 두 동사 사이를 연결하는 ‘-아/어’를 부동사형 어미로 분석하고 [V1+어+V2] 동사 구성을 부동사 구문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이익섭 2005, 이선웅 2011, 채희락 2015나 등). 그런데 유형론적 관점에서 다루는 부동사 구문의 범주는 연쇄동사 구문(SVC)보다 훨씬 넓다. ‘부동사’라는 용어는 서구 전통 문법에서 동명사(gerund 또는 gérondif)나 분사(participle) 구문 등으로 알려진 모문절(matrix clause)에 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동사 형태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Haspelmath 1995, Coupe 2006 등)²²⁾. 먼저 Haspelmath(1995)를 중심으로 부동사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살핀 후 한국어에서 [V1+어+V2] 동사 구성을 적극적으로 부동사 구문으로 다룬 채희락(2015나)의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Haspelmath(1995)에서는 ‘부동사’를 ‘부사절 종속 구문을 표시하는 비정형 동사 형태(a nonfinite verb form whose main function is to mark adverbial subordination)’라고 정의한다.

(14) a. Modern Greek(Haspelmath 1995:1~2)

I kepéla tón kítak-s-e xamojel-óndas.

the girl him look-AOR-3SG smile-CONV

‘The girl looked at him smiling.’

b. Khalkha Mongolian

Xot-od or-ž nom aw-aw.

town-DAT go-CONV book buy-PAST

‘Going to town I bought a book.’

c. Portuguese

Despenhou-se um avião militar, morr-endo o piloto.

22) Haspelmath(1995)에 따르면 러시아 언어학에서 처음 부동사에 대한 유형론적 연구가 이뤄졌으며, 러시아어와 러시아의 식민지인 코카서스(Caucasus)와 북중아시아 지역의 부동사 구문이 발달한 언어들에는 러시아어 용어 ‘deepričastie’가 적용되었다고 한다. Nedjalkov & Nedjalkov(1987)이 애틀랜틱어 연구(Atlantic Linguistics)에서 부동사(converb) 용어를 가져와 범언어적 범주에 사용할 것을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oupe(2006)에서는 부동사(converb)는 절(clause)을 연결하는 장치로, 유럽,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극동아시아, 에티오피아, 남아메리카 등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crashed a plane military die-CONV the pilot
 ‘A military plane crashed, and the pilot was killed’.
 (lit. ‘... the pilot dying’.)

d. 한국어

나는 아침 먹고 학교에 갔어요.
 CONV

Haspelmath(1995)에 따르면, 부동사는 (14)의 예들에서 보듯이 동사의 어간에 붙은 접사에 의해 표시되며,²³⁾ 시제, 상, 서법 등에 대한 명세가 결여되어 있는 ‘비정형(nonfinite) 동사 형태’이다. Haspelmath(1995)에서 부동사를 ‘동사 형태(verb form)’라고 하는 것은 부동사를 하나의 별개의 단어 부류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두 동사가 각각 독립적으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과 달리 부동사는 어휘적 자립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²⁴⁾ 또한 이러한 부동사는 전체 문장의 논항 구조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23) Haspelmath(1995)에서는 주로 부동사는 서술어 문말 언어(verb-final language)에서 흔히 나타나기 때문에 접두사보다는 접미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Greenberg 1957; Bybee-Pagliuca-Perkins 1990). 그런데 연쇄동사 구문도 Aikenvald(2006:54)에서는 서술어 문말 언어(verb-final language)나 서술어 문중 언어(verb-medial language)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Givón 1975; Foley&Olson 1985:47; Lord 1993; Durie 1995, 1997) Ravüa(Mon-Khmer: Seuren 1990; Durie 1995)와 같이 서술어 문두 언어(verb-initial language)에서도 연쇄동사 구문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Haspelmath(1995)는 구성 성분의 어순과 동사의 연쇄화 사이에는 단순한 대응 관계에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24) Bisang(1995)에서도 부동사와 연쇄동사가 기능적인 면에서는 유사한 복합 술어이지만 연쇄동사 구문은 각각의 동사가 독립적으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으나 부동사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Shibatani(2009)에서는 일본어와 한국어에서 동사가 연쇄되어 나타나는 구문에서 일본어의 ‘-te’와 한국어의 ‘-어’나 ‘-고’를 부동사형 어미로 보고 부동사 복합 술어(converb complex predicate)로 분류하였다. Shibatani(2009)는 부동사 복합 술어와 연쇄동사 구문에서 두 동사가 논항을 공유하고 하나의 단일 술어 단위를 형성하여 단일절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속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두 동사 사이에 연결 표지가 개입된다는 점과 정형 동사로 기능하는 동사만 독립적으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고 비정형 동사로 기능하는 다른 동사는 연쇄되어 나타나는 구문 밖에서는 독립된 술어로 기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주장한다.

(i) Japanese(Shibatani 2009)

a. Taroo=wa tegami=o kai-te it-ta.

의미한다.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두 동사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논항, 특히 주어(Subject)를 공유하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부동사 구문에서 부동사의 주어는 종종 상위절의 주어와 공지사 관계에 있어 암시적(implicit)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²⁵⁾ 부동사의 주어가 상위절 성분과 다른 주어일 경우에는 (14c)와 같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Haspelmath(1995)의 정의에 따르면, 부동사 구문은 일반적인 논항이 아니라 수식어(modifier)이고 일반적으로 명사나 명사구가 아니라 동사, 절 또는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사(adverbial)’라는 용어는 동명사(verb-noun)와 분사(participle)를 배제하기 위한 기준으로, 일련의 연속된 사건들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절 연쇄(clause-chaining) 구문인 ‘종속(subordinate)’ 구문의 한 유형이라고 설명한다.

-
- Taroo=TOP letter=ACC write-CON go-PST
‘Taro went away having written a letter.’
 - b. Taroo=wa it-ta.
Taroo=TOP go-PST
‘Taro went.’
 - c. *Taroo=wa tegami=o kai-te.
Taroo=TOP letter=ACC write-CON
(lit.) ‘Taro having written a letter.’

Shibatani(2009)에 따르면, 일본어의 ‘-te’는 전통적으로 문법상 두 개의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인테 (ia)와 같이 부동사 복합 술어 ‘kai-te it-ta’를 이룰 수 있다. 그런데 (ib)와 같이 정형 동사로 기능하는 ‘it-ta’는 독립적으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지만 (ic)와 같이 부동사 ‘kai-te’는 독립된 술어로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사 어미 ‘-te’에 시제 표지와 같은 형태론적 조정(morphological adjustment)이 적용되면 정형 동사 형태로 바뀌어 독립된 술어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형태론적 조정(morphological adjustment)은 교착어에서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kai-te it-ta’에서 ‘kai-te’에 ‘-te’가 있어 독립적으로 문장을 구성할 수 없다는 논의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Shibatani(2009)에서 제시한 일본어에 대응되는 한국어의 예를 생각해 보면, ‘철수가 학교에 편지를 써 갔다’라는 문장에서 V1 ‘쓰다’와 V2 ‘가다’는 각각 독립적인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어휘적인 의미가 결합된 연쇄동사 구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25) Haspelmath(1995)에서는 매개변인(parameter)상, 주어가 명시적으로 표현될 수 없는 암시적 주어(implicit-subject) 부동사, 의존적인 정형절(finite clause)의 주어와 다른 격을 가져 명시적으로 주어가 표현되는 명시적 주어(explicit-subject) 부동사, 주어가 명시적으로 표현될 필요가 없는 무주어 부동사(free-subject converbs)와 같이 세 가지 유형의 부동사로 구별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15) Udmurt(Perevoščikov 1959:199; Haspelmath 1995:14 재인용)
Predsedatel' šumpoty-sa vu-i-z "Džardon-e".
 chairman rejoice-CONV arrive-PAST-3SG Džardon-ILLAT
 'The chairman arrived at the "Džardon", rejoicing.'

(15') a. [*Predsedatel'*; *šumpoty-sa*] [\emptyset *vu-i-z Džardon-e*]
 b. [*Predsedatel'*; [\emptyset *šumpoty-sa*] *vu-i-z Džardon-e*]

(15)의 주어는 명시적으로 한 번만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 (15'a)와 같이 'Predsedatel''이 부동사 'šumpoty-sa(rejoice-CONV)'에 속한 주어이고 'vu-i-z(arrive)'의 암시적인 주어를 통제하거나 (15'b)와 같이 'Predsedatel''가 'vu-i-z'의 주어이고 'šumpoty-sa'의 암시적인 주어를 통제하는 두 가지 구조를 상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15'a)는 등위 관계이고 부동사 구문은 주절과 종속 관계에 있는 (15'b)의 구조로 보는 것이 정확한 분석이라고 Haspelmath(1995)는 설명한다.

Haspelmath(1995)의 분석과 유사하게 채희락(2015나)에서도 다음과 같은 문장을 부동사 구문으로 분류하고 암시적인 주어를 갖는 구조로 분석하였다. 채희락(2015나)에 따르면, 부동사 구문에서는 특정 동사 하나만이 전체 문장의 논항 구조를 결정하며, 부동사는 부사구 기능을 하는 것으로 V1과 V2가 수식어와 피수식어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²⁶⁾ 부동사는 부사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체 문장의 주어가 부사구의 통사적 주어가 될 수 없고 부동사의 주어는 문맥에 의해 공지시되는 선행사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공범주(그에 따르면, '공백' gaps) 'pro'로 설정하였다.

(16) a. 수지가 [[오징어를 {구워/굽-어}] [맥주를 마셨다]].
 b. 수지가 [\emptyset 오징어를 구워] 맥주를 마셨다.
 c. [수지가 오징어를 구워] [\emptyset 맥주를] 마셨다.

26) 채희락(2015나)에서는 한국어에서 연쇄동사 구문이라 불리는 것은 부동사 구문이나 관용표현 구문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독자적인 구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채희락(2015가, 2015나, 2016)에서는 한국어에서 두 동사가 연쇄되어 나타는 구문을 (1) 보조용언류 구문: 보충어-머리어 관계, (2) 부동사 구문: V1-V2 수식어-피수식어 관계, (3) 관용 표현 구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6a)는 ‘수지가’ 통사적으로 ‘굽다’의 주어이면서 ‘마시다’의 주어임을 나타낸다. 그런데 채희락(2015나)에서는 연결 어미 ‘-어’를 접어 부사로 보기 때문에 ‘오징어를 구워’가 부사구라 ‘수지가’가 ‘굽다’의 통사적 주어가 되는 것으로 분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또한 ‘오징어를 구운’ 주체와 ‘맥주를 마시는’ 주체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것은 문장 외부 문맥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16a)와 같은 문장은 (16b)와 (16c)의 구조를 상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선행사와 공범주 요소와의 관계를 따져 보았을 때, 선행사인 ‘수지’가 공범주 요소보다 어순상 앞에 오며 통사 구조의 위치상으로도 상위에 있는 (16b)와 같이 ‘수지가’가 ‘마시다’의 통사적 주어이며 ‘굽다’의 주어가 공범주로 존재하는 구조로 분석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채희락(2015나)에서는 위와 같이 주어뿐만 아니라 (17a)의 ‘깎아 먹다’의 목적어의 경우도 V1과 V2에 의해 공유되는 논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 (17) a. 수지가 [사과를 [깎아 먹었다]].
 b. 수지가 [사과를 [∅ 깎아] 먹었다].
 c. 수지가 [[사과를 깎아] [∅ 먹었다]].

(18) 나는 [사과를 갈아] [∅ 마셨다]

(17a)의 목적어 ‘사과를’은 V1 ‘깎다’의 보충어이며, V2 ‘먹다’의 목적어는 단순 공백이 아닌 추론 공백으로 선행 동사의 명시적인 목적어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깎은’ 것은 ‘사과’지만 ‘먹은’ 것은 ‘깎은 사과’이기 때문에 ‘깎다’와 ‘먹다’의 목적어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사과를 갈아 마시다’의 예를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사과를 갈다’의 ‘사과를’은 피동주(Patient)이고 ‘사과를 마시다’의 ‘사과를’은 대상(Theme)이기 때문에 의미역이 다르며²⁷⁾ ‘사과를’은 ‘갈다’의 목적어로 문제가 없지만 ‘사과를’ 마실

27) Jackendoff(1990:125)에서는 ‘대상(Theme)’은 처소 이동을 겪는 것(thing in motion or being located)이고 ‘피동주(Patient)’는 전통적으로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상(the object affected by the action)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대상(Theme)’은 Fillmore(1968)의 목적격과 같은 기본적인 격표지의 개념과 비슷한 의미역 개념으로 ‘피동주’와 서로 호환이 가능한(interchangeable)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목적어에 부여되는 의미역을 ‘대상(Theme)’으로 설정한다. Grimshaw(1990)와 정태구(1993) 등에서도 논항 계

수는 없기 때문에 ‘마시다’의 목적어로서 선택 제약을 어기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그는 ‘잡아 먹다’를 (17c)와 같이 V2 ‘먹다’의 목적어는 명시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공범주로 존재하는 구조를 갖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16)과 달리 (17)과 (18)에서 주어는 공유되는 것인가? 아니면 목적어와 마찬가지로 암시적인 공범주로 주어진 것인가? (16)은 V1과 V2가 각각 다른 목적어를 취하며 두 개의 절이 연결된 구문으로 볼 수 있지만 (17)과 (18)의 경우는 두 동사가 주어뿐만 아니라 목적어를 공유하며 하나의 구문을 이루는 경우로 (16)과는 다른 통사적 구조를 갖는 연쇄동사 구문으로 볼 수 있다. (17)과 (18)의 목적어 논항이 V1과 V2에 의해 공유되는 논항인지는 ‘그렇게 하다/그리하다(do so)’에 의한 대응 여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²⁸⁾

- (19) a. 나는 사과를 잡아 마셨고 동생도 배를 그렇게 했다/그랬다.
 b. 나는 사과를 잡아 마셨고 동생도 그렇게 했다/그랬다.
 c. *나는 사과를 잡아 마셨고 동생도 그렇게/그리 마셨다.

(19a)와 같이 ‘잡아 마시다’는 ‘그렇게 하다’에 의해 전체 대응이 가능하고 (19b)와 같이 ‘잡아 마시다’와 목적어 ‘사과를’까지 ‘그렇게 하다/그리하다’에 의해 대응되는 문장도 성립된다. 그러나 (19c)와 같이 ‘사과를 잡아’만 ‘그렇게/그리’에

층 구조상에서 ‘피동주(Patient)’를 따로 상정하고 있지 않다.

28) 박소영(2014)에서는 ‘잡아먹다’를 예로 들어 ‘철수는 토끼를 잡아먹었다. 영희도 (닭을) 그랬다.’와 같이 동사 연쇄 전체가 ‘그렇게 하다’에 의해 대응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철수는 토끼를 잡아먹었다. *영희도 닭을 잡아 그랬다.’와 같이 V2만 ‘그렇게 하다’에 의해 대응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제시하면서 이는 V1과 V2가 부가어(adjunct) 관계가 아니라 보충어(complement)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박소영(2014)에서는 (ia)에서와 같이 부가어를 제외한 동사구(‘책을 읽다’)는 ‘그렇게 하다’에 의해 대응이 가능하지만 (ib)에서와 같이 보충어를 배제한 동사(‘읽다’)만은 ‘그렇게 하다’에 의해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 (i) a. 철수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영희도 도서관에서 그렇게 했다.
 b. 철수는 책을 읽었다. *영희도 책을 그렇게 했다.

조경순(2014)에서도 문장의 필수 성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다/그리하다’에 의해 서술어와 함께 대치가 가능하면 논항(보충어)이지만 대치가 불가능하면 그 성분은 부가어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의해 대응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사과를’이 ‘갈다’뿐만 아니라 ‘마시다’의 논항(보충어)이기도 하다는 증거이다. 그렇기 때문에 채희락(2015나)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러한 목적어 논항이 V1만의 보충어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채희락(2015나)에서는 ‘깎아 먹다’와 같은 경우에 많은 학자들이 ‘단일 복합사건(single complex events)’을 나타내는 연쇄동사 구문으로 분석하기도 하는데 이는 V1 ‘깎다’와 V2 ‘먹다’가 서로 이웃해 있으면서 표면적으로 두 행위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그는 두 동사가 나란히 연쇄되어 나타나는 데에는 어떠한 형태·통사적 제약도 없으며 일반적인 부사와 동사와 같이 선·후행 용언구가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가 될 수 있는 의미·화용적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얼마든지 연쇄되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두 동사가 각각 취하던 논항을 공유하며 연쇄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채희락(2015나)에서 주장하는 대로 단순히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로 어떠한 제약도 없이 자의적으로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는 구문으로 보기 어렵다. 두 동사가 연쇄동사 구문을 구성할 때 두 동사의 논항 구조가 합성되는 방식에는 일정한 제약과 규칙이 적용되며 의미 구조 역시 일정한 합성 규칙에 따라 하나의 사건으로 합성된다. 이러한 합성 규칙과 그에 따른 합성 유형들은 4장과 5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다.

2.2.3. 한국어의 연쇄동사 구문

한국어에서도 대등 접속이나 종속 또는 내포 등과 같은 통사적 기제에 의해서도 한 문장 내에 둘 이상의 동사가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 동사 구문을 구성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대로 ‘잡아먹다’와 같이 완전한 통사적 구성으로도 볼 수 없고 그렇다고 완전한 어휘적 합성동사로도 볼 수 없는 부류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V1+어+V2]형의 동사 부류들 중에서 특히 본고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V1+어+V2(가다/오다, 주다)]가 여러 다른 언어들에서 나타나는 연쇄동사 구문(SVC)이 갖는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생성 기제면에서 공통된 특성을 지닌 연쇄동사 구문(SVC)임을 보이고자 한다.²⁹⁾ 다른 언어들에서 발견되는 연쇄동사 구문이 한국어에서도 동

29) S. Yoon(2013)은 한국어의 [V1+어/고/어다+V2]가 엄밀한 의미에서는 두 동사 사이에 명시적인 연결 어미가 존재하기 때문에 연쇄동사 구문보다는 부동사 복합 술어로 보아야 하겠지만 Shibatani(2009)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두 구문 간

일하게 존재한다고 전제하는 논의들로는 Li(1991), S. Lee(1992), 정태구(1993; 1995), S. Kang(1993), J. Kim(1993), 남미혜(1996), 김재윤(2000), Chung & Kim(2008), J-B. Kim(2010), Kim & Oh(2013), 박소영(2014), Ko & Sohn(2015) 등이 있다.

2.2.3.1. 형태적 특성

전형적인 연쇄동사 구문에 대한 엄밀한 정의에 따르면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두 동사는 명시적 표지(marker) 없이 연결되어 나타나야 한다(Sebba 1987, Stewart 2001³⁰⁾, Haspelmath 2016 등). 그러나 한국어에서 그러한 경우는 ‘오가다’, ‘뛰놀다’ 등과 같이 소수에 불과하다. 주로 ‘-아/어’에 의해 두 동사가 연결되어 혹은 연쇄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반적이다. 유형론적으로 연쇄동사 구문이 존재하는 언어로 분류되는 언어들은 주로 SVO 어순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은 형태소 표지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고립어의 특징을 보이는 언어들이다. 이들과 달리 한국어는 교착어로서 형태소 표지가 발달해 있으며 용언이 굴절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Bisang(1995)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언어유형론에서 동사가 연쇄되어 나타나는 구문이 존재하는 언어와 부동사 구문이 존재하는 언어를 주로 형태론적 유형(고립형/교착형/굴절형/포함형)에 의존하여 구분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구분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어, 티베트어, 타밀어 등과 같이 연쇄동사 구문과 부동사 구문의 두 유형이 한 언어에

에 공통된 통사·의미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둘을 구별하지 않고 연쇄동사 구문으로 보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30) Stewart(2001)에서는 기존의 연쇄동사 구문에 대한 정의가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특성들만 나열해 기술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연쇄동사 구문은 형태적 굴절이 매우 적은 제한된 언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연쇄동사 구문은 ‘둘 이상의 동사가 종속이나 접속의 표지 없이 논항들을 동시에 실현시키며, 동일한 주어 때로는 동일한 목적어를 공유하고 하나의 시제, 상 표지를 갖는 구문’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일본어나 한국어 등과 같은 언어에서 두 동사가 연쇄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진정한 의미의 연쇄동사 구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V1+어+V2]의 동사 구성 중에 생성 기제 면에서 통사적 구성이라고도 또 합성동사 구성으로도 볼 수 없는 분류가 존재함에 주목한다. 이들은 통사적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논항을 공유하고 시제, 상, 부정 극성 등을 공유하며 의미적으로 하나의 사건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범언어적으로 나타나는 연쇄동사 구문과 동일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공존하는 언어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³¹⁾

한국어에서 연쇄동사 구문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V1+어+V2]에서 ‘-어’를 주로 부정 접사(infinitive suffix: Sohn 1976:143) 또는 형태적 폐쇄(morphological closure: M. Kang 1988:78)나 음운론적 연결사(phonological linker)로 기능하는 허형태소(dummy morpheme: S. Lee 1992; 정태구 1993; J. Kim 1993; 박소영 2014; Ko&Sohn 2015 등) 등과 같이 특별한 문법적 또는 의미적 기능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연쇄동사 구문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형태적 특성을 지적하며 한국어의 [V1+어+V2]형의 동사 구성을 유형론에서 말하는 연쇄동사 구문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정훈(2006)에서는 연쇄동사 구문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깎아먹다’를 예로 들어 ‘-어’에 의해 ‘깎아먹다’가 합성동사가 되기도 하고 절이 내포된 ‘깎아서 먹다’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V1+어+V2]의 ‘-어’는 동사구 범주에 통합되는 어미이면서 단어를 형성하는 어미로도 기능하는데 이것은 ‘-어’가 ‘범주 통용’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²⁾ 또한 그는 ‘-어’가 범주 자질이 아니라 범주 지위를 바꾸는데 범주 지위는 중의성을 떨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범주 통용’은 수의적으로(optional) 적용되는 규칙이라고 설명한

31) Bisang(1995:173)에 따르면, 티베트어는 주변 인접 언어(중국어)와의 접촉으로 연쇄동사 구문의 영향을 받아 좁은 의미의 연쇄동사 구문이 부동사형 어미 구문과 중첩되고 그 속성을 공유하게 되어 연쇄동사 구문의 사용이 확대된 경우이다.

(i) Tibetan (DeLancey 1991:4, 6)

a. stag-gi gyag-la so brgyab-byas bsad-pa red.
tiger-ERG yak-DAT bit-NF:CONV kill-PERF
‘The tiger bit the yak and killed it.’

b. kho bros-(byas) yongs-pa red.
he flee-(NF:CONV) come-PERF
‘He fled hither (or toward the deictic center).’

(ia)와 같은 구문에서는 부동사 형태소 ‘-byas’가 필수적으로 나타나고 (ib)와 같이 좁은 의미의 연쇄동사의 개념에 포함되는 구문에서는 ‘-byas’가 선택적으로 나타나 연쇄동사 구문과 중첩되는 예에 해당된다.

32) 이선웅(2011:177)에서는 동사가 연쇄되어 나타나면 합성어로 되려고 하는 것이 한국어의 특성이라고(이익섭 2005:312~317) 밝히며, 방벽성이 없는 C인 ‘-아/어’를(이시형 1990) 사이에 두고 V1과 V2가 인접해 있을 경우에 재구조화 규칙이 적용된 것으로 보았다.

다. 이러한 ‘-어’는 접속 어미 ‘-(어)서’와 교체가 가능하며 동일하게 해석되기도 한다.

- (20) a. 철수가 사과를 꺾아먹었다.
b. 철수가 사과를 꺾아서 먹었다.

(20a)의 ‘꺾아먹다’는 (20b)의 ‘꺾아서 먹다’와 교체가 가능하며 V1 ‘꺾다’의 사건과 V2 ‘먹다’의 사건이 시간 순서에 따라 일어난 계기적인 사건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어’가 ‘-(어)서’와 교체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해도 ‘-(어)서’와 같은 접속 어미와는 부정소 ‘안’ 또는 부사 수식 등의 영향권(scope) 관계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정훈(2006)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어’는 접속문을 구성하는 어미로도 기능하고 하나의 동사 구성을 이루는 어미로도 기능하는 중의적인 속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결 어미 ‘-아/어’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수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으며 여전히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두 동사 사이에 나타나는 ‘-아/어’를 기존에 음운론적 연결사(phonological linker)로 기능하는 허형태소로 보는 입장을 따르고자 한다. 한국어의 연쇄동사 구문 [V1+어+V2] 내의 ‘-아/어’는 형태론적으로 V1 어근(root)에 붙어 동사 어간(stem)을 형성하여 V2와 연결해 주는 허형태소로 [V1+어+V2]가 하나의 운율 구조를 갖게 하는 음운론적 연결사(phonological linker)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³³⁾

33) Sebba(1987:145)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언어 중에서도 Ijo(Izon)는 동일한 어근에 속하는 다른 언어들과 다르게 SOV 어순의 언어이며 모음 앞에서 연결사(linker)가 나타나기도 한다.

- (i) eri weni-ni ama suo-mi
he walk-L town enter-SP
“He walked into a town”

그러나 S. Lee(1992)에서는 Ijo의 ‘-mi’는 다음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할 때 V1 어간에 붙는 접사로 음운론적 동기에 의해 붙는 요소이고, 한국어의 [V1+아/어+V2]의 ‘-아/어’는 형태론적 동기에 의해 첨가되는 요소로 결합 동기가 다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J. Kim(1993)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한국어의 ‘-아/어’도 동일 모음이 앞에 오면 삭제된다는 점에서 음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 (ii) a. 철수가 강을 건너 ∅ 갔다.

앞서 연쇄동사 구문의 특징 중 하나로 Sebba(1987:62)에서는 두 동사 사이에 분명한 절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가 없어야 한다고 제시하며 쉼표 억양(comma intonation)과 같은 휴지(pause)가 두 동사 사이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Aikenvald(2006)에서는 연쇄동사 구문이 단일 동사의 운율 특성을 지닌다고 제시하였다.³⁴⁾ 이를 바탕으로 Goemai³⁵⁾의 연쇄동사 구문을 분석한 Hellwig(2006)에서도 접속 구조와 다르게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두 동사 사이에 절 경계를 나타내는 휴지(pause)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분석하였다.

(21) Goemai(Hellwig 2006:91~99)

a. sai su ru n-goede gado

then run(SG) enter(SG) Loc-bottom bed

‘Then (he) ran (and) entered under the bed’

b. su goe ru m-pin goe mang haaske nnoe

run(SG) SEQ enter(SG) LOC-hut SEQ take(SG) egg LOC.ANAPH

‘(she) ran and entered into the hut and took this egg’

c. dûsnaan (...) su / ru dakd’ûe lu

cricket run(SG) enter(SG) MIDDLE settlement

‘The cricket (...) ran, (and it) entered into town’

b. 철수가 영희에게 인형을 사 ∅ 주었다.

34) Shibatani(2009)에서는 Alambalak의 경우에는 하나의 음운론적 단위를 형성하고 Paamese와 같이 어근 또는 핵 연쇄화가 되는 경우에는 동사들 사이에 명사구(NP)가 없이 연속되어 나타나도 하나의 음운론적 단어를 형성하지 않는 등 연쇄동사의 음운론적 단어성도 언어마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한다.

35) Goemai는 나이지리아 중부의 조스 플라토주(Jos Plateau)에서 사용되는 서부 차딕어(West Chadic language) 중에 하나이다. Hellwig(2006:88)에 따르면, Goemai를 비롯하여 서부 차딕어와 중부 차딕어들은 Talmy(2000)식의 유형론 관점에서 볼 때, 이동 사건에 경로 성분이 동사에 부호화되는 ‘동사틀 언어(verb-framed language)’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임지룡(2000)에 따르면, 한국어는 이동 동사의 어휘화 양상을 볼 때 ‘동사틀 언어’의 특징과 경로 성분을 첨사(particle)나 전치사(preposition) 등으로 실현하는 ‘위성어틀 언어’의 두 양상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한국어와 Goemai는 ‘동사틀 언어’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을 보이기도 한다.

d. mûep swo / mûep rwo n-s'et
 3PL run(PL) 3PL enter(PL) LOC-bush
 'They ran, (and) they entered into the bush'

(21)에서 제시되었듯이 Goemai에서는 다양한 기제에 의해 복합 동사 구문을 구성할 수 있다. (21a)는 연쇄동사 구문이고 (21b)는 행위들이 연이어 일어남을 나타내는 계기적 구조(sequential structure), (21c)와 (21d)는 접속 구조(conjoined structure)이다. (21a)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Goemai의 연쇄동사 구문은 (21b)의 계기적 구조와 달리 두 동사가 어떠한 명시적 표지 없이 연쇄되어 나타난다. 연쇄동사 구문이 다른 구문들과 다르게 단일절 해석(monoclausal interpretation)을 갖는다는 것은 억양 속성(intonational properties)에도 반영되어 있다. (21a)의 연쇄동사 구문에서는 두 동사가 단일 동사의 운율 특성을 지녀 (21c)와 (21d)와 다르게 두 동사 사이에 절 경계를 나타내는 휴지(pause)가 나타날 수 없다. 그런데 Goemai에서는 접속사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 (21c)와 같은 접속 구문과 연쇄동사 구문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두 동사 사이에 끊김(break) '/' 의 출현에 의해서만 접속 구문임을 알 수 있는데 (21c)와 같이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해서 연쇄동사 구문과의 구분이 더 어렵다. 단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1d)와 같이 접속 구문에서는 주어가 동사마다 반복해서 나온다.

정태구(1993)에서도 한국어의 연쇄동사 [V1+어+V2] 내의 '-어' 다음에 휴지(pause)가 있으면 절 경계를 나타내는 '-(어)서'가 포함된 구문과 같다고 설명하였다.

- (22) a.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었다.
 b.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 # 먹었다.
 c.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서 먹었다.

(22a)의 '잡아먹다'는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는' 하나의 사건을 나타낼 수도 있고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서 먹은' 두 개의 연속된 절의 연결로 볼 수도 있다. 후자의 해석을 갖는 (22a)의 '잡아먹다'는 (22c)와 같이 접속 어미 '-(어)서'와도 교체가 가능하다. 또한 (22b)에서와 같이 두 동사 사이에 휴지(pause)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22c)의 구문과 동일한 해석을 갖는다고 할 수 있

다. 즉 휴지(pause)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 그것을 먹었다’와 같이 두 개의 절이 연결된 구문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V1+어+V2]형의 연쇄동사와 접속 어미 ‘-(어)서’가 포함된 구문은 다른 운율 구조(prosodic structure)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즉 ‘-(어)서’ 구문에서는 선행하는 동사와 후행하는 동사에 각각 독립적인 운율 구조를 형성해 동사마다 강세가 주어지는 반면에 ‘-어’에 의해 연결된 연쇄동사는 하나의 운율 단위로 동사 전체에 피치(pitch)가 주어지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³⁶⁾

또한 정태구(1993)에서는 연쇄동사 구문이 주로 핵 어두(head-initial) 언어에서 [V1 NP V2]의 구조로 두 개 이상의 동사 사이에 목적어 NP가 삽입되어 있는 구조로 나타나지만 한국어와 같은 핵 어말(head-final) 언어에서는 연쇄동사 구문이 합성동사와 같이 ‘-아/어’에 의해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어에서 ‘늘고먹다’와 같이 [V1+고+V2]형의 합성동사는 소수에 불과하고 [V1+어+V2]형이 지배적으로 많다. 이러한 합성동사가 생성될 때 적용되는 생산성이 높은 연결 어미 ‘-어’를 한 문장 내에 둘 이상의 동사가 연쇄되어 나타날 때에도 연결 어미로 사용하는 언어 내적 규칙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형태적으로 보면, 한국어의 [V1+어+V2]형의 연쇄동사는 두 동사가 ‘-아/어’에 의해 연결되어 나타나므로 전형적인 연쇄동사 구문(SVC)의 엄밀한 정의에서는 벗어나 있다. 하지만 ‘하나의 운율 단위를 이룬다(Sebba 1987:62, Aikenvald 2006, Hellwig 2006, Kilian-Hatz 2006, 정태구 1993 등)’는 점에서 두 동사 사이에 휴지(pause)가 주어지거나 절 경계를 나타내는 ‘-(어)서’가 포함된 구문과는 다른, 넓은 의미의 연쇄동사 구문(SVC)의 특성을 지닌 구문으로 볼 수 있다.

2.2.3.2. 통사적 특성

36) 이에 대해서는 음성학적인 실험이나 구어체 발화 말뭉치의 분석 등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Kilian-Hatz(2006)에서도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동사들이 하나의 억양 단위(intonation unit)를 이루고 있는가에 따라 한 단어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명사류나 동사류 합성어에서와 같이 대부분 대칭적 그리고 모든 비대칭적 연쇄동사 구문의 어휘 요소들이 V1에 주 강세가 주어지고 그 뒤에 오는 동사로 점진적 하강(downdrift)이 되는 것으로 실현된다고 한다. 그러나 몇몇 대칭적 연쇄동사 구문 중에 동사들이 서로 다른 목적어를 갖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사가 자신만의 강세를 갖고 동사구는 짧은 휴지(pause)에 의해 분리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앞서 제시한 대로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두 동사는 각각 독립적으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어휘적 동사이면서 그러한 두 동사가 결합하여 단일 서술어로 기능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통사적으로는 분리 가능한 투명한(transparent) 구조를 보이면서 동시에 단일 서술어로 기능한다는 이러한 특성 자체가 연쇄동사 구문에 접속 등에 의한 통사적 구성과 합성동사로서의 이중적인 속성을 동시에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³⁷⁾ 이 절에서는 한국어 [V1+어+V2(가다/오다, 주다)] 구문이 앞서 제시된 범언어적으로 나타나는 연쇄동사 구문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러한 특성이 동일한 형태의 합성동사나 보조동사와는 구별되는 것임을 보이고자 한다.

2.2.3.2.1. 논항 공유

먼저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두 동사는 Sebba(1987:39)에서 제시한 대로 모두 반드시 어휘적 동사여야 하며 Barker(1989), Collins(1997), Stewart(2001), Aikenvald(2006) 등에서 제시한 대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논항을 공유해야 한다. 한국어에서도 S. Lee(1992)에서 두 동사가 연쇄되어 나타나는 구문은 반드시 주어 논항을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J. Kim(1993), 김재윤(2000), Chung & Kim(2008) 등에서도 주어뿐만 아니라 Barker(1989)에서 제시한 대로 목적어를 공유하는 특성도 연쇄동사 구문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보았다.

37) 고영근·구본관(2011:291)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예문을 제시하며 ‘연속동사 구성’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 (i) a. 철수가 사과를 꺾어 먹었다.
- b. 기러기가 울며 간다.

위의 문장들이 “두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되면 ‘합성서술어’이고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동작이면 두 문장의 서술어가 복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며 ‘합성서술어’란 “내적으로는 통사적 구성이면서 문장 구성에서는 한 단위의 역할을 하는 서술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들이 사용한 ‘연속동사 구성’이라는 명칭은 단순히 두 동사가 연속해서 나타난다는 표면적인 특징만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술어의 복합 구성 내에 연속동사 또는 연쇄동사 구성이 포함된다고는 할 수 있으나 반대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그 관계가 어떠한 것이든 (ia)와 (ib)는 동일한 범주의 동사 구성으로 볼 수 없다.

아래의 [V1+어+V2]형의 동사들은 표면적으로는 두 개의 어휘적 동사가 결합한 구조를 지닌다는 점에서는 동일해 보이나 논항 실현의 여부와 의미역 할당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 (23) a. 철수가 소고기를 구워 먹었다.
 ┌──────────┐
 └────────┘
 ┌──────────○──────────┐
 └──○──┘
- b. 영희가 땅에 금덩어리를 과 묻었다.
 ┌──x──┐
 └────────?────────┘

c. 영수가 과자를 다 먹어 버렸다. - 영수가 과자를 다 먹었다.

(23a)의 ‘구워 먹다’는 V1과 V2가 공유하는 논항이 있고 V1에 의해 할당된 논항의 의미역과 V2에 의해 할당된 논항의 의미역이 동일한 경우이다. 이때 공유하는 논항들을 하나로 통합시켜 동사 전체의 논항 구조에 실현시키는 연쇄동사 구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23b)의 ‘과묻다’와 같은 합성동사는 V1과 V2가 결합한 형태의 [V1+어+V2] 동사 전체가 하나의 단위로 문장 내의 논항들에 의미역을 할당한다. (23c)는 보조동사 구문으로 V2 ‘버리다’가 없어도 문장이 성립된다. 즉 V1 ‘먹다’만이 전체 문장의 논항 구조를 결정할 수 있고, V2 ‘버리다’는 독자적으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상(aspect)이나 양상(modality)과 같은 보조적인 의미만을 나타낸다. 두 동사가 결합할 때 자신의 논항을 실현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연쇄동사 구문과 합성동사, 보조동사의 의미적 합성성(compositionality) 원리의 준수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절에서 연쇄동사 구문의 의미적 특성을 논의할 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존에 한국어의 [V1+어+V2]형의 동사 구성에 대한 논의들에서 ‘가다/오다’와 ‘주다’는 다른 동사와 결합하여 한 문장을 구성할 때 주로 보조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루어졌다. ‘가다/오다’는 주로 직시적(deictic) 동사로 화자 또는 청자를 중심으로 이동한 방향 등을 나타내거나 ‘진행’ 또는 ‘지속’과 같은 보조

적인 상(Aspect)의 의미를 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주다’도 ‘수혜’ 구문에 집중되어 다루어졌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V1+어+V2]형의 동사 구성에서 V2에 오는 ‘가다/오다’가 문장의 논항 구조를 결정하는 데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4) a. *철수가 학교에 달렸다.

b. 철수가 학교에 달려 갔다.

(25) a. 이 형사가 범인을 잡아 갔다.

b. 형사가 경찰서에|경찰서로 범인을 잡아 갔다.

(24a)에서 ‘달리다’에 의해서는 ‘학교에’라는 논항이 허가될 수 없으나, (24b)에서와 같이 ‘달리다’와 ‘가다’가 결합된 [V1+어+V2]형의 동사가 구성하는 문장 내에서는 허가된다. (25a)의 ‘잡아 가다’와 같이 타동사 ‘잡다’와 자동사 ‘가다’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타동사 V1의 목적어를 [V1+어+V2]형의 동사가 그대로 취하게 된다. 그런데 (25a)의 ‘잡아 가다’가 ‘체포해 가다’라는 의미로 전이되어 해석되는 경우에는 합성동사로도 볼 수 있겠으나 한 화자가 (25a)라고 발화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어디로/어디에?’라는 질문이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그 문장이 V2 ‘가다’의 필수 논항인 처소 논항이 실현되지 않아 명제적으로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5b)에서와 같이 ‘잡아 가다’의 논항 구조에는 ‘경찰서에|경찰서로’와 같은 처소 논항이 실현될 수 있는데 이것은 V2 ‘가다/오다’에 의한 것이다.

(26) ┌-----┐
a. 이 형사가 경찰서에 [범인을 잡아] 갔다.
 └-----┘

 ┌-----┐
b. 이 형사가 경찰서에 범인을 잡아 갔다.
 | | ┌-┐ |
 └-----┘ └-----┘

S. Kang(1993)에서는 이러한 ‘잡아 가다’는 타동사 ‘잡다’와 자동사 ‘가다’가 결

합한 것으로 (26a)에서 제시된 구조와 같이 두 동사가 목적어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로 Barker(1989)의 ‘연쇄동사 구문은 목적어를 공유해야 한다’는 특성에 위배되는 예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Barker(1989)에서도 ‘잡아 가다’의 경우에 V2 ‘가다/오다’의 논항인 ‘도착한 사람(comes, 여기서 ‘이 형사’)’은 V1 ‘잡아-’의 주어로 해석되며 V2 ‘가다/오다’는 공유된 논항 ‘범인’에 공동격(comitative role)을 할당하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³⁸⁾ S. Kang(1993)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의 ‘가다/오다’를 연쇄동사 구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냐, 보조동사 구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협의적인 관점에서는 연쇄동사 구문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보조동사라면 의미역 할당이 불가능해야 하는데 ‘잡아 가다’의 V2 ‘가다/오다’는 V1의 대상 논항에 공동격을 할당하므로 광의적으로는 연쇄동사 구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V2 ‘가다/오다’가 ‘범인’에 명시적인 공동격(comitative) ‘-와/과’를 할당하지는 않지만 V2 ‘가다/오다’가 V1 ‘잡다’와 결합하여 사건 구조상에서 ‘행동주와 대상이 함께 이동한 사건’을 나타내게 되며 이때는 어휘적 동사로 기능한 것으로 본다.

‘주다’도 다음과 같이 다른 동사와 연쇄되어 나타날 때, 그 문장의 논항 구조를 결정하는 데 관여한다.³⁹⁾

(27) a. 철수가 영희에게 빵을 만들어 주었다.

b. *철수가 영희에게 빵을 만들었다.

(28) a. 철수가 동생에게 책을 읽어 주었다.

38) Aikenvald(2006)에서는 VP1의 주어와 목적어가 함께 VP2의 행위를 수행하는데 참여하는 경우에는 누적적(cumulative) 주어를 갖는 연쇄동사 구문이라고 하였다.

39) 차가영(2015)에서는 ‘주다’가 구성하는 [V1+어+V2]형의 동사 구성을 통사적으로 Low Applicative 구조를 갖는 부류(1, 2)와 High Applicative 구조를 갖는 부류(3)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V1+어+V2{주다}]를 세분하여 제시하였다.

(1) 합성동사(compound verb, 예: 빌려주다)

(2) 연쇄동사(serial verb, 예: 사 주다)

(3-1) Typical High Applicative construction(예: 읽어 주다)

(3-2) TP-Benefactive Auxiliary(예: 도와 주다)

(3-3) CP-Benefactive Auxiliary(예: 저어 줘)

이와 같은 다양한 통사 구조에 따라 ‘주다’의 의미가 ① 소유 이전(possession transfer: (1), (2)) ② 사건 착점(Event Goal: (3-1)), ③ 수혜(Benefactive: (3-2), (3-3))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b. *철수가 동생에게 책을 읽었다.

(29) a. 철수가 영희를 도와 주었다.

b. 철수가 영희를 도왔다.

(27a)의 ‘만들어 주다’와 (28a)의 ‘읽어 주다’는 ‘주다’가 없이는 문장을 성립시킬 수 없는 부류이다. 이와 달리 (29)의 ‘도와 주다’는 ‘주다’가 없어도 문장이 성립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주다’가 ‘수혜’라는 의미만을 더하는 보조동사로 기능한다. 그런데 기존에 ‘주다’에 관한 수많은 논의들에서 (28)의 ‘읽어 주다’는 ‘철수가 책을 읽었다’와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주었다’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는 것이 지적되어 왔다. 주로 ‘읽어 주다’는 ‘철수가 책을 읽는 행동이 동생에게 수혜가 되는’ 행동이라고 보고 보조동사 구문으로 분류하였다. 그 외에 ‘읽어 주다’와 같은 ‘주다’ 구문을 단순한 보조동사 구문만으로 볼 수 없다는 논의들도 있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강현화(1998)에서는 (28)과 같은 ‘읽어 주다’의 경우를 보조동사 구문이 아닌 동사 전체가 문장의 논항 구조를 결정하는 동사 구성으로 보았다. 류시중(1995), 박승윤(2003), 목정수(2008) 등에서는 이러한 ‘읽어 주다’를 ‘주다’에 의해 여격 표지 ‘-에게’가 문장 내에 도입된다는 점에서 ‘도와 주다’와 같이 ‘주다’와 결합하여도 여격 표지 ‘-에게’를 도입하지 않는 전형적인 보조동사 구문과 구분되는 여격성 보조동사 구문으로 분류하였다. 채희락(2016)에서는 ‘읽어 주다’와 같은 구문은 V2 ‘주다’에 의해 ‘NP-에게’ 보충어를 취하게 되며 ‘전달’의 본동사로서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보조동사 구문도 아니고 ‘수식어-피수식어’의 관계에 있는 부동사 구문도 아닌 ‘관용 표현’으로 분류하였다. 그는 V2 ‘주다’와 결합하는 V1의 유형에 따라 [V1+어+V2{주다}]의 ‘-에게’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으나 ‘주다’와 결합하는 V1의 부류를 체계적으로 구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열어 주다’와 ‘닫아 주다’와 같이 V1이 동일한 의미 부류에 속하는 행위 동사일지라도 전자는 ‘-에게’를 허용하나, 후자는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주다’ 구문이 ‘-에게’를 허용하는지를 예측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리하여 채희락(2016)에서는 ‘-에게’를 허용하는 ‘주다’ 구문은 관용 표현의 구문집에 등재 항목으로 등록이 되고 ‘-에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보조용언 구문으로 분석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그는 ‘읽어 주다’에 ‘주다’의 본동사로서의 의미가 결합된 것으로 그 의미가 비합성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에서는 일반적인 관용 표현과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문법화 등의 이유로 ‘주다’와 같이 다양한 동사들과 결합하여 하나의 구문을 이루는 경우에는 통사·의미적으로 합성성(compositionality) 원리를 따르지 않는 구문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주장대로 ‘주다’와 결합하면서 ‘-에게’를 도입하게 되는 V1의 부류를 예측하고 유형화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다. 그러나 규칙이 적용 가능한 것까지 별도의 정보로 저장해야 하는 것이 더 비경제적인 언어 처리 방식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V2 ‘주다’와 다른 동사들의 다양한 의미적 결합 양상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28)의 ‘읽어 주다’와 같은 ‘주다’ 구문은 V1이 V2 ‘주다’와 결합하면서 ‘-에게’ 논항을 새로이 도입하여 전체 문장의 논항 구조가 V2 ‘주다’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주다’는 보조동사 구문으로 분류하지 않는다.⁴⁰⁾ (28)의 ‘읽어주다’는 철수가 책을 소리 내어 읽음으로써 산출되는 결과물 ‘책의 내용’이 동생에게 전달되고 동시에 그 사건이 동생에게 수혜가 되는 사건으로도 확장되어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2.2.3.2.2. 단일절 속성

연쇄동사 구문을 구성하는 동사들이 단일절 내에 나타난다는 것은 시제(tense) 또는 상(aspect), 부정소(negation), 극성(polarity) 등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2.2.3.2.2.1. 시제, 상 표지 공유

Collins(1997)에서는 Ewe의 연쇄동사 구문과 접속 구문이 다음과 같은 미래 시제 표지의 공유 여부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30) Ewe(Collins 1997)

a. M-a da nu du.

I-FUT cook thing eat

‘I will cook something and eat it.’

40) S. Lee(1992), 남미혜(1996)에서는 이러한 ‘읽어 주다’의 구문을 연쇄동사 구문으로 분석하였다.

- b. M-*a* du nu *(*a*) no tsi.
 I-FUT eat thing FUT drink water
 'I will eat something and drink water.'

Ewe에서 (30a)와 같은 연쇄동사 구문에서는 두 동사가 하나의 미래 시제 표지 'a'를 공유하는데 (30b)와 같은 접속 구문에서는 두 개의 동사에 각각의 미래 시제 표지 'a'가 결합되어 실현되어야 한다.

Hellwig(2006:94)에서도 Goemai의 연쇄동사 구문이 다른 복합 동사 구문과 달리 시제와 상을 공유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제시하였다. 시제 표지와 시간 부사의 공유 여부에 따라 연쇄동사 구문을 구성하는 두 동사가 동일한 시간적 배경(temporal setting)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1) Goemai(Hellwig 2006:94)

- a. ni dyen wa doe t'o
 3SG PAST.YEST return.home(SG) come lie(SG)
 'Yesterday, he returned home (and) lay here'
- b. *hen dyen mûaan n-Jos ba wa shini
 1SG PAST.YEST go(SG) LOC-Jos return(SG) return.home(SG) today
- c. hen dyen mûaan n-Jos / hen ba wa shini
 1SG PAST.YEST go(SG) LOC-Jos 1SG return(SG) return.home(SG) today
 'I went to JOS yesterday, (and) I returned again (to Kwande) today'

(32) mutane d'e t'ong s'arp yi t'ong s'oe
 people(PL) exist PROG trade(PL) PROG PROG eat
 'People are trading (them and) eating (them)'

연쇄동사 구문은 (31a)에서와 같이 두 동사가 'dyen'이라는 오직 하나의 시제 또는 하나의 시간 부사와만 나타날 수 있다. (31b)와 같이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두 동사에 각각 다른 시제가 붙거나 두 동사가 각각 다른 시제를 나타내

는 시간 부사와 공기할 수 없다. 시간적 배경이 다른 두 사건을 연결하여 말할 때는 (31c)와 같이 접속 구조로만 표현이 가능하다. 또한 연쇄동사 구문에서는 (32)에서와 같이 Goemai에서 진행상을 나타내는 표지인 ‘*d’e t’ong yi*’ 요소 중 V2에는 ‘*t’ong*’만 붙어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두 동사가 하나의 진행상을 공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제와 상뿐만 아니라 연쇄동사 구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정 표지도 공유한다.

(33) Goemai(Hellwig 2006:95)

a. la hok mûaan ru d’i mou
 child(SG) DEF go(SG) enter(SG) Loc.ANAPH NEG
 ‘The child did not go (and did not) enter there’
 ‘The child went (but) did not enter there’

(33)에서와 같이 ‘*mûaan(go)*’과 ‘*ru(enter)*’ 두 동사가 하나의 부정소 ‘*mou(NEG)*’를 공유하나 부정소의 영향권(scope)에 따라 V1과 V2를 동시에 부정하는 해석과 V2 ‘*ru(enter)*’만 부정하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부정소가 두 동사보다 넓은 영향권(wide scope)을 가질 때에는 ‘그 아이는 거기에 가지도 들어가지도 않았다(The child did not go (and did not) enter there)’의 해석을 가지나 부정소가 좁은 영향권(narrow scope)을 가질 때에는 ‘그 아이는 거기에 갔으나 들어가지는 않았다(The child went (but) did not enter there)’의 해석을 갖는다. Aikervald(2006)에서도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두 동사가 하나의 부정소를 공유한다는 특징을 여러 언어들의 예를 들어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Alambalak(Bruce 1988:27)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4) Alambalak(Bruce 1988:27; Aikervald 2006 재인용)

a. ritm fiñji tandhi-ak-ni-r-më-t-m
 insects NEG roast-get-go-IRR-REM.PAST-3sgf-spl

Alambalak의 연쇄동사 구문도 Goemi와 마찬가지로 두 동사가 하나의 부정소를 공유하며 부정소의 영향권에 따라 다른 해석을 갖는다. (34)에 제시된 예는 세 개의 동사 ‘*tandhi(roast)-ak(get)-ni(go)*’가 연쇄동사 구문을 이룬 경우인데 Aikervald(2006)에 따르면 부정소의 영향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해

석이 가능하다. (i) ‘그녀가 곤충들을 굽지 않고 가지고 갔다(She did not roast (and) get the insects (and) go.)’, (ii) ‘그녀가 굽지 않은 곤충들을 가져 갔다(She took them unroasted.)’, (iii) ‘그녀가 곤충들을 굽고는 가져가지는 않았다(She roasted the insects and went having left them(did not take them).)’, (iv) ‘그녀가 곤충들을 구워 가졌으나 가지는 않았다(She roasted and got the insects but did not go.)’, (v) ‘그녀가 그 곤충들을 굽지 않은 채로 두고 갔다(She left them uncooked and went.)’, (vi) ‘그녀가 그 곤충들을 굽고 가지지도 가지도 않았다(She roasted them, didn’t take them and didn’t go.)’ 이렇듯 Aikenvald(2006)에서는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동사들이 공유하고 있는 부정소의 영향권에 따라 문장의 의미는 중의적일 수 있으며 문맥에 의해 중의성이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른 언어들의 연쇄동사 구문과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V1+어+V2{가다/오다, 주다}] 구문도 하나의 시제(tense) 또는 상(aspect), 부정소(negation), 극성(polarity) 등을 공유한다.

다음과 같이 한국어에서는 두 동사 중 V2에만 시제 표지가 붙는데 하나의 시제 연산자를 두 동사가 공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5) a. 철수가 영희에게 선물을 사 줄 것이다.

b. 철수가 영희에게 선물을 사 준다.

(36) a. 철수가 영희에게 선물을 사 주었다.

b. *철수가 영희에게 선물을 샀어 준다.

c. *철수가 영희에게 선물을 샀어 주었다.

하나의 시제 연산자만을 갖는다는 것은 통사적으로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두 동사(구)가 하나의 시제 투사 범주 내에 결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S. Kang(1993)에서는 핵 어말(head-final) 언어인 한국어에서 V1과 V2가 결합할 때 V1이 V2로 핵 이동(Head-movement)에 의해 이동하게 되면 시제 자질(tense feature)이 점검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선어말 어미 ‘-시-’도 두 동사 중 V2에만 붙어 나타난다(S. Kang 1993; 정태구 1993 등).

- (37) a. 철수가 아버지께 선물을 사 드렸다.
 b. 아버지께서 철수에게 선물을 사 주셨다.
 c. *아버지께서 철수에게 선물을 사서 주셨다.

또한 앞서 Hellwig(2006:94)에서 제시한 대로 연쇄동사 구문을 구성하는 두 동사가 다음과 같이 동일한 시간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8) a. 철수는 어제 동물원에 갔고 오늘은 박물관에 갈 것이다.
 b. 철수는 어제 동물원에 갔고 영희는 오늘 동물원에 갔다.

- (39) a. 철수가 학교에 어제 달려 갔다.
 b. *철수가 학교에 어제 달려 오늘 갔다.

- (40) a. 철수가 영희에게 선물을 어제 사 주었다.
 b. ??철수가 영희에게 선물을 어제 사 오늘 주었다.
 c. 철수가 영희에게 선물을 어제 사 *(#)/사서 오늘 주었다.

(38)과 같은 접속 구문에서는 각각 다른 시간적 배경을 갖는 두 절이 연결되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39)와 같이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두 동사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동일한 시간적 배경을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 (39b)와 같이 V1의 행위와 V2의 행위가 각각 다른 시간대에 일어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40)과 같이 V1과 V2가 시간적 순서에 따른 계기적 사건으로 해석이 가능한 연쇄동사 구문에서도 각각의 동사에 다른 시간적 배경이 설정되는 것은 어색하다. (40c)와 같이 두 동사 사이에 분명한 절 경계를 나타내는 ‘-(어)서’나 휴지(pause: #)가 있어야만 두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가 다른 시간대에 일어났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

Hellwig(2006:95)에서 제시한 Goemi의 연쇄동사 구문과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V1+어+V2{가다/오다, 주다}] 구문이 하나의 상(aspect) 표지를 공유한다는 사실을 진행상을 나타내는 ‘-중이다’⁴¹⁾와의 결합 양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41) 한국어에서 진행을 나타내는 표현은 ‘-중이다’ 말고도 ‘-고 있다’도 있다. 그러나 ‘-중이다’는 동사가 나타나는 행위의 과정의 지속만을 나타내며 결과 상태는 배제시키는 의미를 갖는 반면에 ‘-고 있다’는 과정의 지속과 결과 상태의 지속을 둘 다 나타낼 수 있어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두 동사 중에 어느 행위의 지속인

(41) a. 철수가 학교에 [달려 가는] 중이다.

└-----┘

b. 철수가 영희에게 빵을 [만들어 주]는 중이다.

└-----┘

(41)에서와 같이 [V1+어+V2{가다/오다, 주다}] 구문은 하나의 진행상을 공유한다. 그런데 V1과 V2{가다/오다, 주다}의 의미적 결합 양상과 본래 동사가 지닌 상적 특성에 따라 진행상 ‘-중이다’의 수식을 받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41a)에서와 같이 두 동사가 결합하여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를 나타내는 ‘달려 가다’의 경우에는 ‘-중이다’에 의해 [V1+어+V2] 전체 행위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에 (41b)의 ‘만들어 주다’는 ‘철수가 빵을 만드는’ 하위 사건과 ‘철수가 그 빵을 영희에게 주는’ 하위 사건으로 결합된 하나의 완성 (accomplishment) 사건이 계기적 사건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⁴²⁾ 이러한 경우에는 ‘-중이다’에 의해 [V1+어+V2] 전체 행위의 지속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 사건 내에 과정 중에 있는 V1의 ‘만드는 행위’만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⁴³⁾ (41b)에서 ‘-중이다’가 V1의 행위의 지속만을 나타내는 것은 (41b)의 V2 ‘주다’

지를 판별하기 더 어렵다고 판단해 ‘-중이다’와의 결합 양상을 다루기로 한다.

42) ‘만들어 주다’와 같이 계기적 사건으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라도 ‘-중이다’와 결합하는 양상이 다를 수 있다.

(i) a. 철수가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 중이다.

└...┘

b. 철수는 라면을 3분 동안 끓여 먹었다.

c. 철수는 라면을 3분 만에 끓여 먹었다.

(i)의 ‘끓여 먹다’는 ‘끓여서 먹다’로도 해석이 가능한 계기적 사건을 나타낸다. 그런데 (ia)는 V1의 ‘라면을 끓이는 행위’가 끝나고 ‘-중이다’에 의해 V2의 ‘먹는’ 행위만이 지속되는 해석을 갖는다. 또한 (ib)와 같이 ‘3분 동안’과 같은 지속 부사구와 공기하는 경우에는 V1 ‘끓이는 행위’의 지속을 나타내는 반면에 (ic)와 같이 ‘3분 만에’와 같은 시간틀 부사구와 공기할 때에는 [V1+어+V2] 전체의 행위가 주어진 시간 내에 완료되었음을 나타낸다.

43) 언어 사용자들의 직관에 따라 ‘-중이다’에 의해 V1의 ‘만드는 행위’의 지속만이 아니라 V1의 [만드는 행위]와 V2의 [주는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만들어 주다’를 ‘완성 (accomplishment)’이라는 복합 사건이 아니라 복수 사건으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복합 (complex) 사건은 하위 구조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복수 (multiple) 사건과 다른 단일 사건이다.

와 (41a)의 V2 ‘가다/오다’가 다른 상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42) a. 철수가 학교에 갔다/왔다.
b. 철수가 학교에 가는/오는 중이다.
c. 철수가 학교에 가다/오다 말했다.

- (43) a.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주었다.
b.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주는 중이다.
c.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주다 말했다.

(42)에서와 같이 ‘가다/오다’는 ‘-중이다’와 결합하여 이동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중단된 것을 나타내는 ‘-어다 말다’와도 결합이 가능하다. 그런데 (43)의 ‘주다’는 ‘책이 철수의 손에서 영희의 손으로 이동하는’ 그 순간을 부각시켜 표현하고자 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주는’ 순간적인 사건을 확장하여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표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43b)에서와 같이 진행상을 나타내는 ‘-중이다’와 결합할 수 없다. 유현경(2003)⁴⁴에서도 지적하듯이, [+순간성]을

44) 유현경(2003)에서는 ‘주다’의 상적 의미가 ‘-에’를 취하느냐, ‘-에게’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 (i) a. 철수가 꽃에 물을 주었다. - √주다 말했다.
 착점
 (ii) a.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주었다. *-주다 말했다.
 수혜자(유정성+자발적 능력(potency): Frawley 1992:217)
 b. 철수가 친구들에게 책을 주었다. √-주다 말했다.
 복수+-에게 +주다(행위(activity))

유현경(2003)에 따르면 ‘주다’가 무정물과만 결합하는 ‘-에’를 취하는 경우에는 ‘-주다 말다’와 결합이 가능한 것을 볼 때 [-순간성]의 완성(accomplishment) 사건을 나타내는데, 유정물과 결합하는 ‘-에게’를 취하는 경우에는 ‘-주다 말다’와 결합이 불가능하며 [+순간성]의 달성(achievement) 사건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iib)와 같이 여격 ‘-에게’와 복수 명사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주다’가 [-순간성]의 행위(activity)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다 말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다’가 취하는 ‘-에’ 또는 ‘-에게’에 따라 ‘주다’의 상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물을 주는’ 사건과 같이 양적 척도(scale)가 존재하는 사건이거나 ‘주다’ 문장 내에 ‘-에게’가 복수형과 결합하여 배분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에 (iia)와 다른 종류의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에’ 또는 ‘-에게’와 같은 하나의 어휘소가 아니라 동사가 구성하는 문장 전체의 사건

지닌 달성(achievement) 사건을 나타내는 ‘주다’는 그 행위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중단된 것을 나타내는 ‘-어다 말다’와도 결합할 수 없다.⁴⁵⁾ 이렇듯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두 동사의 의미적 속성과 결합 유형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 상(aspect) 표지의 수식 범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2.2.3.2.2. 부정소와 부정 극성 공유

연쇄동사 구문을 구성하는 두 동사는 단일 동사와 마찬가지로 부정소와 부정 극성을 공유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부정과 관련된 특성은 본고에서 다루는 [V1+어+V2{가다/오다, 주다}] 구문이 앞서 제시한 범언어적으로 나타나는 연쇄동사 구문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한국어에서의 접속 구성 또는 내포절 구성 그리고 합성동사와 구분 지을 수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논의들 중에 한국어에서 연쇄동사 구문을 인정하는 이홍식(2000)에서는 내포절 구성이나 접속 구성과 연쇄동사 구문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 (44) a. 철수는 [아무도 안 사랑한다고] 말했다.
a'. 철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b. *철수는 [아무도 사랑한다고] 안 말했다.
b'. *철수는 [아무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 (45) a. 철수는 [아무 것도 안 만들어 먹]었다.
b. 철수는 [아무 것도 만들어 먹]지 않았다.

의 유형에 따라 그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이 달라지는 것이다. 또한 ‘주다’는 원래 [+순간성](본고에서는 종결성(telicity))을 지닌 달성(achievement) 사건을 나타낸다.

- 45) ‘주다’가 다른 동사와 결합하여 다른 연쇄동사 구문을 구성하면 이러한 ‘주다’의 ‘순간적 사건’이 확장되어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 (i) a. 철수가 영희의 손가락에/영희에게 반지를 끼워 주고 있다.
/끼워 주는 중이다.
b.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고 있다./나누어 주는 중이다.

(ia)와 같이 ‘주는’ 방식을 나타내는 V1과 결합한 ‘끼워 주다’, ‘꽂아 주다’, ‘달아 주다’, ‘걸어 주다’ 등과 (ic)와 같이 배분 사건을 나타내는 V1과 결합한 경우에는 ‘주다’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부정극어는 자신을 허가하는 부정 연산자와 같은 절 내에 나타나야 한다. 내포절에 의한 구성은 (44a-a')과 같이 부정극어 '아무도'와 부정 연산자가 같은 절 내에 있을 경우에만 문장이 성립한다. (44b-b')에서와 같이 부정극어 '아무도'는 내포절에 있고 부정 연산자는 그보다 상위절에 있는 경우에는 동절 조건 (clause-mate condition)을 어기게 되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45)의 연쇄동사 구문에서는 (45b)에서와 같이 부정극어 '아무도'가 부정 연산자 '안'과 같은 절 내에 있지 않아도 문장이 성립한다. 부정 연산자가 동절 내에 있든 부정극어보다 상위절에 있든 부정소의 위치에 따라 문장의 문법성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는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두 동사가 이홍식(2000)의 주장대로 재구조화에 의한 것이든⁴⁶⁾ 또는 다른 어떤 층위에서든 합성동사와 같이 하나의 단문을 형성하여 단일절 내에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홍식(2000)에서는 연쇄동사 구문이 단형 부정 '안'과의 영향권(scope) 관계에서도 접속 구성, 내포절 구성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제시하였다.

- (46) a. 철수가 사과를 [[안 깎고] 먹]었다.
 b. 철수는 [영희가 안 좋다고] 말했다.
 c. 철수가 사과를 [안 [깎아 먹]]었다.

그는 (46a)의 접속 구성과 (46b)의 내포절 구성에서는 단형 부정 '안'에 의해 V1만 부정되는데 (46c)의 연쇄동사는 단형 부정 '안'에 의해 [V1+어+V2] 전체가 부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박소영(2014)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연쇄동사는 V1과 V2 각각이 부정되는 해석도 가능하다.

- (47) a. 철수가 소고기를 안 구워먹었다.⁴⁷⁾

46) H. Choe(1988)에서는 '재구조화' 개념을 도입하여 한국어 보조동사 구문에서의 부정극어의 영향권(scope)을 설명하였다. H. Choe(1988)에 따르면 보조동사 구문에서 부정극어와 그것의 허가자인 부정소 '안-'이 같은 절 내에 나타나야 한다는 동절 조건(clause-mate condition)이 어겨지는데도 문장이 성립되는 것은 "통사적 기저 구조상에서는 별개의 두 문법 요소로 존재하다가 논리 해석(LF)상에서 하나의 의미 단위로 재구조화되어 하나의 서술어로 기능"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재구조화' 개념은 다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한국어에서 연쇄동사 구문이나 보조동사 구문을 설명하는 기제로 받아들여졌다.

47) 정태구(1993)에서는 V1이 방식 또는 양태(manner)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부정소에 의해 V1만 부정되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b. *철수가 소고기를 구워 안 먹었다.

(48) a. 영희가 땅에 금덩어리를 안 파묻었다.

b. *영희가 땅에 금덩어리를 파 안 묻었다.

(47)의 연쇄동사 ‘구워먹다’를 (48)의 합성동사 ‘파묻다’와 비교했을 때 단형 부정 ‘안’에 의해 두 동사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부정 연산자와의 영향권 관계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47a)의 ‘구워먹다’의 경우는 부정 연산자 ‘안’이 좁은 영향권(narrow scope)을 갖는 해석으로 V1만 부정하여 ‘철수가 소고기를 구워먹지 않고 날로 먹었다’는 의미와 부정 연산자 ‘안’이 넓은 영향권(wide scope)을 갖는 해석으로 [V1+어+V2] 동사 전체를 부정하여 ‘철수가 소고기를 아예 먹지 않았다’는 의미가 둘 다 가능하다.⁴⁸⁾ 이와 달리 (48a)의 합성동사 ‘파묻다’는 부정 연산자 ‘안’이 [V1+어+V2] 동사 전체를 부정하는 해석만을 갖는다. 정리해 보면,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두 동사가 하나의 단일절 내에 나타나 부정극어와 같은 극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단문을 형성하는 합성동사와 유사하나 부정소와의 영향권 관계에서는 합성동사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V2에 ‘가다/오다’, ‘주다’가 오는 연쇄동사 구문에서도 (47)의 ‘구워먹다’와 마찬가지로 단형 부정 ‘안’에 의해 V1이 나타내는 행위만 부정되는 것도 가능하고, [V1+어+V2] 전체가 부정이 되는 해석도 가능하다.

(49) 철수가 학교에 안 달려 갔다.

48) 본고에서는 방언을 다루지 않지만 이기갑(2003:521~526)에는 서남 방언과 동북 방언의 경우에는 복합 용언과 보조 용언 내부에 부정어가 나타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특히 동북 방언에서는 ‘넘어가다’, ‘알아듣다’와 같은 복합어뿐만 아니라 ‘아껴 치다’, ‘올려 놓다’, ‘썩 먹다’ 등의 구 사이에도 부정어가 쉽게 끼어들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중세 및 근대어에서 복합어의 내부에 부정어가 오는 사용 방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이기갑 2003:525).

(i) 이기갑(2003:525~526)

a. 그런 말으 우리 썩 아이 봤소.(=그런 말은 우리 썩 보지 안 했오.) [동북]

b. 이거라도 잡아 안 두면 나중에 큰일나. [서남]

그러나 부정소 ‘안’의 위치가 두 용언 사이에 온다고 해서 뒤에 오는 용언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용언 전체를 부정하는 해석만을 갖는다.

- (i) 제자리에 가만히 있었다. (ii) 걸어 갔다.
- (50) 이 형사가 경찰서에 범인을 안 잡아 갔다.
 (i) 아예 경찰서에 안 갔다. (ii) 이 형사 혼자만 갔다.
- (51) 철수가 영희에게 빵을 안 만들어 주었다.
 (i)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ii) 사서 주었다.
- (52) 철수가 동생에게 책을 안 읽어 주었다.
 (i) 혼자만 읽었다. (ii) 안 읽어주고 직접 읽으라고 주었다.
 / 내용은 읽지 않고 그림만 보여 주었다.
- (49)~(52)에서 보듯이, 단형 부정 ‘안’에 의한 부정 범위에 있어서는 다른 연쇄 동사 구문과 동일하게 V1만 부정이 가능하기도 하고 [V1+어+V2] 전체가 부정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부정 극성의 공유 여부에 있어서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자.
- (53) a. 철수가 아무데도/누구에게도 안 달려 갔다.
 a'. 철수가 아무데도/누구에게도 안 달려 가고 제자리에 서 있었다.
 a". *철수가 아무데도/누구에게도 안 달려 가고 걸어갔다.
- b. 철수가 아무데도/누구에게도 달려 가지 않았다.
 b'. 철수가 아무데도/누구에게도 달려 가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었다.
 b". *철수가 아무데도/누구에게도 달려 가지 않고 걸어 갔다.
- (54) a. 이 형사가 경찰서에 아무도 안 잡아 갔다.
 a'. 이 형사가 경찰서에 아무도 안 잡아 가고 혼자 갔다.
 a". 이 형사가 경찰서에 아무도 안 잡아 가고 집에 있었다.
- b. 이 형사가 경찰서에 아무도 잡아 가지 않았다.
 b'. 이 형사가 경찰서에 아무도 잡아 가지 않고 혼자 갔다.
 b". 이 형사가 경찰서에 아무도 잡아 가지 않고 집에 있었다.

‘달려 가다’의 경우는 (53a’)과 (53b’)에서와 같이 부정소의 위치에 상관없이 ‘달려 가다’ 전체가 부정되는 ‘제자리에 서 있었다’의 해석만 가능한 것으로 볼 때, 다른 연쇄동사 구문과 마찬가지로 두 동사가 부정 극성을 공유하며 단일 동사로 기능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잡아 가다’는 (54a’)과 (54b’)에서와 같이 V1만 부정되어 행동주와 대상이 함께 이동하는 사건에서 행동주만 이동한 것으로 해석되거나 (54a”)과 (54b”)에서와 같이 두 동사가 부정 극성을 공유하여 행동주와 대상 모두 착점으로 이동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뜻한다.

(55) a. 철수가 영희에게 아무것도 안 만들어 주었다.

a’. 철수가 영희에게 아무것도 만들어 주지 않았다.

b. *철수가 영희에게 아무것도 안 만들어서 주었다.

b’. 철수가 영희에게 아무것도 만들어서 주지 않았다.

(56) a. 철수가 영희에게 아무것도 안 [만]들어 주었다. (다) [사] 주었다.

b. 철수가 영희에게 아무것도 만들어 주지 않고 (다) 사 주었다.

(57) a. 철수가 동생에게 아무것도 안 읽어 주었다.

a’. 철수가 동생에게 아무것도 읽어 주지 않았다.

b. *철수가 동생에게 아무것도 안 읽어서 주었다.

b’. *철수가 동생에게 아무것도 읽어서 주지 않았다.

(58) a. 철수가 동생에게 아무것도 안 읽어 주었다.

직접 읽으라고 책을 그냥 주었다 / 그림만 보여 주었다.

b. 철수가 동생에게 아무것도 읽어 주지 않았다.

직접 읽으라고 책을 그냥 주었다 / 그림만 보여 주었다.

(55)의 ‘만들어 주다’의 경우는 앞서도 ‘만들어서 주다’와 교체가 가능하며 계기적 사건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55a)와 (55b)를 비교해 보면, 연쇄동사 구문과 ‘-(어)서’의 접속 구문에서 부정극어와 단형 부정 ‘안’이 나타날 때 문장의 성립 여부는 달라진다. (55b)의 문장이 비문법적이라는 것은 ‘만들어 주다’가 ‘-(어)서’의 접속 구성이 아니라 하나의 단위로 기능한다는 증거이다. 그런데

(55b')에서와 같이 장형 부정에 의해 부정극어가 허가되는 경우에는 '철수가 영희에게 아무것도 만들어서 주지 않았다'의 문장 다음에 '다 사 주었다'와 같은 문장이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은 (56a)와 (56b)에서와 같이 '철수가 영희에게 직접 만들어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사서 준 것이다'와 같은 문장이 성립되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만들어 주다'의 V1만 부정되는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서로 대조를 이루는 성분에 초점(focus)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점이 작용하지 않는 문장에서 '만들어 주다'는 (55a)와 (55a')에서와 같이 부정소의 위치에 상관없이 다른 연쇄동사 구문들과 마찬가지로 두 동사가 부정 극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만들어 주다' 동사 전체가 부정극어를 허가하는 부정소의 영향권 내에 있는 '철수가 영희에게 직접 만들어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해석이 도출된다. '읽어 주다'도 (57)에서와 같이 부정소의 위치에 상관없이 동사 전체가 하나의 단일절 내에서 부정 극성을 공유한다. (58)에서와 같이 V1만 부정되는 해석은 '만들어 주다'와 마찬가지로 V1 '읽어'에 초점이 주어질 때만 가능하다.

2.2.3.2.3. 연쇄동사 구문과 합성동사의 통사적 특성 비교

지금까지 한국어의 [V1+어+V2{가다/오다, 주다}] 구문이 전체 문장의 논항 구조를 구성하는 데 관여하며 하나의 시제와 상, 부정소 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범언어적으로 나타나는 연쇄동사 구문들이 보이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구문임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아직 한국어에서 연쇄동사 구문을 인정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후자의 입장에서는 한국어의 [V1+어+V2]형의 동사 구성이 하나의 단위로 기능하는 경우에 굳이 합성동사 외에 또 다른 범주를 설정하여 구분한다는 것이 경제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다른 입장을 취하는 논의들에서는 한국어의 [V1+어+V2]형의 동사 구성이 접속에 의한 통사적 구성인지 또는 연쇄동사 구문인지 아니면 합성동사인지를 판별하기 위해 다양한 기제들을 이용하여 증명하고자 하였다(S. Lee 1992; S. Kang 1993; 이홍식 2000; 이정훈 2006; 박소영 2014; 차가영 2015 등). 본고에서는 '-(어)서'에 의한 분리 가능 여부, 부사 삽입 혹은 수식 범위, 자리 바꾸기(scrambling), '-기' 반복 구문, 공백화(gapping)를 중심으로 연쇄동사 구문과 합성동사의 통사적 특성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한국어의 [V1+어+V2]형의 동사 구성에 대한 기존의 수많은 연구들에서는 그

것이 하나의 단어인지 아닌지 다시 말해, 두 동사가 분리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가장 일차적인 방법으로 ‘-어’와 ‘-(어)서’의 교체 가능 여부를 적용하였다. 이에 관해 연쇄동사 구문과 합성동사, 보조동사를 비교하며 다시 살펴보도록 하자.

- (59) a. 철수가 소고기를 구워 먹었다.
b. 철수가 소고기를 구워서 먹었다.

- (60) a. 영희는 땅에 금덩어리를 파묻었다.
b. *영희는 땅에 금덩어리를 파서 묻었다.

- (61) a. 영수가 과자를 다 먹어 버렸다.
b. *영수가 과자를 다 먹어서 버렸다.

(59)에서와 같이 연쇄동사 구성의 ‘구워 먹다’는 ‘구워서 먹다’도 가능하다. 또한 둘 사이에 큰 의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V1의 ‘고기를 굽는’ 사건과 V2의 ‘구운 고기를 먹는’ 사건이 계기적으로 연결된 연쇄동사 구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접속에 의한 통사적 구성에 가까운 부류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60)의 ‘파묻다’와 같이 어휘부에서 하나의 단위로 존재하는 합성동사는 ‘-(어)서’에 의해 두 동사가 분리될 수 없다. (61)의 ‘먹어 버리다’와 같은 보조동사 구성도 ‘-(어)서’에 의해 두 동사가 분리될 수 없다. 그렇다면 V2에 ‘가다/오다’와 ‘주다’가 오는 [V1+어+V2{가다/오다, 주다}] 구문의 경우는 어떠한지 알아보자.

- (62) a. 철수가 학교에 달려 갔다.
b. 철수가 학교에 달려서 갔다.

- (63) a. 이 형사가 경찰서에 범인을 잡아 갔다.
b. 이 형사가 경찰서에 범인을 잡아서 갔다.

- (64) a. 현대인들은 고된 삶을 살아 간다.
b. *현대인들은 고된 삶을 살아서 간다.

(62)의 ‘달려 가다’와 (63)의 ‘잡아 가다’에서 V2 ‘가다’는 앞서 살펴본 대로 ‘이동’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경우 V1과 V2가 ‘-(어)서’에 의해 분리되어도 문장이 성립된다. 그런데 (64)의 ‘살아 가다’와 같이 V2 ‘가다’가 ‘진행’이나 ‘지속’의 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동사로 쓰인 경우에는 두 동사가 ‘-(어)서’에 의해 분리될 수 없다.

- (65) a. 철수가 영희에게 빵을 만들어 주었다.
 b. 철수가 영희에게 빵을 만들어서 주었다.

- (66) a. 철수가 동생에게 책을 읽어 주었다.
 b. *철수가 동생에게 책을 읽어서 주었다.

- (67) a. 철수가 영희를 도와 주었다.
 b.*철수가 영희를 도와서 주었다.

- (68) a.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돌려주었다.
 b.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돌려서 주었다.

(65)의 ‘만들어 주다’는 ‘-(어)서’에 의해 두 동사가 분리될 수 있으며 ‘만든 사건’에 이어 ‘주는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V1의 대상 논항이 V2 ‘주다’에 의해 ‘-에게’ 여격 표지가 결합된 논항으로 이동 또는 전달된 사건을 나타낸다. 반면에 (66)의 ‘읽어 주다’, (67)의 ‘도와 주다’, (68)의 ‘돌려주다’는 ‘-(어)서’에 의해 두 동사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대로 ‘읽어 주다’의 ‘주다’는 전체 문장의 논항 구조를 결정하는 데 관여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두 부류와 구분된다. (67)의 ‘도와 주다’는 ‘주다’가 그 문장 내에 논항 투사를 하지 않는 경우로 ‘주다’가 없어도 문장이 성립되며 ‘주다’는 ‘수혜’라는 보조적인 의미만을 나타낸다. (68)의 ‘돌려주다’는 ‘과물다’와 같은 합성동사로 두 동사가 합쳐진 형태로만 전체 문장의 논항에 의미역을 할당할 수 있다.

연쇄동사 구문과 합성동사는 V1과 V2 사이에 부사가 개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문장 내에 부사가 실현되었을 때 그 부사가 수식하는 범위가 다르다.

- (69) a. 철수가 소고기를 구워 빨리 먹었다.
 b. 철수가 소고기를 빨리 구워 먹었다.

- (70) a. *영희는 땅에 금덩어리를 파 빨리 묻었다.
 b. 영희는 땅에 금덩어리를 빨리 파묻었다.

(69)에서와 같이 ‘구워 먹다’의 두 동사 사이에는 ‘빨리’와 같은 부사가 개입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뒤에 오는 V2가 나타내는 행위나 사건만을 수식한다. 반면에 (70)의 ‘파묻다’와 같은 합성동사의 경우에는 부사가 두 동사 사이에 끼어들 수 없으며 두 사건 중 하나의 사건만을 분리하여 수식할 수 없다. 그런데 (69b)의 연쇄동사 구문도 [V1+어+V2] 동사 앞에 부사 ‘빨리’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70b)의 ‘파묻다’와 같이 어떤 사건이 ‘빨리’에 의해 수식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이는 연쇄동사 구문이 통사적으로 투명한 구조를 지니면서도 의미적으로는 하나의 단일 사건을 나타낸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V1+어+V2(가다/오다, 주다)] 구문들은 부사 ‘빨리’의 삽입 가능 여부와 수식 범위에 있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자.

- (71) a. ??철수가 학교에 달려 빨리 갔다.
 a'. 철수가 달려 학교에 빨리 갔다.
 b. 철수가 학교에 빨리 달려 갔다.

- (72) a. ??이 형사가 경찰서에 범인을 잡아 빨리 갔다.
 a'. 이 형사가 범인을 잡아 경찰서에 빨리 갔다.
 b. 이 형사가 경찰서에 범인을 빨리 잡아 갔다.

- (73) a. 철수가 영희에게 빵을 만들어 빨리 주었다.
 a'. 철수가 빵을 만들어 영희에게 빨리 주었다.
 b. 철수가 영희에게 빵을 빨리 만들어 주었다.

- (74) a. *철수가 동생에게 책을 읽어 빨리 주었다.
 a'. *철수가 책을 읽어 동생에게 빨리 주었다.

b. 철수가 동생에게 책을 빨리 읽어 주었다.

(75) a. *철수가 영희를 도와 빨리 주었다.

b. 철수가 영희를 빨리 도와 주었다.

‘달려 가다’와 ‘잡아 가다’의 경우에는 (71a)와 (72a)에서와 같이 두 동사 사이에 부사 ‘빨리’가 개입되어 V2의 사건만이 수식을 받는 것으로 해석되기 어렵다. (71a’)과 (72a’)과 같은 접속 구문에서만 부사 ‘빨리’에 의해 V1과 V2가 분리되는 것이 가능하다. ‘달려 가다’는 V1이 V2와 결합하여 이동 방식이나 양태(manner)를 나타내는 경우이고, ‘잡아 가다’는 V1의 사건의 결과가 유지된 채 V2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즉, 이 형사가 범인을 잡고 그 잡은 범인과 함께 경찰서로 이동하는 사건)로, V1과 V2의 사건이 분리되어 해석되기 어려우므로 (71b)와 (72b)에서와 같이 부사 ‘빨리’가 [V1+어+V2] 앞에 오는 경우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때 어떤 사건이 ‘빨리’에 의해 수식되는 것인지는 ‘구워 먹다’와 마찬가지로 불분명하다. (73)의 ‘만들어 주다’와 같이 계기적 사건으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사 ‘빨리’에 의해 V1과 V2의 분리가 가능하며 (73a)에서와 같이 V2만 수식을 받거나 [V1+어+V2] 전체가 수식을 받을 수도 있다. (74)의 ‘읽어 주다’는 ‘주다’가 보조적인 의미와 기능만을 하는 (75)의 ‘도와 주다’와 마찬가지로 부사 ‘빨리’에 의해 두 동사가 분리될 수 없으며 [V1+어+V2] 전체만 수식을 받을 수 있다. 동일한 연쇄동사 구문이라도 V1에 따라 부사의 수식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V1과 V2의 의미적 결합 즉 사건 구조의 결합 양상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건 구조의 합성 유형에 관해서는 5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두 동사 사이에 부사 개입 여부뿐만 아니라 자리 바꾸기(scrambling), ‘-기’ 반복 구문,⁴⁹⁾ 공백화(gapping)를 통해서도 연쇄동사 구문을 구성하는 두 동사의

49) 본고에서는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두 동사의 분리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존의 논의들에서(S. Lee 1992; S. Kang 1993; 이홍식 2000; 이정훈 2006; 박소영 2014; 차가영 2015 등) 제시되고 있는 통사적 판별법들을 적용하는데 그중 하나가 ‘-기’ 반복 구문의 성립 여부이다. 그런데 목정수(2002:219)에서는 아래 (i)와 같은 문장에서 명사형 어미 ‘-기’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조사 ‘는’은 단순한 문법적 한정 기능 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사 ‘는’이나 ‘도’는 어휘핵의 문법적 한정 요소로, 동사 어간을 어휘핵으로 삼을 경우에는 그 변이 형태로 ‘-기는 하’, ‘-기도 하’를 취하는 것이며, 따라서 동사 어간 뒤에 붙는 ‘-기는 하’, ‘-기도 하’는 동사에 붙는 보조사 ‘는’, ‘도’의 변이 형태의 일반형으로 보아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ib)와 같이 ‘는’이 생략된 문장은 성립되지 않

분리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 (76) a. 소고기를 구워_i 철수가 ____i 먹었다.
b. *땅에 금덩어리를 파_i 영희가 ____i 묻었다.

- (77) a. 철수가 소고기를 굽기는 구워먹었다.
(겉만 살짝 구워 완전히 익히지는 않았지만)
b. *영희가 땅에 금덩어리를 파기는 파묻었다.

- (78) a. 철수는 소고기를 구워, 영희는 돼지고기를 구워 먹었다.
b. *영희는 땅에 금덩어리를 파, 철수는 땅에 돌덩어리를 파묻었다.

(76)의 ‘자리 바꾸기’, (77)의 ‘-기’ 반복, (78)의 공백화(gapping) 가능 여부를 통해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두 동사는 통사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나 합성동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워 먹다’와 마찬가지로 [V1+어+V2(가다/오다, 주다)] 구문도 ‘자리 바꾸기’, ‘-기’ 반복, 공백화(gapping) 여부를 통해 두 동사가 분리 가능한 즉 통사적으로 투명한(transparent)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79) a. *학교에 걸어_i 철수가 ____i 갔다.
b. 철수가 학교에 걸기는 걸어 갔다.
c. 철수는 학교에 걸어, 영희는 학교에 달려 갔다.

- (80) a. 범인을 잡아_i 이 형사가 경찰서에/경찰서로 ____i 갔다.
b. 이 형사가 경찰서에/경찰서로 범인을 잡기는 잡아 갔다.

으며 이때의 수의적인 요소는 ‘는’이 아니라 ‘-기는 하’라고 밝히고 있다.

- (i) a. 재는 밥을 많이 먹기는 먹는데, 살이 안 찌더라.
b. *?재는 밥을 많이 먹기 먹는데, 살이 안 찌더라.

이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본문에서 제시한 ‘철수가 소고기를 굽기는 구워 먹었다.’는 ‘철수가 소고기를 구워는 먹었다’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김창섭(1994), 정태구(1993; 1995) 등에서는 이와 같은 두 동사 사이에 보조사의 삽입 여부를 통해 두 동사가 분리가 가능한 동사 구문인지를 판별하기도 하였다.

- c. 이 형사가 경찰서에 살인 사건 용의자를 잡아,
김 형사가 경찰서에 절도 혐의 용의자를 잡아 갔다.

(79)의 ‘걸어 가다’, ‘달려 가다’ 등과 같이 V1이 ‘이동 방식이나 양태(manner)’를 나타내며 ‘이동’ 행위와 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V1만 ‘자리 바꾸기’를 통해 분리할 수 없다. 그러나 ‘-기’ 반복, 공백화(gapping)는 가능하며 ‘구워 먹다’와 동일하게 두 동사가 분리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앞서 ‘잡아 가다’는 ‘가다’에 의해 대상 논항에 공동격을 할당하는 연쇄동사 구문이라고 밝혔는데 (80)에서와 같이 ‘자리 바꾸기’, ‘-기’ 반복, 공백화(gapping) 여부를 통해서도 연쇄동사 구문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81) a. 빵을 만들어_i 철수가 영희에게 ____i 주었다.
- b. 철수가 영희에게 빵을 만들기는 만들어 주었다.
 (빵의 형태를 제대로 알아볼 수는 없지만)
- c. 철수는 영희에게 빵을 만들어,
 영수는 순이에게 쿠키를 만들어 주었다.

- (82) a. *책을 읽어_i 철수가 동생에게 ____i 주었다.
- b. 철수가 동생에게 책을 읽기는 읽어 주었다.
 (성의 없이 읽기는 했지만)
- c. *철수는 남동생에게 동화책을 읽어,
 영희는 여동생에게 동시를 읽어 주었다.

(81)의 ‘만들어 주다’도 ‘자리 바꾸기’, ‘-기’ 반복, 공백화(gapping)가 가능하다. (82)의 ‘읽어 주다’는 철수가 책을 소리 내어 읽음과 동시에 그 내용이 동생에게 전달되는 사건을 나타내므로 V1과 V2가 나타내는 각각의 사건이 분리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적 특성으로 인해 ‘자리 바꾸기’나 공백화(gapping)를 통해 V1만이 분리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읽어 주다’는 (82b)와 같이 ‘-기’ 반복은 가능한 것으로 볼 때, 합성동사와도 구분되는 부류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어에서 두 동사가 연쇄되어 나타나는 구문이 ‘-(어)서’에 의한 분리, 부사 삽입 가능 여부, ‘자리 바꾸기’, ‘-기’ 반복, 공백화(gapping)와 관련해

서 동일한 형태의 합성동사와는 다른 속성을 지닌 하나의 다른 범주임을 보이
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연쇄동사 구문이라는 동일 범주로 묶인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두 동사의
다양한 통사·의미적 결합 유형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러
한 점에서 이들의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의 합성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4장과 5장에 걸쳐 살펴보기로 한다.

이 절에서 살펴본 한국어 [V1+어+V2{가다/오다, 주다}] 구문이 연쇄동사 구
문으로서 지니는 통사적 특성을 다른 구문들과 비교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83)	접속 구문	합성동사	연쇄동사 구문		
			'-어 먹다'류	V2={가다/오다}	V2={주다}
(1) 논항 공유			○	○	○
(2) 시제, 상 공유	×	○	○	○	○
(3) 극성 (polarity) 공유	×	○	○	'달려가다': ○ '잡아가다': △	△
(4) 단형 부정 '안'에 의한 부정 범위	각각	[V1+어+V2] 전체 부정	(i) V1만 부정 (ii) [V1+어+V2] 전체 부정	(i) V1만 부정 (ii) [M+어+V2] 전체 부정	(i) V1만 부정 (ii) [M+어+V2] 전체 부정
(5) '-(어)서'에 의한 분리		×	○	○	'만들어주다': ○ '읽어주다': ×
(6) 부사 삽입과 수식 범위	각각	[V1+어+V2] 전체 수식	(i) V2만 수식 (ii) [V1+어+V2] 전체 수식	(ii) [M+어+V2] 전체 수식	'만들어주다': (i),(ii)가능 '읽어주다': (ii) [M+어+V2] 전체 수식
(7) 자리 바꾸기 (scrambling)		×	○	○	○
(8) '-기' 반복 구문		×	○	○	○
(9) 공백화 (gapping)		×	○	○	○

2.2.3.3. 의미적 특성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두 동사는 통사적으로 분리 가능한 구조를 지니면서도 하나의 단일절 내에 나타난다. 즉 두 동사의 결합 구조가 투명하다는 점에서는 접속에 의한 통사적 구성과 동시에 하나의 단위로 기능한다는 점에서는 합성동사와 그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⁵⁰⁾ 이러한 연쇄동사 구문의 의미적 특성은 Aikenvald(2006)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하나의 사건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Aikenvald(2006)에서는 그 이전에 연쇄동사 구문의 의미론적 특성을 ‘사건’의 관점에서 제시한 논의로 Lord(1974:196~97), Noonan(1985:77; 1992:211) 등을 언급하고 있다. Lord(1974:196~197)에서는 Yoruba를 다루면서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동사들이 모두 하나의 전체 사건의 하위 부분 또는 측면을 나타낸다”고 제시하였다. Noonan(1985:77; 1992:211)에 따르면 “연쇄동사 구문은 ‘단 하나의 단언(just one assertion)’으로 하나의 인과 연쇄(causal chain)에 의해 나타나는 단순 사건을 기술하는 것인 반면에, 접속 구조는 시간적 순서대로 일어난 행위나 사건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문맥에 따라 두 행위나 사건이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Aikenvald(2006)에서는 단일 사건과 여러 하위 사건들로 구성된 매크로 사건(macro-event: Talmy 2000)⁵¹⁾ 사이에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단일 사건’

50) 이흥식(2000)에서는 연쇄동사(연속동사) 구문을 “접속이나 내포와 같은 통사적 구성이 표면적으로 동사 연쇄로 나타나고 의미론적인 긴밀성이 나타나는 경우에 한해 합성동사로 발전해 가는 과도기적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그는 이러한 연쇄동사 구문이 하나의 사건이나 사태를 나타낸다는 근거로 합성동사와 마찬가지로 단형 부정 ‘안’에 의해 [V1+어+V2] 전체가 부정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통사적 특성에서 살펴본 대로 연쇄동사 구문에서 V1만 부정소의 영향권 안에 있는 해석도 도출이 가능하므로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51) 인지 문법(cognitive grammar) 관점에서 중국어의 연쇄동사 구문을 분석한 Yin(2007)에서는 거의 모든 유형의 연쇄동사 구문은 정도성의 차이를 보이는 일원화된(unitary) 복합 사건을 나타내고 최소한 두개의 국면으로 이루어진(핵심 국면+시작/종결 국면) 사건을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나의 행위가 종결(termination), 이행(fulfillment), 상태 변화(change of state)와 같은 결과를 야기하는, 최소한 두개의 국면(phase)으로 구성된 복합 사건이 Talmy(2000)식의 매크로 사건(macro event)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연쇄동사 구문에는 시간적 순서 원리(the principle of Temporal Sequence), 참여자 공유 원리(the principle of Shared Participants), 상황 의존성 원리(the principle of Situational Dependence)와 같은 3가지 도상성(iconicity)에 기반을 둔 의미 원리가 반영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기 쉽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Sebba(1987)의 (2)와 비슷한 예를 들어, Aikenvald(2006)에서도 (84a)와 같은 연쇄동사 구문을 (84b)와 같이 두 절로 환언할(paraphrasing)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의미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84) Taba(Austronesian: Bowden 2001:297~298; Aikenvald 2006 재인용)

- a. n=babas welik n=mot do
 3sg=bite pig 3sg=die REAL
 ‘It bit the pig dead’
- b. n=babas welik n=ha-mot i
 3sg=bite pig 3sg=CAUS-die 3sg
 ‘It bit the pig and killed it’

Aikenvald(2006)에 따르면, (84a)와 같은 연쇄동사 구문은 ‘돼지의 죽음’이 ‘돼지가 물린 사건’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이어진 사건으로, 하나의 인과 연쇄(causal chain)에 의해 나타난 하나의 단순 사건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84b)의 접속에 의한 구문은 일련의 연속된(sequence) 행위(사건)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연쇄동사 구문과 달리 두 행위(사건)가 문맥에 따라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돼지가 물린 사건과 돼지가 죽은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돼지의 죽음은 물린 사건에 의해 간접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반드시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을 경우에 (84b)와 같이 표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Sebba(1987)과 Aikenvald(2006)의 주장은 한국어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 (85) a. 철수가 영수를 때려 죽였다.
 b. 철수가 영수를 때렸고 죽였다.

- (86) a. ??철수가 영수를 한 시간 동안 때려 죽였다.
 b. 철수가 영수를 한 시간 동안 때렸고 죽였다.

(85a)의 ‘때려 죽이다’⁵²⁾의 연쇄동사 구문은 (85b)와 같은 접속에 의한 문장과

52) 한국어에서는 ‘*철수가 영수를 때려 죽였다’와 같이 ‘*때려 죽다’는 성립하지 않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85b)는 철수가 영수를 때리고 나서 다른 방법으로 영수를 죽였을 때도 가능한 문장이다. 즉 접속에 의한 구성은 영수가 죽은 사건이 철수가 영수를 때린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다. 영수가 죽은 사건이 철수가 영수를 때린 사건과 직결된 경우에 (85a)의 ‘때려 죽이다’와 같은 연쇄동사 구문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85)의 예문들은 (86)에서와 같이 ‘한 시간 동안’이라는 지속 시간 부사구와의 공기 관계에서도 차이가 난다. (86a)의 경우 V1 ‘때려-’와 V2 ‘죽이-’ 사이에 ‘때려#죽이다’와 같이 발화시 휴지(pause)가 주어지면 ‘한 시간 동안’이라는 지속 시간 부사구가 V1 ‘때려-’만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시간 동안’이라는 지속 시간 부사구가 ‘때려 죽이다’ 전체의 사건을 수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려 죽이다’의 V2 ‘죽이다’는 본래 종결성(telicity)을 지닌 달성(achievement) 동사로 ‘한 시간 만에’와 같은 시간틀 부사구와만 공기할 수 있다. (86b)에서는 ‘때린 사건’만 한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의미이고 이때는 ‘철수가 영수를 때린 사건’과 ‘영수가 죽은 사건’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잡아 가다’는 다른 연쇄동사 구문들에 비해 합성동사에 좀 더 근접해 있는 부류로 파악되나 그렇다고 완전한 어휘적 합성동사로도 볼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 (87) a. 이 형사가 범인을 잡아 갔다.
 b. *이 형사가 경찰서에|경찰서로 잡아 갔다.
 c. 이 형사가 경찰서에|경찰서로 범인을 잡아 갔다.

(87c)와 같은 ‘잡아 가다’의 문장은 V1 ‘잡다’에 의해서 대상 논항이, V2 ‘가다’에 의해서는 처소 논항이 병렬적으로 나란히 합성된 유형으로 어휘적 합성동사와는 속성이 다르다. 그렇다고 (87c)의 V2 ‘가다’를 기존의 다른 논의들에서와

는다. Ko & Sohn(2015)에서는 한국어에서 [+agent] 자질이 일치해야만 두 동사가 연쇄동사 구문을 이룰 수 있다는 동사 연쇄화 연결 조건(Matching condition on verbal serialization)을 제시하였다. Ko & Sohn(2015)에서는 High-SVC와 Low-SVC를 구분하였는데 그들에 따르면 ‘때려 죽이다’와 같은 연쇄동사는 두 동사가 결합되기 전에 V2 ‘죽다’에 사동 접사가 먼저 결합하여 V1과 [+agent] 자질이 일치된 후에 V1 ‘때리다’와 결합하는 High-SVC에 해당된다. 이러한 High-SVC에는 사동이나 피동 접사가 붙지 않는 일반 연쇄동사 구문도 포함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같이 ‘방향’ 등의 보조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V2 ‘가다’에 의해 형사가 잡은 범인이 형사와 함께 경찰서로 이동한 사건을 나타내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문장의 의미는 곧 그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보는 사건 의미론적 관점에서 볼 때, V2 ‘가다’에 의해 행동주 하나만 이동하는 사건에서 행동주와 대상이 함께 이동한 사건으로 사건의 속성이 달라졌으므로 이때 ‘가다’가 단순히 보조적인 기능을 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연쇄동사 구문으로서의 ‘잡아 가다’는 두 어휘적 동사가 결합하여 행동주와 대상이 함께 이동한 하나의 사건을 나타내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사건들의 연속이나 두 동사의 연쇄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인가? 모든 동사들이 연쇄동사 구문을 이룰 수 있는가?

Aikenvald(2006)는 접속문에서와 같이 연이어 일어나는 사건들의 연속을 병치하여 나타낼 수도 있으나 모든 사건들의 연속을 연쇄동사 구문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Durie(1997), Jarkey(1991) 등의 논의를 들어, 연쇄동사 구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동사들 간에 사건 유형(event type)이 맞아야 하며 그러한 사건 유형성에는 문화적 기반이나 화용적 요소가 작용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경험적으로 흔히 함께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되는 사건들이나 문화적으로 연속되어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만 연결시켜 연쇄동사 구문으로 나타내며 이러한 하위 사건들이 ‘하나의 단일화된 사건(a single unitary event)’으로 인식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Bruce 1988). 단순히 문화적 또는 화용적 요소만이 두 동사의 연쇄화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이 한국어에서는 ‘먹어 주다’는 가능하지만 ‘주어 먹다’는 불가능하다.

(88) a. 철수가 영희를 위해/영희 대신 빵을 먹어 주었다.

a'. *철수가 영희에게 빵을 주어 먹었다.

「~~~~」

b. 철수가 영희에게 빵을 주어 영희가 먹었다.

「-----」

(88a')에서와 같이 ‘*주어 먹다’는 연쇄동사 구문을 이룰 수 없다. (88b)와 같이 접속에 의해서만 각각의 행동주에 의해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의 연속을 나타

낼 수 있다. 연쇄동사 구문은 ‘하나의 단일화된 사건’을 나타내는데 ‘주다’의 행동주와 ‘떡다’의 행동주가 달라 연쇄동사 구문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사건’을 나타낸다는 연쇄동사 구문의 의미적 특성은 ‘하나의 동질적인 행동주에 의해 행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내포한다. 그러나 연쇄동사 구문이 나타내는 그 ‘하나의 사건’에는 하나의 하위 사건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전체 사건 아래 하나의 동질적인 행동주에 의해 행해지는 하위 사건들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연속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표현할 수 있다.⁵³⁾

연쇄동사는 두 동사가 연결되어 있는 복합 서술어의 형태이면서 통사적 구성의 특성과 합성동사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는 부류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접속에 의한 통사적 구성의 특성을 지니는 부류에서부터 하나의 단위로 어휘화된 특성을 보이는 부류들이 하나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으며 통사적 또는 의미적 결합 정도성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연쇄동사 구문은 ‘하나의 사건’을 나타낸다는 공통된 의미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은 하위 요소들이 의미적 합성성 원리를 준수하여 전체 동사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과 같이 하위 사건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전체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다.

Lefebvre(1991)에서는 서아프리카 Benin에서 사용되는 Kaw족 중 하나인 Fon의 *Take* 연쇄동사 구문을 다루면서, 연쇄동사 구문이 어휘부(lexicon)상에서 V1과 V2의 어휘 개념 구조(LCS)의 융합에 의해 결합되어 단일 사건을 나타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Lefebvre(1991)에 따르면, Fon에서 *Take*와 결합하는 개방부류(open class)의 동사들은 *go/come, give, teach/study, show/learn, hit* 등이 있다. 이러한 개방 부류의 동사들은 *Take*와 대상의 처소 변화를 나타내는 [y undergo change of location to z]의 어휘 개념 구조(LCS)를 공유하며 어휘부에서 이러한 공통된 어휘 개념 구조가 하나로 융합되어 하나의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89) Kòkú sɔ̀ àsɔ̀ yì/wá àxì.

53) S. Kang(1993)에서는 “연쇄동사 구문의 표층 순서는 시간 영역을 따라 펼쳐진 사건들의 시간적 순서를 반영한다”는 Tai(1985)의 ‘시간의 순서 원리(Principle of Temporal Sequence)’를 인용하며 연쇄동사 구문 형성에 이러한 제약이 작용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두 동사에 의해 나타내지는 두 사건들은 다른 시간대에 일어나는 별개의 두 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단일한 단위의 사건들로 인식되는 것으로, 두 개의 사건들이 넓은 시간차를 두고 일어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Koku take crab go/come market.

- a. sɔ́: [x cause [y undergo change of location]]
- b. yì/wá: [y undergo change of location away from
/towards speaker to location z]
- c. sɔ́-yì/wá: [x cause [y undergo change of location away from
/towards speaker to location z]]

본고에서는 연쇄동사 구문이 하나의 사건을 나타낸다는 의미적 특성이 Aikenvald(2006)의 기능주의적 관점이 아닌 Lefebvre(1991)와 같이 형식적인 의미 체계를 이용하여 어휘부상에서 두 동사의 의미 구조의 융합 또는 합성에 의해 도출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Lefebvre(1991)에서 제시하는 Fon에서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동사 ‘sɔ́(take)’와 같이 한국어의 ‘가다/오다’, ‘주다’는 행동주나 대상의 ‘처소 이동’ 사건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공통된 의미 성분을 지닌 동사 부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Lefebvre(1991)에서 제시하는 대로 V1과 V2의 하위 의미 구조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합성 방식이 존재한다. ‘가다/오다’, ‘주다’가 구성하는 연쇄동사 구문의 합성 유형은 그 하위 사건들 간의 결합 유형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가다/오다’, ‘주다’의 사건 구조가 다른 동사들과 어떠한 양상으로 결합되는지를 Rappaport Hovav & Levin(1998; 2010)의 사건 구조를 활용하여 살펴보고 [V1+어+V2{가다/오다, 주다}] 연쇄동사 구문의 사건 구조의 합성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3. 동사의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

3.1.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

연쇄동사 구문이 다른 복합 동사 구문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두 동사가 전체 문장의 논항 구조를 형성하는 데 관여한다는 것이다. ‘논항 구조(argument structure)’에는 동사가 문장을 구성하는 데 필요로 하는 성분들의 수와 그것들이 어떠한 의미역(thematic role)을 갖는지가 반영되어 표상된다. 논항들의 의미역은 의미 구조로부터 사상되어(mapping) 주어지며, 이러한 논항들은 격(case)을 부여받으며 통사 구조의 구성 성분으로 사상되어 실현되는 것으로 상정된다(Chomsky 1981; 1986). 여기서는 심층적인 통사 구조를 상정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논항 구조는 동사가 갖는 의미 구조를 반영하는 표면적 통사 구조로, 먼저 본고에서 다루는 ‘가다/오다’, ‘주다’의 논항 구조를 살펴본 후에 각각의 동사가 갖는 사건 구조(의미 구조)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본고에서는 문장의 의미를 ‘사건(event)’의 개념으로 환언하여 ‘하나의 문장은 하나의 사건을 나타낸다’고 보는 ‘사건 의미론(Event Semantics)’⁵⁴⁾의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사건 의미론’ 관점에서는 ‘문장의 의미는 곧 그 문장을 구성하는 술어 특히 동사에 어휘화되어 있는 의미 구조를 밝히는 것’이라고 본다. 여기서는 Rappaport Hovav & Levin(1998; 2010)의 ‘사건 구조(event structure)’ 표상 방식을 이용하여 한국어 동사 ‘가다/오다’, ‘주다’의 의미 구조를 표상하고자 한다.

‘사건’이 동사에 어휘화된 의미와 문장의 의미를 표상하는 데 주요한 개념으로 인식되면서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의 내부 구조를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 시초는 Vendler(1967)라 할 수 있으며, 그는 사건의 시간적 구조 즉 상적 특성(aspectual character)에 따른 동작류(Aktionsart)를 ‘상태(state)’, ‘행위(activity)’, ‘달성(achievement)’, ‘완성(accomplishment)’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상태’와 ‘행위’는 내재적으로 시간적 경계가 없는 비종결성(atelicity)을 지닌 술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행위’는 동적이고

54) 남승호(2004; 2007)에서는 “‘사건 의미론’이란 한 문장의 의미는 하나의 사건을 가리킨다는 가정 아래, 형식 논리의 체계에서 사건을 개체의 기초 영역(ontological domain)에 포함시키는 이론”이라고 정의하였다.

사태의 상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달성’과 ‘완성’은 상태 변화를 표현하는 술어로, 내재적으로 시간적으로 경계가 지어진 종결성(telicity)을 지니며 하나의 결과 상태를 산출한다. 그러나 ‘달성’은 순간성[+punctual]을 지닌 술어인 반면에 ‘완성’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⁵⁵⁾

(1) State:	[+static]	[-dynamic]	[-telic]	[-punctual]
Activity:	[-static]	[+dynamic]	[-telic]	[-punctual]
Achievement:	[-static]	[-dynamic]	[+telic]	[+punctual]
Accomplishment:	[-static]	[-dynamic]	[+telic]	[-punctual]

이를 기반으로 Dowty(1979), Jackendoff(1990), Rappaport Hovav & Levin(1998) 등에서는 동사의 의미를 ‘술어 분해(predicate decomposition)’ 방식을 이용해 형식화하여 나타냈다. ‘술어 분해’ 방식은 술어의 의미를 가장 기본적인 의미 성분들로 분해하여 CAUSE, BECOME, ACT, DO 등과 같은 기초 술어(primitive predicate)를 도입하고 그 의미 구조 내에 의미역은 기초 술어가 요구하는 논항의 위치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고 술어의 의미를 표상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술어 분해’ 구조는 논항들이 실현되는 통사 구조와 상관성을 유지하면서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 구조를 표상하는 형식이라 할 수 있다.

Jackendoff(1990)는 개념 의미론(Conceptual Semantics)의 입장에서 어휘 의미 구조를 어휘 개념 구조(Lexical Conceptual Structure)라 명명하고, ‘술어 분해’ 방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상하였다.

(2) a. John ran into the room.

b. LCS: [_{Event} GO ([_{Thing} John], [_{Path} TO ([_{Place} IN ([_{Thing} ROOM]))])]]

55) 남승호(2004)에 따르면, 술어의 상적 의미를 구별하는 데에는 ‘한 시간 동안(for an hour)’과 같은 지속 부사어와 ‘한 시간 만에(in an hour)’와 같은 시간틀 부사어(time frame adverbial)와의 결합 양상 여부가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한 시간 동안’과 같은 지속 부사어는 단순 사건인 어떤 상태나 행위 과정의 지속 시간을 가리키는 부사어이지만 복합 사건인 완성이나 달성 사건을 수식할 때는 결과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며, ‘한 시간 만에’와 같은 시간틀 부사어(time frame adverbial)는 완성 사건을 변별하는 데 적합하다. 남승호(2004)에서는 한국어 술어의 상적 의미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지속 부사어 ‘한 시간 동안(for an hour)’, 시간틀 부사어(time frame adverbial) ‘한 시간 만에(in an hour)’, ‘-어 있다’, ‘-고 있다’, ‘계속(해서)’ 등과의 다양한 결합 양상 여부를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2a)의 문장은 (2b)의 개념 구조의 전체 사건에 상응한다. 동사 ‘run’은 사건 함수(event function) GO에 대응되며, (2a)의 문장은 ‘이동’이라는 사건을 나타낸다. (2a)의 주어는 (2b)의 개념 구조 내의 함수 GO의 첫 번째 논항에, (2a)의 전치사구(PP)는 함수 GO의 두 번째 논항에 상응한다. 두 번째 논항인 전치사구(PP)는 동사에 의해 하위범주화되어 있는 성분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합성된 것이라고 설명한다.⁵⁶⁾ 경로 함수 TO는 그것의 논항으로 Place를 취하고 그 Place는 처소 함수인 IN과 그 전치사의 목적어로 나타난 Thing 논항으로 분해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Rappaport Hovav & Levin(1998)에서는 Vendler(1976)의 동작류(Aktionsart)를 기반으로 동사들이 나타내는 사건 유형을 다음과 같이 표상하여 제시하였다. ‘상태’와 ‘행위’는 하나의 하위 사건으로 이루어진 단순 사건(simple event)을 나타내며, ‘달성’과 ‘완성’은 내부적으로 둘 이상의 하위 사건을 포함한 복합 사건(complex event)으로 표상된다.

- (3) a. [x ACT_{<manner>}] (행위)
- b. [x <STATE>] (상태)
- c. [BECOME [x <STATE>]] (달성)
- d. [[x ACT_{<manner>}] CAUSE [BECOME [y <STATE>]]] (완성)
- e. [x CAUSE [BECOME [y <STATE>]]] (완성)

Rappaport Hovav & Levin(1998:109)에서는 기초 술어(primitive predicates)를 중심으로 한 동사의 의미 구조들 내에 각각의 동사가 지닌 고유한(idiosyncratic) 핵심 의미를 나타내는 ‘상항(constonant)’ 또는 ‘근거 의미/어근(root)’⁵⁷⁾이 결합된 구조를 ‘사건 구조(event structure)’로 명명하였다. Rappaport Hovav & Levin(1998; 2010)에 따르면, ‘근거 의미/어근’ 성분은 존재

56) Jackendoff(1990)에서는 전치사구(PP)와 같이 동사 내에 하위범주화되어 있지 않은 성분들이 문장 내에 허가되는 구문을 설명하기 위해 별도의 ‘부가어 규칙(Adjunct Rules)’을 제시하였다. Pustejovsky(1995)에서는 동사와 그 동사가 취하는 목적어 등의 보충어(complement)가 공동으로 그 동사구의 의미를 만들어 낸다는 공동 합성(co-composition) 방식을 제안하였다. 그는 이동 동사가 취하는 착점의 전치사구(PP)도 보충어로서 공동 합성 방식으로 동사구의 의미를 생성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57) 각각의 동사가 지닌 고유한(idiosyncratic) 핵심 의미 요소를 ‘상항(constant)’ 또는 ‘근거 의미/어근(root)’이라고도 하는데 Rappaport Hovav & Levin(1998; 2010)에서는 Pesetsky(1995)를 따라 ‘root’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론적 기초 영역(ontological domain) 상에 ‘state, result state, thing, stuff, surface/container, manner, instrument’로 범주화된 유형 집합에서 선택되어 각 동사에 부여되는 고유한(idiosyncratic) 의미 성분을 나타내며 < > 안에 표상된다. 그러한 ‘근거 의미/어근(root)’ 성분의 기초 영역의 범주는 그것이 사건 도식(event schema) 내에 결합되는 방식을 결정하는데 이러한 결합은 ‘표준 실현 규칙(canonical realization rules)’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이러한 규칙에는 ‘근거 의미/어근’ 성분 <Root>에 담긴 최소한의 의미 요소가 통사 구조상에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된다. 각각의 ‘근거 의미/어근’ 성분은 그것과 결합하는 사건에 기본적인 참여자의 수를 결정하고 동사가 양태 동사(manner verb), 처소 변화 동사, 상태 변화 동사 등 어떠한 의미 부류에 속하는지를 나타내 준다.

(4) a. manner → [**x ACT**_{<manner>}]

(예: *jog, run, creak, whistle,...*)

b. instrument → [**x ACT**_{<instrument>}]

(예: *brush, chisel, saw, shovel,...*)

c. container → [**x CAUSE [y BECOME [AT <CONTAINER>]]]**

(예: *bag, box, cage, crate, garage, pocket,...*)

d. internally caused state → [**x <STATE>**]

(예: *bloom, blossom, decay, flower, rot, rust,...*)

e. externally caused, i.e. result state →

[[x ACT] CAUSE [y BECOME <RESULT-STATE>]]

(예: *break, dry, harden, melt, open,...*)

(R. Hovav & Levin 2010:24)

Rappaport Hovav & Levin(2010)에서 예시화하여 제시한 ‘표준 실현 규칙(canonical realization rules)’을 보면 ‘근거 의미/어근’ 성분 <Root>는 (4a)와 (4b)에서와 같이 수식어(modifier) 아니면 (4c)~(4e)와 같이 논항(argument) 중 하나로 사건 구조 내에 통합된다. 이를 근거로 Rappaport Hovav & Levin(2010)에서는 ‘하나의 사건 구조 내에 하나의 <Root>만이 수식어 아니면 논항 중 하나로 기초 술어와 결합할 수 있다’는 ‘어휘화 제약(lexicalization constraint)’⁵⁸⁾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Root>의 통합 방식에 따라 영어의

동사를 양태 동사(manner verb)와 결과 동사(result verb)로 구분하고 이 두 부류가 상보성(complementarity)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⁵⁹⁾ Rappaport Hovav & Levin(2010)에 따르면 이동의 방식을 나타내는 양태 동사는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는 하나의 하위 사건으로 구성된 단순 사건을 나타내며 <Root>가 사건 도식 내에 수식어 위치에 통합된다. 이러한 양태 동사의 하위 사건은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하위 사건과 결합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좀 더 복잡한 사건 구조로 확장이 가능하다.⁶⁰⁾ 결과 동사는 사건 도식 내에 <Root>가 논항으로 통합되는

58) Rappaport Hovav & Levin(2010)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휘화 제약(lexicalization constraint)’은 다음과 같다.

(i) The lexicalization constraint

: A root can only be associated with one primitive predicate in an event schema, as either an argument or a modifier.

59) Beavers & Koontz-Garboden(2012)에서는 *throw*-type 동사나 *manner-of-killing* 동사들을 예로 들어, 하나의 단일 동사에 양태(manner)와 결과 상태(result)가 동시에 어휘화된 동사들이 존재하며 [[X ACT<ROOT₁>] CAUSE [BECOME [y <ROOT₂>]]]와 같은 사건 구조도 선형적으로 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하였다. Goldberg(2010)에서도 ‘관습틀 제약(Conventional Frame Constraint)’을 제시하면서 의미적 틀(semantic frame)이 그 상황을 허용한다면 양태(manner)와 결과 상태(result)가 동시에 하나의 단일 동사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동사 *scribble*를 예로 들어 ‘쓰는’ 방식(manner)말고도 ‘쓰여지는’ 결과(result)를 동시에 함의한다고 설명하였다. Croft(2010)에서는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을 사건 참여자들 간의 ‘인과 연쇄(causal chain)’ 관계로 구조화하는 인과적 접근법(causal approach)을 취하며 3차원(three dimensions: (t)ime, (q)ualitative states, and causal chain) 모델로 사건을 분해하여 표상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실제로 모든 사건은 복합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양태 동사(manner verb)와 결과 동사(result verb)의 차이는 (q) 차원에서 정의되는 상태(state)의 차이가 아니라 동사의 사건틀(verb profile) 내에 직접적인 변화(directed change)의 존재 여부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결과 동사(result verbs)나 경로 동사(path verbs)는 직접적인 변화가(directed change) 일어난 하위 사건을 가지는 사건을 나타내고 양태 동사(manner verbs)는 간접적인 변화가(undirected change) 일어난 하위 사건을 가지는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60) Rappaport Hovav & Levin(1998)에서는 ‘사건 확장(event augmentation)’ 제약에 따라 ‘완성(accomplishment)’ 사건이 가장 복합적인 표상 방식이므로 더 이상 추가 확장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Nam(2015:3~4)에서는 처소 교체 구문이 가능하며 처소 이동을 나타내는 완성 사건의 ‘신다’가 결과를 나타내는 ‘가득’과 결합하여 사건 구조의 확장이 가능하다고 제시하였다. 즉 ‘신다’의 처소 변화 사건 전체가 원인 사건이 되고 ‘가득’이 처소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결과 사건으로 결합하여 확장된다는 것이다.

(i) a. 진이가 차에 짐을 실었다.

부류로, 원인이 되는 사건과 그 원인 사건으로 인해 변화가 일어난 결과 상태를 하위 사건으로 갖는 복합 사건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한 ‘어휘화 제약’은 하나의 단어, 어근(stem), 또는 접사(affix)에 대한 제약으로, 영어에서는 대부분의 단어들에 형태적으로 단순하고 어근의 개념으로 발달할 요소가 없기 때문에 양태(manner)와 결과 상태(result state)의 상보성이 단어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영어와 대조적으로 동사들이 어근, 접사로부터 생산적으로 형성되는 언어들에 양태와 결과 상태의 상보성이 단어 자체가 아니라 단어들의 부분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한국어에서 두 동사가 결합하여 [V1+어+V2]의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경우에는 후자의 언어 유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고에서 다루는 ‘가다/오다’, ‘주다’는 ‘처소 이동’이라는 ‘결과 상태(result state)’를 나타내는 동사로, 양태(manner)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과 결합하여 [V1+어+V2{가다/오다, 주다}] 구문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가다/오다’, ‘주다’와 다른 동사들과의 사건 구조 결합 유형에 대해서는 5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가다/오다’, ‘주다’의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3.2. ‘가다/오다’의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

기존의 대부분의 논의들에서는 ‘가다/오다’가 다른 동사와 [V1+어+V2] 동사 구성을 이룰 때, V1에 ‘지속’이나 ‘진행’과 같은 상적인 의미를 더하는 기능을 하거나(김명희 1984, 김성화 1990, 김석득 1992, 이관규 1992, 손세모들 1996 등) 화자나 청자 또는 발화 상황 등에 의해 의미가 결정되는 직시적(deictic)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로 쓰여 [V1+어+V2]의 전체 문장의 진리 조건적 의미를 구성하는 데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다/오다’는 주어 자리에 실현된 행동주나 대상의 처소 변화를 나타내는 이동 동사로,⁶¹⁾ 다른 동사

[[x ACT<LOAD> y] CAUSE [BECOME [y <BE-AT z>]]]

b. 진이가 차를 집으로 가득 실었다.

[[[x ACT<LOAD> y] CAUSE [BECOME [y <BE-AT z>]]]

CAUSE [z BECOME <FULL>]]

61) 홍재성(1987)에서는 한국어의 이동 동사가 구성하는 문장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러’를 허용하는 통사적 기준에 따라 이동 동사를 분류하였다. 그는 주로 ‘가다’, ‘오다’, ‘떠나다’, ‘도착하다’ 등의 자동사를 다루고 있으며, ‘-러’를 허용하지 않는 ‘걸다, 뛰다, 기다, 구르다’ 등은 이동의 방식 또는 양태를 나타내는 부

들과 결합하여 연쇄동사 구문을 이룰 때에도 본동사로서의 ‘이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가다/오다’와 같은 이동 동사는 문장을 구성하는 데 최소 표현들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우형식 1998⁶²), 채희락 1999, 남승호 2003 등). 우형식(1998)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이동 동사가 구성하는 문장 내에서 ‘-에’ 또는 ‘-에서’와 같은 최소 표현이 문장 내에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화 참여자에 의해 반문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문장이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위해 동사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고에서도 ‘가다/오다’가 문장을 구성하는데 요구하는 착점(Goal), 기점(Source), 경로(Path) 등의 최소와 관련된 표현들을 부가어(adjunct)가 아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성분인 ‘논항(argument)’으로 다룬다.

‘가다/오다’는 기본적으로 주어 자리에 실현된 행동주(Agent)나 대상(Theme) 논항 외에 ‘-에’로 실현되는 착점(Goal) 논항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이동 동사이다. 또한 다음과 같이 움직임의 경로(trajjectory)를 나타내는 최소 표현들을 문장을 구성하는 데 필수 성분으로 요구한다.

(5) a. 철수가 갔다.

b. 철수가 학교에 갔다.

류일 뿐 이동 동사로 보지 않는다.

(i) N0 Ω V1-러 N1-(Loc+Acc) V0 (홍재성 1987:80)

이와 달리 남승호(2003)에서는 ‘최소 변화’라는 의미론적 자질에 의해 이동 동사의 범주를 정의한다. 그는 ‘문장 S의 본동사 ‘P’가 최소 논항을 취할 때, S가 P의 다른 한 논항의 최소 변화를 함의하는’ 경우에 그 동사를 ‘이동 동사’라 한다. 또한 그는 동사 P가 행동주 논항의 이동을 함의하는 경우와 대상 논항의 이동을 함의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행동주-이동 동사’와 ‘대상-이동 동사’로 구분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동 동사를 남승호(2003)에서 정의한 대로 ‘최소 변화’라는 의미론적 자질을 지닌 동사 부류로 본다.

62) 우형식(1998:67)에서는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에 문장의 문법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데 관여하는 ‘구조 성분’과 동사의 어휘적 속성에 따라 필요로 하는 특수적인 ‘보조 성분’을 포함시켰다. ‘구조 성분’은 ‘-가’와 ‘-를’로 실현되고 ‘보조 성분’은 논리적인 의미를 보충하는 성분으로 ‘-에’(예: 그가 집에 있다.), ‘-에게’(예: 이 옷이 나에게 잘 어울린다.), ‘-에서’(예: 그가 집에서 나갔다), ‘-로’(예: 그가 친구를 아내로 삼았다.), ‘-와’(예: 그가 친구와 싸웠다.) 등이 해당된다. 이들을 ‘구조 성분’과 함께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으로 보고 이를 ‘사격 목적어(oblique object)’로 분류한다. 이와 달리 수의 성분은 언어 수행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문장의 구조와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잠재적 통합 성분으로 생략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 c. 철수가 학교로 갔다.
- d. 철수가 학교에서 갔다.
- e. 철수가 학교에서 집으로 갔다.

- (6) a. 철수가 왔다.
- b. 철수가 학교에 왔다.
 - c. 철수가 학교로 왔다.
 - d. 철수가 학교에서 왔다.
 - e. 철수가 학교에서 집으로 왔다.

‘가다’와 ‘오다’가 (5b)와 (6b)에서와 같이 착점 ‘-에’를 취하는 경우에는⁶³⁾ ‘행동주(또는 대상)가 착점에 도착하였음’을 함의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런데 방향을 나타내는 ‘-로’나 기점 ‘-에서’를 취할 때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가다’는 (5c)와 같이 문장 내에 ‘-로’가 실현되었을 때, ‘철수가 학교로 갔지만 아직 학교에 도착하지 않았다’가 성립되며 ‘철수가 학교에 도착하였음’을 반드시 함의하지 않는다. 이때 (5c)의 ‘-로’는 방향만을 나타내며, 착점(Goal)을 나타내는 (5b)의 ‘-에’와 교체가 불가능하다. 반면에 (6c)와 같이 ‘오다’의 문장 내에 ‘-로’가 실현될 때는 ‘*철수가 학교로 왔지만 아직 학교에 도착하지 않았다’가 성립되지 않으며, ‘철수가 학교에 도착하였음’을 반드시 함의하게 된다. 이때의 ‘-로’는 ‘-에’와 교체되어도 의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오다’가 ‘처소 변화가 일어났음’을 강하게 함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오다’는 (6d)와 같이 기점(Source) 논항만 실현되어도 행동주가 이동하였음을 함의하게 된다. 이와 달리 ‘가다’는 (5d)와 같이 기점(Source) 논항만 실현되었을 때에는 행동주가 그 기점에서 떠나서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가다’와 ‘오다’의 속성은 어떠한 의미 부류에 속하는 V1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V1이 기

63) ‘철수가 학교에 갔다’와 같은 문장에서 착점을 나타내는 ‘학교에’는 ‘학교를’로도 교체가 가능하다. 기존의 대부분의 논의들에서는 ‘-를’이 ‘강조’(이상규 1980, 홍재성 1987 등)나 ‘초점’(신현숙 1982 등)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수태(1987; 2009)에서는 화자가 장소나 방향의 명사구를 ‘-를’로 대상화한 것으로 ‘강조화’, ‘전체화’의 의미를 갖게 된다고 제시하였다. 홍기선(1995), 정주리(2005)에서는 이동 동사의 논항 구조에 나타나는 ‘-를’이 ‘사과를 먹다’에서 목적격을 나타내는 ‘-를’과 마찬가지로 동사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 ‘영향입음 대상’을 나타내거나 또는 행위의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존에 갖고 있던 논항 구조와 의미역을 변형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도 한다.

‘가다/오다’는 기본적으로 착점(Goal) 논항 ‘-에’를 취하며 행동주나 대상의 처소 이동 사건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은 사건 구조로 표상된다.

(7) ‘가다/오다’의 사건 구조⁶⁴)

a. 철수가 갔다/왔다.

[x GO [TO PLACE]]

b. 철수가 학교에 갔다/왔다.

[[x GO [TO PLACE]] CAUSE [x BECOME <BE-AT PLACE>]]

(8) a. 철수가 학교로 갔다.

[x GO [TO z]]

b. 철수가 학교에서 갔다.

[[x GO [TO PLACE]] CAUSE [x BECOME [OUT-OF z]]]

(9) a. 철수가 학교로 왔다.

[[x GO [TO z]] CAUSE [x BECOME <BE-AT z>]]

b. 철수가 학교에서/미국에서 왔다.

[[x GO [TO PLACE]] CAUSE [x BECOME <OUT-OF z>]]

기본적으로 (7a)와 같은 사건 구조를 갖는 ‘가다/오다’는 명제적으로 완전한 문장을 성립하기 위해 착점(Goal) 논항을 필수 성분으로 요구한다. 이러한 착점(Goal) 논항은 사건 구조상에 행동주나 대상의 처소 변화가 일어난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BE-AT PLACE>로 하위 사건 내에 도입되어 (7b)에서와 같이 ‘가다/오다’의 사건 구조가 확장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가다’와 ‘오다’의 논항 구

64) 양정석(1995:60)에서는 Jackendoff(1990)의 어휘 개념 구조(Lexical Conceptual Structure)를 활용하여 ‘가다’의 기본 어휘 의미 구조를 [GO ([y], [TO ([z]])])로 상정하고 이러한 ‘가다’가 착점 ‘-에’와 결합하면 [AT([c])]를 도입하여 [GO ([A], [TO([AT ([C]])])]와 같은 어휘 의미 구조를 갖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양정석(1995:64)에서는 ‘가다’와 ‘오다’가 경로 함수 ‘TO’의 논항에 직시적 속성과 같은 화용론적 의미 특질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둘을 구별할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동일한 어휘 의미 구조를 갖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조에 방향을 나타내는 ‘-로’가 실현되거나 기점 ‘-에서’를 취하는 경우에는 함의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8)과 (9)에서와 같이 다른 사건 구조로 표상된다. (8a)의 ‘가다’는 ‘행동주가 학교를 향해 이동한 사건’을 나타내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 어떠한 결과 상태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9a)의 ‘오다’는 ‘행동주가 착점인 학교를 향해 이동하여 착점에 있게 된 결과 상태’를 나타내게 된다. 또한 기점 ‘-에서’와 공기하는 경우에도 ‘오다’는 ‘행동주가 기점에서 떠나서 더 이상 기점에 없게 된 결과 상태’를 나타내지만 ‘가다’는 ‘행동주가 그 기점에서 떠나서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다/오다’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건 구조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여기서 ‘가다/오다’의 사건을 CAUSE 함수를 취하는 인과적 복합 사건(causative complex event)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Levin & Rappaport Hovav(2005)에서는 이동 동사들이 통사적으로 하위범주화되어 있지 않은 경로를 나타내는 전치사구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때 사건 합성(event composition)이 일어난다고 밝히고 있다. 영어의 동사 ‘run’과 같이 어휘적으로 종결성을 지니지 않은 양태 동사(manner verb)는 ‘to the store’와 같이 착점을 나타내는 전치사구와 함께 나타나면 비종결상(atelicity)에서 종결상(telicity)으로 사건 유형이 바뀌는 ‘사건 유형 변환(event type-shifting)’이 일어난다(Rappaport Hovav & Levin 2001). 그런데 Levin & Rappaport Hovav(1999), Rappaport Hovav & Levin(2001)에서는 원래 사건과 추가로 도입된 사건이 시간상으로 의존적이거나 두 하위 사건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단순 사건으로 보았다. 두 하위 사건이 선·후행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복합 사건이면 ‘가짜(fake) 재귀대명사와 같은 별도의 논항을 요구하는데 ‘run to the store’와 같은 경우는 ‘Jasper ran (*himself) to the store.’에서와 같이 ‘himself’와 같은 가짜(fake) 재귀대명사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 사건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경학(2005)에서는 Levin & Rappaport Hovav(2004)의 하위 사건 간에 시간적 의존성에 따른 단순 사건과 복합 사건의 구분이 결과 구문의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어떠한 척도를 형성하는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결과 구문이나 장소 이동의 결과 구문은 척도를 따라 상태가 변하거나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동사의 의미적 특성을 고려할 때 시간적으로 중첩되는 두 개의 하위 사건으로 이루어진 복합 사건의 구조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밝히고 있다. 김경학(2005)에서 인용하고 있는 Van Valin(1990:224)에서도 ‘run’이

'to the house'와 같은 전치사구와 결합하여 문장을 구성하는 경우에, 행동주가 뛰는 행위가 원인 사건으로, 그 사건으로 인해 행동주가 집에 있게 되는 결과 상태가 되는 인과적 복합 사건 구조로 분석하였다.

(10) a. Susan ran to the house. (Van Valin 1990:224)

b. [[run (Susan)] CAUSE [BECOME be-at(house, Susan)]]

Nam(2005:104)에서는 한국어 이동 동사들의 결과 상태를 함의하는 종결성이 그들이 취하는 착점이나 기점 논항이 이동 사건 합성에 기여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고 분석하였다. 그는 '걸어 가다'를 이동의 방식을 나타내는 양태 동사 '걷다'와 처소 논항을 필수로 요구하는 경로 동사 '가다'가 결합하여 복합 사건을 나타내는 '완성 동사'로 보았다.

본고에서도 김경학(2005), Nam(2005)의 분석과 동일한 선상에서 '가다/오다'와 같은 이동 동사가 착점을 나타내는 '-에'를 필수 성분으로 취하며 문장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착점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내는 하위 사건과 그 이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하위 사건으로 구성된 복합 사건으로 달성 사건보다는 완성 사건에 가까운 사건 유형으로 분석한다. Levin & Rappaport Hovav(2004)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이동하는 과정'과 그 '이동의 결과'가 시간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한 사건인 것은 사실이나 그 두 하위 사건 간에 이동하는 과정이 원인 사건이 되고 그로 인해 착점에 도달하게 되는 결과 사건을 야기하게 된다는 점에서 인과적 복합 사건으로 분석하고자 한다.⁶⁵⁾

65) Robert D. & Van Valin, JR.(2006)에서는 이동 동사(motion verb: *ex run*), 소비 동사(consumption verb: *ex eat*), 산출 동사(creation verb: *ex paint*)와 같은 행위 동사들이 목적어나 전치사구 등과 결합하여 종결성(telicity)을 나타내는 것으로 쓰인 경우에 '행위 완성(Active Accomplishments)' 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행위 완성' 부류는 다음과 같은 상적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i) a. Chris ran to the park.

b. do' (chris, [run' (chris)]) & INGR be-at' (park, chris)

(ii) Active Accomplishment: [-static] [+dynamic] [+telic] [-punctual]

그들은 CAUSE 대신에 '행위의 순간적 시작(a punctual onset of an activity)'을 나타내는 연산자 'INGR(essive)'를 도입하여 '행위 완성' 사건을 표상하였다.

3.3. ‘주다’의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

3.3.1. 영어 ‘give’의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

영어에서 ‘give’는 ‘throw’, ‘send’ 등과 함께 이중 타동사(ditransitive verb) 또는 수여 동사(dative verb)로, 이중 목적어 구문과 여격 구문의 교체가 가능하며 각각의 구문이 서로 다른 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Pinker 1989; Krifka 1999, 2004; Hale & Keyser 2002; Beck & Johnson 2004; Harley 2002 등). ‘give’의 이중 목적어 구문은 ‘소유 이전(possession transfer)’ 또는 ‘소유 야기(caused possession)’ 사건을 나타내며 여격 구문은 대상의 ‘처소 이동(change of location)’의 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분되었다.

(11) a. John gave Mary a book.

⇒ x cause y(recipient: animate) to have z: 소유 이전 사건

b. John gave a book to Mary.

⇒ x cause z to be at y(spatial goal): 처소 이동 사건

그런데 Rappaport Hovav & Levin(2006)에서는 기존의 논의들에서 ‘give’가 여격 구문일 때 처소 이동의 사건을 나타낸다고 분석한 것은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to’가 착점 논항을 도입하기 때문에 ‘give’의 구문에 나타나는 ‘to’도 추상적인 소유 공간(field)에서 수용자를 이동의 착점으로 보고 이때 ‘give’가 처소 이동 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한 처소주의 이론(Localist Hypothesis: Gruber 1965; Jackendoff 1972, 1983)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기존의 다른 논의들과 달리 Rappaport Hovav & Levin(2006)에서는 ‘give’가 전형적인 여격 동사로, ‘소유 야기(caused possession)’ 의미만이 어휘화되어 있고 여격 교체 구문에서도 ‘소유 야기’ 사건 도식과만 결합되도록 착점이 아닌 수용자(recipient) 논항만을 취한다고 주장한다.⁶⁶⁾

66) Rappaport Hovav & Levin(2006)에서는 ‘give’가 취하는 ‘to~’ 전치사구가 전형적인 착점과 달리 ‘where~’에 해당하는 답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유사하게 유현경(2003)에서도 한국어의 ‘주다’와 ‘보내다’가 취하는 여격 논항이 다르며 ‘주다’는 착점을 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i) a. 철수가 편지를 누구 주었니?

b. *철수가 편지를 어디 주었니?

- (12) a. Brett gave Lesile an apple.
 a'. *Josie gave/handed the ball from Marla (to Bill).
 b. A court gives a parent visiting rights.

그들은 ‘give’의 소유 이전(possession transfer)의 의미는 (12a)와 같이 물리적인 대상의 이동일 경우에만 한정적인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give’의 주어는 소유 경로상에 기점으로 어휘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12a')에서와 같이 ‘from Marla’와 같은 별도의 기점을 나타내는 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give’의 사건 도식에서는 일반적인 경로(path)를 설정할 수 없고 본래 소유자와 수용자(recipient)로 구성된 두 지점으로 설정된 소유 관계만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give’는 특히 (12b)와 같은 예문에서와 같이 ‘법정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부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그 권리를 갖게 하는’, 다시 말해, 개체나 소유의 이동이 아닌 단순히 어떠한 권리를 소유하게 하는 ‘소유 야기(caused possession)’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12b)와 같은 예문에서 ‘give’가 ‘처소 이동’이나 ‘소유 이전’이 아닌 ‘소유 야기’의 사건으로 해석되는 이유는 ‘give’가 취하는 대상 논항이 구체물이 아닌 추상물이라는 속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한 ‘소유 야기’ 또는 ‘소유 이전’의 의미는 대상 논항과 맥락이나 상황적 함축(implicature)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어 ‘주다’의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에 관해 논의하며 다루도록 하겠다.

-
- (ii) a. *철수가 편지를 누구 보냈니?
 b. 철수가 편지를 어디 보냈니?

‘주다’의 (ia)와 같은 문장은 성립하나 (ib)와 같은 문장은 성립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주다’의 ‘-에게’ 여격 논항은 ‘누구’에 대응하는 것이지 ‘어디’에는 대응되지 않으며 반대로 ‘보내다’의 (iib)와 같은 문장은 성립하나 (iia)와 같은 문장은 성립되지 않는 것을 볼 때 ‘보내다’의 ‘-에게’ 논항은 ‘어디’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점에서 ‘주다’의 ‘-에게’는 ‘수혜자’이고 ‘보내다’의 ‘-에게’는 ‘착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주다’와 ‘보내다’ 둘 다 ‘-에’와 ‘-에게’ 논항을 취할 수 있다(예: 철수는 안 입는 옷들을 구호 단체에 주었다/보냈다. - 철수가 영희에게 선물을 주었다/보냈다). ‘주다’와 ‘보내다’ 둘 다 처소 이동을 일차적인 의미로 가지되, ‘주다’는 물리적인 대상물이 이동하여 그 이동된 대상물이 상대방의 소유권 안에 포함되는 의미까지 어휘화하고 있다는 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3.2. 한국어 ‘주다’의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

기존에 제시된 ‘주다’의 구문은 크게 수여 구문과 수혜 구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여 구문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대상의 이동 또는 전달(강현화 1998, 박승윤 2003, 정주리 2006, 백정민 2012 등)과 소유 이전(조경순 2008, 차가영 2015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후자의 경우, 행동주에 의해 대상이 착점인 수용자(recipient)에게 ‘전달’되어 이동된 대상이 수용자의 소유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 의미까지 ‘주다’의 수여 구문의 의미로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전달’의 의미에 ‘혜택’의 의미까지를 ‘주다’의 기본 의미로 포함시킨 논의들도 있다(구현정 2003⁶⁷, 허윤숙 2007 등). 기존의 연구들에서 V2에 ‘주다’가 오는 [V1+어+V2] 구문은 주로 보조동사 구문으로 치중되어 다루어졌다. 주로 봉사(최현배 1961, 허용 1986, 허윤숙 2007, 백정민 2012 등)나 수혜(긍정 수혜/부정 수혜 포함: 박승윤 2003, 정주리 2006 등)의 의미를 중심으로 혜택이나 유익성(손세모돌 1996, 정주리 2006 등), 영향이나 강조(방운규 1994, 구현정 2003, 허윤숙 2007 등), 의도나 의지(김지은 1998, 백정민 2012 등), 기대감 부응(김명희 1984, 방운규 1994, 허윤숙 2007 등), 체면 조절(허윤숙 2007) 등의 ‘주다’의 보조동사로서의 다양한 용법과 의미들이 제시되었다.

Shibatani(1999)에서는 ‘give’의 원형 스키마(prototypical schema)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3) Shibatani(1999)의 *give*의 원형 스키마

- (i) 통사: NP-가 NP-에게 NP-를 V{주다}
- (ii) 의미: 소유(possession)와 혜택(favor)

한국어 ‘주다’의 본동사로서의 의미를 ‘전달’이라고 본 박승윤(2003)에서는 Shibatani(1999)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유’와 ‘수혜(혜택)’의 의미는 ‘주다’가 나타내는 ‘전달’의 의미로부터 파생된 화용론적 함축으로 볼 수 있으며 맥락에 따라 취소가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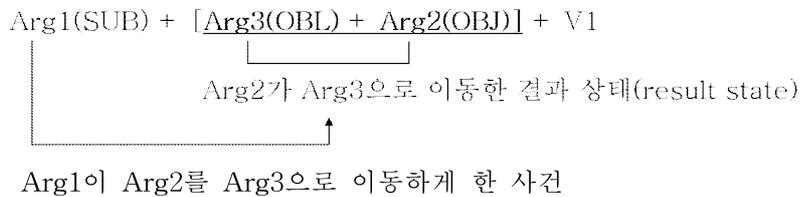
본고에서는 본동사로서의 ‘주다’가 ‘가다/오다’와 동일하게 착점 논항을 필수적

67) 구현정(2003)에서는 ‘주다’가 가지고 있는 기본(원형 스키마) 의미 자질을 ‘전달’, ‘영향’, ‘혜택’ 세 가지로 분석하였다. 그런데 ‘전달’과 ‘영향’의 의미는 모든 문맥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의미이나 ‘혜택’의 의미는 선택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으로 요구하며 ‘처소 이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하고자 한다.⁶⁸⁾ ‘소유’나 ‘수혜’의 의미는 ‘주다’가 취하는 대상 논항과 맥락이나 상황적 함축에 의해 추론이 가능한 의미로 본다. 이러한 점에서는 박승윤(2003)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하나 ‘-에게’⁶⁹⁾가 실현되는 ‘주다’의 구문을 수혜 구문이 아닌 일차적으로 ‘처소 이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문으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어의 ‘주다’는 행동주(Agent), 대상(Theme) 그리고 착점(Goal) 논항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NP1-가 + NP3-에게 + NP2-를 + V]의 논항 구조를 취하는 ‘이중타동사(ditransitive verb)’이다.

(14) a.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주었다.



b. 철수가 영희를 책을 주었다.

한국어의 ‘주다’도 영어의 ‘give’와 같이 (14a)의 여격 ‘-에게’가 (14b)와 같이 대격 ‘-를’로 교체되어 이중목적어 구문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영어와 달리 구문의 차이가 문장의 진리조건적인 의미 차이를 가져 오지는 않는다. Y. Jung & Miyagawa(2004)와 Y. Jung(2005)에서도 영어 ‘give’의 이중 목적어 구문과 ‘to’ 여격 교체 구문이 한국어의 ‘주다’ 구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다. 다만 다른 점은 Y. Jung(2005)에서는 한국어의 이중 목적어 구문에서 대격으로 실현된 착점이 ‘특정성(specificity)’을 갖는데 이는 술어 V_{CAUSE}에 의해 이중 대격을

68) ‘주다’의 문장에서 나타나는 여격 표지 ‘-에게’는 정해권(2012)에 따르면, “중세 한국어의 속격 조사 ‘의/의’와 처소 대명사 ‘그에(게/기), 거기’가 결합한 형태에서 발달한 형태로(안병희·이광호 1990:179, 이기문 1998:181, 고영근 2010:230), 통시적으로 ‘에게’가 ‘의그에(의 그곳에)’에서 문법화되어 지시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장소성을 나타낸다”고 분석된다. 한국어 ‘주다’가 취하는 ‘-에게’ 여격 논항이 통시적으로도 ‘처소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주다’가 나타내는 일차적인 사건의 의미를 ‘가다/오다’와 동일하게 ‘처소 이동 사건’으로 본 근거이다.

69) 한국어의 의미역과 통사 실현 양상에 관해 논의한 남승호(2007:47)에서는 여격 [-에/에게] 논항의 의미역을 착점(goal), 처소(location), 자극(stimulus), 경험주(experiencer), 원인(cause), 비교 기준(criterion), 행동주(agent)로 제시하였다.

할당받기에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속성으로 보았다. 한국어 ‘주다’ 구문에서 착점에 대격 표지가 붙으면 ‘영희가 실제로 책을 갖게 되었다(철수 CAUSED 영희 to HAVE the book.)’는 더 강한 함의(implication)를 갖게 된다고 주장하였다(Y. Jung 2005:282). 그런데 본고에서는 Y. Jung(2005)의 주장대로 대격 ‘-를’로 실현된 착점이 ‘특정성(specificity)’을 가지며 더 강한 함의를 갖는다는 데에는 동의하나 그것이 행동주에 의해 착점이 대상을 소유하게 된 의미까지를 강하게 함의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14a)와 같이 ‘주다’가 구성하는 여격 ‘-에게’ 구문은 행동주 논항(Arg1)인 ‘철수’에 의해 대상 논항(Arg2)인 ‘책’이 착점 논항(Arg3)인 ‘영희에게’로 이동하여 착점인 ‘영희’에 있게 된 처소 이동 사건을 나타낸다. (14b)와 같이 여격 ‘-에게’가 ‘-를’로 교체되어도 문장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으며 ‘철수에 의해 책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영희’라는 강조 또는 초점이 주어지게 되는 것으로 본다.

- (15) a. 철수가 영희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러나 영희가 받지 않았다.
 a'. 철수가 영희를 선물을 주었다. 그러나 영희가 선물을 받지 않았다.
 b. 철수가 영희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러나 영희가 선물을 뜯어보지 않았다.
 b'. 철수가 영희를 선물을 주었다. 그러나 영희가 선물을 뜯어보지 않았다.

한국어의 ‘주다’의 구문에서 ‘-에게’와 ‘-를’의 교체는 (15a)-(15a')에서와 같이 행동주 ‘철수’에 의해 ‘선물’이라는 대상이 착점 ‘영희에게’로 이동한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에서도, (15b)-(15b')에서와 같이 ‘선물’이라는 대상의 소유권이 착점 ‘영희에게’로 완전히 이전된 상황에서도 의미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주다’가 구성하는 (14)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주었다’의 문장에서 대상 논항인 ‘책’은 ‘물리적 이동’이 가능하며 ‘소유 이전’ 또한 가능한 구체물이다. 그러나 그 문장만으로는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주어 그것이 ‘영희’의 소유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또한 ‘주다’에 의해 대상 논항이 착점으로 이동한 사건이 착점 논항 ‘영희에게’ 이득이 되는 ‘수혜(benefactive)’ 사건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다. 이러한 ‘소유 이전’이나 ‘수혜’ 의미는 맥락이나 상황적 함축에 의해 추론이 가능한 의미이다. 그런데 ‘소유 이전’의 의미는 ‘주다’가 취하는 대상 논항의 속성에 따라 반드시 함의되는 경우도 있다.

- (16) a.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 한 채를 주었다.

b. 회장은 기획실에 이번 사업에 관련된 모든 결정권을 주었다.

(16a)의 대상 논항인 ‘아파트’는 구체물이지만 실제로 그 대상물이 행동주에게서 착점으로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소유권’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이전되는 것으로 ‘아들’이 대상을 소유하게 됨을 추론할 수 있다. (16b)와 같이 ‘주다’가 ‘결정권’과 같은 추상물을 대상 논항으로 취하는 경우에도 직접적인 물리적 이동이 아닌 어떠한 ‘권한’이 ‘회장’으로부터 ‘기획실 직원’에게로 부여되어 그 부서 직원이 결정권을 소유하게 된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소유 이전’의 의미는 ‘주다’가 취하는 대상 논항에 따라 추론이 가능한 의미이며, 행동주에 의해 대상 논항이 착점 논항 ‘-에게’로 이동한 사건을 나타내는 ‘주다’의 기본적인 의미에서 파생된 것으로 본다.

‘주다’가 다음과 같은 추상물을 대상 논항으로 취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논항의 속성에 따라 착점 논항 ‘-에게’가 긍정적인 수혜자 또는 부정적인 수혜자로 해석될 수 있다.

(17) a. 딸아이는 우리 부부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이다.

b. 상사가 또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

‘주다’가 (17a)와 같이 어휘적으로 긍정적인 속성을 지닌 추상 명사 ‘기쁨’을 대상 논항으로 취하는 경우에는 행동주인 ‘딸’에 의해 착점인 ‘부모에게’ 긍정적인 감정이 전달되는 긍정적 수혜 사건으로 볼 수 있고, 이와 반대로 (17b)의 ‘스트레스’와 같이 부정적인 속성의 대상 논항을 취하는 경우에는 착점인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전달되는 부정적인 수혜 사건으로 해석된다.

‘수혜(benefaction)’란 한 개체가 다른 개체로부터 사물(object)을 얻어 이득을 받거나 다른 개체의 행위로 인해 혜택을 받는 상황 또는 사건을 나타내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수혜 구문에 나타나는 ‘수혜자(beneficiary)’는 다른 개체의 행위로부터 이득을 얻는 개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학자마다 수용자(recipient)에 소유의 범위를 포함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수혜자(beneficiary)와 개념적으로 중첩되어 둘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Newman(1996)에서도 수용자와 수혜자가 통제(control) 또는 소유(possession)의 차이를 보이나 개념적으로 서로 얽혀 있다고 밝히고 있다. Kittilä(2006)에서는 핀란드어와 같이 수용자와 수혜자가 형태·통사적 차이를 보이며 비교적 명확

히 구분되는 언어도 있다고 제시하였다. 핀란드어에서 수용자의 경우에는 ‘-에 (to)’, ‘-를 향해서(toward)’와 같은 향격(allative) 표지가 붙어 실현되나, 수혜자에는 그러한 향격 표지가 붙어 나오지 않는다. Kittilä(2006)에서는 ‘수용자’를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의 결과로 자신의 통제 구역으로 이전된 개체를 받는 참여자’로 보았고, ‘수혜자’는 사건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참여자로 행동주에서 수혜자로 이동되는 대상물이 없는 경우라고 구분하였다. 그러나 수용자는 구체물을 전달받음으로써, 수혜자는 추상적인 대상이나 영향을 받음으로써 모두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행위에서 이득을 얻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어의 ‘주다’ 구문도 핀란드어와 유사하게 착점을 나타내는 ‘-에게’ 여격 논항의 실현 여부에 따라 대상이 유정물의 착점인 수용자(recipient)에 이동하게 된 사건인지 아니면 단순히 수혜자(beneficiary)에 어떠한 수혜를 입히는 사건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착점을 나타내는 ‘-에게’ 여격 논항이 명시적으로 실현된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처소 이동’의 사건을 나타내며 대상의 속성이나 상황적 함축에 따라 소유 이전이나 수혜적인 의미도 도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명시적인 ‘-에게’ 여격 논항이 실현되지 않는 ‘주다’의 구문은 ‘처소 이동’의 사건을 나타낼 수 없으며 수혜 사건으로만 해석이 가능하다.⁷⁰⁾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어의 ‘주다’는 다음과 같은 사건 구조로 표상될 수 있다.

(18) ‘주다’의 사건 구조

a. 처소 이동(Change of Location) [+CL]

[x CAUSE [y BECOME <BE-AT z>]]

b. 소유 이전(Possession Transfer)

[x CAUSE [y BECOME <BE-IN POSSESSION-OF z>]]

c. 수혜(Benefaction)

[[x CAUSE [y BECOME <BE-AT z>]]

BECOME (MAL-)BENEFACTIVE TO z]

70) Song(2010)에서는 Van Valin & La Polla(1997)의 ‘수혜 의미 유형론 (Benefactive Semantic Typology)’에 따라 한국어에 수혜 구문을 나타내는 어휘소들이 ‘-에게’, ‘-위해’, ‘대신’ 세 가지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문장을 구성하는 데 ‘-에게’가 ‘-위해’, ‘대신’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고 보지 않는다. ‘-위해’, ‘대신’은 생략되어도 문장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가어 성분이나 ‘-에게’는 생략될 경우 문장의 성립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필수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논항으로 본다.

‘주다’는 기본적으로 ‘행동주(x)에 의해 대상(y)이 착점(z)으로 이동하게 된’ 하나의 복합 사건을 나타낸다. ‘주다’의 논항 구조상에 ‘-에게’로 실현된 착점 논항은 (18a)의 사건 구조상에서 하위 사건 내의 대상이 이동하게 된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BE-AT z> 내에 ‘z’에 해당되는 논항이다. 이러한 ‘주다’ 구문은 앞서 언급한 대로 처소 이동 사건과 동시에 ‘주다’가 취하는 대상 논항의 속성에 따라 ‘소유 이전’의 사건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문장 전체의 맥락이나 상황적 함축에 의해 수혜 사건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수혜적 의미는 사건 구조상에 미명세되어(underspecified) 주어진 것으로 표상된다. 여기서는 ‘주다’의 본동사로서의 의미와 보조동사로서의 의미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다’의 기본 의미인 ‘처소 이동’ 사건에서 ‘수혜’ 사건으로 ‘주다’의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본다.

Rappaport Hovav & Levin(2006)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영어에서는 구문의 차이가 그 사건의 차이를 반영 또는 나타낸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어순이 자유로운 편인 한국어에서는 구문의 차이가 아니라 ‘주다’가 취하는 논항의 의미적 속성에 따라 사건의 유형이 ‘처소 이동’ 또는 ‘소유 이전’이나 ‘수혜’ 등으로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3.4. [V1+어+V2{가다/오다, 주다}] 연쇄동사 구문의 형성

Aikenvald(2006)에서는 연쇄동사 구문이 상태보다는 하나의 사건이나 과정을 기술하기 때문에 상태를 나타내거나 사건을 나타내지 않는 동사들은 연쇄동사 구문에 나타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Ko & Sohn(2015)에서는 한국어 연쇄동사 구문의 유형을 v의 병합 위치에 따라 H-SVC(예: 밟아 죽이다)와 L-SVC(예: 꿰어 얹히다)로 구분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두 동사의 v핵의 자질 유형(feature type)이 동일한 경우에만 연쇄화가 가능하며 한국어에서는 그 자질이 [±agent]인 것으로 제시되었다.⁷¹⁾ 강현화(1998)에서는 한국어에서 [V1+어+V2]형

71) Ko & Sohn(2015)에서 제시하는 ‘동사 연쇄화 연결 조건(Matching condition on verbal serialization)’은 다음과 같다.

(i) Matching Condition on Verbal Serialization:

Verbs can be serialized with each other only when their v heads have the

의 동사 구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연쇄되어 나타나는 두 동사 사이에 일정한 제약이나 규칙을 일반화하여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기존에 본고에서 다루는 ‘가다/오다’, ‘주다’가 어떠한 동사들과 결합하여 [V1+어+V2]의 동사 구성 또는 하나의 구문을 이루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는 논의로는 Sohn(1976), 채희락(1999), 임지룡(2000), 박승윤(2003), 정주리(2006) 등이 있다. 그중 V2에 ‘가다’가 오는 경우를 채희락(1999:10)에서는 ‘건너가다’, ‘지나가다’ 등과 같이 ‘경로(Path)+경로(Path)’가 결합된 유형과 ‘걸어가다’, ‘달려가다’ 등과 같이 ‘양태(Manner)+경로(Path)’의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제시하며 이들을 ‘가다’와 결합하는 복합동사로 분류하였다. 임지룡(2000:33~36)에서는 V2에 ‘가다’가 오는 [V1+어+V2]를 합성형 이동동사로 보고, ‘가다’는 ‘이동+직시소’의 의미 기능을 하는 초점부이며, V1에 오는 동사들의 의미 유형을 ‘방향경로’(예: ‘들어가다’, ‘올라가다’ 등), ‘배경경로’(예: ‘건너가다’, ‘거처가다’ 등), ‘이동방식’(예: ‘걸어가다’, ‘달려가다’ 등), ‘부대방식’(예: ‘끌어가다’, ‘몰려가다’, ‘잡아가다’, ‘옮겨가다’, ‘따라가다’ 등), ‘원인’(예: ‘끌려가다’, ‘밀려가다’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에서는 [V1+어+V2{가다}]가 어떠한 의미적 속성을 지닌 동사들이 결합되어 어휘화된 것인지는 밝히고 있으나 그러한 의미적 속성이 [V1+어+V2{가다}]가 구성하는 문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주다’의 경우에는 박승윤(2003), 정주리(2006)에 따르면, 대상이 이미 존재하거나 새로이 존재하게 되는 즉 대상의 존재 변화나 산출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와 결합하여 ‘-에게’를 도입하는 구문을 이룬다. 박승윤(2003:115)에서는 ‘주다’가 ‘전달’이라는 사태를 나타내며 “어떤 개체나 사태가 존재하게 된다는 의미를 부수적으로 지닌 것”으로, 이러한 ‘주다’의 의미적 특성으로 인해 ‘사 주다’, ‘그려 주다’, ‘써 주다’, ‘읽어 주다’ 등의 존재나 산출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와 결합하여 ‘-에게’라는 여격 논항이 실현되는 수혜 구문을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박승윤(2003)에서는 ‘제거 동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버려 주

same featural property in introducing an external argument.

차가영(2015)에서는 ‘주다’는 [+agent] 자질을 지닌 vDO 동사로, 이러한 Ko & Sohn(2015)의 ‘동사 연쇄화 연결 조건’에 따라 동일한 자질을 지닌 vDO나 vCause 술어와만 연쇄동사 구문을 구성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 (ii) a. 잡아 주다(vDO-주(vDO)), 익혀 주다(vCause-주(vDO))
- b. *잡혀 주다(vPass-주(vDO)), *익어 주다(vBECOME-주(vDO))

다’, ‘감춰 주다’, ‘없애 주다’ 등의 주로 제거 동사류가 결합된 ‘주다’ 구문에서는 ‘-에게’의 여격 논항이 실현될 수 없고 ‘-(를) 위해’가 나타나는 전형적인 수혜 구문만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다른 의미 부류에 속하는 동사들과의 결합 양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밝히고 있지는 않다.

‘가다/오다’, ‘주다’는 거의 모든 술어와 결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넓어 가다(오다)/주다’, ‘*낮아 가다(오다)/주다’, ‘*예뻐 가다(오다)/주다’ 등과 같이 어떠한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몇몇 술어와는 결합하여 나타날 수 없다. 이들을 앞서 제시한 Aikenvald(2006)의 논의에 따라 설명하자면, 선행 술어들이 나타내는 어떠한 속성이나 상태가 다른 개체에게로 이동시키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류이기 때문에 어떠한 개체의 이동을 나타내는 의미적 특성을 지닌 ‘가다/오다’, ‘주다’와 결합하여 하나의 동사 구문을 이룰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술어는 ‘-(어)지’와 결합한 형태로만 ‘가다/오다’와 연쇄되어 보조동사 구문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높아 가다’, ‘깊어 가다’의 경우에는 ‘-(어)지’와 결합하지 않고도 ‘가다’와 결합하여 보조동사 구문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 Zubizarreta & Oh(2007:109~110)에서는 ‘가다’가 기본적으로 ‘존이 시장에 갔다’의 예에서와 같이 처소(locative)를 나타내는 경로(path)와 양립이 가능한 동사인데 ‘존이 죽어갔다(John was on the path to death.)’, ‘존이 사라져갔다(John was on the path to disappearance.)’, ‘연극이 끝나갔다(The performance approached the end.)’와 같이 ‘가다’가 그것의 경로 논항으로 달성 동사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가다’가 추상적 경로나 척도를 따라 이동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가다’는 진행을 나타내는 ‘-고 있다’와 양립할 수 있으나 결과 상태나 종결 표지인 ‘-어 있다’와는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김신희(2009)에서는 ‘가다’가 [GO([E], [PATH()])]의 의미 함수를 갖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본동사로서의 ‘가다’와 마찬가지로 보조동사로서의 ‘가다’도 추상화된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통사적으로 본동사로서 ‘가다’가 취하는 경로는 논항으로 실현되나 ‘가다’가 보조동사로 쓰인 구문에서는 그러한 경로가 통사적으로 연결 어미 ‘-아/어’와 결합한 절의 형태로 실현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C. Lee(2008; 2013)에서 ‘처소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 $\neg P \rightarrow P$ ’로 이동하는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의미는 추상적인 상태 변화로 확장 가능한 것으로 ‘처소 변화’와 ‘상태 변화’의 의미가 평행선상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것과 상통한다. 이러한 기존의 논의들에서와 같이 어떠한 ‘상태성’

의 정도에 따라 척도가 형성되며 추상적으로 경로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다’와 결합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넓어 가다(오다)/주다’, ‘*낮아 가다(오다)/주다’, ‘*예뻐 가다(오다)/주다’ 등은 가능하지 않으나 ‘높아 가다’, ‘깊어 가다’ 등은 가능한 것을 볼 때, ‘속성’이나 ‘상태’라는 동일한 의미적 속성을 지닌 술어들 간에도 ‘가다/오다’, ‘주다’와의 결합 여부에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⁷²⁾

본고에서 동사의 의미를 표상하는 데 활용되는 사건 구조에는 동사의 의미 유형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가다/오다’, ‘주다’가 어떠한 의미 부류에 속하는 동사들과 결합하는지를 알 수 있다. [V1+어+V2(가다/오다, 주다)] 연쇄 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가다/오다’, ‘주다’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구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다/오다’, ‘주다’는 1항 술어의 ‘자동사(intransitive verb)’, 2항 또는 3항 술어의 ‘타동사(transitive verb)’, 3항 술어의 ‘이중 타동사(ditransitive verb)’ 등 거의 모든 술어들과 결합하여 [V1+어+V2(가다/오다, 주다)] 구문을 형성한다. ‘가다/오다’는 비능격(ungative) 동사와 비대격(unaccusative) 동사로 구분되는 두 부류의 자동사와 모두 결합할 수 있으나 그때의 ‘가다/오다’의 의미와 기능은 다르다.

- (19) a. 철수가 걸어 갔다.
 b. 철수가 죽어 갔다.⁷³⁾

72) 김윤신(2008)에서는 기존에 ‘-어 가다’와 ‘-어 오다’가 지시적 방향성에서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 보조 용언으로 쓰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속’ 또는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본용언 구문의 사건 구조에 따라서 ‘-어 가다’와 ‘-어 오다’가 비대칭성을 보이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어 가다’, ‘-어 오다’를 복합 사건을 논항으로 취하여 선행하는 과정 사건에 중점을 갖는 복합 사건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사건 함수로 정의하고, 이러한 ‘-어 가다/오다’는 ‘*예뻐 가다/오다’와 같이 본용언의 사건이 단순한 과정이나 상태로 이루어진 단순 사건인 경우에는 보조용언 구성을 이루지 못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한편 김윤신(2008:65)에서는 ‘뛰어 가다’와 같이 ‘가다’가 ‘뛰다’와 같은 행위 사건의 구문과 결합하게 되면 ‘-어 가다’나 ‘-어 오다’의 구성은 보조용언 구성이 아니라 두 개의 본용언이 연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73) ‘걸다’와 같은 행위 동사는 ‘가다’와 ‘오다’가 대칭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죽다’와 같은 달성 동사는 ‘가다’와는 결합할 수 있으나 ‘오다’와는 결합할 수 없다(죽어가다-*죽어오다). ‘가다’가 화자 또는 기준에서 멀어지는 사건을 나타낸다면 ‘오다’는 화자 또는 기준으로 가까워지거나 종결점에 도착한 사건을 나타낸다. ‘죽다’라는 사건은 목숨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멀어져 목숨이 끊어지는 종결점

‘가다/오다’가 (19a)와 같이 비능격(unergative) 동사인 ‘걷다’, ‘달리다’ 등과 결합하였을 때에는 ‘이동’의 의미를 나타내나, (19b)와 같이 비대격(unaccusative) 동사인 ‘죽다’ 등과 결합하였을 때는 V1 ‘죽다’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V1+어+V2]의 동사 구성에서 V2 ‘가다/오다’가 (19a)와 같이 본동사로서의 ‘이동’의 의미를 문장에 투사하는 경우에는 연쇄동사 구문이고, (19b)와 같이 ‘진행’이나 ‘지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보조동사로 쓰인 것이다.

- (20) a. 철수가 교실에 들어 갔다.
 b. 철수가 산 정상에 올라 갔다.
 c. 철수가 횡단보도를 건너 갔다.⁷⁴⁾
 d. 철수가 울타리를 넘어 갔다.
- (21) a. 이 형사가 범인을 경찰서에|경찰서로 잡아 갔다.
 b. 철수가 소를 외양간으로 끌고 갔다.
 c. 영희가 밥상을 방에 들여 갔다.
 d. 철수가 영희에게 편지를 보내 왔다.

‘가다/오다’는 (20)에서와 같이 행동주 외에 처소 논항을 취하는 2항 술어들과도 결합하여 연쇄동사 구문을 이룬다. (20a)와 (20b)는 착점(Goal) 논항을 취하는

(telic point)을 향해 상태가 변화하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V1이 ‘죽다’와 같은 달성 사건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오다’와 결합할 수 없다. ‘가다’와 ‘오다’가 둘 다 직시적 기능을 하는 동사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동한 사건을 나타내는가 하는 속성의 차이에 따라 다른 동사들과의 결합에서도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가다’와 ‘오다’의 비대칭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각주에서 제시한 김윤신(2008)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74) 이익섭(2005:313~314)에서는 동사 연쇄가 합성어를 이루고 있는 예로 ‘건너가다’, ‘다녀가다’, ‘지나가다’ 등을 들고 있는데 채희락(2016)에서는 이들을 단순히 합성동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단어 중간에 다른 외부 요소가 개입될 수 없는 합성동사와 달리 ‘건너가다’는 ‘건너’와 ‘가다’ 사이에 ‘-는/도/만’과 같은 한정사가 삽입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건너가다’는 두 동사의 의미가 합성적으로 결합된 의미와 그 두 동사의 의미의 단순한 합이라고 볼 수 없는 의미로도 쓰이므로 일반적인 합성동사와 구분되는 부류임을 채희락(2016)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전통적으로 합성동사라고 했던 것이 대부분 합성어가 아니며 새로운 관점으로 관용 표현과 합성어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사와, (20c)와 (20d)는 경로(Path) 논항을 취하는 동사와 ‘가다/오다’가 결합한 경우이다. 또한 (21a)와 (21b)는 2항 술어의 타동사와, (21c)와 (21d)는 3항 술어의 타동사와 ‘가다/오다’가 결합하여 연쇄동사 구문을 이룬 예들이다. (21c)의 ‘보내다’와 같은 이중 타동사는 ‘오다’와만 결합이 가능한 대표적인 예이다.⁷⁵⁾ 그런데 논항 자릿수가 동일한 동사들이라고 해도 ‘가다/오다’와 연쇄동사 구문을 이룰 때 논항들이 합성되는 유형이 다르고 사건 구조상의 논항들이 합성되는 방식도 다르다. ‘가다/오다’와 결합하는 V1이 처소 논항을 취하는 동사인 경우에는 처소 논항의 [±처소 변화] 속성에 따라 연쇄동사 구문의 형성 여부나 합성 유형이 달라진다. ‘가다/오다’와 결합하는 V1의 의미 유형에 따라 구분해 보자면, 양태 동사(예: ‘걸어 가다’), 경로 동사(예: ‘건너 가다’), 결과(행위) 동사(예: ‘잡아 가다’), 행위 동사(예: ‘끌어 가다’, ‘읽어 가다’), 산출 동사(예: ‘만들어 가다’), 이동 동사(예: ‘실어 가다’, ‘들여 가다’)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은 기존의 논의들에서 주로 합성동사로 분류되거나 ‘가다/오다’가 직시적(deictic) 기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본고에서는 이들의 V1과 V2 ‘가다/오다’의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가 합성되는 방식에 따라 유형화하여 제시한다.

‘주다’도 ‘가다/오다’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동사들과 결합하여 연쇄동사 구문을 형성할 수 있다.⁷⁶⁾

(22) a. 철수가 영희에게 빵을 만들어 주었다.

b.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읽어 주었다.

c. 철수가 영희에게 공을 던져 주었다.

75) ‘가다’와 ‘오다’가 [V1+어+V2]의 동사 구성을 이룰 때 항상 대칭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기존에 이러한 ‘오다’와만 결합하는 ‘보내오다’류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박양규(1987)가 있다.

76) 정주리(2006)에서는 ‘주다’ 구문을 연쇄동사 구문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기존의 다른 논의들에 비해 ‘주다’가 다른 동사들과 나타나는 구문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먼저 ‘주다’가 없이도 수여 구문을 이루는 구문과 ‘주다’가 없으면 수여 구문을 이루지 못하는 구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전자는 ‘주다’에 의해 문장의 구조가 결정되지는 않고 ‘수여성’이나 ‘도달성’만이 강조되는 구문이다. 후자는 박승윤(2003)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V1이 대상물의 제작과 관련된 생성 동사(generative verb)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구문으로 ‘주다’가 전체 문장의 수여 구문의 구조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주다’가 타동사 구문과 결합하는 경우와 자동사 구문과 결합하는 구문을 구분하였는데 V1이 타동사인 경우에는 ‘주다’가 V1에 의해 나타나는 사태를 전달하거나 잠재적 수여성을 나타내며, V1이 자동사인 경우에는 ‘주다’가 수혜성 또는 유익성을 나타내거나 공손 표현을 나타낸다고 제시하였다.

- d. 철수가 영희에게 명함을 건네 주었다.
- e. 철수가 친구들에게 자신의 결혼 소식을 알려 주었다.
- f. 철수가 영희에게 목걸이를 걸어 주었다.
- g. 철수가 영희에게 장바구니에 과일을 담아 주었다.
- h. 철수가 조카에게 지갑에서 돈을 꺼내 주었다.
- i. 철수가 영희를 다락방에 숨겨 주었다.
- j. 철수가 영희의 책상에서 책을 치워 주었다.
- k. 철수가 영희를 도와 주었다.
- l. 철수가 영희에게 웃어 주었다.
- m. 철수가 잘 자라 주었다.

(22a)와 (22b)는 ‘주다’가 2항 술어 타동사와, (22c)~(22e)는 ‘주다’와 동일한 ‘-에게’ 여격 논항을 취하는 이중 타동사와 결합하여 연쇄화 구문을 이룬 경우이다. (22f)~(22j)에서와 같이 ‘-에’나 ‘-에서’의 처소 논항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동사들과도 ‘주다’가 결합하여 연쇄동사 구문을 이룬다. 또한 (22k)는 (22a)와 (22b)와 같이 타동사와 ‘주다’와 결합한 경우이고 (22l)과 (22m)은 ‘주다’가 자동사와 결합한 경우이다. 이러한 [V1+어+V2{주다}] 구문들은 ‘주다’와 결합하면서 ‘-에게’ 여격 논항을 도입하게 되어 V1의 논항 구조가 변하는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선행 동사들과 ‘주다’가 결합할 때 두 동사의 논항들이 합성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V2 ‘주다’와 결합하면서 착점 논항 ‘-에게’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처소 이동 사건을 나타내게 되며 맥락이나 상황적 함축에 따라 수혜적 사건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나 V2 ‘주다’와 결합하면서도 착점 논항 ‘-에게’를 도입하지 않는 구문은 대상의 직접적인 이동이나 소유 이전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V1의 행위의 결과나 사건으로 인해 사건 참여자가 수혜를 받게 되는 단순 수혜 사건만을 나타낸다. ‘주다’와 결합하는 V1의 의미 유형도 산출 동사(예: ‘만들어 주다’), 상태 변화 동사(예: ‘깎아 주다’), 행위 동사(예: ‘던져 주다’), 수여 동사(예: ‘건네 주다’), 인지 행위 동사(예: ‘알려 주다’), 이동 동사(예: ‘담아 주다’, ‘꺼내 주다’), 제거 동사(예: ‘치워 주다’)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V1이 동일한 의미 부류에 속하는 동사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V2와 동일한 양상으로 결합하는 것은 아니며, V1과 V2가 취하는 착점이나 대상 논항의 속성에 따라 두 동사가 결합하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동사들과 ‘가다/오다’, ‘주다’가 결합하여 연쇄동사 구문을 이룬

때, 어떠한 방식으로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가 합성되는지에 대해서는 4장과 5장에 걸쳐 자세히 살펴보고 유형화하여 제시하도록 하겠다. ‘가다/오다’, ‘주다’가 나타내는 사건의 유형, 다른 동사들과 결합할 때의 양상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3)		가다/오다	주다
사건 유형	처 소 이 동	[행동주](또는 [대상])의 이동	행동주에 의한 [대상]의 처소 이동
		[V1+어+V2] (i) [행동주](또는 [대상])의 처소 이동 (ii) [행동주+대상]의 처소 이동	[V1+어+V2] (i) 행동주에 의한 [대상]의 처소 이동
주어(행동주)의 속성 : V1의 주어와의 속성 일치 여부		일치 ×	일치 ○
주어(행동주) 외에 통합 고려 대상 (공유 논항)		처소 논항(착점/기점/경로)	착점/기점, 대상 논항
V1 → [V1+어+V2]		(i) V2에 의해 (기본적으로) [착점] 논항 도입 (ii) V1이 대상 논항 ‘-를’을 취하는 경우에는 V1에 의해 [대상] 논항을 도입	(i) V2에 의해 [착점] 논항 도입 (ii) V1과 V2가 [대상] 논항을 공유

4. 한국어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 합성 유형

4.1.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 합성 방식과 유형

V1과 V2 ‘가다/오다’, ‘주다’의 논항들이 합성되는 방식은 병렬적 합성 유형(Summation Type), 통합적 합성 유형(Unification Type), 혼합적 합성 유형(Mixed Composition Type)으로 나눌 수 있다. ‘가다/오다’는 V1과 주어(행동주/대상) 논항을, ‘주다’와 같은 3항 술어의 경우에는 주어(행동주)와 대상(목적어) 논항을 공유하며, V2에 의해 착점 논항을 도입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V1과 V2가 공유하는 처소 논항이 실현된 것인지에 따라 합성 유형이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⁷⁷⁾

‘병렬적 합성 유형’은 V1과 V2가 결합하면서 가지고 있던 논항들을 모두 포괄하여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 내에 실현시키는 합성 방식으로 이 유형에 속하는 부류들은 V2에 의해 착점 논항을 새로이 도입하게 된다. ‘통합적 합성 유형’은 V1과 V2가 완전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속성의 논항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그것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으로 실현시키는 유형이다. ‘혼합적 합성 유형’은 V1의 논항 구조에서는 허용하던 논항을 V2와 결합한 이후에는 허용하지 않게 되거나 V2와 결합하여도 착점 ‘-에’나 ‘-에게’를 취하지 않고 V1의 논항 구조를 유지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4.1.1. 논항 구조와 의미역 위계 구조

두 동사가 결합하여 연쇄동사 구문을 이룰 때, 각기 동사가 가지고 있던 논항들이 합성되어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를 이룬다. 앞서 연쇄동사 구문의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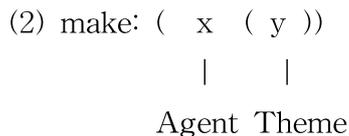
77) 한국어의 [V1+어+V2] 동사 구성을 연쇄동사 구문으로 다룬 Kim & Oh(2013)에서도 ‘-어 가다/오다’의 경우에는 V2 ‘가다/오다’에 의해 ‘학교에’와 같은 사격 논항(oblique argument)을 연쇄동사 구문에 도입하게 되며, ‘-어 주다’의 경우에는 V2 ‘주다’가 V1과 주어와 목적어를 공유하며 여격 논항(dative argument)을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 내에 도입하는 것으로 보았다.

사적 특성에서 밝힌 대로, Barker(1989), Collins(1997), Stewart(2001), Aikenvald(2006), S. Lee(1992), J. Kim(1993), Chung & Kim(2008), 김재운(2000) 등에서는 두 동사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논항을 공유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두 동사의 논항들이 합성될 때 논항들의 의미역이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가가 주요 기제로 작용한다.⁷⁸⁾

Grimshaw(1990)⁷⁹⁾에서는 논항 구조의 의미역들이 다음과 같은 상대적인 위계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논항의 계층적 구조에 따라 통사 구조상에 실현되는 위치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1) (Agent (Experiencer (Goal/Source/Location (Theme))))

가장 바깥쪽 높은 곳에 위치한 외부 논항 행동주(Agent)에서부터 가장 안쪽 아래에 위치한 내부 논항 대상(Theme)까지 위계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이러한 위계 구조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논항부터 통사 구조의 성분들과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상정된다. 이는 통사 구조상에서 서술어를 중심으로 한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와도 상관성을 지닌다. Grimshaw(1990)에서는 상대적인 위계 관계에 있는 논항들을 논항 구조상에서는 의미역 대신 ‘x’와 ‘y’같은 변항으로 표기하였다.



Li(1990)는 이러한 Grimshaw(1990)의 이론을 받아들여 중국어의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가 산출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Li(1990)에서는 두 동사가 연쇄동사 구문을 이룰 때 ‘논항 동일화(identification)’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

78) Jayaseelan(1988:98)에서는 복합 술어의 논항들에 의미역 할당(θ-role assignment)이 (i) 통사 구조상 가장 하위 단계를 제외하고 구절 교점(phrasal node)에 의해 이뤄지며, (ii) 구절 교점(phrasal node)에 주어지는 의미역 틀(θ-frame)은 그것의 구성 요소에 의해 합성적으로 결정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79) Grimshaw(1987; 1990)를 비롯해 Carter(1976), Marantz(1984), Foley & Van Valin(1984) 등에서는 이러한 통사·의미 논항들의 위계 구조에 따라 의미역-통사 성분 간에 대응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위계적 접근법(hierarchical approach)에 따른 연결 이론(Linking Theory)을 제시하였다.

하였다. 그런데 정태구(1993; 1995)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논항들이 상대적인 위계 관계에 놓여있다는 가정 아래, 아무런 제약 없이 동일화가 이루어진다고 상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언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수까지 산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하여 정태구(1993; 1995)에서는 Li(1990)의 ‘논항 동일화’ 기제는 받아들여져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동사들의 논항들이 동일화되는 조건을 제한하였다. 정태구(1993; 1995)에서는 <Ag(ent), Ins(trument), Th(eme), Go(al), Lo(cation)> 순의 ‘절대 논항 계층 구조’를 설정하고 V1과 V2가 결합하기 이전에 각기 취하고 있던 논항이 같은 절대 층위의 의미역을 가지는 경우에만 두 논항이 동일화되어 연쇄동사 구문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논항 동일화 조건’을 제시하였다.⁸⁰⁾

(3) 철수가 담을 뛰어 넘었다.

V1: 뛰다 <Ag>

V2: 넘다 <Ag', Th'>

⇒ [V1+V2]: 뛰어 넘다

(i) <Ag=Ag', Th'> (ii) *<Ag', Ag=Th'>

(iii) *<Ag, Ag', Th'> (iv) *<Ag, Th', Ag'>

정태구(1993; 1995)에 따르면 (i)~(iv) 중에 (3)의 의미와 일치하는 것은 V1 ‘뛰다’와 V2 ‘넘다’의 논항 구조에서 동일한 층위에 있는 행동주(Ag) 논항이 일치되어 실현되는 경우 (i)뿐이다. (i)만이 절대 논항 계층 구조와 논항 동일화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 정확한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를 도출해낸다는 것이다.

80) 정태구(1993)에서는 두 동사가 연쇄되어 하나의 구문을 이룰 때 작용하는 제약 조건을 ‘논항 구조 제약’, ‘(통사적) 구조적 제약’, ‘의미/화용적 제약’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먼저 ‘논항 구조 제약’으로는 본문에서 제시한 ‘절대 층위 제약 (Absolute Prominence Constraint)’과 ‘논항 동일화 조건(Condition on Argument Identification)’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논항 구조 제약’에 따라 논항 구조의 결합 유형을 (i) 완전 통합(Total Identification), (ii) 부분 통합(Partial Identification), (iii) 비통합(No Identification)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구조적 제약’으로는 ‘최상위 논항의 핵 보존(Preservation of the Highest Argument of Head: PHAH)’ 제약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의미/화용적 제약’으로는 Li(1992)에서 제시한 ‘시간적 도상성 조건(Temporal Iconicity Condition)’을 받아들여 연쇄되어 나타나는 두 동사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일어난 순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데 그쳤다. 정태구(1993)에서는 통사적 측면에서 두 동사가 연쇄되어 나타나는 구문의 형성과 제약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고에서도 정태구(1993; 1995)에서와 같이 동일한 의미역을 가진 논항들이 하나로 일치되어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으로 실현된다고 본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다/오다’와 같은 이동 동사는 착점 논항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동사이다. 이러한 ‘가다/오다’가 착점뿐만 아니라 기점, 경로 등의 처소 논항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다른 동사와 결합하여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경우에 그 두 동사의 처소 논항들이 합성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처소 논항들도 분명한 기준에 의해 그 위계 관계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태구(1993; 1995)에서는 착점(Goal)과 그 외의 처소 논항으로만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앞서 상대적 위계 구조를 상정한 Grimshaw(1990)에서는 착점(Goal), 기점(Source), 장소(Location)의 의미역 간에 위계가 아예 설정되어 있지 않다. 본고에서 다루는 V2에 ‘가다/오다’가 오는 연쇄동사 구문의 경우에는 ‘가다/오다’가 필수적으로 취하는 착점 논항 ‘-에’와 V1이 취하는 처소 논항들의 의미역이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처소 변화]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합성 여부가 결정된다고 본다. 그러한 [±처소 변화]의 속성에 따라 처소 논항들이 가지는 의미역들 간에 위계 구조가 설정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그것들이 통사적으로 실현되는 양상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주다’의 경우에도 V1의 착점이나 기점과 같은 처소 논항의 의미적 속성에 따라 ‘주다’가 취하는 여격 표지 ‘-에게’가 결합된 착점 논항과의 합성 유형이 달라진다.

처소 논항들의 위계 구조를 설정하기 위해 먼저 Nam(1995)⁸¹)에서 영어의 처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PPs)의 분류에서 적용했던 기준을 사용하여 한국어의 처소 표현을 비대칭적 처소(Asymmetric Locatives)와 대칭적 처소(Symmetric Locatives)로 구분하고자 한다. Nam(1995)에 따르면, 대칭적 처소는 영어에서 ‘*across the forest*’와 같이 경로상에 착점과 기점 영역이 미명세되어 있는 경로를 나타낸다. 이러한 대칭적 처소는 착점과 기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81) Nam(1995)에서는 영어에서 처소 표현이 나타내는 의미를 처소 이동을 나타내는 ‘이동-방향(movement-directional): 경로(path)와 처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사건이 상태 맥락에서만 일어나는 ‘상태-처소(stative-locational): 지향점(orientation)’으로 범주화하여 나누었다. 또한 영어에서 처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PPs)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 (i) Topological Invariants: PPs with ‘at’, ‘in’, ‘on’
- (ii) Orientational Locatives: PPs with ‘in front of/behind’, ‘above/below’, ‘on top of/under’, etc.
- (iii) Directional Locatives: PPs with ‘to’, ‘from’, ‘into’, ‘out of’, ‘towards’, etc.
- (iv) Symmetric Locatives: PPs with ‘across’, ‘through’, ‘over’, ‘past’, ‘around’, etc.

않지만 한 지점(기점)에서 그 반대편(착점)으로 이동하였다는 ‘처소 변화’를 함의하는 경로이다. 이와 비교했을 때, ‘to the library’와 같은 전치사구(PP)는 특정한 착점 영역인 ‘the library’는 포함하고 있으나 특정한 기점 논항은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대칭적 처소로 분류된다. 여기서도 이러한 논의에 근거해 한국어의 처소격(Locatives)을 비대칭적 처소(Asymmetric Locatives)와 대칭적 처소(Symmetric Locatives)로 나누되, 다시 [+처소 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4) a. 비대칭적 처소(Asymmetric Locatives)

(i) [+처소 변화(+Change of Location/+RESULT)]

- ① 착점(Goal): ‘-에’, ‘-에게’
- ② 기점(Source): ‘-에서’⁸²⁾

(ii) [-처소 변화(-Change of Location/-RESULT)]

- ① 방향(Direction/Orientation): ‘-로’
- ② 행로(Route): ‘-를’, ‘-로’
- ③ 장소(Place): ‘-에서’

b. 대칭적 처소(Symmetric Locatives)

(i) [+처소 변화(+Change of Location/+RESULT)]

- ① 경로(Path): ‘-를’

행동주나 대상이 이동한 도착점이나 출발점을 나타내는 ‘착점’과 ‘기점’은 한 지점만을 나타내는 비대칭적 처소로 처소가 변화하였음을 함의하는 [+처소 변화]의 처소격에 해당된다. 그런데 ‘기점’은 그것을 취하는 동사에 따라 종결성(telicity)의 정도에 있어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방향’을 나타내는 ‘-로’는 이동의 ‘방향’만으로는 처소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없으므로 [-처소 변화]의 처소격에 해당된다. 그러나 동사에 따라 ‘오다’의 경우와 같이 ‘-로’만으로도 ‘처소 변

82) 기점을 나타내는 ‘-에서’는 그 기점으로부터 이동하여 더 이상 그 기점에 있지 않게 된 결과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나 ‘꺼내다’, ‘치우다’와 같이 동사에 따라 그 동사가 취하는 기점의 종결성(telicity)의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절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운동장에서 놀았다’와 같은 문장의 ‘-에서’는 단순한 장소(place)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점의 ‘-에서’와 달리 처소 변화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화' 사건을 나타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표면상으로는 동일한 '-를'로 실현되나 [±처소 변화]의 속성에 따라 '경로(Path)'와 '행로(Route)'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⁸³⁾

(5) a. 철수가 오솔길을 걸었다.

b. 철수가 바닥을 기었다.

(6) a. 철수가 *(다리를) 건넜다.

b. 철수가 *(울타리를) 넘었다.

(7) a. 철수가 *(운동장을) 돌았다.

b. 철수가 *(길모퉁이를) 돌았다.

(5)의 '걷다'나 '기다'와 같이 이동 방식을 나타내는 양태 동사(manner verb)들은 '-를'이 생략되어도 문장이 성립되므로 이때의 '-를'은 수의적인 논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양태 동사와 공기하는 경로는 이동의 경로를 나타내기는 하나 그 이동의 행위로 어떠한 처소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함의하지 않는 행로(Route)를 나타낸다. 이와 달리 (6)과 (7)의 '건너다', '넘다', '돌다' 등의 경로 동사(path verb)들은 '-를'로 실현되는 처소 논항이 생략되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 즉 처소 논항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동사들이다. (6)의 '건너다', '넘다'는 Nam(1995)에서 제시한 영어의 'across'와 같은 대칭적 처소를 취하는 동사에 해당된다. 이러한 '건너다', '넘다'가 취하는 '-를'은 착점과 기점이 미명세되어 있지만 '-를'로 실현된 경로를 거쳐 한 지점(기점)에서 반대편(착점)으로 처소 변화가 일어났음을 함의하는 경로(Path)에 해당된다. (7)의 '돌다'는 '-를'로 실현되는 처소 표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동사인데 행로(Route)와 경로(Path) 둘 다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행로(Route)와 경로(Path)는 다른 상적 특성(aspectual

83) 기존에 홍재성(1987:21)과 홍기선(1995:467) 등에서도 '행로'와 '경로'를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리를 건너가다'에서 '다리를'과 같이 '이동의 동작에 의해 직접적으로 거쳐 가게 되는 공간'은 '행로(parcours/course)'로 분류하였고 '오솔길로 걸어가다'나 '다리로 강을 건너다'에서 '오솔길로'나 '다리로'는 '이동의 목표가 되는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선택하여 통과하는 지점이나 공간'으로 '경로(passage)' 또는 '통로(path)'로 구분하였다. 본고에서 구분하는 '행로'와 '경로'의 개념과 해당 명칭이 반대되나 이동의 결과로 인한 처소 변화의 유무라는 기준에서 구분한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character)을 보이는 부사구와의 결합 양상을 통해서도 구분할 수 있다.

(8) a. 철수가 오솔길을 한 시간 동안 걸었다.

b. ??철수가 오솔길을 한 시간 만에 걸었다.

(9) a. *철수가 다리를 한 시간 동안 건넜다.

b. 철수가 다리를 한 시간 만에 건넜다.

(10) a. 철수가 운동장을 한 시간 동안 돌았다.

a'. 철수가 운동장을 한 시간 만에 (다) 돌았다.

b. *철수가 모퉁이를 한 시간 동안 돌았다.

b'. 철수가 모퉁이를 한 시간 만에 돌았다.

‘걷다’와 같은 양태 동사(manner verb)는 (8a)와 같이 지속 시간 부사구 ‘-동안’과 공기하여 ‘철수가 오솔길을 걷는 사건이 한 시간 동안 지속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다. (8b)와 같이 시간틀 부사구 ‘-만에’와는 ‘오솔길’이라는 행로가 특정한 경계가 지어진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만 주어진 시간틀 내에서 이동의 사건이 완료되었다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즉 양태 동사는 경계가 지어진 경로와 결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동의 동작에 의해 처소 변화가 일어남을 함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건너다’와 같이 처소 변화를 함의하는 경로(Path) 논항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동사들은 (9a)와 같이 ‘한 시간 동안’이라는 지속 부사구와는 공기할 수 없으나 (9b)에서와 같이 시간틀 부사구 ‘한 시간 만에’와 결합하여 ‘철수가 다리를 건너는 사건’이 주어진 시간 안에 완료되었음을 나타낸다. 즉 이동의 결과로 어떤 공간의 한 지점(기점)에서 다른 지점(착점)으로 처소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돌다’는 (10a)에서와 같이 행로(Route)를 취하는 경우에는 양태 동사와 마찬가지로 지속 시간 부사구 ‘-동안’과 시간틀 부사구 ‘-만에’와 모두 공기가 가능하다. (10a)는 ‘한 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철수가 운동장을 몇 바퀴나 돌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철수가 한 시간 동안 운동장을 돈 후에도 철수는 운동장에 있게 된다. (10a')은 철수가 운동장의 한 지점에서 운동장 둘레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해서 다시 그 시작 지점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한 시간이 걸렸다는 의미이다. (10a)와 (10a') 모두 이동은 있었으나 그 결과로 인한 행동주인 철수의 처소에는 변화가 없다. 그런데 ‘돌다’가 (10b)와

(10b')에서와 같이 '모퉁이를'과 같은 처소 성분을 취할 때는 시간틀 부사구 '-만에'와만 공기가 가능하다. (10a)의 '운동장을 도는 것'과 달리 '모퉁이를 도는 것'은 꺾이는 지점을 중심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이동하여 처소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어의 처소격(Locatives)은 [+처소 변화]/[-처소 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계 구조를 갖는 것으로 상정한다.

(11) 처소격(Locatives)의 위계 구조

[착점(Goal)/기점(Source)/경로(Path) > 방향(Direction/Orientation), 행로(Route)]

4.1.2. '가다/오다', '주다'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 합성 규칙

'가다/오다', '주다'는 위에서 살펴본 처소격들을 필수 성분 즉 논항으로 취하며 다른 동사들과 결합할 때, 동일한 의미역 위계에 있는 처소 논항은 하나로 합치되고 위계상 다른 위치에 놓인 처소 논항을 취하는 두 동사가 결합할 때에는 위계상 하위에 있는 처소 논항이 상위에 있는 처소 논항으로 포함되는 합성 방식을 보인다.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두 동사의 논항 구조의 합성 규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2)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 합성 규칙

- a. 두 동사가 갖는 각각의 논항 α , β 에 대하여, 두 논항이 위계 구조상 동일한 의미역 (i)를 갖는 경우에는 $\alpha(i) = \beta(i)$ 관계가 성립되고 두 논항이 하나로 통합된다(cf. 논항 동일화 조건: 정태구 1993; 1995).

$$\alpha(i) = \beta(i) \Rightarrow \alpha\beta(i)$$

- b. 두 동사가 갖는 각각의 처소 논항 γ , δ 에 대하여 두 논항의 의미역이 (i), (j)로 다르고 위계 구조상 (i) > (j)의 관계에 놓여 있다면, $\gamma(i) \supset \delta(j)$ 관계가 성립되고 다음과 같은 포함 관계에 의해 두 논항이 통합된다.

$$\gamma(i) \supset \delta(j) \Rightarrow \gamma(i)$$

그러나 '가다/오다'의 연쇄동사 구문의 경우에 V1의 어휘적 속성에 따라 각각의 착점 논항이 병렬적으로 합성되는 경우도 존재하고(예: '실어 가다'), 유정물의

착점 ‘-에게’를 취하는 ‘주다’는 무정물의 착점 ‘-에’를 취하거나 유정물의 부분을 나타내는 ‘-에’를 취하는 V1과 결합할 때(예: ‘담아 주다’, ‘걸어 주다’) 두 착점 논항이 합성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논항 구조의 합성 유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4.2. [V1+어+V2{가다/오다}]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 합성 유형⁸⁴⁾

4.2.1. 병렬적 합성 유형

‘가다/오다’가 취하는 논항은 행동주(Agent) 또는 대상(Theme) 논항만을 취하는 1항 술어와 행동주(Agent)와 대상(Theme) 두 논항을 요구하는 2항 술어의 논항들과 다음과 같이 합성되어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를 구성한다.

4.2.1.1. 1항/2항 → 2항: [착점] 도입

‘가다/오다’는 이동의 주체인 행동주(Agent) 논항 하나만을 주어로 취하는 1항 술어와 주어(행동주) 논항을 공유하며 연쇄동사 구문을 이룬다. ‘걸어 가다(오다)’, ‘달려 가다(오다)’, ‘뛰어 가다(오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 (13) a. 철수가 걸었다/달렸다/뛰었다.
 b. 철수가 학교로 ??걸었다/?달렸다/??뛰었다.
 c. *철수가 학교에 걸었다/달렸다/뛰었다.
 d. 철수가 학교에 갔다.

84) 본고의 논의를 위한 선행 작업으로 김효진(2015)에서는 [V1+어+V2{가다/오다}]의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의 합성 유형에 관해 다루었다. 그러나 김효진(2015)에서는 V1과 V2의 사건 구조 내에 하위 사건들의 합성 양상을 면밀히 고찰하지 못하였다. ‘가다/오다’의 논항 구조의 합성 유형에 관해서는 김효진(2015)의 논의를 근간으로 하되, 사건 구조의 합성 유형에 관해서는 단순히 V1과 V2 ‘가다/오다’가 결합하여 [+RESULT]/[-RESULT] 속성의 사건을 나타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던 것에서, V1과 V2의 하위 사건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합성되는 것임을 밝히고 그에 따른 합성 유형을 새로이 제시하고 있다.

e. 철수가 학교에 걸어 갔다/달려 갔다/뛰어 갔다.

‘걷다’, ‘달리다’ 등은 이동의 방식을 나타내는 양태 동사(manner verb)로, (13a)와 같이 기본적으로 행동주(Agent) 논항 하나만을 취하는 1항 술어이다. 이러한 동사는 이동의 방식을 나타낼 뿐, 그 이동의 결과로 어떠한 결과 상태가 야기되었는지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13b)와 같이 착점(Goal) 논항 ‘-에’와 공기할 수 없다. 그러나 착점 논항 ‘-에’를 취하는 V2 ‘가다/오다’와 결합하게 되면 (13d)와 같이 착점(Goal)을 나타내는 ‘-에’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기어 가다(오다)’, ‘날아 가다(오다)’, ‘굴러 가다(오다)’ 등도 이동을 나타내는 양태 동사와 V2 ‘가다/오다’가 결합한 연쇄동사 구문인데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14)a. 아기가 기었다.

b. 아기가 (*식탁에)식탁 밑으로 기었다.

c. ??아기가 식탁에 기어 갔다.

d. 아기가 식탁 밑으로 기어 갔다.

(15) a. 새가 날았다.

b. 새가 (*둥지 위에)둥지 위로 날았다.

c. ??새가 둥지 위에 날아 갔다.

d. 새가 둥지 위로 날아 갔다.

(16) a. 아이가 굴렀다.

b. 아이가 (*언덕 아래에)언덕 아래로 굴렀다.

c. *아이가 언덕 아래에 굴러 갔다.

d. 아이가 언덕 아래로 굴러 갔다.

‘기어 가다’, ‘날아 가다’, ‘굴러 가다’는 (14c), (15c), (16c)에서와 같이 착점(Goal) 논항 ‘-에’와 공기하게 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⁸⁵⁾ 이러한 동사들은 V1

85) Jackendoff(1990)에서는 영어의 ‘roll’ 같은 동사는 일정한 경로나 정해진 방향 없이 이동함을 나타내는 부류로 일정한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가다/오다’와 구분하기 위해 어휘 의미 구조상에서 MOVE 함수로 구분하여 표상하였다. 한국어의 ‘구르다’, ‘기다’, ‘날다’도 이러한 어휘적 의미 특성으로 인해 특정한 이동 처소를

만으로도 ‘방향(Direction)’을 나타내는 ‘-로’와 공기할 수 있으므로 V2 ‘가다/오다’와 결합하여 논항 구조가 변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14d), (15d), (16d)의 ‘-로’는 단순히 이동한 ‘방향(Direction)’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V2 ‘가다/오다’와 결합하기 이전의 V1은 행동주나 대상이 이동한 방향에만 초점을 두지만 V2 ‘가다/오다’와 결합하게 되면 그때의 ‘-로’는 그 방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게 되었음을 함의하게 된다.⁸⁶⁾

‘흘러 가다(오다)’의 V1 ‘흐르다’와 같은 동사는 주어 자리에 실현되는 대상의 종류에 따라 문장 내에 허용되는 처소 표현이 달라진다.

(17) a. 이 강은 남해로 흐른다.

b. 이 강은 남해로 흘러 간다.

(18)a. *나뭇잎이 강 하류에|강 하류로 흘렀다.

b. 나뭇잎이 강 하류에|강 하류로 흘러 갔다.

(17)에서와 같이 ‘강물’ 따위의 액체의 이동을 나타낼 때 ‘흐르다’는 방향의 ‘-로’를 취하며 ‘가다/오다’와 결합하여도 논항 구조에 변화가 없다. 그런데 (18)에서와 같이 ‘나뭇잎’과 같은 구체물의 이동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흐르다’에서 허용되지 않던 착점을 나타내는 ‘-에’를 V2 ‘가다/오다’와 결합하면서 문장 내에 허용하게 된다.

4.2.1.2. 2항 → 3항: [착점] 도입

‘가다/오다’가 행동주(Agent)와 대상(Theme) 논항을 요구하는 2항 술어와 결합하여

나타내는 착점 ‘-에’와 공기하게 되면 어색한 문장이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86) 이정민(1990)에서는 ‘가다’, ‘오다’, ‘이르다’, ‘도착하다’ 등이 처소 논항 ‘-에’를 취하며 이동의 결과로 착점에 있게 됨을 함의되나 ‘-로’는 방향을 나타내며 착점에 도달한 결과를 함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동하다’, ‘움직이다’와 같이 주어의 행동주와 대상 논항 외에 ‘-로’나 ‘까지’의 부가어적 논항을 필요에 따라 공동 합성하여 완성 동사가 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의 ‘-로’는 ‘-에 있다’를 함의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정민(1990)에서는 이러한 ‘이동하다’, ‘움직이다’가 결과 쪽에 더 비중이 가는 동사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오다’의 경우에 ‘가다’와 달리 ‘-로’를 취할 때에도 착점에 도달한 것을 함의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았다.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경우에는 주어(행동주) 논항을 공유하며 목적어(대상) 논항은 2항 술어인 V1에 의해, 착점 논항 '-에'는 V2 '가다/오다'에 의해 허가된다.

- (19) a. 철수가 의자를 끌었다.
b. 철수가 창문 앞에|앞으로 갔다.
c. 철수가 창문 앞에|앞으로 의자를 끌어 갔다.
d. 철수가 의자를 창문 앞에|앞으로 끌어 갔다.
- (20) a. 철수가 논문 한 편을 읽었다.
b. 철수가 학교에 갔다.
c. 철수가 학교에 논문 한 편을 읽어 갔다.
d. ?철수가 논문 한 편을 학교에 읽어 갔다.
- (21) a. 이 형사가 범인을 잡았다.
b. 이 형사가 경찰서에|경찰서로 갔다.
c. 이 형사가 경찰서에|경찰서로 범인을 잡아 갔다.
d. ?이 형사가 범인을 경찰서에|경찰서로 잡아 갔다.
- (22) a. 영희가 빵을 만들었다.
b. 영희가 친구네 집에 갔다.
c. 영희가 친구네 집에 빵을 만들어 갔다.
d. ?영희가 빵을 친구네 집에 만들어 갔다.
- (23) a. 철수가 우산을 가졌다.
b. 철수가 학교에 갔다.
c. 철수가 학교에 우산을 가져 갔다.
d. 철수가 우산을 학교에 가져 갔다.
- (24) a. 아이가 엄마를(엄마의 뒤를) 따랐다/쫓았다.
b. 아이가 시장에 갔다.
c. 아이가 시장에 엄마를 따라 갔다/쫓아 갔다.
d. ?아이가 엄마를 시장에 따라 갔다/쫓아 갔다.

- (25) a. 철수가 선생님을 찾았다.
 b. 철수가 학교에 갔다.
 c. 철수가 학교에|학교로 선생님을 찾아 갔다.
 d. 철수가 선생님을 *학교에|학교로 찾아 갔다.

위의 ‘끌어 가다(오다)’, ‘읽어 가다(오다)’, ‘잡아 가다(오다)’, ‘만들어 가다(오다)’, ‘가져 가다(오다)’, ‘따라 가다(오다)’ 등은 V1과 V2 ‘가다/오다’가 결합하면서 연쇄 동사 구문을 이룰 때, V1에 의해 허가되는 대상 논항과 V2 ‘가다/오다’에 의해 도입되는 착점 논항이 서로 ‘자리 바꾸기(scrambling)’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논항들의 ‘자리 바꾸기’ 허용 여부는 사건 구조의 합성 방식과도 관련이 있다. V1이 V2 ‘가다/오다’의 하위 사건 간에 어떠한 시간적 순서나 차이도 개입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행동주’와 ‘대상’이 함께 착점으로 이동한 사건을 나타내게 되는 부류는 대상 논항과 착점 논항의 ‘자리 바꾸기’를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서는 사건 구조의 합성 유형에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다.

4.2.1.3. 3항 → 4항: [착점] 도입

‘실어 가다(오다)’의 V1 ‘신다’와 같이 행동주와 대상 논항뿐만 아니라 ‘가다/오다’와 동일한 착점 논항 ‘-에’를 취하는 3항 술어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합성된다.

- (26) a. 철수가 트럭에 짐을 실었다.
 b. 철수가 창고에|창고로 갔다.
 c. 철수가 트럭에 짐을 실어 갔다.
 d. 철수가 창고에|창고로 짐을 실어 갔다.
 e. 철수가 창고로|??창고에 트럭에 짐을 실어 갔다.
 f. 철수가 트럭에 창고로|??창고에 짐을 실어 갔다.

(26a)의 ‘신다’는 (26b)의 ‘가다’와 행동주와 착점 논항을 공유한다. 그런데 V1 ‘신다’의 착점은 대상이 이동하게 되는 처소이고 V2 ‘가다’의 착점은 행동주가

이동하게 되는 처소로 그 속성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이러한 다른 속성의 착점이 하나로 통합되어 둘 중 한 착점만 실현된다고 한다면 나머지 착점은 화자와 청자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26c)는 화자와 청자가 ‘행동주가 어디로 갔는지’를 알거나 아니면 어디로 갔는지를 상관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고, (26d)는 화자와 청자가 행동주가 대상을 어디에 신고 갔는지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26e)-(26f)에서와 같이 V1의 착점과 V2의 착점이 병렬적으로 실현되어야 명제적으로 완전하게 성립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두 동사가 착점 논항을 각기 취하고 그 착점 논항들을 병렬적으로 실현시키는 경우에는 (26e)-(26f)에서와 같이 V2의 착점은 ‘-로’ 실현되어야 두 착점 논항 사이에 어떠한 휴지(pause) 없이도 하나의 문장으로 성립된다. 그런데 V2 ‘가다/오다’와 동일한 착점 ‘-에’를 취하는 3항 술어라고 해서 모두 ‘실어 가다(오다)’와 같은 방식으로 논항들이 합성되지는 않는다. ‘실어 가다(오다)’, ‘답아 가다(오다)’, ‘넣어 가다(오다)’ 등과 같이 V1의 사건으로 인해 대상이 착점으로 이동하고 그 착점이 다시 V2 ‘가다/오다’에 의해 이동이 가능한 사건인 경우에만 V1과 V2의 착점이 병렬적으로 합성된다.

4.2.1.4. 피동형(2항) → 3항: [착점] 도입

‘불려 가다(오다)’, ‘끌려 가다(오다)’, ‘잡혀 가다(오다)’, ‘실려 가다(오다)’ 등과 같이 피동형과도 ‘가다/오다’가 결합하여 연쇄동사 구문을 이룰 수 있다.

‘불려 가다(오다)’의 V1 ‘불리다’는 (27a)에서와 같이 [NP1-가 + NP2-에게 + V]의 논항 구조를 취한다. 그런데 (27c)에서와 같이 V2 ‘가다/오다’와 결합한 이후에도 ‘-에게’ 논항만을 취할 수도 있고, (27d)에서와 같이 착점 논항 ‘-에|로’도 허용할 수 있다.

- (27) a. 철수가 선생님에게 불려 교무실로 갔다.
 b. 철수가 교무실에|교무실로 갔다.
 c. 철수가 선생님에게 불려 갔다.
 d. 철수가 교무실에|교무실로 선생님에게 불려 갔다.
 e. 철수가 선생님에게 교무실에|교무실로 불려 갔다.

(27c)와 같은 문장이 가능한 이유는 (27b)에서와 같이 V2 ‘가다/오다’가 취하는

착점 논항이 V1의 행동주 또는 착점을 나타내는 ‘-에게’ 논항과 동일한 [+처소 변화]의 속성을 갖는 것으로 하나로 통합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합성 방식을 볼 때, 행동주 또는 착점을 나타내는 ‘-에게’ 논항을 취하는 피동형 동사와 ‘가다/오다’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병렬(Summation)’ 또는 ‘통합(Unification)’의 두 가지 합성 방식이 가능한 유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 절에서 살펴볼 ‘통합적 합성 유형’은 이러한 ‘피동형+가다/오다’와 달리 V2 ‘가다/오다’에 의해 별도의 처소 논항을 추가적으로 취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피동형+가다/오다’는 (27d)에서와 같이 V2 ‘가다/오다’에 의해 별도의 착점 논항을 취하게 되므로 병렬적 합성 유형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끌려 가다(오다)’, ‘잡혀 가다(오다)’의 V1은 [NP1-가 + NP2-에|에게 + V]의 논항 구조를 취하며 ‘불려 가다(오다)’와 마찬가지로 V2 ‘가다/오다’와 결합한 이후에 (28c)-(29c)에서와 같이 ‘-에게’ 논항만을 취할 수도 있지만 (28d)-(28e)와 (29d)-(29e)에서와 같이 V2 ‘가다/오다’에 의해 별도의 착점 논항을 취하게 되므로 병렬적 합성 유형에 해당된다.

(28) a. 철수가 아버지에게|아버지 손에 끌려 집으로 돌아갔다.

b. 철수가 집에|집으로 갔다.

c. 철수가 아버지에게 끌려 갔다.

d. 철수가 집에|집으로 아버지에게 끌려 갔다.

e. 철수가 아버지에게 집에|집으로 끌려 갔다.

(29) a. 범인이 경찰에게 잡혔다.

b. 범인이 경찰서에|경찰서로 갔다.

c. 범인이 경찰에게 잡혀 갔다.

d. 범인이 경찰서에|경찰서로 박 형사에게 잡혀 갔다.

e. 범인이 박 형사에게 경찰서에|경찰서로 잡혀 갔다.

‘실려 가다(오다)’의 경우는 ‘신다’의 피동형인 V1 ‘실리다’와 V2 ‘가다/오다’가 동일한 착점 논항 ‘-에’를 취하는 경우이다.

(30) a. 철수가 구급차에|??구급차로 실렸다.

b. 철수가 병원에|병원으로 갔다.

- c. 철수가 병원에|병원으로 구급차에 실려 갔다.
- (31) a. 철수가 구급차에|구급차로 실려 가 치료를 받았다.
b. 철수가 병원에|병원으로 실려 가 치료를 받았다.
- (32) a. 철수가 병원에 구급차로|구급차로 병원에 실려 갔다.
b. 철수가 구급차에 병원으로|병원으로 구급차에 실려 갔다.
c. 철수가 병원에 *(,) 구급차에 실려 갔다.
d. 철수가 구급차에 *(,) 병원에 실려 갔다.

(30c)에서와 같이 ‘실려 가다(오다)’도 위에서 살펴본 다른 피동형들과 마찬가지로 V1의 착점 논항 외에 V2 ‘가다/오다’에 의해 착점이나 방향을 나타내는 ‘-에|로’를 취할 수 있다. 또한 ‘불려 가다(오다)’와 마찬가지로 ‘실려 가다(오다)’도 V1과 V2의 동일한 [+처소 변화] 속성의 착점 논항이 하나로 통합되어 (31)에서와 같이 하나의 착점 논항으로 실현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그런데 ‘병원에 실려 갔다’ 또는 ‘구급차에 실려 갔다’는 실제로 ‘병원에 구급차로/병원으로 구급차에 실려 갔다’, 다시 말해 ‘구급차에 실려 또는 그러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동하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능동형 ‘실어 가다(오다)’와 마찬가지로 (32a)-(32b)에서와 같이 V1과 V2가 결합 이전에 취하던 ‘-에’나 ‘-에|로’ 논항이 병렬적으로 실현되어야 명제적으로 완전한 문장이라 할 수 있다. 이때 둘 중 하나는 ‘-로’로 실현되어야 어떠한 휴지도 없이 문장이 성립된다. (32c)-(32d)에서와 같이 V1의 ‘-에’와 V2의 ‘-에’ 논항이 병렬적으로 실현되려면 그 사이에 휴지(pause)가 주어져야 가능하다.

4.2.2. 통합적 합성 유형

‘통합적 합성 유형’은 먼저 V1이 V2 ‘가다/오다’와 주어와 처소 논항을 공유하는 경우와 V1의 목적어와 V2의 주어가 통합되며 처소 논항까지 공유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착점 ‘-에’를 취하는 ‘가다/오다’가 동일한 속성의 [+처소 변화]를 나타내는 처소 논항을 취하는 동사들과 그 처소 논항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연쇄동사 구문을 이룬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4.2.2.1. 주어 논항과 처소 논항 공유

4.2.2.1.1. 2항 술어

4.2.2.1.1.1. ‘-를’/‘-를|로’: [경로]

처소 변화를 함의하는 경로(Path)를 필수 논항으로 취하는 ‘건너다’, ‘넘다’ 등은 착점 ‘-에’를 취하는 V2 ‘가다/오다’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합성된다.

- (33) a. 철수가 횡단보도를 건넜다.
b. 철수가 횡단보도를 건너 갔다.

- (34) a. 철수가 담을 넘었다.
b. 철수가 담을 넘어 갔다.

‘건너 가다(오다)’, ‘넘어 가다(오다)’ 등은 (33)과 (34)에서와 같이 V1의 행동주와 경로 논항이 V2 ‘가다/오다’와 결합한 이후에도 그대로 실현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V1+어+V2{가다/오다}]의 구문을 단순히 V2 ‘가다/오다’가 VP1의 절을 내포하는 보조동사 구문이나 합성동사로 볼 수 없다. 앞서 밝혔듯이, (33)의 ‘건너다’와 (34)의 ‘넘다’ 등은 한쪽(기점)에서 마주하고 있는 다른 쪽(착점)으로 이동한 처소 변화의 속성을 지닌 경로 논항을 취하는 동사이다. 그러한 경로 논항은 V2 ‘가다/오다’가 취하는 착점 논항과 동일한 속성의 처소 논항으로 서로 상충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되어 실현되는 것이 가능하다.

‘건너 가다(오다)’는 경로 논항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에|로’로 교체가 가능한 착점 논항도 취할 수 있는데, 이때 ‘건너 가다’가 취하는 착점 논항은 V1이 아니라 V2 ‘가다/오다’에 의해 도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35) a. 철수가 미국에|미국으로 건너 갔다.
b. *철수가 미국에|미국으로 건넜다.
c. 철수가 미국에|미국으로 갔다.

‘건너다’와 같은 경로 동사나 앞서 병렬적 합성 유형에서 살펴보았던 ‘건다’와 같은 양태 동사가 V2 ‘가다/오다’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논항 구조에 두 개의 처소 논항이 동시에 실현될 수도 있다.

(36) a. 철수가 약국에|약국으로 *(#) 골목길을 걸어 갔다.

b. 철수가 약국까지 골목길을 걸어 갔다.

‘걸어 가다’는 (36a)에서와 같은 문장에서 ‘약국에|약국으로’와 ‘골목길’을 사이에 휴지(#)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거나 어색한 문장이다. 착점을 나타내는 ‘-에|로’는 V2 ‘가다/오다’에 의해 실현되고, ‘-를’로 실현된 행로는 V1 양태 동사에 의해 허가된 성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들이 동시에 나타나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약국에|약국으로’는 [+처소 변화] 속성을 지닌 착점 논항이고, ‘골목길을’은 [-처소 변화] 속성의 행로 논항이기 때문에 두 처소 논항의 속성이 상충되어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36b)가 가능한 이유는 ‘약국까지’는 논항이 아닌 부가어로 ‘골목길을’의 처소 논항과 문장을 구성하는 데 다른 위상을 지닌 것으로 그 속성을 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로 양립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7) a. 철수가 약국에 *(#) 횡단보도를 건너 갔다.

┌-----┐
b. 철수가 약국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갔다.
└-----┘

┌-----x-----┐
c. *철수가 횡단보도를 약국으로 건너 갔다.
└-----x-----┘

(37a)의 ‘건너 가다’도 위의 ‘걸어 가다’와 마찬가지로 ‘약국에’와 ‘골목길’을 사이에 휴지(#)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 어색한 문장이 된다. 이는 ‘약국에 가는 사건’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건’이 각각 분리된 별개의 사건으로 해석된다는 의미이다. ‘걸어 가다’와 달리 (37b)의 ‘건너 가다’가 성립하는 이유는 ‘-로’가 착점 또는 방향을 나타내는 중립적인 속성을 지닌 것으로 경로의 ‘-를’과도 서로 [+처소 변화]의 속성이 상충되지 않기 때문이다. (37b)의 ‘건너 가다’는 착점을 향해 경로를 거쳐 가는 사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37c)와 같이 두

처소 논항이 서로 ‘자리 바꾸기(scrambling)’를 하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건너 가다’의 경우는 두 처소 논항이 양립할 수 있는 (37b)와 같은 문장이 가능하긴 하지만 두 개의 처소 논항이 동시에 실현되는 경우에는 VP1[횡단보도를 건너]이 VP2의 ‘가다’에 내포절로 삽입된 구문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대로 ‘돌다1’도 처소 변화를 함의하는 경로 논항을 취할 수 있다. 그러한 경로 논항 ‘-를’은 ‘건너다’, ‘넘다’ 등과 마찬가지로 V2 ‘가다/오다’와 결합한 이후에도 논항 구조 내에 그대로 실현된다. ‘돌다1-돌아 가다1(오다)’가 취하는 경로 논항 ‘-를’은 ‘-로’로도 교체가 가능하다.

- (38) a. 저 모퉁이를|모퉁이로 돌면 은행이 나온다.
 b. 산모퉁이를|모퉁이로 돌아 가면 호수가 보인다.

또한 ‘돌아가다1(오다)’도 ‘건너 가다(오다)’와 마찬가지로 V1이 V2 ‘가다/오다’와 결합한 이후에 경로 논항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에|로’로 교체가 가능한 착점 논항도 취할 수 있게 된다.

- (39) a. *철수가 고향에|고향으로 돌아왔다.
 b. 철수가 고향에|고향으로 돌아 갔다.
 c. 철수가 고향에|고향으로 갔다.

이외에도 ‘지나 가다(오다)’, ‘거쳐 가다(오다)’ 등도 경로 논항 ‘-를’을 취하는 동사들과 V2 ‘가다/오다’가 동일한 속성의 처소 논항을 하나로 통합시켜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경우에 해당된다.

- (40) a. 우리가 탄 버스는 시청을 지나 종로로 접어들었다.
 b. 우리가 탄 버스는 시청을 지나 갔다.

- (41) a. 이 기차는 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갑니다.
 b. 철수는 회사에 출근할 때, 신도림역을 거쳐 간다.

‘지나다’, ‘거치다’ 등은 단순히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를 따라

이동하여 그 경로의 끝에 있게 되는 처소 변화의 사건을 나타낸다. 이러한 [+처소 변화]의 속성을 지닌 처소 논항을 취하는 경로 동사들은 ‘가다/오다’와 결합하여 연쇄동사 구문을 이룰 수 있다.

4.2.2.1.1.2. ‘-에’/‘-에|로’: [착점]

‘들어 가다(오다)’와 같이 V1과 V2 ‘가다/오다’가 동일한 착점 논항 ‘-에’를 취하는 경우에도 통합적 합성 유형에 해당된다.

(42) a. 영희가 안방에|안방으로 들지 않고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다.⁸⁷⁾

87) 이는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에서 발췌한 예문으로 ‘가다/오다’가 그것과 동일한 착점 논항을 취하는 동사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기 위해 제시하였다. C. Lee(2008)에서 밝힌 대로 현대 한국어에서 경로 동사 ‘들다’, ‘나다’는 ‘가다/오다’와 결합하여야 명시적 이동 해석이 가능해지는 부류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데려가다’, ‘다가가다’ 등과 같이 V1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는 불구동사는 아니므로 V2 ‘가다/오다’와 공유하는 착점 논항을 하나로 통합하는 합성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C. Lee(2008)에서는 처소 변화를 나타내는 ‘들다’가 독립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물리적 이동보다는 ‘잠자리에 들다’, ‘철이 들다’, ‘주막(호텔)에 들다’와 같이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로 쓰이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들다’가 처소 변화 ($\neg P \rightarrow P$)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하위 사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는 이러한 ‘들다’를 ‘달성/비대격 유형’에 속하는 동사 부류로 보고 다음과 같은 사건 구조를 갖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i) ‘들다’

e1: I(mplicit)-process(처소 변화 과정 부분)

e2: state(경로를 거친 결과 상태)

FORMAL=be inside of(e2, x, y)

이러한 ‘들다’의 e1이 ‘가다’와 (공동) 합성되어 복합 동사를 이루며, ‘-고 있다’와 같은 진행상이 공동 합성된 복합 술어와만 결합이 가능한 것으로 볼 때(*‘들고 있다’ - ‘들어가고 있다’), ‘가다’에 중점이 놓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목정수(2008)에서도 ‘들어가다’에서 어휘 핵이 ‘가다’에 놓인 것으로 보고 하나의 어휘로 굳어졌거나 굳어져 가고 있는 동사 구성으로 보았다. 이와 반대로 ‘뛰어가다’는 어휘 핵이 ‘뛰다’에 있는 것으로 이때의 ‘가다’는 어휘적 의미보다는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목정수(2008)에서는 ‘가다’가 어휘 핵으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두 동사 사이에 ‘-서’가 개입될 수 없으며(*‘들어서 가다’, ‘뛰어서 가다’) 연결어미 ‘-(으)러’와 결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두 경우 모두 ‘이동’이라는 ‘가다’의 어휘적 의미가 결합된 동사 구성으로 보고 V1과 V2의 논항 구조나 사건 구조가 통합되는 방식에 따라 ‘-(어)서’에 의한 두 동사의 분리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았다. 앞서 병렬적 합성 유형으로

- b. 영희가 안방에|안방으로 들어 가지도 않고…….
- c. 영희가 안방에|안방으로 갔다.

앞서 ‘실어 가다(오다)’의 경우에는 V1과 V2가 취하는 착점 논항 ‘-에’가 대상이 이동하게 되는 착점과 행동주가 이동하는 착점으로 그 속성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병렬적으로 합성되는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들어 가다(오다)’의 V1 ‘들다’가 취하는 ‘-에|로’로 교체가 가능한 착점 논항은 V2 ‘가다/오다’의 논항 구조에서도 동일하게 행동주가 이동하는 착점으로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두 동사가 결합할 때 하나의 착점 논항 ‘-에|로’로 통합되어 실현된다.

‘올라 가다’의 V1 ‘오르다’도 V2 ‘가다/오다’와 동일한 속성의 처소 논항을 취하는 동사로 그러한 처소 논항을 하나로 통합시켜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통합적 합성 유형에 속한다.

- (43) a. 철수가 산에|산을 올랐다.
- b. 철수가 산에|산을 올라 갔다.

‘오르다’는 (43a)에서와 같이 착점 논항 ‘-에’를 취하며 이때의 ‘-에’는 ‘-를’과도 교체가 가능하다. 이러한 처소 논항은 ‘가다/오다’의 처소 논항과 동일한 것으로 하나로 통합되어 ‘올라 가다(오다)’의 연쇄동사 구문에서도 그대로 실현된다.⁸⁸⁾ 그런데 여기서 ‘-를’로 실현된 논항은 ‘-에’와 교체가 가능한 착점으로 볼 수도 있고 행로(Route)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44) a. 철수가 한 시간 동안/한 시간 만에 산을 올랐다.
- b. 철수가 한 시간 동안/한 시간 만에 산을 올라 갔다.

분류되는 ‘뛰어 가다’는 ‘가다’에 의해 착점 논항을 취하게 되며 두 동사가 ‘-(어)서’에 의해 분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접속 구문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본고에서 통합적 합성 유형으로 분류되는 ‘들어 가다’는 문장 내에 실현되는 착점 논항이 온전히 ‘가다’에 의해서만 실현되는 것으로 단정짓기 어려우며, 두 동사가 ‘-(어)서’에 의해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목정수(2008)와 마찬가지로 합성동사에 가까운 부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88) S. Lee(1992)에서는 ‘올라 가다’의 ‘가다’가 ‘방향’을 나타내는 보조동사로 쓰인 연쇄동사 구문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올라 가다’가 ‘방향성’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V1 ‘올라-’에 의한 것이지 ‘가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4)에서와 같이 ‘오르다-올라 가다’가 ‘-를’로 실현된 논항을 취할 때는 ‘한 시간 동안’이라는 지속 시간 부사구와 ‘한 시간 만에’와 같은 시간 부사들 모두와 공기가 가능하다. 그런데 ‘오르다-올라 가다’가 ‘한 시간 동안’과 공기할 때는 둘 다 ‘철수가 산을 오르고 있는 행위’가 ‘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반해 ‘한 시간 만에’와 결합할 때는 각기 다른 의미를 갖는다. ‘오르다’가 ‘한 시간 만에’와 공기할 때는 ‘철수가 산 아래에서 머문 지 한 시간이 지나서야 착점인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올라 가다’가 ‘한 시간 만에’와 공기할 때는 ‘철수가 산을 오르기 시작해서 산 정상과 같은 착점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한 시간’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함의한다. 이러한 점에서 ‘오르다’가 취하는 ‘-를’로 실현된 논항은 착점 또는 행로 논항으로 볼 수 있는데 V2 ‘가다/오다’와 결합하면서 ‘올라 가다’는 ‘-에|를’로 교체가 가능한 착점(Goal) 논항을 취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몰려 가다(오다)’도 V1 ‘몰리다’와 V2 ‘가다/오다’가 취하는 착점을 나타내는 ‘-에|로’ 논항이 하나로 통합되어 연쇄동사 구문을 이룬 경우이다.

- (45) a. 학생들이 매점에|매점으로 몰렸다.
 b. 학생들이 매점에|매점으로 몰려 갔다.

그런데 (45a)의 ‘몰리다’의 문장과 (45b)의 ‘몰려 가다’의 문장은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 (45a)의 ‘몰리다’는 처소 논항인 ‘매점’이 상태 변화를 겪는 대상으로 해석되는데 (45b)의 ‘몰려 가다’의 문장에서는 주어 자리에 실현된 행동주 논항이 처소 변화를 겪는 대상으로 해석되는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사건 구조의 합성 유형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4.2.2.1.1.3. ‘-에|를’: [착점]

‘다니다1’도 V2 ‘가다/오다’와 동일하게 착점 논항을 취하는 동사로, V2 ‘가다/오다’와 결합한 이후에 논항 구조에는 변화가 없으나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된다.

- (46) a. 철수가 병원에|병원을 다녔다.
 b. 철수가 학교에|회사를 다닌다.

(47) a. 철수가 병원에|병원을 다녀 갔다.

b. 우리는 지난해에 불국사를 보러 경주에|경주를 다녀 왔다.

‘다니다1’은 (46)에서와 같이 정해진 특정 장소를 드나드는 사건이 일정 기간 동안 반복해서 일어난 것을 나타낸다. 그런데 V2 ‘가다/오다’와 결합하면서 (47)의 ‘다녀 가다(오다)’는 일회적인 이동 사건을 나타내게 된다.⁸⁹⁾ 이는 다음과 같이 ‘다니다1-다녀 가다1(오다)’가 다른 상적 특성을 보이는 부사구와 결합하는 양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8) a. 철수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병원을 다녔다.

b. *철수는 일주일 만에 병원에|병원을 다녔다.

(49) a. *철수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병원을 다녀 갔다.

a'. 철수는 일주일 동안 세 번 병원에|병원을 다녀 갔다.

b. 철수는 일주일 만에 병원에|병원을 다녀 갔다.

‘다니다1’은 (48a)에서와 같이 ‘-동안’이라는 지속 시간 부사구와 공기가 가능하며 ‘일주일’이라는 시구간 동안 ‘철수가 병원에 드나든’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났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반복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다니다1’은 (48b)에서와 같이 시간틀 부사구 ‘-만에’와는 공기할 수 없다. 이와 달리 (49a)의 ‘다녀 가다1(오다)’는 ‘-동안’과 공기할 수 없으며, ‘일주일’이라는 시구간 동안 병원에 드나든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났음을 나타낼 수 없다. (49a')에서와 같이 ‘일주일’이라는 시구간 동안 ‘병원에 왔다 간’ 일회적인 사건이 각각 몇 번 일어났는지를 나타내는 수량사 ‘세 번’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만 ‘-동안’이라는 지속 시간 부사구와 공기가 가능하다. 한편 ‘다녀 가다1(오다)’는 (49b)에서와 같이 ‘-만에’와 같은 시간틀 부사구와는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다. 이때는 이전에 ‘병원에 갔다 온 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한 번 병원을 왔다 간’ 일회적인 사

89) ‘다니다’만으로도 일회적인 사건을 나타낼 수도 있으나 이때는 주로 ‘가다/오다’ 또는 다른 동사와 결합하여 이룬 문장 내에서 목적을 나타내는 내포절로 나타난다.

(i) a. 철수는 고향에 다니러 부산에 내려갔다.

b. 명절이라고 시집간 딸이 친정에 다니러 왔다.

건이 일어났음을 나타낸다.

4.2.2.1.1.4. ‘-에서’: [기점]

‘떠나다’와 같이 기점을 필수 논항으로 요구하는 동사들도 V2 ‘가다/오다’와 논항들이 통합적으로 합성되는 유형에 해당된다. ‘떠나다’가 취하는 기점 논항은 V2 ‘가다/오다’에 의해서도 허용 가능한 논항으로, 두 동사가 결합할 때 하나의 논항으로 통합되어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 내에 실현된다.

(50) a. 기차가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떠났다.

b. 기차가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갔다.

c. 기차가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떠나 갔다.

(51) a. 철수가 고향집에서|고향집을 떠난 지도 십년이 지났다.

b. 철수가 고향집에서|고향집을 떠나 간 지도 십년이 지났다.

‘떠나다’는 기점 논항 ‘-에서’를 취하며 이때 ‘-에서’는 ‘-를’로도 교체가 가능하다. V2 ‘가다/오다’와 결합하면서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에서도 기점을 나타내는 논항이 그대로 실현된다. 그런데 ‘떠나다’가 물리적인 이동을 나타낼 때는 ‘떠나가다’-‘떠나 오다’가 모두 가능하지만 추상적 또는 심리적인 이동을 나타낼 때에는 ‘가다’와만 결합이 가능하다.

(52) a. 어제 있었던 일이 내 머릿속에서|머릿속을 떠나질 않는다.

a'. 어제 있었던 일이 내 머릿속에서|머릿속을 떠나 가질 않는다.

b. 영희가 철수를 떠난 이후에도 철수는 영희를 잊지 못했다.

b'. 영희가 철수를 떠나 간 이후에도 철수는 영희를 잊지 못했다.

(52)에서 보면, 논항 구조상으로는 물리적인 이동을 나타낼 때의 ‘떠나다’와 마찬가지로 ‘-에서’를 교체가 가능한 기점 논항을 허용한다. 그런데 추상적인 사건을 나타낼 때는 기점에서 행동주가 대상이 어떠한 범주나 관계에서 벗어난 사건을 나타내므로 명시적인 착점 논항을 요구하지 않으며 ‘행동주나 대상이 반드시 착점에 도착해 있음’을 함의하는 ‘오다’와는 결합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2.2.1.2. 3항 술어

4.2.2.1.2.1. ‘-에|로’: [착점]

‘들여 가다(오다)’, ‘옮겨 가다(오다)’ 등의 V1은 사동형 이동 동사로, V2 ‘가다/오다’와 동일한 착점 논항 ‘-에’를 취하는데 앞서 살펴본 ‘실어 가다(오다)’와 다른 방식으로 연쇄동사 구문을 이룬다.

- (53) a. 철수가 정원에 있던 화분을 거실에|거실로 들었다.
b. 철수가 정원에 있던 화분을 거실에|거실로 들여 갔다.

- (54) a. 인부들이 짐을 창고로|창고에 옮겼다.
b. 인부들이 짐을 창고로|창고에 옮겨 갔다.
c. *인부들이 짐을 창고로 옮겼으나 짐이 움직이지/옮겨지지 않았다.

(53)의 V1 ‘들이다’가 취하는 처소 논항 ‘-에|로’는 V2 ‘가다/오다’의 처소 논항과 하나로 통합되어 그대로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 내에서 실현된다. (54)의 V1 ‘옮기다’는 ‘-로’와 공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는 하나 (54c)와 같은 문장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때의 ‘-로’는 단순히 방향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게 된 결과 상태를 함의하게 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옮기다’가 취하는 ‘-로’도 V2 ‘가다/오다’의 처소 논항과 하나로 통합되어 그대로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 내에서 실현된다.

‘몰아 가다(오다)’의 V1 ‘몰다’는 방향을 나타내는 ‘-로’나 착점을 나타내는 ‘-에’를 취하며 행동주가 대상을 특정한 장소나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사건을 나타낸다.

- (55) a. 철수가 소를 축사로|??축사에 몰았다.
b. 우리 편 선수가 상대 선수를 구석으로|구석에 몰았다.

- (56) a. 철수가 소를 축사로|축사에 몰아 갔다.
b. 우리 편 선수가 상대 선수를 구석으로|구석에 몰아 갔다.

‘몰다’는 (55a)에서와 같이 방향을 나타내는 ‘-로’만을 허용하기도 하고 (56b)에서와 같이 특정한 지점 ‘구석’과 같은 처소 표현이 실현되는 경우에는 착점을 나타내는 ‘-에’도 허용한다. 이러한 V1 ‘몰다’가 취하는 ‘-로’나 ‘-에’도 V2 ‘가다/오다’의 착점 논항과 하나로 통합되어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에 그대로 실현된다.

4.2.2.1.2.2. ‘-에서’: [기점]

V1이 행동주, 대상 논항과 더불어 기점 논항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3항 술어들도 자신의 기점 논항과 V2 ‘가다/오다’가 취하는 기점 논항 ‘-에서’를 하나로 통합시켜 연쇄동사 구문을 이룬다. ‘찾아 가다2(오다)’, ‘받아 가다(오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 (57) a. 철수가 유실물센터에서 지갑을 찾았다.
 b. 철수가 유실물센터에서 갔다.
 c. 철수가 유실물센터에서 지갑을 찾아 갔다.
- (58) a. 영희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았다.
 a'. 영희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 갔다.
 b. 영희가 엄마에게서 용돈을 받았다.
 b'. 영희가 엄마에게서 용돈을 받아 갔다.

그런데 이들은 V2 ‘가다/오다’와 결합하면서 착점이나 방향을 나타내는 처소 성분을 도입할 수도 있다.

- (59) a. 철수가 유실물 센터에서 사무실로 지갑을 찾아 갔다.
 b. 영희가 엄마에게서 서점에 용돈을 받아 갔다.
- (60) a. 철수가 어디에서 지갑을 찾아 갔니/찾아 왔니?
 a'. ??철수가 어디로어디에 지갑을 찾아 갔니/찾아 왔니?
 a". 철수가 지갑을 찾아 어디로어디에 갔니?

- b. 영희가 누구에게서 용돈을 받아 갔니/받아 왔니?
- b'. ??영희가 어디로어디에 용돈을 받아 갔니/받아 왔니?
- b". 영희가 용돈을 받아 어디로어디에 갔니?

그런데 (60a)-(60b)와 같이 ‘기점’을 묻는 문장은 가능하나 (60a’)-(60b’)와 같이 기점은 생략한 채 이동한 착점이나 방향을 묻는 것은 어색하다. (60a")-(60b")에서와 같이 V1과 V2에 의해 각각 구성된 절이 연결된 접속문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찾다2’, ‘받다’ 등이 ‘가다/오다’와 결합할 때 행동주 외에 공유하게 되는 논항은 기점 논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점 논항을 취하는 3항 술어들도 V2 ‘가다/오다’와 결합하여 연쇄동사 구문을 이룰 때 V1의 논항 구조와 비교해보면 변화가 없다. 그러나 V1이 행동주에 의한 대상의 이동만을 나타내는 것과 달리 V2 ‘가다/오다’와 결합한 후에는 행동주와 대상이 함께 다른 처소로 이동한 변화 사건을 나타내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사건 구조의 합성 유형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4.2.2.2. ‘V1의 목적어(대상)-V2의 주어(대상)’ 논항과 처소 논항 공유

4.2.2.2.1. ‘-에|로’/‘-에게’: [착점]

앞서 V1과 V2 ‘가다/오다’가 주어와 동일한 속성의 처소 논항을 공유하며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V1의 주어가 아닌 목적어(대상)와 V2의 주어(대상)가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에 대해 다룬다.

행동주는 이동하지 않고 행동주에 의해 대상만이 착점으로 이동하는 사건을 나타내는 ‘불러 오다(가다)’, ‘보내 오다’⁹⁰⁾가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90) 김창섭(1998), 진러봉(2008)에서는 ‘보내 오다’의 V1이 대상의 이동만을 나타내며 이때의 V2 ‘오다’는 보조적인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김창섭(1994)에서는 ‘사 가다’, ‘받아 오다’, ‘얻어 오다’, ‘찾아 오다’, ‘구해 오다’와 같은 동사 구성을 V1과 V2가 ‘계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합성동사로 분류하였다가 김창섭(1998)에서는 보조동사로 재분류하였다. 이 부류들의 V1을 행동주는 이동하지 않고 대상만이 행동주(주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로 보고 이러한 대상의 이동만을 나타내는 동사 구성에서는 V2 ‘가다/오다’가 어휘적인 의미가 아닌 보조적인 의미만을 갖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사건 의미론적 관점에서 ‘가다/오다’가 나타내는 ‘이동’의 의미를 어휘적인 의미로 보기 때문에 이들을 보조동사 구문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또한 위 부류들은 ‘가다/오

다. 이들은 V1과 V2 ‘가다/오다’가 행동주, 대상 논항뿐만 아니라 착점 논항을 공유하며 하나로 통합하여 연쇄동사 구문을 이룬다.

‘불러 오다(가다)’⁹¹⁾의 V1 ‘부르다’에는 행동주가 단순히 대상의 이름 등을 호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주가 말이나 어떠한 행동 등으로 대상으로 하여금 자신이 있는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 (61) a. 어머니가 의사를 집에|집으로 불렀다.
b. 의사가 집에|집으로 갔다/왔다.
c. 어머니가 의사를 집에|집으로 불러 왔다.

(61a)에서와 같이 ‘부르다’의 목적어 ‘의사’는 (61b)의 ‘가다/오다’의 주어 ‘의사가’와 일치하며, V1의 목적어(대상)와 V2의 주어(대상)가 하나로 통합되어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게 된다.

- (62) a. 어머니가 의사를 집에|집으로 불렀는데 의사가 집에 오지 않았다.
b. *어머니가 의사를 집에|집으로 불러 왔는데 의사가 집에 오지 않았다.

‘부르다’는 (62a)에서와 같이 ‘의사’를 불렀으나 ‘의사가’ 오지 않을 수 있으나 (62b)에서와 같이 ‘부르다’가 ‘오다’와 결합한 이후에는 ‘의사가’ 행동주가 부른 그 착점으로 이동하였다는 결과 상태를 반드시 함의하게 된다.

‘보내 오다’의 V1 ‘보내다’는 행동주에 의해 대상이 행동주(주어)가 있는 곳이 아닌, 착점 ‘-에게’로 이동하게 되는 사건을 나타낸다.

다’와 결합하여 대상만이 이동한 것이 아니라 행동주와 대상이 함께 이동하는 사건으로 사건의 의미 유형이 바뀐 것으로 문장의 의미도 달라졌다고 본다.

91) ‘불러 가다’, ‘불러 오다’가 모두 가능하나 본문에서는 「21세기 세종 계획 최종 성과물(2011 수정판, 국립국어원)」의 말뭉치 자료에서 실제로 더 빈번하게 쓰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불러 오다’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원시 말뭉치를 통해 검색한 ‘불러 가다’의 예들은 다음과 같다.

- (i) a. 우편국장·순사부장·면장들이 문인대회에서 전보를 세 번씩이나 쳐서 불러 간 현을 그전보다는 약간 평가를 높이 하는 듯...
b. 중역실에서 그를 불러 간 것은 그로부터 이십여 분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c. 학교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오늘 은철일 불러 간 것이다.

(63) a. 철수가 나에게 택배를 보냈다.

b. 택배가 나에게 갔다/왔다.

(64) a. 철수가 나에게 택배를 보내 왔다.

b. *철수가 나에게 택배를 보내 갔다.

(65) a. 철수가 나에게 택배를 보냈는데 택배가 왔다.

b. *철수가 나에게 택배를 보냈는데 택배가 갔다.

(63a)의 ‘보내다’의 문장에서 이동하는 대상은 ‘택배를’이고, 이러한 ‘택배가’ 스스로 이동할 수 없는 무정물이기에는 하지만 문장 내에 명시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어떠한 행동주에 의해 (63b)에서와 같이 착점으로 이동하게 되는 문장은 성립이 가능하다. 그런데 ‘보내다’는 (64a)에서와 같이 ‘오다’와만 결합할 수 있다.⁹²⁾ ‘보내다’는 행동주인 ‘철수’가 착점인 ‘나’에게 대상 ‘택배’가 이동하도록 한 사건을 나타내는데 (65b)와 같이 그러한 대상이 명시적으로 실현된 착점 논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가다’의 문장과 이어지는 것은 어색하다.

‘보내 오다’도 ‘불러 오다(가다)’와 마찬가지로 V1이 V2 ‘오다’와 결합할 때 이동의 대상이 하나로 통합되어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며 ‘오다’에 의해 문장이 나타내는 결과 함의 정도가 달라진다.

(66) a. 철수가 나에게 택배를 보냈으나 나는 아직 받지 못했다.

b. 철수가 나에게 택배를 보냈으나 (받고서) 나는 좋아하지 않았다.

(67) a. *철수가 나에게 택배를 보내 왔지만 나는 아직 받지 못했다.

92) 이러한 ‘보내오다’에 관한 논의로는 박양규(1987), 황화상(2002)을 들 수 있다. 박양규(1987:486)에서는 “그 자체로서 이미 이동을 나타내는 ‘보내다’와 화자의 시점이 놓인 곳을 착점으로 하는 ‘오다’가 결합된 형태”로 보고, ‘보내다’와 ‘보내오다’가 대상의 이동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분석하였다. 황화상(2002:317~319)에서는 ‘철수가 나에게 떡을 보내왔다’라는 문장을 예로 들어 “‘보내다’에 의해 대상(혹은 객체-떡)이 주체(철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표현되며 ‘오다’에 의해 화자(나)의 입장에서 대상이 화자에게 가까워지는 것이 표현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황화상(2002:319)에서는 ‘보내다’가 ‘오다’와 결합하면서 ‘이동의 대상이 목표점에 도달했음, 즉 이동의 행위가 완료되었음’을 함의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 b. 철수가 나에게 택배를 보내 왔지만 (받고서) 나는 좋아하지 않았다.

(66a)에서와 같이 ‘보내다’는 행동주에 의해 대상이 착점으로 이동하게 된 사건이 일어나기는 했으나 그 대상이 착점에 도착한 결과 상태를 반드시 함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보내 오다’는 행동주인 ‘철수’가 착점이 되는 ‘나’에게 택배를 보냈는데 받지 못했다는 (67a)와 같은 문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보내다’가 ‘오다’와 결합하면서 행동주인 ‘철수’가 착점인 ‘나’에게 택배가 가도록 이동시켰고 그 택배가 ‘나’에게 도착한 결과를 반드시 함의하게 된다.

4.2.3. 혼합적 합성 유형

4.2.3.1. [V1] - ‘-를’: [행로]

앞서 밝힌 대로 ‘돌다’와 같은 동사는 경로 논항뿐만 아니라(‘돌다1’) 처소 변화를 함의하지 않는 행로도 취할 수 있다(‘돌다2’).

- (68) a. 철수는 운동장을 돌았다.
 b. *철수는 운동장을 돌아 갔다.
- (69) a. 우리는 백화점을 돌며 쇼핑을 했다.
 b. ??우리는 백화점을 돌아 가며 쇼핑을 했다.
 c. 우리는 백화점을 돌아 다니며 쇼핑을 했다.

‘돌다2’가 취하는 행로는 (68b)와 (69b)에서와 같이 ‘돌아 가다2(오다)’의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 (68b)는 ‘한 백화점이 아니라 여러 백화점들을 드나들며 이동했다’는 의미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한 백화점 내에서 이동한 경우’를 나타낼 수는 없다. ‘한 백화점’이라는 일정한 구역 내에서 정해진 경로가 없이 이동한 경우에는 (69c)와 같이 ‘돌아다니다’와 같은 동사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돌다2’는 ‘가까운 길을 두고 먼 쪽으로 둘러서 이동하는’ 경우도 나타낼 수 있다.

- (70) a. 철수는 일부러 먼 길을|먼 길로 돌아 집으로 왔다.
 b. 철수는 검문을 피해 *옆길을|옆길로 돌아 갔다.

이때 ‘돌다2’가 취하는 ‘-를|로’로 교체가 가능하던 행로 논항은 V2 ‘가다/오다’와 결합한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 내에서는 ‘-로’로만 실현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V1이 처소 변화를 함의하지 않는 [-처소 변화] 속성의 행로를 논항으로 취하는 경우에는 처소 변화를 함의하는 [+처소 변화]의 착점 논항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V2 ‘가다/오다’와 연쇄동사 구문을 이룬다 해도 V1의 행로 논항이 V2 ‘가다/오다’가 결합된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에서는 그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녀 가다2(오다)’도 V1의 논항 구조에서는 허용하던 행로 논항을 V2 ‘가다/오다’와 결합한 이후에는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 (71) a. 늦은 시간인데도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
 a'. *늦은 시간인데도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 간다.
 b. 영희는 큰길을 두고 골목길로 다녔다.
 b'. *영희는 큰길을 두고 골목길로 다녀 갔다.
 c. 철수는 지하철을 타러 이 길을|길로 자주 다닌다.
 c'. *철수는 지하철을 타러 이 길을|길로 자주 다녀 갔다.
 d. 600번 버스가 우리 집 앞에|앞을|앞으로 다닌다.
 d'. *600번 버스가 우리 집 앞에|앞을|앞으로 다녀 갔다.

(71)에서와 같이 V1 ‘다니다2’는 주어 자리에 유정물과 무정물이 모두 올 수 있으며 장소를 나타내는 ‘-에’나 ‘-로’, ‘-를|로’, ‘-에|를|로’와 같이 다양한 격 교체가 가능한 행로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V2 ‘가다/오다’와 결합한 이후에는 이러한 처소 논항들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게 된다.

4.2.3.2. [V1+V2] - ‘-를’: [행로]

‘내리다’⁹³⁾는 (72)에서와 같이 어떠한 탈 것에서 그 밖으로 변화된 위치를 나

93) 김창섭(1994:71)에서는 ‘내려-’와 같이 생산적으로 다른 동사와 결합하면서 독립적으로 쓰일 때의 의미와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V1+어+V2]형의 동사를 구성할 때 단어 형성의 요소로 독자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행동주, 대상, 착점 또는 기점 논항을 취하는 3항 술어로 쓰이는 ‘내리다’는 ‘가다/오다’와 연쇄동사 구문을 이룰 수 없다.

타내는 경우에는 착점 ‘-에’와 기점 ‘-에서’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로를 따라 이동하거나 그로 인해 어떠한 착점에 이르는 경우를 나타낼 때에는 (72)와 (73)에서와 같이 ‘가다/오다’와 결합한 ‘내려 가다(오다)’의 형태로만 착점 ‘-에’로 취한다.⁹⁴⁾ 이러한 ‘내리다’는 위의 동사들과는 반대로 V2 ‘가다/오다’와 결합한 이후에야 (73b)와 같이 ‘-를’로 실현된 행로 논향도 취할 수 있게 된다.

- (72) a. 우리는 버스 정류장에 내려 한참을 걸었다.
 b. 사람들이 기차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 (73) a. 수업을 마친 후 그는 교무실_에로 내려 갔다.
 b. *수업을 마친 후 그는 교무실_에로 내렸다.

- (74) a. 그는 계단을 내려 가서 지하철을 탔다.
 a'. *그는 계단을 내려서 지하철을 탔다.
 b. 철수가 비탈길을 내려 갔다.
 b'. *철수가 비탈길을 내렸다.

- (i) a. 철수가 산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배낭을 바닥에 내렸다.
 b. *??인부들이 이삿짐을 아래층에|아래층으로 내려갔다.
 (ii) a. 철수가 트럭에서 짐을 내렸다.
 b. *철수가 트럭에서 짐을 내려갔다.

(i)-(ii)의 ‘내리다’는 행동주에 의해 대상이 처소 이동을 겪는 사건을 나타내는데 V2 ‘가다/오다’와 결합하면서 그것이 또 다시 다른 처소 이동을 겪는 사건을 나타낼 수 없다.

94) V2 ‘가다/오다’와 결합한 이후에야 하나의 독립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동사로는 ‘*다가다-다가가다(오다)’, ‘*데리다-데려가다(오다)’, ‘*무르다-물러가다(오다)’, ‘*비껴다-비껴가다(오다)’, ‘*지르다-질러가다(오다)’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V1은 ‘내리다’와 같이 ‘가다/오다’와 결합하여 착점을 취하게 되는 부류들은 아니다. ‘다가가다(오다)’, ‘데려가다(오다)’의 V1은 독립적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불구동사로 합성동사로 볼 수 있고, ‘물러가다(오다)’는 방향의 ‘-로’를, ‘비껴가다(오다)’, ‘질러가다(오다)’는 행로 ‘-를’을 취하는데 그러한 처소 논향들은 V2 ‘가다/오다’가 아니라 V1의 논향들이다. 이들은 V2 ‘가다/오다’와 결합한 형태로만 독립적으로 문장을 구성하게 되나 V1의 논향 구조를 유지하는 경우이다.

(74)의 ‘내려 가다(오다)’는 행로(Route)를 따라 아래로 이동하였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때의 V1 ‘내려-’에는 이동의 의미가 없고 V2 ‘가다/오다’에 의해 이동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여기서 V2 ‘가다/오다’가 단순히 상적인 의미와 같은 보조적인 의미로만 쓰였다고 볼 수는 없다.

V1과 V2 ‘가다/오다’가 결합하면서 V1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논항의 의미역이 다른 의미역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다.

‘떠 가다(오다)’의 V1 ‘뜨다’는 (75a)에서처럼 ‘물 위에|물 위로’와 같이 ‘-에|로’로 교체가 가능한 착점 논항을 취하며, 대상이 ‘물 위에 있지 않다’가 물 위에 있게 된’ 처소 변화가 일어난 사건을 나타낸다.

(75) a. 종이배가 물 위에|물 위로|*물 위를 떴다.

b. 종이배가 물 위에|물 위로|물 위를 떠 간다.

그런데 ‘떠 가다(오다)’에서는 (75b)에서와 같이 V1이 취하던 착점이 단순한 장소만을 나타내는 ‘-에’로 속성이 바뀌며 행로를 나타내는 ‘-로’나 ‘-를’과도 교체가 가능하게 된다. 이때의 ‘떠 가다’는 ‘뜨다’와 달리 대상의 처소 변화가 아닌 이동만을 나타낸다.

4.2.4. 정리: [V1+어+V2{가다/오다}]의 논항 구조 합성 유형

지금까지 V2 ‘가다/오다’가 다른 동사들과 결합하여 연쇄동사 구문을 이룰 때, 두 동사가 각기 가지고 있던 논항 구조가 합성되는 방식에 따라 (1) 병렬적 합성 유형(Summation Type), (2) 통합적 합성 유형(Unification Type), (3) 혼합적 합성 유형(Mixed Composition Type)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 번째, ‘병렬적 합성 유형’은 ‘가다/오다’와 결합하는 동사들을 1항 술어, 2항 술어, 3항 술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항 술어와는 주어(행동주) 논항을 공유하며 V2 ‘가다/오다’에 의해 착점 ‘-에|로’를 도입하게 되며 2항 술어와도 주어(행동주) 논항을 공유하되, 목적어(대상)는 2항 술어인 V1에 의해, 착점 논항은 V2 ‘가다/오다’에 의해 도입하여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를 이룬다. ‘가다/오다’와 같이 착점 논항 ‘-에’를 취하는 3항 술어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주어(행동주) 논항은 공유하되 목적어(대상)은 V2에 의해 실현되고 V1과 V2의 착점 논항은 각각에 이동하게 되는 개체가 대상과 행동주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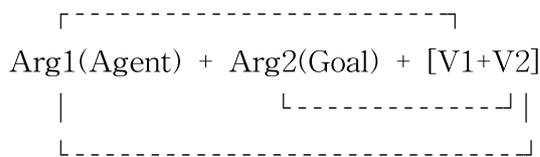
않고 병렬적으로 합성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두 번째, ‘통합적 합성 유형’은 먼저 V1이 V2 ‘가다/오다’와 주어와 처소 논항을 공유하는 경우와 V1의 목적어(대상)와 V2의 주어(대상)가 통합되며 처소 논항을 공유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는 처소 변화를 함의하는 경로, 착점, 기점 논항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2항 술어와 3항 술어들이 해당된다. 두 경우 모두 착점 ‘-에’를 취하는 ‘가다/오다’와 동일한 속성의 [+처소 변화]를 나타내는 처소 논항을 취하는 동사들이 그 처소 논항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연쇄동사 구문을 이룬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러한 통합적 합성 유형은 병렬적 합성 유형과 달리 표면적으로는 V1의 논항 구조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혼합적 합성 유형’에는 V1의 논항 구조에서는 허용하던 행로 논항 ‘-를’을 V2 ‘가다/오다’와 결합한 이후에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에서는 허용하지 않거나 반대로 V1에 의해 허용되지 않던 행로 논항이 V2 ‘가다/오다’와 결합한 이후에는 허용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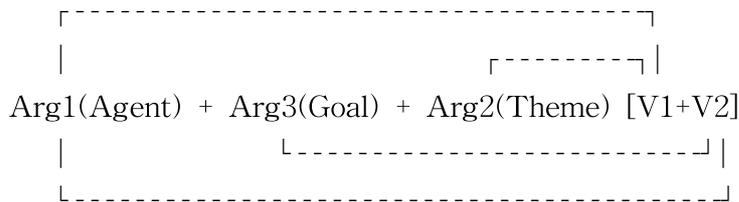
(76) I. 병렬적 합성 유형(Summation Type)

- ① N1-가 + V1 → N1-가 + N2-에|로 + [V1+V2]



(예) ‘걸어가다(오다)’, ‘달려가다(오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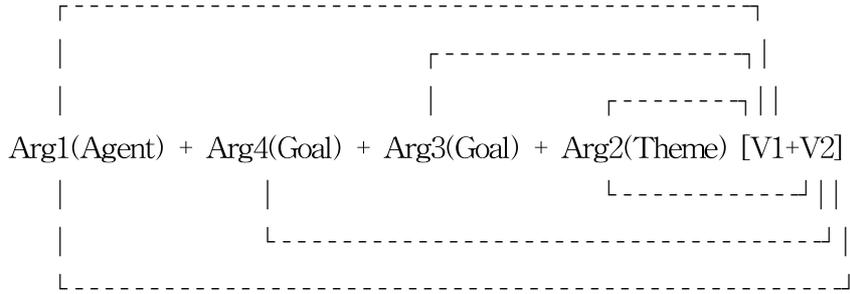
- ② N1-가 + N2-를 + V1 → N1-가 + N3-에|로 + N2-를 + [V1+V2]



(예) ‘끌어가다(오다)’, ‘읽어가다(오다)’, ‘잡아가다(오다)’,
‘만들어가다(오다)’, ‘가져가다(오다)’, ‘따라가다(오다)’,
‘찾아가다1(오다)’ 등

③ N1-가 + N3-에 + N2-를 + V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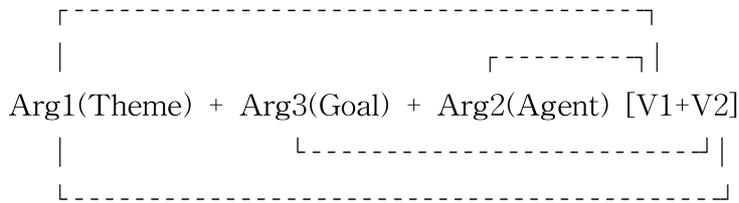
→ N1-가 + N4-에|로 + N3-에 + N2-를 + [V1+V2]



(예) ‘실어가다(오다)’, ‘담아가다(오다)’, ‘넣어가다(오다)’ 등

④ N1-가 + N2-에게|에 + V1

→ N1-가 + N3-에|로 + N2-에게 + [V1+V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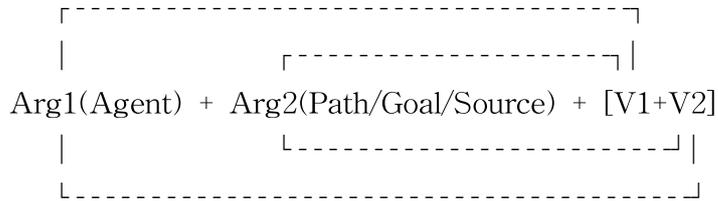
(예) ‘불러가다(오다)’, ‘실러가다(오다)’ 등

II. 통합적 합성 유형(Unification Type)

(i) V1의 주어, 처소 = V2의 주어, 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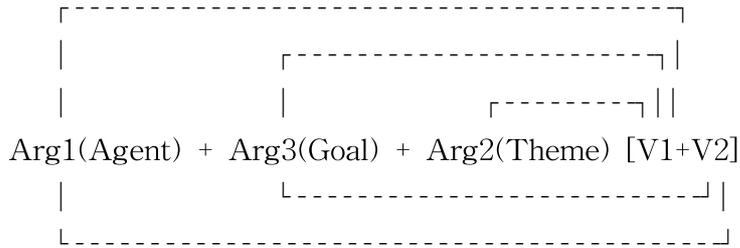
① N1-가 + N2-를|로|에|에서 + V1

→ N1-가 + N2-를|로|에|에서 + [V1+V2]



(예) ‘건너가다(오다)’, ‘돌아가다1(오다)’, ‘들어가다(오다)’,
 ‘올라가다(오다)’, ‘몰러가다(오다)’, ‘다녀가다1(오다)’,
 ‘떠나가다(오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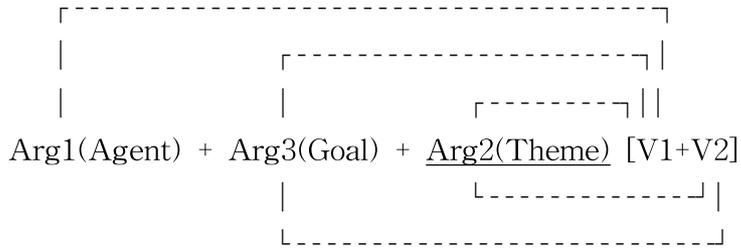
- ② N1-가 + N3-에|로|-에서+ N2-를 + V1
 → N1-가 + N3-에|로|-에서+ N2-를 + [V1+V2]



(예) ‘들여가다(오다)’, ‘옮겨가다(오다)’, ‘물아가다(오다)’,
 ‘찾아가다(오다)’, ‘받아가다(오다)’ 등

(ii) V1의 목적어, 처소 = V2의 주어, 처소

- ① N1-가 + N3-에|로|-에게 + N2-를 + V1
 → N1-가 + N3-에|로|-에게 + N2-를 + [V1+V2]



(예) ‘불러가다(오다)’, ‘보내오다’ 등

III. 혼합적 합성 유형(Mixed Composition Type)

- ① N1-가 + N2-를|로 + V1 → N1-가 + N2-*를|로 + [V1+V2]
 (예) ‘돌다2-돌아가다2(오다)’
- ② N1-가 + N2-에|를|로 + V1 → N1-가 + N2-*에|*를|*로 + [V1+V2]
 (예) ‘다니다2-*다녀가다2(오다)’
- ③ N1-가 + N2-에 + V1 → N1-가 + N2-에|로|를 + [V1+V2]
 (예) ‘내리다-내려가다(오다)’
- ④ N1-가 + N2-에|로|*를 + V1 → N1-가 + N2-에|로|를 + [V1+V2]
 (예) ‘뜨다-떠가다(오다)’

4.3. [V1+어+V2{주다}]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 합성 유형

‘주다’는 행동주와 대상 논항뿐만 아니라 착점 논항 ‘-에게’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3항 술어로, 다른 타동사와 주어로 실현된 행동주 말고도 대상 논항을 공유하며 그 논항을 하나로 통합시켜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를 구성한다. 주어 외에 공유되는 논항이 없이 V1과 V2 ‘주다’가 각기 가지고 있던 논항들이 동시에 포괄되어 실현되는 경우는 V2 ‘가다/오다’에 비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4.3.1. 병렬적 합성 유형

4.3.1.1. 1항 → 2항: ‘-에게’ 도입

V1이 V2 ‘주다’와 주어(행동주) 외에 공유하는 목적어(대상) 논항이 없이 ‘주다’에 의해 논항 구조 내에 ‘-에게’를 도입하는 경우는 ‘웃어 주다’가 있다.⁹⁵⁾

- (77) a. 아이가 웃었다.
b. 아이가 엄마를 향해 웃었다.
c. *아이가 엄마에게 웃었다.

- (78) a. 아이가 엄마에게 웃어 주었다.

95) ‘웃다’와 같이 비언어적 표현 동사(Verbs of Nonverbal Expression) 또는 몸짓을 나타내는 동사(Verbs Involving the Body)에 속하는 ‘울다 - 울어 주다’, ‘(고개를) 끄덕이다 - 끄덕여 주다’, ‘(박수를) 치다 - 쳐 주다’ 등의 예들을 살펴보면 V1이 1항 술어이면서 V2 ‘주다’와 결합하여 ‘-에게’를 취하게 되는 경우는 현재로서는 ‘웃어 주다’ 외에 발견되지 않았다. 동사가 나타내는 몸짓이나 동작 행위가 어떠한 대상을 향해 전달이 가능한 경우에만 ‘웃다’와 같이 V2 ‘주다’와 결합하여도 착점 논항 ‘-에게’를 도입할 수 있다. 아래의 ‘울다’도 ‘웃다’와 동일한 의미 부류에 속하는 동사이거나 V2 ‘주다’와 결합한다고 해도 착점 ‘-에게’ 논항을 취할 수 없다.

- (i) a. *영희가 나를 향해 울었다.
b. 영희가 나를 위해 울었다/울어 주었다.
c. *영희가 나에게 울어 주었다.

b. *아이가 엄마에게 웃어서 주었다.

‘웃다’는 1항 술어로, (77b)에서와 같이 ‘-(를) 향해’와 같은 방향격을 나타내는 부가어와 공기할 수 있으나 (77c)에서와 같이 ‘-에게’와 같은 여격 표지가 결합된 논항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78a)에서와 같이 ‘주다’와 결합하면서 여격 표지 ‘-에게’가 결합된 착점 논항을 도입하게 된다. ‘주다’에 의해 어떠한 구체물이 직접적으로 전달되거나 이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V1의 행위의 결과물인 ‘웃음’이 전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78b)에서와 같이 두 동사 사이에 ‘-(어)서’가 개입되어 분리가 가능한 두 사건의 합으로 해석될 수도 없다.

(79) ‘웃어 주다’

V1: 아이가 웃었다.

V2: 아이가 엄마에게 [웃음을] 주었다.⁹⁶⁾

⇒ *아이가 엄마에게 웃음을 웃어 주었다.

→ 아이가 엄마에게 웃어 주었다.

└──────────┘

(79)에서 보면 ‘웃다’가 주어(행동주)만을 요구하는 1항 술어이기 때문에 ‘주다’가 가지고 있는 ‘-를’로 실현된 대상 논항과 통합시킬 논항이 없다. 이런 경우에 ‘주다’의 대상 논항으로 실현된 ‘웃음을’이라는 사건성 명사가 V1의 ‘웃어’로 통합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합성 방식은 ‘가다/오다’의 연쇄동사 구문에서 ‘걸어 가다’가 보이는 전형적인 병렬적 합성 유형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두 동사가 결합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논항들을 모두 포괄하여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으로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병렬적 합성 유형으로 분류한다.

4.3.1.2. 2항 → 3항: ‘-에게’ 도입

96) ‘웃다’와 ‘주다’가 결합할 때 두 동사의 논항 구조가 합성되는 방식을 보이기 위해 ‘주다’의 논항 구조인 [N1-가 + N3-에게 + N2-를 + V]에 따라 ‘아이가 엄마에게 웃음을 주었다’라고 설정하였으나 정확히 표현하자면 ‘아이가 엄마에게 [웃음을 지어] 주었다’가 될 것이다. 이러한 ‘웃어 주다’는 ‘아이가 지은 웃음이 엄마에게 전달되는’ 사건을 나타낸다.

‘주다’는 2항 술어의 V1과 결합할 때, 주어(행동주)뿐만 아니라 목적어(대상) 논항을 공유하면서 여격 표지 ‘-에게’가 결합된 착점 논항을 새로이 도입하게 된다. 앞서 제시한 박승윤(2003), 정주리(2006)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존재나 산출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주다’와 결합하여 ‘-에게’ 논항을 문장 내에 허용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 (80) a. 철수가 빵을 만들었다.
 b. 철수가 영희에게 빵을 주었다.
 c. 철수가 영희에게 빵을 만들어 주었다.
 d. 철수가 영희에게 빵을 만들어서 주었다.

‘만들어 주다’의 V1 ‘만들다’는 어떠한 대상(결과물)을 산출하는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로 V2 ‘주다’와 주어(행동주)와 목적어(대상) 논항을 공유하며 착점 ‘-에게’를 도입하여 연쇄동사 구문을 이룬다. 이러한 연쇄동사 구문은 (80d)에서와 같이 ‘-(어)서’ 구문과도 교체가 가능하다. V1의 사건으로 존재하게 된 대상이 V1과 V2 ‘주다’가 결합하면서 처소 이동의 목표물(target)이 되어 ‘-에게’의 착점 논항으로 이동하게 된 계기적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출 동사뿐만 아니라 ‘깎아 주다’의 V1 ‘깎다’와 같은 대상의 상태 변화를 야기하는 동사들도 동일한 합성 방식으로 V2 ‘주다’와 결합하여 연쇄동사 구문을 이룬다. 그런데 ‘깎아 주다’의 V1 ‘깎다’는 (81)과 (82)에서와 같이 대상 논항에 따라 ‘-에게’ 논항의 실현 여부가 달라지기도 한다.

- (81) a. 아빠가 연필을 깎았다.
 b. 아빠가 아이에게 연필을 주었다.
 c. 아빠가 아이에게 연필을 깎아 주었다.
 d. 아빠가 아이에게 연필을 깎아서 주었다.

- (82) a. 엄마가 (아이의) 머리를 깎았다.
 b. #엄마가 아이에게 머리를 주었다.
 c. *엄마가 아이에게 머리를 깎아 주었다.
 d. 엄마가 아이의 머리를 깎아 주었다.

e. *엄마가 아이의 머리를 깎아서 주었다.

(81)과 같이 V1 ‘깎다’의 사건으로 상태 변화를 겪게 된 대상 논항이 이동이 가능한 구체물인 경우에는 V2 ‘주다’와 결합하면서 ‘-에게’ 논항을 도입하면서 착점으로 이동한 사건을 나타내게 된다. 그런데 (82)에서와 같이 대상 논항이 이동이 불가능한 구체물인 경우에는 V2 ‘주다’와 결합하여도 ‘-에게’ 논항을 도입할 수 없다. 또한 대상 논항이 이동이 가능한 구체물인 경우에만 ‘-(어)서’ 구문과 교체가 가능하다.

‘밀어 주다’의 V1 ‘밀다’와 같이 단순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와 V2 ‘주다’가 결합하는 경우에도 V1이 취하는 대상 논항의 속성에 따라 ‘-에게’ 논항의 실현 여부가 달라진다.

- (83) a. 철수가 카트를 밀었다.
b. 철수가 영희에게 카트를 주었다.
c. *철수가 영희에게 카트를 밀었다.
d. 철수가 영희에게 카트를 밀어 주었다.
e. 철수가 영희에게 카트를 밀어서 주었다.⁹⁷⁾

- (84) a. 아빠가 아이의 그네를 밀었다/밀어 주었다.
b. *아빠가 아이에게 그네를 밀었다/밀어 주었다.
c. *아빠가 아이의 그네를 밀어서 주었다.
d. 아빠가 엄마 대신/엄마를 위해 아이의 그네를 밀어 주었다.

(83)의 ‘밀다’는 이동이 가능한 구체물을 대상 논항으로 취하는 경우로 주어와 목적어 논항을 공유하며 그것들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V2 ‘주다’에 의해 ‘-에게’가 실현되어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를 구성하게 된다. 그런데 (84)에서와 같이 대상이 속격(genitive)으로 실현된 개체와 함께 앞뒤로 움직이는 것은 가능하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밀다’가 ‘주다’와 결합하여도 ‘-에게’ 논항을 문장 내에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듯 ‘주다’가 행동주(주어)와 대상(목적어) 논항을 취하는 2항 술어와 결합

97) 이때의 ‘밀어서 주다’는 ‘카트’를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 다른 방식이 아닌 ‘밀어서’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경우에는 그 동사가 취하는 대상의 속성에 따라 착점 ‘-에게’ 논항의 실현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2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읽어 주다’와 같이 V1과 V2가 단순히 구체물의 대상 논항을 공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85) a. 철수가 책을 읽었다.
b. 철수가 동생에게 책을 주었다.
c. 철수가 동생에게 책을 읽어 주었다.
d. *철수가 동생에게 책을 읽어서 주었다.

표면적으로는 (85)에서와 같이 ‘읽다’와 ‘주다’가 결합하여 ‘읽어 주다’ 구문을 이룰 때, V1 ‘읽다’의 대상 논항 ‘책을’과 V2 ‘주다’의 대상 논항 ‘책을’이 공통된 논항으로 하나로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읽어 주다’는 ‘철수가 책을 소리 내어 읽음과 동시에 그 읽은 행위로 인해 산출되는 내용물이 동생에게 전달되는’ 사건이다. 그리하여 V1과 V2가 나타내는 각각의 사건이 분리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기 때문에 (85d)에서와 같이 ‘-(어)서’와 교체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V2 ‘주다’와 결합하면서 착점 ‘-에게’ 논항을 도입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사건 구조의 합성 유형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열어 주다’도 V1 ‘열다’와 V2 ‘주다’가 결합하면서 주어와 목적어로 실현된 대상 논항 ‘-를’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에게’ 논항을 도입하게 되는 유형이나 ‘읽어 주다’와 마찬가지로 V1과 V2가 단순한 구체물의 대상 논항을 공유한다고 볼 수 없다.

- (86) a. 철수가 (영희를 향해) 문을 열었다.
b. #철수가 영희에게 문을 주었다.
c. *철수가 영희에게 문을 열었다.

- (87) a. 철수가 영희에게 문을 열어 주었다.
b. *철수가 영희에게 문을 열어서 주었다.

(87a)의 ‘열어 주다’는 (86a)의 ‘철수가 문을 열었다’와 (86b)의 ‘철수가 영희에게 문을 주었다’라는 두 문장 내의 논항들의 단순한 결합이라고 볼 수 없다. ‘철수

가 영희에게 문을 주는' 사건은 문을 교체하기 위해 문틀에서 분리해서 영희에게 전달하는 특수한 상황을 설정하지 않는 이상 성립되기 어렵다. '읽어 주다'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구체물이 아닌 V1의 사건의 결과물이 V2 '주다'에 의해 여격 '-에게'로 전달 또는 이동되는 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1의 '문을 연' 사건과 그것이 V2 '주다'에 의해 도입되는 '-에게'로 전달되는 사건은 단순히 구체물이 이동되어 전달되는 '만들어 주다', '짜아 주다' 등의 경우와 사건 구조의 합성 방식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채희락(2016)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열다'와 동일한 의미 부류에 속하는 '닫다'는 '주다'와 결합하여 문장을 구성할 때 여격 '-에게'를 허용하지 않는다.

(88) a. *철수가 영희에게 문을 닫아 주었다.

b. 철수가 영희를 위해 문을 닫아 주었다.

Shibatani(1994)에서는 '열어 주다'는 V1의 '문을 연' 사건의 결과로 생긴 통로 (passage)가 착점 '영희'의 소유 통제권(possessive control) 하에 영입되는 것으로 환유적으로(metonymically)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게'가 실현되는 구문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달리 '닫아 주다'의 '문을 닫은' 사건은 그로 인해 생겨난 통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착점 '영희'가 닫힌 문을 통과할 수도 없고 문을 사용할 통제권을 갖게 될 수 없기 때문에 (88a)와 같은 문장이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Song(2010)에서는 '열어 주다'의 문장에 실현되는 '-에게'가 "행동주에 의해 착점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대상과 관계를 맺는(The goal's engaging with the theme) 상황을 생성한다"고 제시하였다. 행동주가 착점 또는 수용자를 위해 문을 열어 준다면 수용자가 그 문을 사용 즉 통과함으로써 그 문과 관계를 맺을(engaging) 것으로 기대되는데 문을 닫는 것은 착점 또는 수용자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므로 그러한 관계를 맺는(engaging) 상황이 결여되어 있어 '-에게'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열어 주다'와 '닫아 주다'의 '-에게' 실현 여부가 달라지는 데에는 분명히 Shibatani(1994)나 Song(2010)에서와 같이 인지적인 측면이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Song(2010)의 주장대로 '-에게'가 단독으로 어떠한 관계를 맺게 하는 상황을 생성해 내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주다'의 의미적 속성에 근거하여,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 구조상에서 V1의 하위 사건 또는 결과 상태가 V2

‘주다’와 결합하면서 착점에 놓이게 되는 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열어 주다’는 V1의 ‘문을 여는’ 사건의 결과로 ‘문이 열린 상태’는 착점으로 실현된 ‘영희’가 그 사건의 결과에 참여할 수 있도록 V2 ‘주다’의 사건에 의해 ‘영희에게’ 주어지게 된다. 반면에 ‘문을 닫는’ 사건의 결과로 ‘문이 닫힌 상태’는 ‘영희가’ 그 사건의 결과에 참여할 수 없는 사건으로 ‘주다’와 결합하여도 V1의 문이 닫힌 결과 상태가 ‘영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열어 주다’, ‘닫아 주다’와 그 사건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고 있다’ 또는 ‘-중이다’와의 결합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89) a. 철수가 (영희가 들어올 수 있게) 영희에게 문을 열어 주고 있다.

/열어 주는 중이다.

b. 철수가 영희를 위해 문을 열어 주고 있다/열어 주는 중이다.

(90) a. *철수가 (영희가 들어오지 못하게) 영희에게 문을 닫아 주고 있다.

/닫아 주는 중이다.

b. 철수가 영희를 위해 문을 닫아 주고 있다/닫아 주는 중이다.

(89)에서와 같이 ‘열어 주다’는 ‘-(를) 위해’와 같은 수혜 대상이 실현된 문장에서 뿐만 아니라 여격 논항 ‘-에게’가 실현된 경우에도 진행을 나타내는 ‘-고 있다’ 또는 ‘-중이다’와 결합할 수 있다. ‘열어 주다’는 진행상과 결합하여 ‘문이 처음 열리기 시작해서 그 열린 상태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사건에 착점으로 실현된 개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착점에 주어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닫아 주다’는 (90b)에서와 같이 ‘문을 닫는’ 사건이 ‘영희’를 위하는 단순히 수혜적인 사건인 경우에는 진행상과 결합할 수 있지만 그 수혜자가 ‘문을 닫는’ 사건에 사건의 주체로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90a)와 같이 ‘-에게’ 여격 표지가 결합된 논항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Song(2010:ft8)에서는 ‘닫아 주다’도 (91a)와 같이 착점과 대상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면 여격 ‘-에게’를 허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인지는 더 이상 설명하고 있지만 본고의 관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91a)에서 문을 닫고 난 이후의 사건인 ‘문에 페인트를 칠하는’ 주체는 착점으로 실현된 ‘영희’이다. 이러한 착점에 행동주에 의해 ‘문을 닫는 사건’의 V1의 결과 상태가 주어지게 되는 사건으로 해

석이 가능한 경우에만 ‘달아 주다’의 문장에서 ‘-에게’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91) a. 페인트를 잘 칠할 수 있게, 기호가 영희에게 문을 달아 주었다.

(Song 2010:ft8)

b. 아이가 잘 잘 수 있게, 엄마가 아이에게 문을 달아 주었다.

이외에도 ‘-에게’ 여격 표지가 결합된 논항의 허용 여부에 있어 비대칭성을 보이는 동사 부류는 ‘개어 주다 - 퍼 주다(이불을)’, ‘틀어 주다/켜 주다 - 꺼 주다(선풍기를, TV를)’ 등이 있다.

4.3.1.3. 3항 → 4항: ‘-에게’ 도입

4.3.1.3.1. ‘-에 + -에게’, ‘-에서 + -에게’

‘달아 주다’, ‘꺼내 주다’ 등과 같이 V1이 주어(행동주)와 목적어(대상) 외에 착점 ‘-에’나 기점 ‘-에서’를 취하는 3항 술어인 경우에도 V2 ‘주다’와 결합하여 연쇄동사 구문을 이룰 때, 주어(행동주)와 목적어(대상) 논항을 공유한다. 그런데 이러한 ‘달아 주다’, ‘꺼내 주다’와 같은 경우에는 V1의 처소 논항과 V2 ‘주다’의 착점 ‘-에’가 하나로 통합되지 않는다.

‘달아 주다’의 V1 ‘담다’는 무정물의 용기(container)와 결합하는 착점 ‘-에’를 취하는 이동 동사이다. 이러한 ‘담다’의 착점 논항 ‘-에’는 V2 ‘주다’가 취하는 유정물의 착점 ‘-에게’와 하나로 통합될 수 없고 (92d)에서와 같이 두 개의 착점 논항이 병렬식으로 나란히 실현되는 문장만이 명제적으로 완전한 문장으로 성립된다.

(92) a. 철수가 바구니에 과일을 담았다.

b. 철수가 영희에게 과일을 주었다.

c. *철수가 영희에게 과일을 담아 주었다.

d. 철수가 영희에게 바구니에 과일을 담아 주었다.

e. 철수가 영희에게 바구니에 과일을 담아서 주었다.

‘담아 주다’는 V1의 행동주인 ‘철수’에 의해 대상인 ‘과일(내용물 containee)’이 착점인 ‘바구니(용기 container)’로 이동한 사건과 ‘과일’이 ‘바구니’에 담긴 상태

로 V2 ‘주다’에 의해 다시 이동 가능한 대상이 되어 착점 또는 수용자인 ‘영희에게’로 이동한 사건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우에는 (92e)에서와 같이 ‘-(어)서’ 구문과도 교체가 가능하다.

그런데 ‘실어 주다’의 경우에는 V1 ‘신다’의 ‘-에’ 착점 논항이 V2 ‘주다’의 ‘-에게’ 착점 논항으로 다시 ‘이동’이 가능한 속성의 것이냐에 따라 ‘-에게’ 실현 여부가 달라진다.

- (93) a. 철수가 (영희의) 차에 짐을 실었다.
- b. 철수가 영희에게 짐을 주었다.
- c. *철수가 영희에게 짐을 실어 주었다.
- d. 철수가 영희의 차에 짐을 실어 주었다.

- (94) a. ?*철수가 영희에게 차에 짐을 실어 주었다.
- b. 철수가 영희에게 카트에 짐을 실어 주었다.

여기서의 ‘이동’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뿐만 아니라 ‘소유 이전’의 의미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93a)에서와 같이 ‘차’의 소유가 ‘영희’에게로 정해져 있다면 행동주인 ‘철수’에 의해 그 ‘차’는 착점인 ‘영희’에게로 더 이상 이동이 가능한 속성의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V1의 착점 논항 ‘-에’로 실현된 대상물이 V2 ‘주다’의 ‘-에게’ 착점 논항으로 다시 ‘이동’을 겪을 수 없어 ‘담아 주다’와 달리 V1의 ‘-에’와 V2의 ‘-에게’가 병렬적으로 실현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두 착점 논항이 하나로 통합되지도 않아 (93c)와 같은 문장도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94a)와 같은 문장에서 ‘차’가 ‘영희’의 것이 아니라 ‘철수’가 새로운 ‘차’에 ‘짐’을 실어 그 ‘차’와 ‘짐’을 함께 ‘영희에게’ 이동시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이거나 (94b)와 같이 V1의 착점이 소유가 미정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만 V1의 ‘-에’와 V2의 ‘-에게’가 동시에 실현되는, 병렬식으로 통합된 문장이 성립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실어 주다’는 V1 ‘신다’와 V2 ‘주다’가 결합할 때 두 동사의 착점 논항이 하나로 통합되지 않아 ‘주다’와 결합하더라도 (93d)와 같이 V1의 논항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꺼내 주다’의 V1 ‘꺼내다’와 같이 기점 논항 ‘-에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3항 술어의 경우에도 V2 ‘주다’와 결합하면서 착점 또는 수용자 논항인 ‘-에게’를 논항 구조 내에 도입하게 된다.

- (95) a. 철수가 지갑에서 돈을 꺼냈다.
 b. 철수가 조카에게 돈을 주었다.
 c. *철수가 조카에게 돈을 꺼내 주었다.
 d. 철수가 조카에게 지갑에서 돈을 꺼내 주었다.
 e. 철수가 조카에게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주었다.

V1 ‘꺼내다’와 V2 ‘주다’가 공유하는 주어(행동주)와 목적어(대상) 논항은 하나로 통합되나 V1의 기점 논항과 V2의 착점 논항은 하나로 통합되지 않고 ‘담아 주다’와 마찬가지로 (95d)에서와 같이 V1의 ‘-에서’와 V2의 ‘-에’가 동시에 병렬적으로 실현된다. 이렇게 V1과 V2의 논항들이 병렬적으로 합성되는 ‘꺼내 주다’는 (95e)와 같이 ‘-(어)서’ 구문과도 교체가 가능하다. 이러한 ‘꺼내 주다’는 V1의 사건에 의해 대상이 기점에서 이동하여 V2 ‘주다’에 의해 도입된 여격 표지 ‘-에게’가 결합된 착점으로 이동하게 된 사건을 나타낸다.

4.3.1.3.2. ‘-를 -로 + -에게’

‘갈아 주다’는 상태 변화와 같은 어떠한 결과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로 앞서 살펴본 ‘깎아 주다’와 같이 2항 술어, 또는 ‘-를 -로’를 취하는 3항 술어로 쓰이기도 한다.

- (96) a. 엄마가 사과를 갈았다.
 b. 엄마가 아이에게 사과를 주었다.
 c. 엄마가 아이에게 사과를 갈아 주었다.
 d. 엄마가 아이에게 사과를 갈아서 주었다.

‘갈아 주다’의 V1 ‘갈다’가 2항 술어로 쓰인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깎아 주다’와 동일하게 V2 ‘주다’와 결합하면서 착점 논항 ‘-에게’를 새로이 도입하게 된다. 이러한 ‘사과를 갈아 주는’ 사건은 행동주에 의해 V1의 사건으로 상태 변화를 겪은 대상이 착점으로 이동한 사건을 나타낸다.

다음과 같이 ‘갈다’가 3항 술어로 쓰인 경우에는 V2 ‘주다’와 결합할 때 (97c)에서와 같이 V1의 논항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구문도 가능하고 (97d)에서와 같

이 착점 논항 ‘-에게’를 도입할 수도 있다.

- (97) a. 아빠가 아이의 기저귀를 새 것으로 갈았다.
b. 아빠가 아이에게 기저귀를 주었다.
c. 아빠가 아이의 기저귀를 새 것으로 갈아 주었다.
d. 아빠가 아이에게 기저귀를 새 것으로 갈아 주었다.
e. *아빠가 아이에게 기저귀를 새 것으로 갈아서 주었다.

(97)의 ‘기저귀를 갈아 주는’ 경우는 대상이 다른 상태의 대상으로 바뀌어 단순히 착점으로 이동하는 사건이 아니라 V1 ‘갈다’의 사건에 의해 대상 ‘기저귀’가 새로운 것으로 교체됨과 동시에 ‘아이의’ 신체 부위로 이동하여 상태 변화를 야기한 사건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97e)에서와 같이 ‘-(어)서’에 의해 두 동사가 분리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눠 주다’의 V1 ‘나누다’는 ‘-를 -로’와 ‘-와 -를’의 논항 구조를 취할 수 있는 3항 술어이다.

- (98) a. 철수가 빵을 반으로 나누었다.
b. 철수가 동생에게 빵을 주었다.
c. 철수가 동생에게 빵을 반으로 나눠 주었다.
d. 철수가 동생에게 빵을 반으로 나눠서 주었다.

- (99) a. 철수가 동생과/친구들과 빵을 나누었다.
b. *철수가 친구들에게 빵을 나누었다.
c. 철수가 친구들에게 빵을 나눠 주었다.
d. ?*철수가 친구들에게 빵을 나눠서 주었다.

먼저 ‘나누다’가 (98)에서와 같이 ‘-를 -로’의 논항을 취하며 대상의 형태 변화를 야기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경우(‘나누다1’)에는 V2 ‘주다’와 결합하면서 착점 논항 ‘-에게’를 도입하고 ‘-(어)서’ 구문과도 교체가 가능하다. 즉 ‘빵’을 반으로 나누고 난 다음에 그것을 착점에게 이동 또는 전달한 사건을 나타낸다. (99)에서와 같이 공동격 ‘-와’를 취하는 대칭 동사로 쓰인 경우(‘나누다2’)에도 V2 ‘주다’와 결합하면서 착점 논항 ‘-에게’를 도입할 수 있으나 이때는 배분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서’에 의해 분리가 가능한 두 동사의 단순한 합에 의해 도출된 의미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건 구조의 합성 유형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4.3.2. 통합적 합성 유형

V2에 ‘가다/오다’가 오는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의 통합적 합성 유형은 V1과 V2 ‘가다/오다’가 주어와 처소 논항을 공유하며 하나로 통합시키는 ‘완전 통합’ 방식이라면, ‘주다’의 통합적 합성 방식은 ‘완전 통합’과 ‘내포 통합’으로 나눌 수 있다. ‘완전 통합’은 ‘가다/오다’의 통합적 합성 유형과 동일하게 V1과 V2가 모든 논항을 공유하는 경우의 합성 방식이고 ‘내포 통합’은 V1이 취하는 ‘-에’가 V2 ‘주다’의 ‘-에게’에 포함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의 합성 방식이다.

4.3.2.1. 완전 통합

V1이 V2 ‘주다’와 동일하게 주어(행동주), 목적어(대상) 그리고 착점 논항 ‘-에게’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3항 술어인 경우에는 V1과 V2가 모든 논항을 공유하며 공통된 논항들을 하나로 통합시켜 연쇄동사 구문을 형성한다.⁹⁸⁾

‘던져 주다’, ‘건네 주다’, ‘보내 주다’는 앞서 V2 ‘가다/오다’의 통합적 합성 유형에 속하는 ‘건너 가다’류와 동일한 방식으로 두 동사의 논항들이 합성된다.

- (100) a. 철수가 영희에게 공을 던졌다.
 b. 철수가 영희에게 공을 주었다.
 c. 철수가 영희에게 공을 던져 주었다.
- (101) a. 철수가 영희에게 명함을 건넸다.
 b. 철수가 영희에게 명함을 주었다.
 c. 철수가 영희에게 명함을 건네 주었다.

98) 강현화(1998)에서는 동일하게 ‘-에게’ 논항을 취하는 두 동사가 결합한 ‘던져 주다’와 같은 경우는 통사적(통어적) 구성으로 보았다. 정주리(2006)에서도 ‘던져 주다’, ‘건네주다’ 등의 V1이 V2 ‘주다’가 없이도 수여 구문을 이루는 부류로 보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V2 ‘주다’가 ‘수여성’ 혹은 ‘도달성 강조’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 (102) a. 영희가 철수에게 편지를 보냈다.
 b. 영희가 철수에게 편지를 주었다.
 c. 영희가 철수에게 편지를 보내 주었다.

이들은 V1의 ‘-에게’와 V2의 ‘-에게’가 동일한 착점 논항으로 하나로 통합되어 연쇄동사 구문을 이룬다.

‘입히다’, ‘먹이다’ 등의 결과 행위를 나타내는 사동동사들도 V2 ‘주다’와 동일한 논항 구조를 갖는 3항 술어로, V2 ‘주다’와 결합할 때 동일한 의미역을 지닌 논항들을 하나로 통합시켜 연쇄동사 구문을 이룬다.

- (103) a. 아빠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b. 아빠가 아이에게 옷을 주었다.
 c. 아빠가 아이에게 옷을 입혀 주었다.

- (104) a. 아빠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
 b. 아빠가 아이에게 밥을 주었다.
 c. 아빠가 아이에게 밥을 먹여 주었다.

그런데 동일한 ‘완전 통합’ 유형에 속하더라도 V1의 결과 함의 정도나 ‘-(어)서’ 구문과의 교체 여부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 (105) a. 철수가 영희에게 공을 던졌으나, 영희가 받지 못했다.
 b. ?철수가 영희에게 공을 던져 주었으나, 영희가 받지 못했다.
 c. 철수가 영희에게 공을 던져서 주었다.

- (106) a. 철수가 영희에게 명함을 건넸으나, 영희가 받지 않았다.
 b. *철수가 영희에게 명함을 건네 주었으나, 영희가 받지 않았다.
 c. *철수가 영희에게 명함을 건네서 주었다.

- (107) a. 철수가 영희에게 편지를 보냈으나, 영희가 받지 못했다.
 b. *철수가 영희에게 편지를 보내 주었으나, 영희가 받지 못했다.

- c. *철수가 영희에게 편지를 보내서 주었다.
- (108) a. *아빠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으나, (아이가) 입지 않았다.
 b. *아빠가 아이에게 옷을 입혀 주었으나, (아이가) 입지 않았다.
 c. *아빠가 아이에게 옷을 입혀서 주었다.
- (109) a. *아빠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으나, (아이가) 먹지 않았다.
 b. *아빠가 아이에게 밥을 먹여 주었으나, (아이가) 먹지 않았다.
 c. *아빠가 아이에게 밥을 먹여서 주었다.

‘던져 주다’의 V1 ‘공을 던지는’ 행위는 철수가 영희에게로 공을 던졌으나 영희에게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건네 주다’, ‘보내 주다’는 (106a)와 (107a)에서와 같이 V1만으로는 대상이 착점으로 이동한 결과를 반드시 함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106b)와 (107b)에서와 같이 ‘주다’와 결합하여 V1의 행위가 일어났음을 함의하게 된다. 이와 달리 ‘입혀 주다’, ‘먹여 주다’의 V1은 (108a)와 (109a)에서와 같이 ‘아이에게’ ‘입혔는데 입지 않고’, ‘먹였는데 먹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V1의 행위로 인해 대상이 착점 논항 ‘-에게’로 반드시 이동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주다’와 결합한 이후에도 V1의 행위의 결과 함의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⁹⁹⁾ 또한 ‘던져 주다’는 (105c)에서와 같이 ‘-(어)서’ 구문과 교체가 가능하나 ‘건네 주다’와 ‘보내 주다’는 ‘-(어)서’ 구문과 교체가 불가능하다. ‘입혀 주다’와 ‘먹여 주다’는 ‘건네 주다’, ‘보내 주다’와 V1의 결과 함의 정도에서는 차이를 보이나 ‘-(어)서’ 구문과 교체 여부에서는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통사·의미적 특성의 차이는 이들이 논항 구조상에서는 동일한 ‘완전 통합’ 유형에 속하지만 사건 구조상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합성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알려 주다’, ‘가르쳐 주다’ 등과 같이 V1이 추상물인 대상 논항을 취하는 3항술어의 경우에도 ‘완전 통합’ 방식으로 ‘주다’와 연쇄동사 구문을 이룰 수 있다.

- (110) a. 철수가 영수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다.

99) ‘먹여 주다’의 경우에는 아빠가 아이의 입 안에 밥을 넣어 주기는 했으나 아이가 그것을 입 안에 물고만 있거나 또는 뱉거나 해서 자신의 배 속으로 넘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빠가 아이에게 밥을 먹여 주었으나, 아이가 먹지 않았다.’와 같이 선행절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는 ‘먹는’ 행위가 재귀적인 섭취 행위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b. 철수가 영수에게 결혼 소식을 알려 주었다.
- c. *철수가 영수에게 결혼 소식을 알려서 주었다.

- (111) a. *철수가 영수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으나/알려 주었으나
영수는 알지 못했다.
- b. 철수가 영수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으나/알려 주었으나
영수가 귀담아 듣지 않았다.
 - c. 철수가 영수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으나/알려 주었으나
영수가 기억하지 못했다.

‘알리다’는 인지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로, 행동주로부터 착점에게로 ‘사실’이나 ‘명제’ 등과 같은 추상물이 전달되는 사건을 나타낸다.¹⁰⁰⁾ 이러한 경우에는 V1의 ‘알리는’ 행위로 인해 착점 논항 ‘-에게’가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결과 상태가 되었음을 나타내므로 기본적으로 (111a)와 같은 문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111b)-(111c)에서와 같이 ‘영수가 철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거나’, ‘영수가 소식을 전달은 받았으나 그것을 인지적으로 내재화하지 않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후행절에서 선행절의 결과 상태를 반복하는 것은 가능하다.

100) ‘알리다’가 취하는 대상 논항이 ‘소식’과 같은 단순한 사실이 아닌 ‘비밀 번호’나 ‘비법’ 등과 같은 특정한 사실인 경우에는 ‘알려 주다’의 문장 내에서만 허용된다.

- (i) a. ??철수가 영희에게 현관 비밀 번호를 알렸다.
- b. 철수가 영희에게 현관 비밀 번호를 알려 주었다.
- (ii) a.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떡볶이 만드는 비법을 알렸다.
- b.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떡볶이 만드는 비법을 알려 주었다.

강현화(1998:187)에서는 이러한 경우의 ‘알려 주다’는 단순히 어떠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면의 기능이나 지식을 알게 하다’의 의미로 V1 ‘알려-’가 ‘알리다’와 동일한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고 보고 관용화되어 쓰이는 구문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알려 주다’와 같이 특정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은 단순히 행동주에 의해 착점 논항 ‘-에게’로 전달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주가 특정한 한 개체에게만 전달하여 그 사실을 내재화하도록 하려는 경우를 나타내기 때문에 대상 논항에 있어 선택 제약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는 ‘알리다’가 V2 ‘주다’와 결합하여 V1 행위의 결과로 대상 논항이 이동하게 되어 반드시 착점 논항 ‘-에게’에 있게 된 결과를 함의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3.2.2. 내포 통합

V1이 주어(행동주), 목적어(대상) 논항뿐만 아니라 착점 논항 ‘-에게’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3항 술어이면서 V2 ‘주다’의 착점 논항 ‘-에게’와 ‘부분-전체’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는 두 동사가 결합하면서 V2의 착점 ‘-에게’로 통합되어 실현된다. ‘걸어 주다’, ‘덮어 주다’¹⁰¹⁾, ‘발라 주다’ 등이 이러한 ‘내포 통합’ 유형에 해당된다.

- (112) a. 철수가 영희의 목에 목걸이를 걸었다.
b. *철수가 영희에게 목걸이를 걸었다.
c. 철수가 영희에게 목걸이를 걸어 주었다.
- (113) a. 엄마가 아이의 배에 이불을 덮었다.
b. *엄마가 아이에게 이불을 덮었다.
c. 엄마가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 주었다.
- (114) a. 엄마가 아이의 손가락에 연고를 발랐다.
b. *엄마가 아이에게 연고를 발랐다.
c. 엄마가 아이에게 연고를 발라 주었다.

101) ‘덮어 주다’, ‘감싸 주다’ 등은 V1의 의미가 전성되면서 다음과 같이 추상적인 사건을 나타낼 수도 있다.

- (i) a. 엄마가 아이의 잘못을 사랑으로 덮어 주었다.
b. 엄마가 아이의 잘못을 사랑으로 덮었다.
c. *엄마가 아이에게 사랑으로 덮어 주었다.
- (ii) a. (아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아이를 사랑으로 감쌌다.
b. 선생님이 아이를 사랑으로 감싸 주었다.
c. *선생님이 아이에게 사랑으로 감싸 주었다.

이러한 추상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ia)에서와 같이 속격(genitive)으로 실현된 ‘아이의’나 (iia)에서와 같이 대상 논항으로 실현된 ‘아이들’이 V1이 나타내는 사건의 수혜자라는 것이 맥락적으로 추론은 가능하나 (ic)와 (iic)에서와 같이 V2 ‘주다’에 의해 명시적인 착점 또는 수용자 논항인 ‘-에게’를 도입하지는 않는다.

(112a)-(112b), (113a)-(113b), (114a)-(114b)에서와 같이 ‘걸어 주다’, ‘덮어 주다’, ‘발라 주다’의 V1들은 착점 논항 ‘-에’는 취할 수 있으나 ‘-에게’는 취할 수 없다. V2 ‘주다’와 결합하기 이전에는 V1이 취하는 착점 논항인 ‘신체 부위+에’가 ‘-에게’로, 부분이 전체화되어 해석되는 것이 어색하다.¹⁰²⁾

4.3.3. 혼합적 합성 유형

지금까지는 V1과 V2 ‘주다’가 결합하면서 논항 구조 내에 ‘-에게’ 논항이 실현되는 유형들을 크게 병렬적 합성 유형과 통합적 합성 유형으로 살펴보았다. 혼합적 합성 유형(Mixed Composition Type)은 V2 ‘주다’와 결합한 이후에도 ‘-에게’를 도입하지 않거나 V2 ‘주다’와 결합하면서 논항 구조가 아니라 논항 구조 내에 논항들의 통사적 실현 위치가 전환되는 경우들이 해당된다.

4.3.3.1. V1의 구문 유지: 수혜 구문

[V1+어+V2{주다}]의 연쇄동사 구문을 이룰 때, V2 ‘주다’에 의해 착점 ‘-에게’ 논항을 도입하지 않고 V1의 논항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부류들이 있다.

(115) a. 3항 술어

$$\begin{array}{l} N1\text{-가} + N3\text{-에/에서} + N2\text{-를} + V1 \\ + N1\text{-가} + N3\text{-에게} + N2\text{-를} + V2 \\ \hline \rightarrow N1\text{-가} + N3\text{-에/에서} + N2\text{-를} + [V1\text{-어}+V2] \\ \Rightarrow N1\text{-가} + N3\text{-에게} + N2\text{-를} + [V1\text{-어}+V2] \\ \Rightarrow N1\text{-가} + N3\text{-에게} + N4\text{-에/에서} + N2\text{-를} + [V1\text{-어}+V2] \end{array}$$

102) 일반적으로는 V1이 ‘신체 부위+에’ 논항을 취하는 경우에는 ‘-에’로 실현된 신체 일부에 가해진 V1의 행위가 그 개체 전체에 가해진 행위로 확장되어 표현될 수 있으며 그때는 ‘아이의 머리에/아이에게’ 모자를 썼다’와 같이 ‘-에게’로도 실현이 가능하다. ‘물려 주다’, ‘들려 주다(도시락을)’ 등의 V1들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며, 다음과 같이 V1이 취하는 속격을 포함한 착점 논항 ‘-에’가 ‘-에게’와 서로 교체가 가능하다.

- (i) a. 엄마가 아이의 입에 사탕을 물렸다.
- b. 엄마가 아이에게 사탕을 물렸다.
- c. 엄마가 아이에게 사탕을 물려 주었다.

b. 2항 술어

N1-가 + N2-를 + V1
 + N1-가 + N3-에게 + N2-를 + V2

 → N1-가 + N2-를 + [V1+어+V2]
 ⇨ N1-가 + N3-에게 + N2-를 + [V1+어+V2]

c. 1항 술어

N1-가 + V1
 + N1-가 + N3-에게 + N2-를 + V2

 → N1-가 + [V1+어+V2]
 ⇨ N1-가 + N3-에게 + N2-를 + [V1+어+V2]

먼저 V1이 행동주, 대상 논항뿐만 아니라 처소 논항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3항 술어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앞서 ‘실어 주다’의 경우에는 (116b)에서와 같이 V1의 ‘-에’ 착점 논항으로 실현된 대상물이 소유가 미정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만 ‘담아 주다’와 같이 V1의 ‘-에’와 V2의 ‘-에게’가 병렬식으로 통합되는 문장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실어 주다’는 ‘걸어 주다’와 같이 V1의 ‘착점’과 V2의 ‘착점’이 ‘부분(신체 부위)-전체(개체)’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V1의 ‘-에’가 V2의 ‘-에게’로 통합될 수도 없는 경우이다.

(116) a. *철수가 영희에게 차에 짐을 실어 주었다.

b. 철수가 영희에게 카트에 짐을 실어 주었다.

c. 철수가 영희의 차에 짐을 실어 주었다.

그리하여 (116c)와 같이 ‘주다’와 결합하더라도 V1의 논항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놓아 주다’, ‘칠해 주다’와 같이 V1이 이동이 불가능한 착점 논항을 취하는 경우에는 V2 ‘주다’와 결합한 이후에도 ‘-에게’를 취하지 않으며 ‘대신’, ‘-(를) 위해’와 같은 사격으로 실현 가능한 제3자에게 수혜가 되는 사건만을 나타낸다.

- (117) a. 철수가 거실에 화분을 놓았다.
 b. 철수가 어머니를 위해 거실에 화분을 놓아 주었다.

- (118) a. 철수가 벽에 페인트를 칠했다.
 b. 철수가 영수 대신 벽에 페인트를 칠해 주었다.

‘숨겨 주다’, ‘감추어 주다’ 등은 V1이 착점 논항으로 ‘-에|에게’를 취하나 V2 ‘주다’와 결합하면서 ‘-에게’를 취할 수 없고 V1의 ‘-에’나 별도의 사격인 ‘대신’만을 요구한다.

- (119) a. 철수가 옷장에 만화책을 숨겼다.
 b. *철수는 (엄마한테 혼날까봐) 형에게 옷장에 만화책을 숨겨 주었다.
 c. 철수는 (엄마한테 혼날까봐) 형 대신 옷장에 만화책을 숨겨 주었다.

- (120) a. 철수가 그 사건의 용의자를 자신의 집에 숨겼다.
 b. 철수가 그 사건의 용의자를 자신의 집에 숨겨 주었다.

- (121) a. 영희는 자신의 잘못을 엄마에게 감추었다.
 b. *영희는 자신의 잘못을 엄마에게 감추어 주었다.
 c. *영희는 동생의 잘못을 엄마에게 감추어 주었다.

‘치워 주다’는 앞서 병렬적 합성 유형에서 살펴본 ‘꺼내 주다’와 같이 기점 논항 ‘-에서’를 요구하는 동사인 데 그와 달리 V2 ‘주다’와 결합할 때 ‘-에게’ 논항을 도입하지 않는다.

- (122) a. 철수가 책상 위에서 책을 치웠다.
 b.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주었다.
 c. *철수가 책상 위에서 영희에게 책을 치워 주었다.
 d. 철수가 (영희를 위해/대신해) 책상 위에서 책을 치워 주었다.

‘치워 주다’가 ‘꺼내 주다’와 논항 구조상에서는 동일한 기점 논항 ‘-에서’를 취하는 동사이면서도 불구하고 ‘주다’와 결합할 때 이러한 합성 방식에서 차이를 보

이는 이유는 두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의 종결성(telecity)의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꺼내다’는 대상이 단순히 기점 밖으로 이동한 비종결적(atelic)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로 (123a)와 같이 V1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기점 밖으로 이동한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묻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치우다’나 ‘없애다’와 같이 대상이 기점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종결적(telic) 사건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 대상의 또 다른 결과 상태에 대해 묻는 것은 어색하거나 불가능하다.

- (123) a. 내가 좀 전에 서랍에서 꺼낸 모자가 어디로 갔지?
 b. ?*내가 좀 전에 여기서 치운 책이 어디로 갔지?
 c. *내가 좀 전에 없앤 문서가 어디로 갔지?

그러므로 ‘치우다’는 ‘꺼내다’에 비해 종결성(telecity)이 강한 동사 부류라 할 수 있다. 그러한 기점에서 완전히 없어진 대상을 다른 착점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V2 ‘주다’와 결합한다고 해도 ‘-에게’ 논항을 도입할 수 없고 (122d)에서와 같이 ‘-(를) 위해’, ‘대신’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수혜 구문만을 나타낸다.

‘벗겨 주다’는 앞서 살펴본 ‘입혀 주다’와 같이 사동형 탈착 동사와 ‘주다’가 결합된 경우이나 ‘주다’와 결합할 때 논항들이 합성되는 방식은 그와 다르다. ‘풀어 주다’의 경우는 속격으로 실현된 개체로부터 대상을 분리시킨다는 점에서 ‘벗겨 주다’와 유사한 부류로 볼 수 있다.

- (124) a. 아빠가 아이의 옷을 벗겼다/벗겨 주었다.
 b. *아빠가 아이에게 옷을 벗겨 주었다.
 c. 아빠가 아이에게서 옷을 벗겼다/벗겨 주었다.¹⁰³⁾

103) 남승호(2003)에서는 ‘입다’, ‘벗다’와 같은 탈착 동사류를 신체 부위라는 공간에 있게 되거나 반대로 분리된다는 점에서 이동 동사로 분류하였다. ‘입다’, ‘벗다’는 명시적으로 처소 논항을 취하지 않으나 ‘입히다’, ‘벗기다’와 같이 사동동사가 되는 경우에는 각각 착점과 기점 논항을 취하며 대상의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된다고 보았다.

- (i) a. 진이는 코트를 입었다.
 b. 근이는 코트를 벗었다.
 (ii) a. 연이는 진이에게 새 옷을 입혔다.
 b. 연이는 근이한테서 털모자를 벗겼다.

- (125) a. 교도관이 죄수의 수갑을 풀었다/풀어 주었다¹⁰⁴.
 b. *교도관이 죄수에게 수갑을 풀어 주었다.
 c. ?교도관이 죄수에게서 수갑을 풀었다/풀어 주었다.

(124)의 ‘벗겨 주다’와 (125)의 ‘풀어 주다’는 V1의 행위의 결과로 대상이 속격으로 실현된 개체로부터 분리되어 더 이상 그 개체에 있지 않게 되는 사건을 나타내므로 V1의 대상물이나 행위가 전달될 착점이 실현될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V2 ‘주다’에 의해 ‘-에게’를 도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와 주다’, ‘혼내 주다’ 등은 2항 술어의 V1이 V2 ‘주다’와 결합하여도 전체 문장의 논항 구조를 구성하는 데 V2 ‘주다’가 관여하지 못해 V1의 논항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 (126) a. 철수가 영희를 도왔다.
 b. 철수가 영희에게 도움을 주었다.
 c. 철수가 영희를 도와 주었다.

- (127) a. 형이 (나를 위해/나 대신) 철수를 혼냈다.
 b. 형이 (나를 위해/나 대신) 철수를 혼내 주었다.

‘도와 주다’, ‘혼내 주다’의 V1은 앞서 살펴본 ‘만들어 주다’, ‘깎아 주다’의 V1과 같이 행동주와 대상 논항만을 취하는 2항 술어이다. 그러나 V2 ‘주다’와 결합하여도 논항 구조 내에 착점 논항 ‘-에게’를 새로이 도입하지 않고 다시 말해, V2

104) 대상 논항이 ‘죄수의 수갑을’이 아니라 ‘죄수를’과 같은 유정물인 경우에는 강현화(1998:32)에서는 ‘풀다’가 ‘석방하거나 자유롭게 하다’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반드시 V2 ‘주다’와 결합한 형태로만 나타나 전체 문장의 논항 구조를 결정하는 부류로 보았다. 이때의 ‘주다’는 단순한 수혜적 의미를 갖는 보조동사 구문의 ‘주다’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i) a. *교도관이 죄수를 풀었다.
 b. 교도관이 죄수를 풀어주었다.

그러나 (ib)의 문장은 ‘감옥에서’ 또는 ‘교도소’에서와 같은 기점이 명시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행동주에 의해 대상이 그러한 ‘기점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어 자유롭게 되었다’는 의미가 도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다’가 전체 문장의 논항 구조를 구성하는 데 관여하지 못해 V1의 논항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부류들이다. ‘도와 주다’의 경우에는 V1 ‘돕다’와 결합하는 V2 ‘주다’의 논항 구조를 (126b)와 같이 상정할 수 있으나 (126a)의 ‘돕다’의 대상 논항 ‘영희를’과 (126b)의 ‘주다’의 ‘도움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V2 ‘주다’는 대상의 처소 이동이나 전달의 사건은 나타낼 수 없으며 오직 수혜적 의미만을 갖는다. ‘도와 주다’의 V1 ‘돕다’가 행동주가 대상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 동사라면 ‘혼내 주다’, ‘때려 주다’ 등의 V1들은 대상 논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 동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혼내다’와 같이 대상 논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 동사와 V2 ‘주다’가 결합하면 행위의 주체나 ‘-(를) 위해’ 또는 ‘대신’과 같은 제3자에게는 긍정적 영향, 수혜가 돌아가는 사건을 나타낸다.

대상 논항을 요구하지 않는 2항 술어와 ‘주다’가 결합하는 경우는 ‘-에|에게’를 요구하는 ‘저 주다’, ‘숙아 주다’, ‘잘해 주다’ 등, ‘-와’를 취하는 ‘놀아 주다’¹⁰⁵⁾, ‘어울려 주다’, ‘있어 주다(-에/와)’ 등이 있다. 이들도 V2 ‘주다’와 결합하여도 V1의 논항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며 ‘-에|에게’, ‘-와’로 실현된 대상에 수혜가 되는 구문을 나타낸다.

- (128) a. 아빠가 아이에게 졌다.
 b. 아빠가 아이에게 (일부러) 저 주었다.

- (129) a. 삼촌이 아이와 놀았다.
 b. 삼촌이 아이와 놀아 주었다.

앞서 1항 술어이지만 ‘웃어 주다’의 V1 ‘웃다’는 V2 ‘주다’와 결합하면서 착점 논항 ‘-에게’를 새로이 도입하게 되는 병렬적 합성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1항 술어들은 V2 ‘주다’와 결합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대상 논항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V2 ‘주다’와 결합하여도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이동시킬 착점 논항 ‘-에게’를 요구하지 않게 되고 논항 구조 내에 도입하지도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05) C. Lee(1973:179~180)에서는 ‘놀아 주다’와 같이 ‘주다’와 결합하여도 ‘-에게’ 여격 논항을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V1에 의해 격표지 또는 후치사(postposition)가 결정되는 수혜 구문으로 보았다.

- (130) a. 철수가 엄마의 바람대로 잘 자랐다.
 b. 철수가 엄마의 바람대로 잘 자라 주었다.

- (131) a. 철수가 나 대신 계주로 달렸다.
 b. 철수가 나 대신 계주로 달려 주었다.

- (132) a.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불어 주었다.¹⁰⁶⁾
 b. 비가 왔다/와 주었다.

위에 제시된 것과 같이 1항 술어들은 V2 ‘주다’와 결합하면서 착점 논항 ‘-에게’를 도입하지 않기 때문에 V2 ‘주다’에 의해 처소 이동의 사건을 나타낼 수 없으나 ‘-(를) 위해’, ‘대신’으로 상정 가능한 무표적 또는 잠재적 대상자가 V1의 사건으로 인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해 보면, V1이 V2 ‘주다’와 결합하면서 V2 ‘주다’에 의해 ‘-에게’를 도입하게 되는 연쇄동사 구문은 착점 논항 ‘-에게’로 구체물이 이동하거나 사건이 전달되는 사건을 나타내며 그러한 처소 이동 또는 전달 사건으로 착점 논항이 수혜를 입게 되는 사건으로 확장되어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V1과 V2 ‘주다’가 동일한 논항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 논항들을 하나로 통합시켜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를 구성하는 경우와 달리 V2 ‘주다’가 논항 구조의 실현에 관여하지 못하고 V1의 논항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부류들은 전형적인 수혜 구문에 해당된다.

4.3.3.2. ‘-(어)서’ 구문

두 동사가 결합할 때 각 동사의 논항 구조가 합성되어 하나의 [V1+어+V2(주

106) 이기동(1979)에서는 ‘바람이 불어 주다’, ‘비가 와 주다’와 같은 [V1+어+V2(주다)] 구문은 주어가 ‘의식과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행위자’일 때만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바람이 불어 주다’와 같은 문장은 단순히 ‘바람’이 의인화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장도 두 동사가 결합하면서 일어나는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의 합성 유형 관점에서 일관되게 설명하고자 한다. 위의 문장은 V2 ‘주다’와 결합하면서 착점 논항 ‘-에게’를 도입하지 않으므로 대상이 착점으로 이동하는 사건을 나타낼 수 없으나 ‘주다’에 의해 바람이 부는 현상이 무표적 또는 잠재적 수혜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입히는 수혜적 사건을 나타낸다고 본다.

다]] 구문을 이루지 않고 두 개의 절이 단순한 접속에 의해 연결되어 나타나는 ‘-(어)서’ 구문과 혼동되어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한국어의 수혜 구문을 다루고 있는 Song(2010:407)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장이 둘 다 ‘주다’가 수혜 구문으로 쓰인 경우로 동일하게 문법적으로 성립하는 문장으로 보고 있다.

(133) a. 나는 하나코에게 구두를 닦아 주었다.

b. 영희가 기호에게 머리를 깎아 주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Shibatani(1994)에서는 한국어의 ‘주다’ 구문에 나타나는 여격 표지 ‘-에게’에 의해 ‘착점이 대상물에 소유 통제권(the goal’s possessive control over the theme)을 행사하는 사태’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Song(2010)에서는 (133)과 같은 예들을 제시하며 ‘소유 통제권’이 아니라 “인간의 현실 세계에서 행동주에 의해 착점이 대상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설명해야 하며 ‘-에게’가 ‘착점이 대상과 관계를 맺게 하는(the goal’s engaging with theme)’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133a)는 일반적으로 화자가 ‘하나코’를 위해 ‘하나코’의 ‘구두’를 닦아 주었다는 수혜적인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때는 ‘구두’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대상물이더라도 대상이 이미 행동주의 행위가 일어나는 때에 착점의 소유 통제권 안에 있는 상황으로 착점이 대상에 소유 통제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고, (133b)의 ‘머리’는 아예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불가능한 것으로 이 역시 ‘소유 통제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대상에 대한 소유 통제권’이든 ‘대상과 관계를 맺는 것(engaging)’이든 그 개념적 용어의 설정과 별개로, (133)의 문장이 문법적으로 성립되는 것인가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Song(2010)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133)의 ‘닦아 주다’와 ‘깎아 주다(머리를)’는 ‘주다’가 구성하는 수혜 구문은 맞으나 동일한 범주의 VP 내에서 V2 ‘주다’에 의해 ‘-에게’를 허용하는 구문으로 보기 어렵다.

(134) a. ??철수가 영희에게 구두를 닦아 주었다.

b. 철수가 영희의 구두를 닦았다/닦아 주었다.

c. 철수가 영희에게 구두를 닦아서 주었다.

d. 철수가 영희에게 구두를 닦아 (,) 주었다.

(134a)의 ‘닭아 주다’는 V1 ‘닭다’와 V2 ‘주다’가 결합하면서 공유하고 있는 대상 논항을 하나로 통합하고 착점 논항 ‘-에게’를 도입하게 되는 구문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134)의 ‘닭아 주다’와 같이 대상 논항이 이동이 가능한 구체물인 경우에는 V1의 대상이 V2 ‘주다’에 의해 이동이 가능한 목표물(target)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두 개의 분리된 사건이 연결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134c)의 ‘-(어)서’의 구문이나 (134d)와 같이 V1과 V2 사이에 발화상에 휴지(pause)가 존재하는 문장과 같이 ‘-에게’ 여격 논항이 허용되는 구문인 것으로 혼동되는 것이다.

(134a)의 ‘닭아 주다’는 V1의 대상이 이동이 가능한 구체물이라도 대상의 소유가 이미 속격(genitive)으로 실현된 잠재적 수용자 ‘영희의’로 확정 또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V2 ‘주다’에 의해 다른 곳으로의 처소 이동이나 소유권 이전이 일어난 사건을 나타낼 수 없으므로 V2 ‘주다’에 의해 대상이 이동할 별도의 착점 논항 ‘-에게’를 요구하지 않게 된다. 즉 (134a)와 같이 착점을 나타내는 ‘-에게’ 논항이 실현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닭아 주다’는 (134b)와 같이 ‘영희’의 소유인 대상 ‘구두’에 행동주 ‘철수’가 행한 V1의 사건에 의해 ‘영희’가 간접적인 영향 또는 수혜를 입게 되는 수혜 구문만이 가능하다.

- (135) a. *엄마가 아이에게 머리를 깎아 주었다.
 b. 엄마가 아이의 머리를 깎았다/깎아 주었다.
 c. *엄마가 아이에게 머리를 깎아서 주었다.
 d. *엄마가 아이에게 머리를 깎아 (,) 주었다.

(135)의 ‘깎아 주다(머리를)’의 대상 논항인 ‘머리’는 Song(2010)에서도 지적한대로 이동이 불가능한 것일뿐더러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양도할 수도 없는 대상이다. 이렇듯 대상의 소유권이 고정되어 변화될 수 없는 사건인 경우에는 V2 ‘주다’와 결합하여도 대상이 이동하여 있게 되는 착점 논항 ‘-에게’를 허용할 수 없다. 게다가 ‘닭아 주다’와 달리 ‘깎아 주다’의 대상 논항인 ‘머리는’ 다른 곳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V1의 사건과 V2의 사건으로 분리되는 해석이 불가능하며 (135c)에서와 같이 ‘-(어)서’에 의해 두 개의 절이 연결된 접속 구문으로도 나타낼 수 없다. 정리해 보면, ‘닭아 주다’와 ‘깎아 주다(머리를)’와 같이 V1이 취하는 대상의 소유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V2 ‘주다’와 결합하면서 속

격(genitive) ‘-의’로 실현된 대상의 소유자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입히는 ‘수혜’ 사건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107)

‘닭아 주다’와 마찬가지로 ‘저어 주다’¹⁰⁸⁾도 (136a)와 같이 V2와 결합하여도 착점 논항 ‘-에게’를 도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 (136) a. ??철수가 영희에게 커피를 저어 주었다.
b. 철수가 영희의 커피를 저었다/저어 주었다.
c. 철수가 커피를 저어 (,) 영희에게 주었다.
d. 철수가 영희에게 커피를 저어서 (그것을) 주었다.
e. 철수가 영수 대신/영수를 위해 영희의 커피를 저어 주었다.

‘저어 주다’는 대상에 행해지는 V1 ‘젓다’의 행위로 인해 그 대상을 소유하게 되는 개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수혜’ 사건만을 나타낼 수 있다. ‘저어 주다’는 (136c)와 같은 어순이나 (136d)와 같이 두 개의 분리된 사건이 ‘-(어)서’와 같은 접속 어미에 의해 연결되어 나타나는 경우에만 착점 논항 ‘-에게’를 도입할 수 있다.

Song(2010)의 주장대로 ‘-에게’가 ‘행동주에 의해 착점과 대상이 관계를 맺게 하는’ 기능을 한다면 과연 그러한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는 것인가? 그의 설명대로 인지적 측면에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임의의(random) 관계가 아니라 앞서도 밝혔듯이, ‘주다’에 의해 도출 가능한 사건의 범위 내에서 그 관계가 설정된다고 할 수 있다. ‘주다’는 기본적으로 처소 이동 사건을 나타내는데 ‘주다’에 의해 도입되는 ‘-에게’는 처소 이동의 착점을 나타내거나 이전된 소유권을 양도 받을 수용자로 한정된다. (134b)의 ‘닭아 주다’와 (136b)의 ‘저어 주다’는 V2 ‘주다’와 결합하기 이전에 V1에 의해 이미 ‘(N3)-의 N2’로 소유 관계가

107) ‘까아 주다(머리틀)’과 같이 ‘(N3)-의 N2-를’의 속격(genitive)을 반드시 포함하며 V2 ‘주다’와 결합하여도 V1의 논항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부류로는 ‘굽어 주다’, ‘비벼 주다’, ‘땡아 주다’, ‘감겨 주다’, ‘빚겨 주다’ 등과 같이 특정한 신체 부위에 행해지는 접촉 동사나 장식행위 동사 그리고 ‘돋우어 주다(입맛을)’, ‘이루어 주다(소원을)’, ‘깨뜨려 주다(편견을)’, ‘풀어 주다(긴장을)’, ‘진작시켜 주다(사기를)’, ‘향상시켜 주다(실력을)’ 등과 같이 추상적 또는 인지적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있다.

108) 차가영(2015)에서는 ‘저어 주다’를 V2 ‘주다’가 보조동사로 쓰인 화자 지향적(speaker-oriented) 수혜 구문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토야, 스포를 저어줘’와 같은 예문을 들어 ‘저어 주다’가 그 문장을 발화하는 화자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에 V2 ‘주다’에 의해 다시 처소 이동이나 소유 관계를 맺을 수 없으므로 착점과 대상을 관계 맺게 하는 ‘-에게’가 허용될 수 없다. (134c)-(134d)와 (136c)-(136d)에서와 같이 ‘(N3)-의 N2-를’ 사이에 소유 관계가 끊긴 분명한 절 경계가 있는 구문 내에서만 ‘-에게’에 의해 관계를 맺게 된다. 정리해 보면, 대상이 속격(genitive)으로 실현된 (잠재적) 수용자의 소유가 분명한 경우, 즉 소유권이 확정 또는 고정되어 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에게’가 휴지(pause)나 쉼표 또는 ‘-(어)서’ 접속 구문과 같이 분명한 절 경계가 있어 두 개의 분리된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만 [V1+어+V2(주다)]의 문장에서 허가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그러한 소유 관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깎아 주다(연필을/사과를)’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대로 V1이 V2 ‘주다’와 결합하면서 ‘-에게’ 논항을 도입할 수 있다.

(137) a. 아빠가 아이에게 연필을/사과를 깎아 주었다.

b. 아빠가 아이에게 연필을/사과를 깎아서 주었다.

(137a)의 ‘깎아 주다(연필을)’은 ‘아빠가 아이의 연필을 깎는 것’일 수도 있고 ‘새로운 연필을 깎아 아이에게 주는 것’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처소 이동을 겪는 대상이 행동주에 의해 수용자에게 대상과 함께 소유권까지 이전한 경우도 가능하고 행동주가 본래 수용자의 소유인 대상에 상태 변화만을 일으킨 경우도 가능하다. 더욱이 대상 논항이 ‘사과를’인 경우에는 ‘사과’와 ‘아이’ 사이에 그 이전에 어떠한 관계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렇듯 대상의 소유권이 수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V1이 대상에만 상태 변화를 야기하는 사건을 나타내더라도 V2 ‘주다’와 결합하면서 V1의 사건의 결과물이 이동하게 될 착점 논항을 요구하게 되어 ‘-에게’가 도입되고 그 착점 또는 수용자 논항은 그 대상을 전달 받게 되는 사건을 나타내게 된다. 다음과 같은 명령문에서도 대상의 소유권이 정해져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에게’ 표지 실현에 있어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¹⁰⁹⁾

109) 목정수(2013:165~166)에 따르면, ‘구워 주다’, ‘사 주다’에서 ‘주다’에 의해 실현되는 수혜격/여격 보어는 ‘X-에게’의 형태뿐만 아니라 ‘X₀, X-를, X-는, X-를 위해’ 등등의 다양한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수혜격/여격 보어는 명시적인 명사구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아도 ‘-(어) 주다’, ‘-(어) 드리다’의 형태를 통해서 그 지표성(indexicality)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i) a. 엄마, 저 자전거 한 대만 사 주세요.

- (138) a. 나한테/나에게 연필 깎아 줘.
 b. 나한테/나에게 사과 깎아 줘.
 c. *나한테/나에게 머리 깎아 줘.
 d. *나한테/나에게 구두 닦아 줘.
 e. *나한테/나에게 커피 저어 줘.

이러한 ‘닦아 주다’, ‘저어 주다’ 등과 같이 V2 ‘주다’와 결합하여도 ‘-에게’를 도입하지 않고 속격(genitive)으로 실현된 대상의 소유주에 수혜가 되는 사건을 나타내거나 ‘-(어)서’ 구문과 같이 분명한 절 경계가 있는 구문에서만 ‘-에게’를 도입하는 부류들은 ‘고쳐 주다’, ‘수리해 주다’, ‘수정해 주다’, ‘빼때 주다’, ‘기워 주다’, ‘빨아 주다(옷을)’, ‘찍어 주다(사진을)’ 등이 있다.

4.3.3.3. V2에 의해 별도의 수혜자를 요구하는 구문

V1이 사람이나 인간 단체와 같은 유정물을 착점으로 취하는 경우에 그러한 착점 논항이 V2 ‘주다’의 착점 논항 ‘-에게’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통합되지도 않고 병렬적으로도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V1이 자신의 착점 논항을 그대로 실현시키면서 V2 ‘주다’에 의해 ‘-에게’의 착점 논항이 아닌 ‘대신’, ‘-(를) 위해’와 같은 별도의 수혜자를 요구하게 된다. ‘팔아 주다’, ‘값아 주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팔아 주다’의 V1 ‘팔다’는 ‘주다’와 동일하게 착점 논항 ‘-에게’를 취하는 동사인데¹¹⁰⁾ 다른 3항 술어들과 달리 V2 ‘주다’와 결합한 이후에는 원래 취하던 착

-
- b.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너 같은 놈을 책을 사 주다니... 나 원 참.
 c. 왜 나는 안 사 주고 형만 사 주는 거야?

본문에 (138)의 ‘주다’ 구문들에서도 목정수(2013)에서 제시한 대로 여격 논항이 ‘X₀’로도 실현이 가능하며 그때에는 V1이나 그것의 대상 논항에 상관없이 모두 문장이 성립된다.

- (ii) a. 엄마, 나 연필 깎아 줘.
 b. 엄마, 나 머리 깎아 줘.
 c. 엄마, 나 구두 닦아 줘.
 d. 엄마, 나 커피 저어 줘.

110) 오래전부터 쌀과 같은 곡식의 경우에만 소유주에게서 쌀을 사는 경우에도 ‘쌀

점 논항을 허용하지 않게 된다. ‘팔아 주다’는 V1이 자신의 착점 논항을 그대로 실현시키면서 V2 ‘주다’에 의해 ‘-에게’의 착점 논항이 아닌 ‘대신’, ‘-(를) 위해’와 같은 별도의 수혜자를 요구하게 된다.

- (139) a. 철수가 사람들에게 과일을 팔았다.
 b. 철수가 사람들에게 과일을 주었다.
 c. *철수가 사람들에게 과일을 팔아 주었다.
 d. 철수가 가게 주인 대신 사람들에게 과일을 팔아 주었다.
- (140) a. 철수가 (노점상 주인에게서) 인형을 샀다.
 b. 철수가 영희에게 인형을 주었다.
 c. 철수가 (노점상 주인에게서) 영희에게 인형을 사 주었다.

그런데 ‘팔다’와 의미적 대응 관계를 이루는 ‘사다’의 경우는 (140c)에서와 같이 V2 ‘주다’와 결합하면서 착점 논항 ‘-에게’를 도입하므로 ‘만들어 주다’류와 같은 병렬적 합성 유형으로 볼 수 있다. V2 ‘주다’와 결합할 때 착점 논항 ‘-에게’의 실현 가능 여부는 단순한 논항 구조가 아니라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 내의 하위 사건의 속성을 살펴봄으로써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사건 구조의 합성 유형에서 다루기로 한다.

4.3.3.4. V1의 행동주가 V2의 착점이 되는 경우

‘바꿔 주다’, ‘깎아 주다(값을)’ 등과 같이 V1의 행동주 논항이 V2 ‘주다’와 결합하면서 ‘착점’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 (141) a. 철수가 은행에서 현 돈을 새 돈으로 바꿨다.
 b. 은행 직원이 철수에게 돈을 주었다.
 c. 은행 직원이 철수에게 현 돈을 새 돈으로 바꿔 주었다.

을 사다’가 아닌 ‘쌀을 팔다’라고 표현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쌀팔다’는 ‘쌀을 돈 주고 사다’로, ‘쌀사다’는 ‘쌀을 팔아 돈으로 바꾸다’로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현대 국어에서 일반적으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물건 등을 넘기는 행위’를 나타내는 ‘팔다’와 ‘주다’가 결합하는 경우를 다룬다.

- (142) a. 철수가 가게에서 물건 값을 깎았다.
 b. *아저씨가 철수에게 물건 값을 주었다.
 c. 아저씨가 철수에게 물건 값을 깎아 주었다.

‘바꿔 주다’와 ‘깎아 주다(값을)’는 V1이 V2 ‘주다’와 결합하면서 문장 내에 착점 ‘-에게’ 논항 실현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실현되는 착점 ‘-에게’ 논항은 V1의 행동주가 V2 ‘주다’와 결합하면서 착점으로 전환이 되어 ‘-에게’ 논항으로 실현된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V1의 행동주가 V2의 착점과 하나로 통합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통합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V1이 V2 ‘주다’와 결합하면서 ‘-게 하다’의 사동 구문과 같은 인과적(causative) 해석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철수가 영희에게 청소를 하게 했다’와 같은 사동 구문은 사동주(causer) ‘철수’에 의해 피사동주(causee)인 ‘영희가 청소를 하는’ 결과 사건(caused event)을 나타낸다. 그러한 결과 사건 내에서 피사동주인 ‘영희’는 ‘청소를 하는’ 행위의 주체이지만 사동주에 의해 행해지는 명령이나 힘 등의 작용을 받게 되는 착점으로서 여격으로 실현된다. ‘바꿔 주다’, ‘깎아 주다(값을)’의 경우는 V2 ‘주다’의 행동주에 의해 V1의 행동주가 V1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 행위의 결과를 받게 되는 착점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3.3.5. 어휘적 합성어

‘빌려주다’¹¹¹⁾ 경우에는 V2 ‘주다’와 결합하면서 V1의 주어로 실현되는 착점 논항이 여격으로 실현되고 기점 논항은 주어로 실현되어 착점과 기점 논항의 실현 위치가 전환되는 특성을 보인다.¹¹²⁾ 이러한 ‘빌려주다’는 V1만으로는 문장이 성립되지 않고 ‘주다’와 결합한 형태로만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돌려주다’, ‘물려주다’ 등의 합성동사와 달리 (143a)와 같이 V1만으로도 문장의 성립이 가

111) ‘빌려주다’와 동일한 합성어로는 ‘끼어주다’가 있다. ‘꾸다’는 ‘다른 사람에게서 물건이나 돈 따위를 빌려 쓰는 것’이고,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꾸어(끼) 주다’가 아닌 ‘꾸이다’나 ‘끼어주다’로 쓰는 것이 옳은 표현인 것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제시되어 있다.

112) 이기동(1979:28)에서는 ‘빌려주다’를 V2 ‘주다’가 결합하여 V1 ‘빌리다’가 통사 기능이 달라지는 경우라고 설명하였다. ‘의미역’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주어로 실현된 ‘철수가’ ‘받는 이’에서 ‘주는 이’로 바뀐다고 설명하였다.

능하다.

(143) a. 영희가 철수에게(서) 돈을 빌렸다.

착점 기점

b. 철수가 영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기점 착점

c. *철수가 영희에게 돈을 빌려서 주었다.

(144) a.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돌렸다.

b.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돌려주었다.

c.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돌려서 주었다.

(145) a.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렸다.

b.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

c.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서 주었다.

그러나 (143c)에서와 같이 ‘빌려주다’도 (144c)의 ‘돌려주다’, (145c)의 ‘물려주다’와 마찬가지로 ‘-(어)서’ 구문과 교체될 수 없다. J. Kim(1993)¹¹³에서 어휘적 합성동사를 구분하는 데 적용한 V1과 V2가 분리되어 *wh-*의문문의 질문의 대

113) J. Kim(1993:117)에서는 ‘가져오다’의 예를 들어 어휘화된 연쇄동사 구문은 하나의 단위이기 때문에 V1과 V2가 분리되어 *wh-*의문문의 질문의 대상(target)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i) 물고기를 가져왔다.

(ii) a. *물고기를 어떻게 왔니?

b. *물고기를 어떻게 가졌니?

c. 물고기를 어떻게 했니?

그는 ‘가져 오다’의 경우에 (iic)와 같이 동사 전체가 하나의 단위로 *wh-*의문문의 질문의 대상(target)이 되는 경우만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데려가다/오다’ 등과 같은 어휘화된 연쇄동사 구문으로 보았다. 그런데 (iia)의 경우에 ‘물고기를’은 V1 ‘가져-’의 논항이므로 그것을 허가하는 동사가 생략되어 비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철수가 어떻게 왔니?’라고 물어야하며 이때는 ‘물고기를 가지고’라고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V1과 V2가 분리가 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상(target)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통해 ‘빌려주다’의 특성을 더 살펴보자.

(146) a.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돌려 어떻게 했니?

b.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어떻게 줬니?

#돌려서.

c. 철수가 책을 어떻게 했니?

영희에게 돌려줬어.

(147) a.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 어떻게 했니?

b.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줬니?

#물려서.

c. 아버지가 재산을 어떻게 했니?

아들에게 물려줬어.

(148) a. 철수가 영희에게 돈을 빌려 어떻게 했니?

*영수에게 줬어.

b. 철수가 영희에게 돈을 어떻게 줬니?

*(영수에게) 빌려서.

c. 철수가 돈을 어떻게 했니?

영희에게 빌려줬어.

‘돌려주다’, ‘물려주다’와 달리 ‘빌려주다’의 V2가 생략된 (148a)의 의문문이 성립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대로 ‘빌리다’만으로도 문장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영희에게’는 착점이 아니라 기점 논항이다. ‘빌려주다’의 분리 가능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V1 ‘빌려-’와 V2를 분리하여 (148a)와 같이 묻는 의문문에서 ‘빌려-’가 취하는 ‘-에게’ 논항은 ‘빌리다’가 홀로 구성하는 문장 내에 실현되는 기점이 아니라 착점으로, 또 다른 착점인 ‘영수에게 주었다’는 문장은 그 질문의 답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빌려주다’도 (146c)의 ‘돌려주다’, (147c)의 ‘물려주다’에서와 같이 하나의 단위로만 *with*-의문문의 질문의 대상(target)이 되는 (148c)의 경우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빌려주다’는 어휘적 합성어에 가까운 부류라 할 수 있다.

4.3.4. 정리: [V1+어+V2{주다}]의 논항 구조 합성 유형

지금까지 V2 ‘주다’가 다른 동사들과 결합하여 연쇄동사 구문을 이룰 때, 두 동사가 각기 가지고 있던 논항 구조가 합성되는 방식에 따라 (1) 병렬적 합성 유형(Summation Type), (2) 통합적 합성 유형(Unification Type), (3) 혼합적 합성 유형(Mixed Composition Type)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주다’는 ‘가다/오다’와 달리 행동주, 대상 그리고 착점 논항 ‘-에게’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3항 술어로, 다른 타동사와 연쇄동사 구문을 이룰 때, 기본적으로 주어로 실현된 행동주 말고도 대상 논항을 공유하게 된다. 그리하여 ‘주다’의 ‘병렬적 합성 유형’은 행동주와 대상 논항이 통합되고 착점 논항 ‘-에게’를 V2 ‘주다’에 의해 취하게 되어 논항 구조를 이루는 경우들이 해당된다. V1이 주어(행동주) 논항만을 취하는 1항 술어이면서 V2 ‘주다’와 결합하여 착점 ‘-에게’ 논항을 취하게 되는 유형으로는 ‘웃어 주다’가 있다. 주로 대상의 존재 변화나 상태 변화 등을 야기하는 2항 술어들은 V2 ‘주다’와 결합하면서 공유하고 있는 행동주와 대상 논항은 하나로 통합하되 착점 논항 ‘-에게’를 새로이 도입하게 된다. 처소 이동을 나타내는 3항 술어들 중에는 그것의 착점 논항이 이동 가능한 것이거나 소유가 미정인 경우에만 V2 ‘주다’와 결합하면서 착점 논항 ‘-에게’와 자신의 착점이나 기점 논항을 병렬적으로 실현시켜 논항 구조를 구성한다. 구체물을 대상 논항으로 취하며 ‘-를 -로’의 논항 구조를 취하는 3항 술어들도 V2 ‘주다’와 결합하면서 착점 논항 ‘-에게’를 취하게 된다.

‘통합적 합성 유형’은 V1과 V2 ‘주다’가 동일한 ‘-에게’ 착점을 취하는 경우에 그것들을 하나로 통합시켜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완전 통합’ 유형과 V1의 착점 ‘-에’가 V2의 착점 ‘-에게’와 ‘부분-전체’의 관계를 맺고 있어 ‘-에게’로 내포되어 통합되는 ‘내포 통합’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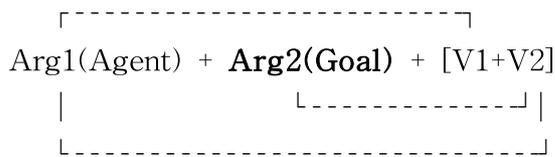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혼합적 합성 유형’에서는 V2 ‘주다’와 결합하여도 V1의 논항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어)서’ 구문과 혼동되어 해석되는 경우, V2 ‘주다’에 의해 ‘-에게’ 외에 별도의 수혜자를 요구하는 구문, 두 동사가 결합하면서 V1의 행동주가 V2의 착점으로 전환되는 구문들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V2 ‘주다’와 결합하여도 착점 논항 ‘-에게’를 도입하지 않으며 V1의 구문을 그대로 유지하는 1항 술어와 2항 술어의 경우들은 V2 ‘주다’와 공유할 수 있는 대상 논항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이동하게 되는 착점 논항 ‘-에게’도 요구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V1의 구문을 유지하는 3항 술어의 경우에는 대상 논항

의 이동이나 소유 변화의 가능 여부에 따라 ‘-에게’ 허용 여부가 달라진다. 대상 논항을 취하는 2항 술어들의 경우는 대상 논항의 이동이나 소유 변화의 가능성 뿐만 아니라 V1의 행위가 대상의 소유주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따라 ‘-에게’의 허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았다. 정리해 보면, V2 ‘주다’가 결합하면서 연쇄동사 구문을 이룰 때, ‘-에게’의 허용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달라진다.

- (149) (i) V1이 대상 논항을 취하는 동사인가?
- (ii) V1의 대상 논항이 이동 가능한 것인가?(구체물 혹은 추상물)
- (iii) 그 대상 논항의 소유가 정해져 있는가?
아니면 소유 변화가 가능한 것인가?
- (iv) V1의 행위가 대상의 소유주에 직접적인 상태 변화를 야기하는가?
아니면 대상에만 상태 변화를 야기하는 V1의 사건에 의해 소유주가 간접적인 영향 또는 수혜를 입게 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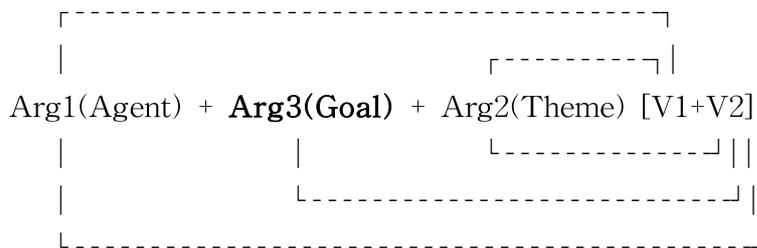
(150) I. 병렬적 합성 유형(Summation Type)

① N1-가 + V1 → N1-가 + N2-에게 + [V1+V2]



(예) ‘웃어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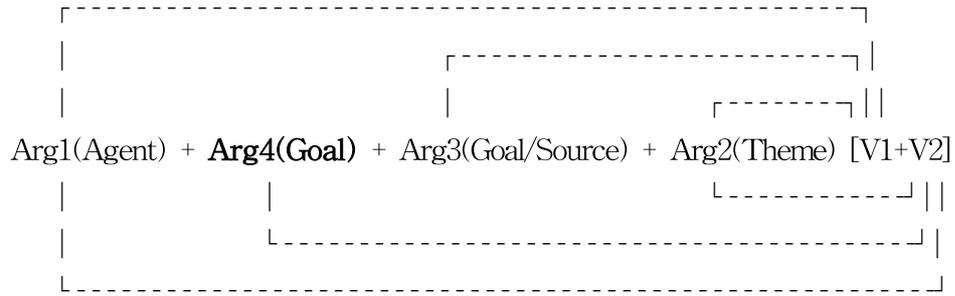
② N1-가 + N2-를 + V1 → N1-가 + N3-에게 + N2-를 + [V1+V2]



(예) ‘만들어주다’, ‘짜아주다’, ‘밀어주다’, ‘읽어주다’, ‘열어주다’ 등

③ N1-가 + N3-에|에서 + N2-를 + V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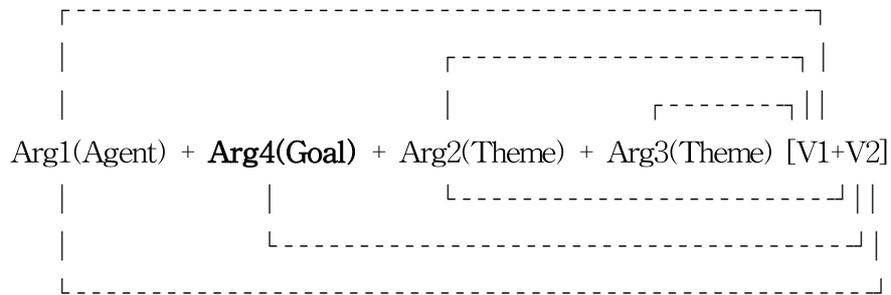
→ N1-가 + N4-에게 + N3-에|에서 + N2-를 + [V1+V2]



(예) ‘담아주다’, ‘실어주다’, ‘꺼내주다’ 등

④ N1-가 + N2-를 + N3-로 + V1

→ N1-가 + N4-에게 + N2-를 + N3-로 + [V1+V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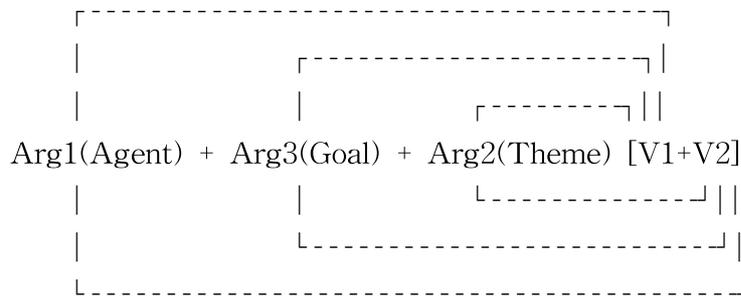
(예) ‘갈아주다2’, ‘나뉘주다2’ 등

II. 통합적 합성 유형(Unification Type)

(i) 완전 통합(Total Unification)

N1-가 + N3-에게 + N2-를 + V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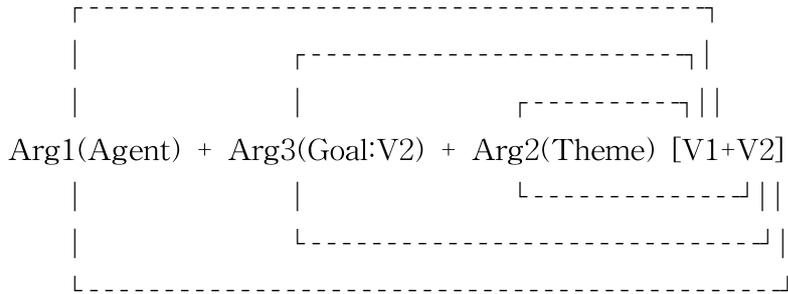
→ N1-가 + N3-에게 + N2-를 + [V1+V2]



(예) ‘입혀주다’, ‘먹여주다’, ‘건네주다’, ‘보내주다’, ‘알려주다’ 등

(ii) **내포 통합(Embedding Unification)**

N1-가 + N3-에 + N2-를 + V1
 → N1-가 + N3-에게 + N2-를 + [V1+V2]



(예) ‘걸어주다’, ‘발라주다’, ‘덮어주다’ 등

III. 혼합적 합성 유형(Mixed Composition Type)

- ① N1-가 + N3-에/에서 + N2-를 + V1
 → N1-가 + N3-에/에서 + N2-를 + [V1+V2]
 (예) ‘놓아주다’, ‘치워주다’ 등
- ② N1-가 + N2-를 + V1 → N1-가 + N2-를 + [V1+V2]
 (예) ‘담아주다’, ‘저어주다’, ‘도와주다’ 등
- ③ N1-가 + V1 → N1-가 + [V1+V2]
 (예) ‘자라주다’, ‘달려주다’ 등
- ④ N1-가 + N3-에게 + N2-를 + V1
 → N1-가 + N4-대신 + N3-에게 + N2-를 + [V1+V2]
 (예) ‘팔아주다’, ‘값아주다’ 등
- ⑤ N1-가 + N2-를 + N3-로 + V1/N1-가 + N2-를 V1
 → N1-가 + N3-에게 + N2-를 + [V1+V2]
 (예) ‘바꿔주다’, ‘깎아주다(값을)’ 등

5. 한국어 연쇄동사 구문의 사건 구조 합성 유형

5.1. ‘가다/오다’, ‘주다’ 연쇄동사 구문의 사건 구조 합성

‘가다/오다’, ‘주다’는 “기본적으로” 각각 착점 논항 ‘-에’와 ‘-에게’를 취하며 ‘처소 이동’ 사건을 나타낸다.

(1) ‘가다/오다’의 사건 구조

a. [[x GO [TO z]] CAUSE [x BECOME <BE-AT z>]]

(예) 철수가 학교에 갔다/왔다.

(2) ‘주다’의 사건 구조

a. 처소 이동(Change of Location) [+CL]

[x CAUSE [y BECOME <BE-AT z>]]

(예)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주었다.

b. 소유 이전(Possession Transfer)¹¹⁴⁾

114) 조정순(2008)에서는 수여 동사는 단순한 이동이 아닌 소유 변화의 의미를 나타내며 그러한 소유 변화의 정도성의 차이에 따라 ‘소유의 이전(‘남기다’), ‘소유의 위탁(‘맡기다’), ‘소유의 공유(‘가르치다’로 나눌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소유 변화의 정도성의 차이는 동사에 어휘화된 의미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차이를 ‘GO_{POSS}’, ‘GO_{LOC}’, ‘GO_{POSS} AND BE_{POSS}’와 같이 사건 함수를 구분하여 표상하였다. 본고에서는 ‘주다’가 그것이 취하는 ‘대상 논항의 속성에 따라’ 대상의 처소 이동을 나타내는 경우와 소유 이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로 구분한다. 그러나 ‘주다’는 기본적으로 행동주에 의해 대상이 착점으로 이동하게 된 사건을 나타내며, 그렇게 이동된 대상이 유정물 착점의 소유가 되었는지는 앞서 밝힌 대로, 맥락이나 상황적 함축에 의해 도출이 가능한 의미로 본다. 또한 물리적인 이동이 아닌 ‘재산’이나 ‘권리’ 등과 같이 소유권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 그러한 소유권이 유정물 착점에게로 이전되는 사건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대상이 유정물 착점의 소유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표상한다.

[x CAUSE [y BECOME <BE-IN POSSESSION-OF z>]]

(예)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 한 채를 주었다.

c. 수혜(Benefaction)

[[x CAUSE [y BECOME <BE-AT z>]]

BECOME (MAL-)BENEFACTIVE TO z]

그런데 ‘주다’의 경우에는 ‘처소 이동’의 사건과 그것이 취하는 대상 논항의 속성, 문장 전체의 맥락이나 상황적 함축에 의해 ‘소유 이전’이나 ‘수혜’ 사건도 나타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주다’가 다른 동사와 결합할 때 사건 구조의 합성에 관여하는 기본적인 사건 구조는 ‘가다/오다’와 동일하게 처소 이동을 나타내는 사건 구조이다. ‘소유 이전’의 의미는 (2b)의 예에서와 같이 대상의 이동이 소유(권) 이전을 반드시 함의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권) 이전의 여부는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수혜’의 의미도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 문장 내에 존재하지 않는 잠재적 수혜자를 ‘-(를) 위해’나 ‘대신’으로 설정하는 데 특별한 제약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다’의 일차적인 어휘 의미 구조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 V1이 취하는 대상 논항의 의미적 속성에 따라 ‘주다’의 ‘수혜’ 사건 구조와만 결합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또한 V1이 ‘주다’와 결합하여도 ‘주다’에 의해 착점 논항 ‘-에게’를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다’의 ‘처소 이동’의 사건 구조가 아닌 ‘수혜’ 사건 구조와 결합하여 V1의 사건이 ‘-(를) 위해’, ‘대신’으로 실현 가능한 개체에 ‘수혜’가 되는 사건만을 나타내게 된다.

‘가다/오다’, ‘주다’는 의미적으로 필수 성분인 착점 논항을 취하며 사건 구조상에 행동주나 대상의 처소 변화가 일어난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BE-AT z>라는 하위 사건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가다/오다’, ‘주다’가 하나의 연쇄동사 구문을 이룰 때, 이들과 선행 동사의 하위 사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합성되어 하나의 복합 사건을 나타내게 된다. 이 장에서는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두 동사의 사건 구조의 합성 규칙 또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라 유형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5.1.1. 사건 구조의 합성 규칙과 합성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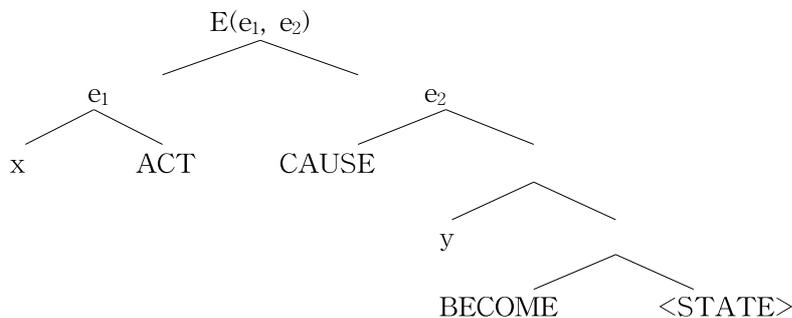
Levin & Rappaport Hovav(2004)에서는 사건의 복잡성(complexity)에는 사건 내부의 시간적 구조의 속성이 반영되는 것이나 이것이 단순히 전통적인 상적 개념과 유사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들은 복합 사건을 이루는 두 하위 사건이 시간적으로 의존적이거나 중첩되어 일어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Dowty 1979:91~4; Parsons 1990:109~11 등). 또한 하위 사건 간에 시간적 의존성을 갖지 않는 복합 사건의 의미적 속성은 각각의 하위 사건에 그에 해당하는 논항 XP를 요구하는 통사적 속성과 연결된다고 보았다. 그들은 하위 사건은 각각 통사 구조에서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논항-하위 사건 대응 조건(Argument-Per-Subevent Condition)’을 제시하였다.

(3) Argument-Per-Subevent Condition(L&RH 1999:202; RH&L 2001:779)

: There must be at least one argument XP in the syntax per subevent in the event structure.

이는 ‘사건 구조 내에 하위 사건마다 통사 구조상에서 대응되는 XP 논항이 적어도 하나 이상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단순 사건과 달리 두 개의 하위 사건으로 이루어진 복합 사건은 두 개의 XP 논항을 갖는 논항 실현 패턴을 보이고 다른 사건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



이러한 논항 구조와 대응되는 사건 구조는 논항 구조에서 동일한 의미역 위계를 갖는 논항들이 서로 대응되며 하나로 통합되는 것과 같이 사건 구조에서

도 하위 사건과 그 안에 실현된 동일한 변항들이 대응 관계를 맺고 있으며 두 동사가 결합할 때 통합 대상이 된다. 앞서 연쇄동사 구문의 의미적 특성에서 두 동사가 결합하여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며 ‘하나의 사건’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의 복합 사건 틀에서 동질적인 행동주에 의해 행해지는 사건’이라고 정의한 대로, 사건 구조의 합성 유형에서도 논항 구조의 합성 방식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행동주 논항 또는 그 행동주 논항이 포함된 하위 사건을 공유한다. 예를 들어 V1과 V2가 개체와 사건을 갖는 CAUSE 함수로 표상되는 동일한 사건 구조를 갖는다면, V1의 사건 구조에서 첫 번째 논항(x)은 V2의 사건 구조의 첫 번째 논항(x)과 하나로 합치된다. 이어서 사건을 나타내는 하위 사건 내의 BECOME 함수의 첫 번째 논항들이(y) 하나로 합치된다. 단, 두 사건 구조에서 첫 번째 하위 사건이 논항으로만 구성된 ‘개체-개체’인 경우에는 단순 합치되지만 ‘개체-사건’ 또는 ‘사건-사건’인 경우에는 무표적(unmarked) 성분이 유표적(marked) 성분으로 합치되어 실현된다.



또한 V1과 V2의 의미 유형이 동일한 경우, 다시 말해 동일한 사건 함수(event function)를 갖는 경우에는 하나로 단순 합치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사건 함수들이 합성된다.

(6) 사건 함수의 합성 규칙

V1과 V2의 사건 함수(event function) α , β 에 대하여,

① α , β 가 동일한 함수라면, 동일한 함수는 하나로 통합된다.

그러나 그 다음 함수들 γ , δ 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표적(unmarked) 함수가 유표적(marked) 함수로 통합된다.

(※ 무표적(unmarked) 경로 함수: ‘TO’)

(예) ‘건너다’: $[x \text{ GO } [\text{ACROSS } y] \dots]$ - ‘가다/오다’: $[x \text{ GO } [\text{TO } z] \dots]$

\Rightarrow ‘건너 가다’: $[[x \text{ GO } [\text{ACROSS } y]] \dots]$

- ② α , β 가 동일하지 않으나 α , β 간에 $\alpha \models \beta$ 함의 관계가 성립된다면, β 는 α 로 통합된다.

(예) ‘걷다’: [x ACT_{<WALK>}] \models ‘가다/오다’: [x GO [TO z] ...]
 \Rightarrow ‘걸어 가다’: [[x ACT_{<WALK>}] ...]

- ③ α , β 가 동일하지 않고 α , β 간에 함의 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면, α 와 β 가 취하는 하위 사건들이 추가 연산자에 의해 병렬적으로 합성된다.

(예) ‘끌다’: [x ACT_{<PULL>} y] - ‘가다/오다’: [x GO [TO z] ...]
 \Rightarrow ‘끌어 가다’: [[[x ACT_{<PULL>} y] WITH [x GO [TO z]]] ...]

그런데 복합 사건으로 표상되는 ‘가다/오다’, ‘주다’의 사건 구조와 동일한 하위 사건 구조를 가지며 동일한 의미 부류에 속하는 동사들이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V1과 V2의 사건 구조 내의 하위 사건들이 반드시 서로 일대일 대응 관계를 맺고 있는 통합 대상은 아니다. V1이 단순 사건인 경우와 복합 사건인 경우로 나누어 V2 ‘가다/오다’, ‘주다’의 사건 구조와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I. V1: 단순 사건 - V2: 복합 사건

(i) 사건의 의미 유형 동일

① 사건 함수 간에 함의 관계 성립

: [[V1 사건 전체(\supset V2 전건)] + [V2 후건]]

(예) ‘걸어가다(오다)’, ‘따라가다(오다)’, ‘불러가다(오다)’

\Rightarrow 부분적 병렬 합성

② V1의 대상 논항: 구체물 \rightarrow 추상물(사건)

: [[V1 사건 전체 \rightarrow V2 후건 내의 개체 ‘y’ 논항으로 내포] + [V2 후건]]

(예) ‘읽어주다’, ‘열어주다’

\Rightarrow 부분 흡수 통합

(ii) 사건의 의미 유형과 사건 함수가 다른 경우

(V1의 행동주(행위) \neq V2의 행동주(이동))

: [[V1의 사건 OPERATOR V2의 전건] + [V2 후건]]

추가 연산자(operator: \circ)에 의해 병렬적으로 결합

① 대상이 구체물인 경우

: [[V1 사건 전체 \circ V2 전건] + [V2 후건(x \oplus y)]]

(예) ‘끌어가다(오다)’

\Rightarrow 부가적 병렬 합성

② 대상이 추상물인 경우

: [[V2 전건 내의 개체 \circ V1의 사건 전체] + [V2의 후건]]

(예) ‘읽어가다(오다)’

\Rightarrow 부가적 병렬 합성

II. V1: 복합 사건 - V2: 복합 사건

(i) 사건의 의미 유형과 사건 함수가 동일한 경우

① 두 개의 하위 사건이 일치

: [[V1 전건=V2 전건] + [V1 후건=V2 후건]]

(예) ‘입혀주다’, ‘먹여주다’

\Rightarrow 완전 통합

② V2의 경로 함수[무표] \rightarrow V1의 경로 함수[유표]

: [[V1 전건 \cap V2 전건] + [V1 후건 \cap V2 후건]]

(예) ‘건너가다(오다)’

\Rightarrow 완전 통합

(ii) 사건 함수가 다른 경우(V1의 행동주(행위) \neq V2의 행동주(이동))

① V1의 후건 \neq V2의 후건

[[V1의 사건 전체 \circ V2 전건] + [V2 후건(x \oplus y)]]

(예) ‘잡아가다(오다)’, ‘만들어가다(오다)’, ‘실어가다(오다)’,

‘찾아가다(오다)’, ‘받아가다(오다)’

⇒ 부가적 병렬 합성

- ② V2의 후건[무표] → V1의 후건[유표]
[[V1 전건 ◦ V2 전건] + [V1 ⊃ V2]]
(예) ‘찾아가다1(오다)’
⇒ 부분적 병렬 합성

(iii) 사건의 의미 유형이나 하위 사건의 의미적 속성이 다른 경우
: [[V1 개체 = V2 개체] + [V1 후건 & V2 후건]]

- ① V1의 <상태 변화> - V2의 <처소 이동>
(예) ‘만들어주다’, ‘깎아주다’
⇒ 부분적 병렬 합성

- ② V1의 착점/기점: 무정물[-animate] - V2의 착점: 유정물[+animate]
V1의 대상이 착점/기점으로 이동 → V2에 의해 재이동
(예) ‘담아주다’, ‘꺼내주다’
⇒ 부분적 병렬 합성

(iv) V1과 V2의 사건 함수가 다르나

V1의 사건과 V2의 사건이 의미적으로 내포되는 관계인 경우
: [[V1 전건] + [V2의 후건/V1의 후건 + V2의 후건]]

- ① V1의 <결과상태(부분)> ⊂ V2의 <결과상태(전체)>
(예) ‘걸어주다’
⇒ 내포 통합

- ② V1: 행동주에 의한 대상의 이동 + 행동주의 이동(미명세됨)
(예) ‘들여가다(오다)’, ‘옮겨가다(오다)’
⇒ 내포 통합

- ③ V1: 행동주에 의한 대상의 이동, V2: 대상의 이동
(예) ‘보내오다’, ‘불러가다(오다)’
⇒ 내포 통합

이러한 [V1+어+V2{가다/오다, 주다}]의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두 동사의 사건 구조의 다양한 결합 양상은 합성 유형에 따라 ‘부분적 병렬 합성(I-(i)-①, II-(iii), II-(ii)-②)’, ‘부가적 병렬 합성(I-(ii), II-(ii))’, ‘완전 통합(II-(i))’, ‘내포 통합(II-(iv))’, ‘부분 흡수 통합(I-(i)-②)’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8) 사건 구조의 합성 유형

: A, B는 ‘논항-하위 사건 대응 조건(Argument-Per-Subevent Condition)’에 따라 통사 구조상에 대응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XP 논항을 사건 구조 내에 논항(의미항)으로 갖는 하위 사건을 나타낸다.

I. 병렬적 합성 유형(Summation Type)

① 부가적 병렬 합성(Adjunctive Summ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 (A+B) = (A' \circ A) + B''$ ▪ $A' + (A+B) = (A \circ (A')) + B$ ▪ $(A'+B') + (A+B) = ((A'+B') \circ A) + B''$
--

(i) $A'(xy) + [A(x(z)) + B(x<z>)] \Rightarrow [[A'(xy) \circ A(x(z))] + [B(x\oplus y<z>)]]$

(예) ‘끌어가다(오다)’

(ii) $A'(xy) + [A(x(z)) + B(x<z>)] \Rightarrow [[A((x \circ A')(xy))(z))] + [B(x<z>)]$

(예) ‘읽어가다(오다)’

(iii) $[A'(x) + B(y<z>)] + [A(x(z)) + B(x<z>)]$

$\Rightarrow [[A'(x) + B(y<z>)] \circ A(x(z))] + [B(x\oplus y<z>)]$

(예) ‘잡아가다(오다)’, ‘만들어가다(오다)’, ‘실어가다(오다)’,
‘가져가다’(오다), ‘찾아가다2(오다)’, ‘받아가다(오다)’

② 부분적 병렬 합성(Partial Summ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 (A+B) = (A' + B)$ ▪ $(A' + B') + (A+B) = (A' \circ A) + B''$ ▪ $(A'+B') + (A+B) = A' + (B' \circ B)$

(i) $A'(x) + [A(x(z)) + B(x<z>)] \Rightarrow [A'(x) + B(x<z>)]$ (* $A' \cap A = A'$)

(예) ‘걸어가다(오다)’, ‘따라가다(오다)’

- (ii) $A'(xy) + [A(x) + B(y<z>)] \Rightarrow [A'(xy) + B(y<z>)]$ ($\ast A' \cap A = A'$)
 (예) ‘밀어주다’, ‘던져주다’
- (iii) $[A'(x) + B(y<z>)] + [A(x(z)) + B(x<z>)]$
 $\Rightarrow [[A'(x) \circ A(x(z))] + [B(x\oplus y<z>)]]$
 (예) ‘몰아가다(오다)’
- (iv) $[A'(x) + B(y<z>)] + [A(x) + B(y<z>)]$
 $\Rightarrow [A'(x) + [B(y<z>) \& B(y<z>)]]$
 (예) ‘만들어주다’, ‘깎아주다’, ‘담아주다’, ‘꺼내주다’,
 ‘갈아주다1’, ‘나눠주다1’
- (v) $[A'(xy) + B(x<y>)] + [A(x(z)) + B(x<z>)]$ ($\ast B(x<y>) \supseteq B(x<z>)$)
 $\Rightarrow [[A'(xy) \circ A(x(z))] + [B(x<y>)]]$
 (예) ‘찾아가다1(오다)’

III. 통합적 합성 유형(Unification Type)

① 완전 통합(Total Unification)

$\ast (A+B) + (A+B) = (A+B)$

- (i) $[A(x'(z)) + B(x<z>)] + [A(x(z)) + B(x<z>)] \Rightarrow [A(x'(z)) + B(x<z>)]$
 (예) ‘들어가다(오다)’, ‘건너가다(오다)’
- (ii) $[A(x) + B(y<z>)] + [A(x) + B(y<z>)] \Rightarrow [A(x) + B(y<z>)]$
 (예) ‘입혀주다’, ‘건네주다’, ‘보내주다’, ‘알려주다’

② 내포 통합(Embedding Unification)

$\ast (A'+B') + (A+B) = (A'+B)$ ($\ast B' \subset B$)
$\ast (A'+B') + (A+B) = (A'+B'')$ ($\ast (A'+B') \supset (A+B)$)
$\ast (A+B) + (A'+B') = (A+B')$ ($\ast B \subset (A'+B')$)

(i) $[A'(x) + B(y<z>)] + [A(x) + B(y<z>)] \Rightarrow [A'(x) + B(y<z>)]$



(예) ‘걸어주다’, ‘덮어주다’, ‘발라주다’

(ii) $[A'(x) + B((x\oplus y)<z>)] + [A(x(z)) + B(x<z>)] \Rightarrow [A'(x) + B(x\oplus y<z>)]$



(예) ‘들여가다(오다)’, ‘옮겨가다(오다)’

$$(iii) [A(x) + B(y<z>)] + [A'(y(z)) + B(y<z'>)] \Rightarrow [A(x) + B(y<z'>)]$$

└──────────┘

(예) ‘보내오다’, ‘불러가다(오다)’

③ 부분 흡수 통합(Partial Absorption)

- $A' + (A+B) = (A+(B(A')))$
- $(A+B') + (A+B) = (A+(B((A+B'))))$

(i) $A'(xy) + [A(x) + B(y<z>)] \Rightarrow [A(x) + B((A'(xy))<z>)]$

(예) ‘읽어주다’, ‘열어주다’

(ii) $[A(x) + B(y<w>)] + [A(x) + B(x<z>)]$

$\Rightarrow [A(x) + B((A(x)+B(y<w>))<z>)]$

(예) ‘갈아주다2’, ‘나눠주다2’

IV. 혼합적 합성 유형(Mixed Composition Type)

(i) $[A(x'(z))] + [A(x(z)) + B(x<z>)] \Rightarrow [A(x(z))]$

(예) ‘돌다2-돌아가다2(오다)’, ‘다니다2-*다녀가다2(오다)’

(ii) $[A(x'(z)) + B(x<z>)] + [A(x(z)) + B(x<z>)] \Rightarrow [A(x'(z))]$

(예) ‘뜨다-떠가다(오다)’

(iii) $[A(x) + B(x<z>)] + [A(x(z)) + B(x<z>)] \Rightarrow [A(x(z)) + B(x(z)<z>)]$

(예) ‘내리다-내려가다(오다)’

(iv) $[A(x(z))] + [A(x) + B(x<z>)] \Rightarrow [A'((x(z)) \circ (x(z))) + B(x<z'>)]$

(예) ‘다녀가다1(오다)’

(v) $[A(x(z)) + B(z<z'>)] + [A(x(z)) + B(x<z>)] \Rightarrow [A(x'(z)) + B(x<z>)]$

(예) ‘몰려가다(오다)’

(vi) $[A(x) + B(y<z'>)] + [A(x) + B(y<z>)] \Rightarrow [A(x) + B(y<z'>)]$

(예) ‘놓아주다’, ‘치워주다’

(vii) $[A(xy)] + [A(x) + B(x<z>)] \Rightarrow [A(xy)]$

(예) ‘도와주다’, ‘혼내주다’

사건 구조의 합성 유형도 논항 구조의 합성 유형과 마찬가지로 크게 ‘병렬적 합

성 유형’, ‘통합적 합성 유형’, ‘혼합적 합성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건 구조 합성 유형에서는 ‘병렬적 합성 유형’은 ‘부가적 병렬 합성 (Adjunctive Summation)’과 ‘부분적 병렬 합성(Partial Summation)’ 유형으로, ‘통합적 합성 유형’도 ‘완전 통합(Total Unification)’, ‘내포 통합(Embedding Unification)’, ‘부분 흡수 통합(Partial Absorption)’ 유형으로 더 세분화된다.

먼저 ‘병렬적 합성 유형’은 V1과 V2의 하위 사건이 모두 포괄되어 연쇄동사 구문의 하위 사건으로 실현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부가적 병렬 합성’ 유형과 ‘부분적 병렬 합성’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부가적 병렬 합성’은 V1이 단순 사건의 행위 동사나 복합 사건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결과 동사와 V2 ‘가다/오다’, ‘주다’의 사건 구조가 합성되는 방식이다. V1이 결과 동사인 경우에는 V1의 사건과 V2의 사건의 의미 유형이 ‘행위’와 ‘이동’으로 동일하지 않거나 동일하게 ‘이동’을 나타내는 경우라도 이동하게 되는 착점의 속성이 달라 ‘전건-전건’, ‘후건-후건’으로 대응되어 통합되지 않는다. 이때는 V1의 사건 전체가 V2의 전건의 하위 사건에 추가 연산자에 의해 병렬적으로 결합되고 V2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하위 사건 내에 행동주(x) 논항과 함께 이동하게 되는 대상(y) 논항이 부가되어 병렬적으로 결합된다. 단순 사건의 행위 동사와 V2 ‘가다/오다’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건 구조가 합성된다. ‘부분적 병렬 합성’은 V1과 V2의 전건이 동일한 개체로만 이루어져 단순 통합되거나 아니면 전건 내의 사건 함수 간에 함의 관계에 따라 통합되거나 사건 함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무표적 전건이 유표적 전건으로 통합되어 연쇄동사 구문의 전건을 구성하고 V1의 후건과 V2의 후건은 병렬적으로 합성되는 경우이다.

세 번째, 통합적 합성 유형은 ‘완전 통합’, ‘내포 통합’, ‘부분 흡수 통합’으로 나뉜다. ‘완전 통합’은 V1과 V2의 사건 의미 유형과 사건 함수가 동일하며 두 동사의 하위 사건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와 ‘무표적-유표적’ 관계에 따라 V2의 무표적 경로 함수가 V1의 유표적 경로 함수로 통합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내포 통합’은 V1의 사건과 V2의 사건 간에 의미적 함의 관계가 성립되어 하나의 하위 사건이 다른 하위 사건으로 내포되어 통합되거나 V1과 V2의 하위 사건 내에 <결과 상태>가 ‘부분-전체’ 관계로 ‘부분’이 ‘전체화’되어 합성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때는 V2의 사건을 함의하는 V1의 전건이나 사건 전체가 연쇄동사 구문의 전건으로 실현되고 V1의 후건과 V2의 후건은 하나로 통합되어 결합된다. 이와 달리 ‘부분 흡수 통합’은 V1의 사건과 V2의 사건의 유형이 어떠한 의미적 함의 관계도 맺고 있지 않고 V1의 사건이 V2의 대상 의미항(y)으로 통합

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혼합적 합성 유형’은 V1과 V2의 사건 구조들이 병렬적이거나 통합적으로 합성되지 않고 다양한 합성 방식을 보이는 부류들이 속한다. V2 ‘가다/오다’, ‘주다’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V1의 사건 구조와의 합성 여부와 합성 양상이 달라진다. ‘가다/오다’는 사건 구조 내에 결과 상태 <±최소 변화 (BE-AT z)>에 따라 합성 여부가 결정되거나 합성 양상이 달라진다. ‘주다’는 V1이 착점을 취하는 동사인가 또한 그것의 대상 논항이 ‘구체물’ 또는 ‘추상물’인가, 그것이 이동 가능성 또는 소유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에 따라 합성 유형이 달라진다. 각 유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 ‘가다/오다’, ‘주다’가 구성하는 연쇄동사 구문의 사건 구조의 합성 방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다.

5.1.2. 사건 함수와 연산자 목록

본고에서는 Jackendoff(1990)와 그의 논의를 따른 양정석(1995:399)에서 제시한 함수(function)와 연산자(operator) 중에 한국어 연쇄동사 구문 [V1+어+V2 {가다/오다, 주다}]의 사건 구조 표상에 필요한 항목들만 선택하여 활용하기로 한다.

(9) 사건 함수와 연산자 목록

- (i) 상태성 함수: BECOME(상태)
- (ii) 사건성 함수: CAUSE(인과), ACT(행위), GO(이동), MOVE(움직임), INCH(기동성)
- (iii) 처소 함수: AT, AT-END-OF, AT-THE OPPOSITE SIDE-OF, INSIDE-OF, OUTSIDE/OUT-OF, AT-PART-OF, AT-AWARENESS-OF
- (iv) 경로 함수: **TO**, FROM/AWAY-FROM, AFTER, ACROSS, AROUND, OVER, THROUGH, INTO, ONTO, UPWARD, DOWNWARD
- (v) 부정소: NOT
- (vi) 접속 연산자: AND(&), WITH, IN-STATE-OF

본고에서는 앞서 밝혔듯이, ‘가다/오다’, ‘주다’를 인과적 사건 함수 CAUSE를 갖는 사건 구조로 표상하고 있다. BECOME은 존재 변화, 상태 변화, 처소 변화 등과 같이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어 존재하게 된 상태를 나타내는 함수이다. Jackendoff(1990)에서는 이동 사건이 일정한 경로나 정해진 방향을 따라 이동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GO와 MOVE 함수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을 따라 본고에서도 ‘가다/오다’를 비롯해 특정한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이동 동사의 경우는 GO 함수로 나타낸다.

양정석(1995)에서는 의미 구조(사건 구조) 내에 의미 성분절(사건)을 접속이나 종속화하여 연결시키는 연산자로 ‘FOR(목적)’, ‘BY(방법/방편)’, ‘WITH(동시상황)’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가 설정한 이러한 연산자에 의해 이어지는 논항들은 어휘 통사 구조나 문장의 통사 구조로 논항들이 연결될 때 연결의 우선순위에서 뒤에 서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가다/오다’의 연쇄동사 구문에서는 V1의 행위와 V2의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 ‘WITH’ 연산자에 의해 사건 구조 내에 하위 사건이 도입되는 것으로 분석한다.¹¹⁵⁾ 그런데 이러한 ‘WITH’ 연산자에 의해 결합되는 하위 사건은 양정석(1995)에서와 같이 통사 구조의 논항들과의 연결에서 우선순위에 놓이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 방식 때문에 ‘가다/오다’가 다른 동사들과 연쇄되어 나타날 때, 기존의 다른 논의들에서와 같이 본동사로서 전체 문장의 논항 구조에 관여하지 못하며 보조적인 기능만을 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가다/오다’에 의해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 내에 명시적으로 실현되는 착점 ‘-에’와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하위 사건을 도입하게 되어 전체 사건 구조들(이동 사건)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가다/오다’가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5.1.3. 사건 구조의 결합 유형 구분: ‘-어’와 ‘-(어)서’의 교체

115) 조정순(2014:164~165)에서는 ‘가져가다’, ‘찾아오다’를 하나의 어휘 단위로, 행동주, 피형체(대상), 목표(착점)나 근원(기점)의 3항을 요구하는 세 자리 이동 동사로 보고, 행동주와 대상의 동반 이동을 나타내는 의미적 특징을 지니며 다음과 같은 어휘 의미 구조를 갖는 것으로 표상하였다.

(i) 가져가다(-에)

[[AFF(x, y), [[CS(x, [INCH[BE(y, [IN(x))]]] WITH [GO(x, [TO(z))]]]]]

(ii) 찾아오다(-에서)

[[AFF(x, y), [[CS(x, [INCH[BE(y, [IN(x))]]] WITH [GO(x, [FROM(z))]]]]]

기존의 논의들에서는 [V1+어+V2] 구문이 통사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즉 단순한 접속에 의한 동사 구성인가의 여부와 두 동사의 의미적 결합 방식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어’와 ‘-(어)서’와의 교체 가능 여부를 제시하였다. 접속어미로서의 ‘-(어)서’는 ‘원인’, ‘이유’, ‘방법’ 등의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며, 선행하는 행위/사건과 후행하는 행위/사건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일어나거나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최현배 1975, 이기동 1979, 서정수 1990, 김창섭 1994 등). 성태수(2000)에서는 ‘-어’와 ‘-(어)서’가 교체가 가능한 경우는 통사적 구성으로 한 문장에 두 개의 사건이 포함되는데 선행하는 사건의 결과가 후행하는 사건으로 실현된다고 하였고, ‘-어’와 ‘-(어)서’가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합성동사로 ‘단일 사건’, ‘단일 동작’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다. 주지연(2008)¹¹⁶⁾에서는 한국어에서 연쇄동사 구문의 범주를 인정하진 않았지만 [V1+어+V2]의 동사 구성이 나타내는 의미 유형을 ‘-(어)서’의 개입 여부에 따라 두 사건이 연속되어 일어나거나 인과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계기적 사건과 V1이 방식이나 방향을 나타내는 동시적 사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¹¹⁷⁾ 그중 계기적 사건과 V1이 방식을 나타내는 동시적 사건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두 동사 사이에 ‘-(어)서’의 개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본고에서는 V1과 V2 ‘가다/오다’, ‘주다’가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면서 하나의

116) 주지연(2008)에서는 [V1+어+V2] 동사 구성을 V1과 V2의 행위 의미가 합성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단일 사건 구성’, ‘합성 사건 구성’, ‘각립 사건 구성’으로 분류하였다. ‘단일 사건 구성’은 V1과 V2 두 동사 중 하나만이 행위 의미를 나타내거나(예: ‘살아가다’, ‘구해내다’/‘올라가다’, ‘다가가다’) 두 동사가 비합성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행위를 나타내는(예: ‘굽어살피다’, ‘날아가다’, ‘가져오다’, ‘봐주다’, ‘나타나다’, ‘부러지다’, ‘사라지다’ 등) 경우들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합성 사건 구성’은 두 개 이상의 행위로 구성되나 두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이 연속적 혹은 동시적으로 발생하면서 하나의 사건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해당된다(예: ‘깎아 먹다’, ‘잡아 가다’ 등). ‘각립 사건 구성’은 V1과 V2의 행위가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성립하여 하나의 통합적 사건으로 인식되지 않는 접속문 구성이 해당된다(예: ‘(나물을)테쳐 무치다’). 주지연(2008)에서는 [V1+어+V2] 동사 구성을 의미 합성 방식에 따라 구분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는 이전 논의들과 차별된다고 할 수 있으나 동일한 유형의 사건 구성에 포함되는 부류들 간에도 V1과 V2의 의미 합성 방식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117) Chung & Kim(2008), Kim & Oh(2013)에서는 한국어의 연쇄동사 구문의 의미 유형을 ‘동시적(Simultaneous)’ 연쇄동사 구문(예: ‘걸어가다’)과 ‘계기적(Consequential)’ 연쇄동사 구문(예: ‘구워먹다’)으로 분류하였다. Stewart(2001)에서는 통사 구조 내에 사건의 핵(head) 수와 위치에 따라 결과적 연쇄동사 구문(Resultative SVC)과 계기적 연쇄동사 구문(Sequential SVC)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복합 사건을 나타내게 되고 V1과 V2의 사건의 합성 방식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제시한다. 그러므로 계기적 또는 동시적 사건으로 연쇄동사 구문의 의미 유형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는다. 이미 다른 논의들에서도 제시되었듯이 ‘걸어 가다’와 같이 V1이 V2 행위의 방식이나 양태(manner)를 나타내는 경우는 ‘-(어)서’와 교체가 가능하며 동시적 사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부류이다. 그런데 V1이 방식이나 양태(manner)를 나타내는 경우 말고도 V2 ‘가다/오다’가 결합하여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경우에는 V1과 V2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일어난 사건들의 결합이면서 동시에 행동주와 대상이 함께 이동하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동시적 사건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읽어 주다’와 같이 V1과 V2가 결합하면서 ‘-어’와 ‘-(어)서’가 교체가 불가능하더라도 V2 ‘주다’에 의해 명시적인 착점 논항 ‘-에게’를 도입하게 되며 V2의 본동사로서의 의미가 투사되어 V1의 행위가 일어남과 동시에 추상물로 전이된 대상이 착점으로 전달되는 사건을 나타내게 된다. 이렇듯 ‘-(어)서’와 교체되며 계기적 사건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만 V1과 V2가 의미적 합성성(compositionality)을 준수하며 하나의 구문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어’와 ‘-(어)서’의 교체 가능 여부를 연쇄동사 구문을 구성하는 V1과 V2의 사건 구조의 합성 방식이 다름을 판단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V1과 V2의 하위 사건이 의미 해석을 위해 도입되는 추가 연산자에 의해 병렬적으로 합성되는 유형에 속하는 부류들은 대부분 ‘-어’와 ‘-(어)서’가 교체가 가능하나 V1과 V2의 하위 사건이 일대일로 대응되어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5.2. [V1+어+V2{가다/오다}] 연쇄동사 구문의 사건 구조 합성 유형

이제 ‘가다/오다’가 다른 동사들과 연쇄동사 구문을 이룰 때, 두 동사의 사건 구조가 어떻게 합성되는지를 그 유형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사건 구조의 합성 유형에서는 먼저 V1의 하위 사건과 V2의 하위 사건이 일대일로 대응되어 하나로 통합되는 통합적 합성 유형부터 제시하도록 하겠다.

5.2.1. 통합적 합성 유형

5.2.1.1. 완전 통합

처소 변화를 함의하는 경로 동사는 V2 ‘가다/오다’와 결합하기 이전에 이미 사건 구조 내에 처소 변화가 일어난 결과 상태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경로 동사들도 ‘가다/오다’와 동일하게 이동의 과정과 그로 인한 이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하위 사건으로 구성된 ‘이동’을 나타내는 사건 구조를 갖는다. 이와 같이 V1이 V2 ‘가다/오다’와 동일한 속성의 처소 변화 사건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연쇄동사 구문을 이룰 때, 두 동사의 하위 사건들이 ‘전건-전건’, ‘후건-후건’으로 대응되어 하나로 통합된다.

- (10) a. 영희가 안방에|안방으로 들어 갔다.
 b. *영희가 안방에|안방으로 들어서 갔다.

(11) ‘들어 가다(오다)’

V1: [[x GO [INTO z]] CAUSE [x BECOME <BE-AT z>]]

| |

V2: [[x GO [TO z]] CAUSE [x BECOME <BE-AT z>]]

V1+V2: [[x GO [INTO z]] CAUSE [x BECOME <BE-AT z>]]

- (12) a. 철수가 횡단보도를 건너 갔다.
 b. ??철수가 횡단보도를 건너서 갔다.

- (13) a. 철수가 담을 넘어 갔다.
 b. ??철수가 담을 넘어서 갔다.

- (14) a. 철수가 모퉁이를 돌아 갔다.
 b. ??철수가 *(약국에/약국으로) 모퉁이를 돌아서 갔다.

(15) ‘건너 가다(오다)’, ‘넘어 가다(오다)’, ‘돌아 가다(오다)1’

V1: [[x GO [ACROSS/OVER/AROUND z]] CAUSE

| [x BECOME <BE-AT THE OPPOSITE SIDE-OF z>]]

| |

V2: [[x GO [TO z]] CAUSE [x BECOME <BE-AT z>]]

V1+V2: [[x GO [ACROSS/OVER/AROUND z]]
 CAUSE [x BECOME <BE-AT THE OPPOSITE SIDE-OF z>]]

- (16) a. 우리가 탄 버스는 시청을 지나 갔다.
 b. ?우리가 탄 버스는 시청을 지나서 갔다.

- (17) a. 철수는 회사에 출근할 때, 신도림역을 거쳐 간다.
 b. 철수는 회사에 출근할 때, 신도림역을 거쳐서 간다.

- (18) ‘지나 가다(오다)’, ‘거쳐 가다(오다)’

V1: [[x GO [THROUGH z]] CAUSE [x BECOME <BE-AT END-OF z>]]

| |

V2: [[x GO [TO z]] CAUSE [x BECOME <BE-AT z>]]

V1+V2: [[x GO [THROUGH z]] CAUSE [x BECOME <BE-AT END-OF z>]]

- (19) a. 철수가 산에|산을 올라 갔다.
 b. *철수가 산에|산을 올라서 갔다.

- (20) ‘올라 가다(오다)’

V1: [[x GO [UPWARD z]] CAUSE [x BECOME <AT-END-OF z>]]

| |

V2: [[x GO [TO z]] CAUSE [x BECOME <BE-AT z>]]

V1+V2: [[x GO [UPWARD z]] CAUSE [x BECOME <AT-END-OF z>]]

앞서 논항 구조의 합성 유형에서 살펴보았듯이, V1이 처소 변화를 함의하는 경로, 착점, 기점 논항을 취하는 경우에는 V1과 V2 ‘가다/오다’가 동일한 속성의 처소 논항을 하나로 통합시켜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를 구성한다. 이들은 사건 구조상에서도 V1의 전건과 V2의 전건이 동일한 GO 함수를 가지며 동일한 속성의 처소 변화가 일어난 결과 상태를 내포하는 하위 사건을 갖는다. 그런데 V1과 V2의 의미는 두 동사의 전건 내의 경로 함수에 의해 구분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동일한 ‘GO’ 함수는 하나로 합치하되, 다른 경로 함수 간에는 가장 무표적인 경로 함수 TO가 그 외에 유표적인 함수로 통합되어 연쇄동사 구문의

전건에 실현된다. 동일한 속성의 처소 변화를 나타내는 결과 상태는 하나로 통합되어 연쇄동사 구문의 후건으로 실현된다. 이 부류는 표면상으로는 V1과 V2가 결합한 이후에도 V1의 사건 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경로 동사들이 V2 ‘가다/오다’와 결합하여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경우에는 ‘-(어)서’에 의해 분리가 불가능한 동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나타낸다. 이들이 ‘-(어)서’에 의한 접속 구문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또는 ‘어디로’에 해당하는 별도의 착점이나 방향을 요구하게 된다. (17)의 ‘거쳐 가다’의 경우에 다른 경로 동사들과 달리 ‘-(어)서’ 구문이 가능한 것은 ‘회사에 출근할 때’와 같은 이동의 착점이 문장 내에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 (21) a. 기차가 서울역에서 떠나 갔다.
 b. *기차가 서울역에서 떠나서 갔다.

(22) ‘떠나 가다(오다)’

V1: [[x GO [AWAY-FROM z]] CAUSE [x BECOME [NOT <BE-AT z>]]]

| |

V2: [[x GO [TO z]] CAUSE [x BECOME [OUT-OF z]]]

V1+V2: [[x GO [AWAY-FROM z]] CAUSE [x BECOME [NOT <BE-AT z>]]]

‘떠나 가다(오다)’의 V1 ‘떠나다’와 같이 기점 논항을 취하는 경우에는 ‘행동주(x)가 기점(z)에서 떠나서 이제 더 이상 그 기점(z)에 있지 않게 된 사건’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우에는 V2 ‘가다/오다’의 기점을 나타내는 하위 사건을 내포한 사건 구조와 ‘전건-전건’, ‘후건-후건’이 하나로 통합되어 연쇄동사 구문의 사건 구조를 구성하게 된다.

5.2.1.2. 내포 통합

V1이 행동주에 의해 대상이 착점으로 이동하게 되는 사건을 나타내는 ‘들여 가다(오다)’, ‘옮겨 가다(오다)’ 등도 V2 ‘가다/오다’와 동일한 처소 변화의 결과 상태를 내포한 하위 사건을 갖는다.

- (23) a. 철수가 정원에 있던 화분을 거실에|거실로 들였다.

- b. 철수가 정원에 있던 화분을 거실에|거실로 들여 갔다.
- c. 철수가 거실에|거실로 정원에 있던 화분을 들여 갔다.
- d. *철수가 정원에 있던 화분을 거실에|거실로 들여서 갔다.

- (24) a. 인부들이 창고로|창고에 짐을 옮겼다.
 b. 인부들이 창고로|창고에 짐을 옮겨 갔다.
 c. 인부들이 짐을 창고로|창고에 옮겨 갔다.
 d. *인부들이 창고로|창고에 짐을 옮겨서 갔다.

(25) ‘들여 가다(오다)’, ‘옮겨 가다(오다)’

V1: [x CAUSE [(x⊕)y BECOME <BE-AT z>]]

V2: [[x GO [TO z]] CAUSE [x BECOME <BE-AT z>]]

V1+V2: (i) [x CAUSE [x⊕y BECOME <BE-AT z>]]

⇒ (ii) [[[x CAUSE [y BECOME <BE-AT z>]] WITH [x GO [TO z]]
 CAUSE [x⊕y BECOME <BE-AT z>]]

⇒ (iii) [[x WITH [x GO [TO z]]
 CAUSE [x⊕y BECOME <BE-AT z>]]

그런데 ‘들이다’, ‘옮기다’ 등의 동사는 단순히 대상만이 이동하는 사건이 아니라 행동주가 대상을 이동시킬 때 행동주도 대상과 함께 이동하는 사건을 나타낸다. 행동주가 대상을 어떠한 착점으로 ‘들이거나’, ‘옮기는데’ 다른 사람을 시키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러한 대상을 들이거나 옮기는 행위를 하는 행동주는 가만히 있고 대상만 이동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행동주가 대상과 함께 이동하게 되는 의미가 동사의 의미에 미명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V1의 사건 전체는 행동주의 이동을 나타내는 V2 사건 전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V1과 V2의 사건 구조가 합성될 때, V1의 개체와 V2의 전건이 통합되는 경우에는 무표적인 개체가 유표적인 사건으로 통합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경우에는 V1의 행동주(x)가 대상(y)을 착점으로 이동시키며 함께 착점으로 이동하는 개체로 연쇄동사 구문의 행동주로 실현되고 V1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하위 사건 내에 미명세된 ‘x’와 대상 논항 ‘y’가 V2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하위 사건 내의 ‘x’와 통합되어 연쇄동사 구문의 후건으로

실현된다. 만약 사건 함수가 달라 V1의 사건 전체와 V2의 전건이 추가 연산자에 의해 병렬적으로 결합된다고 한다면 (25)-(ii)와 같이 합성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이러한 합성 방식이 적용될 수 없다. ‘들여 가다(오다)’, ‘옮겨 가다(오다)’의 V1과 V2가 취하는 착점은 동일한 한 곳으로 ‘행동주(x)가 이미 대상(y)을 착점(z)으로 이동시키고 동시에 행동주(x)가 그 착점(z)으로 이동하는’ 사건은 성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행동주(x)가 대상의 이동을 야기하면서 이동하는 동시성을 지닌 주체라고 해도 (25)-(iii)과 같이 V1의 개체와 V2의 전건이 병렬적으로 합성되는 방식도 불가능하다.

앞서 논항 구조의 합성 방식에서 살펴보았듯이, ‘보내 오다’, ‘불러 오다(가다)’와 같이 V1의 목적어(대상)와 V2의 주어(대상)가 공유되며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부류들도 V1의 사건과 V2의 사건이 내포되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이다.

‘보내 오다’의 V1 ‘보내다’와 같이 행동주에 의해 대상이 착점으로 이동하게 된 사건과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기는 했으나 그 대상이 착점에 도착한 결과 상태를 반드시 함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사건 구조를 상정할 수 있다.

- (26) a. 철수가 나에게 택배를|택배를 나에게 보내 왔다.
 b. 철수가 나에게 택배를 보내서 *(택배가) 왔다.

- (27) a. 철수가 나에게 택배를 보냈으나 나는 아직 받지 못했다.
 b. *철수가 나에게 택배를 보내 왔지만 나는 아직 받지 못했다.

(28) ‘보내 오다’

a. V1: [x CAUSE [y BECOME <BE-AT z>]]

||

V2: [y GO [TO z]] INCH¹¹⁸⁾ [y BECOME <BE-AT z>]]

118) 양정석(1995:182~189)에서는 Jackendoff(1990, 1991)을 따라 기동성 함수 ‘INCH(OATIVE)’를 상태를 사건으로 바꿔 주는 함수로 정의하고 있으며 한국어에서 ‘-어 지’에 대응하는 의미가 이러한 기동성 함수 ‘INCH’와 동일시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무정물의 대상이나 자신의 의지가 아닌 행동주에 의해 유정물의 대상이 이동하게 되는 사건을 나타낼 때 이러한 ‘INCH’ 함수를 사용한다. 이때는 대상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로 V2의 전건 [y GO [TO z]]가 사건 구조 합성시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demoted) 의미에서 점선으로 처리하였다.

V1+V2: [x CAUSE [y BECOME <BE-AT z>]]

b. V1: [x CAUSE [y MOVE [TO z]]]



V2: [y GO [TO z]] INCH [y BECOME <BE-AT z>]]

V1+V2: [x CAUSE [y BECOME <BE-AT z>]]

먼저 (28a)와 같이 행동주에 의해 대상이 착점으로 이동한 결과 상태를 내포하는 하위 사건을 갖는 것으로 보면, ‘보내 오다’는 V1의 목적어(대상)와 V2의 주어(대상)가 공유되며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V1의 전건과 V2의 전건이 각각 ‘x’와 ‘y’로 다른 변항이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될 수 없다. 또한 V2의 주어(대상) 논항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무정물이기 때문에 ‘행동주가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이동함’을 나타내는 V2의 전건은 여기서 V1과 일대일로 대응되는 통합 대상이 아니라 대상의 처소 변화 상태를 나타내는 V1의 하위 사건에 V2 사건이 내포되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V2의 사건이 V1의 사건으로 통합된다. (28b)와 같이 ‘보내다’가 단순히 행동주에 의한 대상의 이동이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대상의 처소 변화가 일어난 결과 상태를 내포하고 있는 V2의 하위 사건으로 통합되어 연쇄동사 구문의 후건으로 실현된다. 이렇게 ‘보내다’가 처소 변화를 반드시 함의하는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오다’와 결합하여 대상이 착점으로 처소 변화를 겪는 결과 상태를 내포하는 하위 사건을 사건 구조에 도입하게 된다. 이러한 사건 구조의 합성 방식을 통해 ‘보내다’가 ‘오다’와 결합하면서 대상의 처소 변화가 일어난 결과 상태를 반드시 함의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V1의 후건의 합성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이나 V1 전건의 행동주가 대상의 처소 변화를 야기하는 행동주로서 연쇄동사 구문의 행동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불러 오다(가다)’도 ‘보내 오다’와 같이 V1의 목적어(대상)와 V2의 주어(대상)가 공유되며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이다. 여기서 V1 ‘부르다’는 ‘행동주가 단순히 대상의 이름 등을 호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주가 말이나 어떠한 행동 등으로 대상으로 하여금 자신이 있는 쪽으로 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29)-(ii)에서와 같은 사건 구조와 ‘가다/오다’의 사건 구조가 결합하는 것으로 상정된다.

(29) ‘부르다’

a. 선생님이 철수를 불렀다.

(i) [x ACT<CALL> y]

(ii) [[x ACT<CALL> y] CAUSE [y GO [TO x]]]

(30) a. 어머니가 집에|집으로 의사를 불러 왔다.

b. 어머니가 집에|집으로 의사를 불러서 *(의사가) 왔다.

(31) ‘불러 오다(가다)’

V1: [[x ACT<CALL> y] CAUSE [y GO [TO x]]]

|

V2: [~~y GO [TO z]~~] INCH [y BECOME <BE-AT z>]]

V1+V2: [[x ACT<CALL> y] CAUSE [y BECOME <BE-AT z>]]

‘불러 오다(가다)’는 행동주가 대상을 부른 사건이 원인 사건이 되어 대상이 이동하여 행동주가 있는 곳, 즉 착점에 있게 되는 사건을 나타내므로, 행동주가 내포된 V1의 전건이 연쇄동사 구문의 전건으로 실현된다. V1 ‘부르다’는 행동주는 이미 착점에 존재해 있고 대상만이 행동주가 있는 착점으로 이동하게 되는 사건으로, V1의 대상의 이동을 나타내는 후건은 대상의 처소 변화가 일어난 결과 상태를 내포하고 있는 V2의 하위 사건으로 통합되어 연쇄동사 구문의 후건으로 실현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들여 가다(오다)’, ‘옮겨 가다(오다)’, ‘보내 오다’, ‘불러 오다(가다)’와 같이 V1의 하위 사건과 V2의 하위 사건 간에 일대일 대응 관계는 아니나 의미적으로 내포되는 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에는 ‘-(어)서’ 구문과 교체가 불가능하며 V1의 사건과 V2의 사건이 분리가 불가능한 하나의 복합 사건을 나타내게 된다.

5.2.2. 병렬적 합성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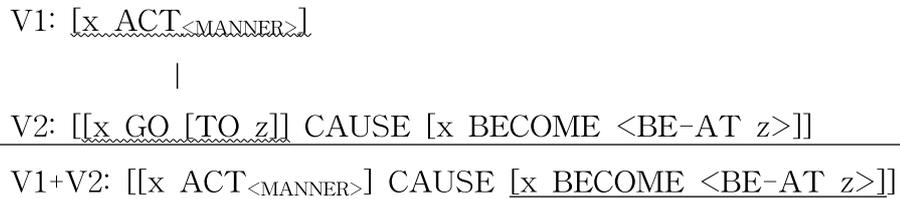
사건 구조에서의 ‘병렬적 합성 유형’은 ‘부분적 병렬 합성(Partial Summation)’ 유형과 ‘부가적 병렬 합성(Adjunctive Summation)’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5.2.2.1. 부분적 병렬 합성

‘걷다’, ‘달리다’ 등과 같이 이동의 방식을 나타내는 양태 동사(manner verb)는 변화가 없는 하나의 하위 사건으로 구성된 단순 사건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 또는 움직임의 결과로 어떠한 결과 상태가 일어났는지를 함의하지 않는다.

- (32) a. 철수가 학교에 걸어 갔다.
 b. 철수가 학교에 걸어서 갔다.

(33) ‘걸어 가다(오다)’



‘걸어 가다’의 V1 ‘걷다’는 이동의 방식을 나타내는 양태 동사로 $[x \text{ ACT}_{\langle \text{WALK} \rangle}]$ 의 사건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 $\text{ACT}_{\langle \text{WALK} \rangle}$ ’는 이동을 나타내는 V2 ‘가다’의 $[x \text{ GO } [TO \ z]]$ 사건 구조의 ‘GO’와 ‘이동’이라는 동일한 기초 영역(ontological) 범주에 속하는 함수이며 이러한 함수의 행동주 논항은 ‘이동의 주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또한 ‘x가 걷다’가 참이면 ‘x가 가다/오다’가 참이나 그 역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걷는($\text{ACT}_{\langle \text{WALK} \rangle}$)’ 행위는 ‘가는(GO)’ 행위를 함의하나 ‘가는’ 행위는 ‘걷는’ 행위를 반드시 함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행동주가 동일한 이동의 주체이고, V1의 사건 함수가 V2의 사건 함수를 함의하는 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에는 V2의 전건의 하위 사건 $[x \text{ GO } [TO \ z]]$ 가 V1의 $[x \text{ ACT}_{\langle \text{WALK} \rangle}]$ 사건으로 통합된다. 이러한 V1은 전건의 하위 사건으로 V2 ‘가다/오다’의 이동 방식을 나타내게 되며 변화가 없는 단순 사건에서 V2의 행동주나 대상이 착점으로 이동한 결과 상태가 포함된 하위 사건을 사건 구조 내에 도입하게 되면서 하나의 복합 사건 구조를 갖게 된다. 연쇄동사 구문의 전건으로 통합된 V1의 사건으로 V2에 의해 도입된 하위 사건 내의 착점으로 이동하게 된 하나의 사건을 나타낸다. 이렇게 V1이 V2의 이동의 방식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32b)에서와

같이 ‘-(어)서’와도 교체가 가능하다.

‘따라 가다’의 V1 ‘따르다’는 ‘건너 가다(오다)’류와 같이 V1이 경로 논항을 취하는 동사는 아니나 행동주가 대상을 따라 이동하는 사건을 나타내는 경우로, V2 ‘가다/오다’와 동일한 GO 함수를 갖는 이동 사건으로 표상된다. 두 동사의 사건 구조가 결합할 때, 그러한 동일한 함수 GO는 하나로 통합되고 서로 다른 경로 함수는 V2의 무표적인로 함수 TO가 V1의 유표적인 경로 함수로 통합되어 연쇄동사 구문의 전건으로 실현된다. ‘따라 가다(오다)’의 V1 ‘따르다’는 V2 ‘가다/오다’와 결합하면서 처소 변화가 일어난 결과 상태를 내포하는 하위 사건을 사건 구조 내에 새로이 도입하게 된다는 점에서 ‘건너 가다(오다)’류와 사건 구조의 합성 방식이 다르다.

- (34) a. 아이가 시장에 엄마를 따라 갔다.
b. ?아이가 엄마를 시장에 따라 갔다.
c. 아이가 시장에 엄마를 따라서 갔다.
d. *아이가 엄마를 시장에 따라서 갔다.

(35) ‘따라 가다(오다)’

V1: [x GO [AFTER y]]

|

V2: [[x GO [TO z]] CAUSE [x BECOME <BE-AT z>]]

V1+V2: [[x GO [AFTER y]] CAUSE [x BECOME <BE-AT z>]]

(35)의 V1 ‘따르다’는 행동주(x)가 대상(y)을 따라 이동하는 단순 사건을 나타낸다. ‘따라 가다(오다)’는 ‘걸어 가다(오다)’와 마찬가지로 단순 사건에서 V2 ‘가다/오다’와 결합하여 착점으로 이동하게 된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하위 사건을 도입하게 되어 복합 사건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따라 가다(오다)’는 (34c)와 같은 어순에서는 ‘-(어)서’와의 교체가 허용되지만 그렇다고 V1과 V2가 단순히 시간적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일어난 계기적 사건을 나타낸다고는 볼 수 없다. 행동주(x)가 대상(y)을 따라 이동한 사건은 곧 행동주와 대상이 함께 동시에 이동하였음을 의미하나 V1의 사건이 행동주가 착점에 있게 되는 원인 사건이 되므로 (34b)에서와 같이 ‘자리 바꾸기’가 일어난 경우에는 어색한 문장이 된다.

‘찾아 가다(오다)’의 V1 ‘찾다’는 유세진 외(2008)¹¹⁹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찾는 행위’ 또는 ‘찾은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완성 사건의 중의적인 상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36)에서와 같이 지속 시간 부사구 ‘-동안’과 시간 부사틀 ‘-만에’와 모두 공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찾다’의 이러한 상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36) ‘찾다’

(i) [x ACT<SEARCH> y]

- a. 아이가 한 시간 동안 잃어버린 장난감을 찾았다.
- b. 아이가 한 시간 동안 엄마를 찾았다.

(ii) a. [[x ACT<SEARCH> y] CAUSE [y BECOME <BE-AT x>]]

- b. [[x ACT<SEARCH> y] CAUSE [x BECOME <BE-AT PLACE-OF y>]]
- a. 아이가 한 시간 만에 잃어버린 장난감을 찾았다.
- b. 아이가 한 시간 만에 엄마를 찾았다.

그런데 ‘찾다’가 행동주가 어떠한 대상을 ‘찾은’ 결과 사건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무정물이나 유정물이나에 따라 결과를 내포하는 하위 사건이 (36)-(ii)에서와 같이 달라질 수 있다. (36)-(iia)는 ‘아이가 장난감을 찾은 결과로 장난감이 아이에게 있게 된’ 사건을 나타내고 (36)-(iib)는 ‘아이가 엄마를 찾게

119) 유세진, 최윤희, 이정민(2008)에서는 한국어 ‘찾다’가 ‘찾고 있다/찾는다/찾았다’와 같이 공기하는 비종결 어미에 따라 ‘찾다’의 상이 달라짐을 지적하고 Pustejovsky(1995)의 생성 어휘부(Generative Lexicon) 이론에서 제시하는 의미 구조를 이용하여 ‘찾다’가 나타내는 사건 유형을 분석하였다. ‘찾다’의 사건 구조에 ‘찾고자 노력하는 행위(과정)’와 ‘찾은 완료된 결과 상태(달성)’의 두 가지 사건을 이루는 상적 의미가 공존하며, 사건의 중점이 명세되어 있지 않아 두 가지 상적 의미를 하나로 통합하여 하나의 ‘완성’ 사건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 (i) 찾다1: 탐색하다, 추구하다(행위) → ‘-고 있-’, ‘-는-’
- 찾다2: 발견하다(달성) → ‘-았/었-’

본고에서도 ‘찾다’를 ‘찾는 행위’와 ‘찾은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상보적 다의어로 본다. 그러므로 ‘철수가 선생님을 찾았다’와 같은 문장은 ‘철수가 선생님을 아직 찾지 못한 상태로 이리저리 다니는 중’이거나 ‘이미 철수가 선생님을 찾은 결과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찾다’가 취하는 논항 구조에 따라 [NP1-가 + NP-2를 + V]의 논항 구조를 갖는 2항 술어 ‘찾다1’과 [NP1-가 + NP3-에서 + NP-2를 + V]의 3항 술어 ‘찾다2’로 구분한다.

된 결과 상태로 아이가 엄마가 있는 곳에 있게 된' 사건을 나타낸다.

아래의 '철수가 학교에 선생님을 찾아 갔다'와 같은 문장에서 '찾다'는 '철수가 선생님을 찾으러 또는 만나러 선생님이 계신 학교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때는 (36)-(iib)와 같은 사건 구조를 갖는 '찾다'와 V2 '가다/오다'가 결합한 경우로 볼 수 있다.

- (37) a. 철수가 학교에|학교로 선생님을 찾아 갔다.
 b. *철수가 학교에|학교로 선생님을 찾아서 갔다.

(38) '찾아 가다1(오다)'

V1: [[x ACT<SEARCH> y] CAUSE [x BECOME <BE-AT PLACE-OF y>]]

V2: [[x GO [TO z]] CAUSE [x BECOME <BE-AT z>]]

V1+V2: [[[x ACT<SEARCH> y] WITH [x GO [TO z]]] CAUSE
 [x BECOME <BE-AT PLACE-OF y>]]

'찾아 가다1'의 V1과 V2의 전건은 각각 행위와 이동으로, 하나로 통합될 수는 없으나 행동주가 대상을 찾아 이동하는 사건으로 V1의 행위와 V2의 이동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기 때문에 V1의 전건과 V2의 전건이 동시성을 나타내는 추가 연산자 WITH에 의해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연쇄동사 구문의 전건으로 실현된다. 그런데 V1의 대상이 있는 곳은 곧 V2의 착점과 동일한 곳으로, 무표적인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V2의 후건이 유표적인 V1의 후건으로 통합되어 실현된다. 이러한 '찾아 가다1'은 행동주(x)가 대상(y)을 찾아 착점(z)으로 가는 사건으로 인해 행동주(x)가 착점인 대상(y)이 있는 곳에 있게 되는 사건을 나타낸다. '찾아 가다1'은 (37b)에서와 같이 '-(어)서' 구문과 교체가 가능하지 않다. 이는 '철수가 선생님을 찾은 상태에서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철수가 선생님이 계신 학교로 가서 선생님을 찾게 되거나 만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불러 가다(오다)', '끌러 가다(오다)', '잡혀 가다(오다)', '실려 가다(오다)' 등의 피동형 V1과도 '가다/오다'의 사건 구조가 부분적인 병렬 합성 방식으로 합성된다.

'불러 가다(오다)'의 V1 '불리다'는 앞서 밝혔듯이, '행동주가 대상으로 하여금 행동주 자신이 있는 곳으로 대상이 오도록 하는 것'을 함의하므로 (40)에서와

같이 사건 구조 내에 명시적으로 대상이 행동주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하위 사건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행동주가 있는 곳은 대상이 이동하여 있게 되는 착점과 동일하다(V1의 [TO x] = V2의 [TO z]). 이때 행동주를 포함한 원인 사건이 되는 전건의 하위 사건은 사건 구조의 합성시 드러나지 않게 되는 (demoted) 하위 사건으로 피동형의 사건 구조에서 후건의 하위 사건과 대상이 행동주가 있는 착점으로 이동하는 V2 ‘가다/오다’의 전건의 하위 사건이 하나로 통합되고 V2의 후건이 연쇄동사 구문의 후건으로 병렬적으로 합성되어 실현된다. 이러한 ‘불러 가다’는 행동주에 의해 불린 대상이 행동주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 행동주가 있는 착점에 있게 되는 사건을 나타낸다.

- (39) a. 철수가 교무실에|교무실로 선생님에게 불러 갔다.
 b. 철수가 교무실에|교무실로 선생님에게 불려서 갔다.

(40) ‘불러 가다(오다)’

V1: [~~x~~ ACT<CALL> ~~y~~]¹²⁰ CAUSE [y GO [TO x]]

V2: [[y GO [TO z]] CAUSE [y BECOME <BE-AT z>]]

V1+V2: [~~[[x ACT<CALL> y] CAUSE [y GO [TO x]]]~~

CAUSE [y BECOME <BE-AT z>]]

‘끌려 가다(오다)’의 경우에는 V1 ‘끌리다’의 사건 구조 내에 ‘불러 가다(오다)’와 같이 대상이 이동하게 되는 착점을 명시적으로 내포하고 있진 않다. 그런데 대상이 행동주에 의해 끌리는 사건은 행동주가 대상을 자신 쪽으로 끌어 따라 오게 하는 것을 함의함으로써 행동주가 암시적인(implicit) 착점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행동주에게로 이동한 대상이 행동주와 함께 이동하는 사건을 나타내므로 (42)에서와 같이 표상된다.

- (41) a. 범인이 경찰서에|경찰서로 박 형사에게 잡혀 갔다.
 b. 범인이 경찰서에|경찰서로 박 형사에게 잡혀서 갔다.

(42) ‘끌려 가다(오다)’

120) 피동형의 사건 구조에서 행동주를 포함한 하위 사건은 사건 구조 합성시 어휘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demoted) 의미에서 점선으로 표시하여 표상한다.

V1: [~~x~~ ACT_{<PULL>} ~~y~~] CAUSE [y GO [WITH x]]
V2: [[y GO [TO z]] CAUSE [y BECOME <BE-AT z>]]
V1+V2: [[~~x~~ ACT_{<PULL>} ~~y~~] CAUSE [y GO [WITH x]]
CAUSE [y BECOME <BE-AT z>]]

대상이 행동주와 함께 이동하게 됨을 나타내는 V1의 후건은 대상의 이동을 나타내는 V2 ‘가다/오다’의 전건과 하나로 통합되고 V2의 후건이 연쇄동사 구문의 후건으로 병렬적으로 합성되어 실현된다.

‘잡혀 가다(오다)’, ‘실려 가다(오다)’는 V1이 착점에 있게 된 결과 상태를 하위 사건으로 내포하고 있다. 다만 ‘잡히다’의 경우는 그 착점이 행동주이고 ‘실리다(오다)’의 착점은 무정물이라는 차이가 있다.

- (43) a. 범인이 경찰서에|경찰서로 박 형사에게 잡혀 갔다.
b. 범인이 경찰서에|경찰서로 박 형사에게 잡혀서 갔다.

(44) ‘잡혀 가다(오다)’

V1: [~~x~~ CAUSE [y BECOME <BE-AT x>]]
V2: [[y GO [TO z]] CAUSE [y BECOME <BE-AT z>]]
V1+V2: [[~~x~~ CAUSE [y BECOME <BE-AT x>]]
CAUSE [y BECOME <BE-AT z>]]

- (45) a. 철수가 병원에 구급차로|구급차로 병원에 실려 갔다.
b. 철수가 병원으로 구급차에|구급차에 병원으로 실려 갔다.
c. 철수가 병원에 구급차로 실려서 갔다.
d. *철수가 구급차에 병원으로 실려서 갔다.

(46) ‘실려 가다(오다)’

V1: [~~x~~ ACT_{<LOAD>} ~~y~~] CAUSE [y BECOME <BE-AT w>]]
V2: [[y GO [TO z]] CAUSE [y BECOME <BE-AT z>]]
V1+V2: [[~~x~~ ACT_{<LOAD>} ~~y~~] CAUSE [y BECOME <BE-AT w>]]
CAUSE [y BECOME <BE-AT z>]]

이러한 ‘잡혀 가다(오다)’, ‘실려 가다(오다)’의 사건 구조 합성 방식도 위에서 살펴본 ‘불려 가다(오다)’, ‘끌려 가다(오다)’의 합성 방식과 다르지 않다. 대상이 착점으로 이동하게 된 결과 상태는 대상이 착점으로 이동함을 나타내는 V2 ‘가다/오다’의 전건을 함의하므로 하나로 통합시키고 V2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후건을 병렬적으로 합성하여 연쇄동사 구문의 사건 구조를 구성하게 된다.

‘몰아 가다(오다)’의 V1 ‘몰다’는 앞서 논항 구조의 합성 유형에서 밝혔듯이, 방향을 나타내는 ‘-로’나 착점을 나타내는 ‘-에’를 취하며 행동주가 대상을 특정한 장소나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사건을 나타낸다. 이러한 ‘몰다’는 행동주가 대상을 착점을 향해 이동하게 하는 사건을 나타내기는 하나 그것이 반드시 대상을 착점에 있게 하는 결과 상태를 내포하지 않을 수도 있다.

(47) a. 철수가 30분 동안 소를 축사로|*축사에 몰았다.

a'. *철수가 30분 만에 소를 축사로|축사에 몰았다.

b. *우리 편 선수가 30분 동안 상대 선수를 구석에|구석으로 몰았다.

b'. 우리 편 선수가 30분 만에 상대 선수를 구석에|구석으로 몰았다.

(48) a. 철수가 축사로 소를 몰았는데 소가 옆길로 빠져 나갔다.

b. ??철수가 구석으로|구석에 상대 선수를 몰았는데

그 선수가 옆으로 빠져 나갔다.

(47)에서와 같이 ‘몰다’가 취하는 처소 논항에 따라 지속 부사구 ‘-동안’과 결합할 수도 있고 시간 부사들 ‘-만에’와도 공기할 수 있다. 또한 (48a)와 같은 문장에서는 ‘행동주가 대상을 착점 방향으로 몰았으나 행동주가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갔다’는 문장이 이어질 수 있다. (48b)와 같은 문장에서는 대상이 행동주에 의해 착점에 몰려 있다가 다른 방향으로 이탈했다는 의미이지 행동주가 대상을 착점으로 모는 과정 중에 다른 곳으로 이탈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러한 ‘몰다’는 V2 ‘가다/오다’와 결합하면서 행동주가 대상을 착점으로 몰고 동시에 행동주가 대상과 함께 착점으로 이동하게 되는 사건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51)에서와 같이 하위 사건 내에 대상의 처소 이동의 결과 상태를 내포하는 사건과 대상이 단순히 이동만 하게 된 두 가지 사건 구조를 모두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49) a. 우리 편 선수가 상대 선수를 구석으로|구석에 몰아 갔다.
 b. 우리 편 선수가 구석으로|구석에 상대 선수를 몰아 갔다.
 c. 우리 편 선수가 구석으로|구석에 상대 선수를 ??몰아|몰면서 갔다.

- (50) a. 철수가 소를 축사로|축사에 몰아 갔다.
 b. 철수가 축사로|축사에 소를 몰아 갔다.
 c. 철수가 축사로 소를 몰아|몰면서 갔다.

(51) ‘몰아 가다(오다)’

- a. V1: [[x ACT<DRIVE> y] CAUSE [y BECOME <BE-AT z>]]
 | |
 V2: [[x GO [TO z]] CAUSE [x BECOME <BE-AT z>]]

 V1+V2: (i) [[[x ACT<DRIVE> y] WITH [x GO [TO z]]
 CAUSE [x⊕y BECOME <BE-AT z>]]
 ⇒ (ii) [[[[x ACT<DRIVE> y] CAUSE [y BECOME <BE-AT z>]]
 WITH [x GO [TO z]]] CAUSE [x⊕y BECOME <BE-AT z>]]

- b. V1: [[x ACT<DRIVE> y] CAUSE [y MOVE [TO z]]]
 | |
 V2: [[x GO [TO z]] CAUSE [x BECOME <BE-AT z>]]

 V1+V2: [[[x ACT<DRIVE> y] WITH [x GO [TO z]]]
 CAUSE [x⊕y BECOME <BE-AT z>]]

우선 두 사건 구조 모두 V1 ‘몰다’의 전건과 V2 ‘가다/오다’의 전건은 동일한 사건 함수로 이루어 있지 않으며 사건 함수 간에 함의 관계도 성립되지 않으므로 하나로 통합될 수 없다. 또한 ‘몰아 가다(오다)’는 V1 ‘몰다’의 행위가 행동주가 대상을 특정한 착점이나 방향으로 이동하게 하는 행위를 나타내지만 그렇다고 ‘들여 가다(오다)’, ‘옮겨 가다(오다)’와 같이 V1의 행위로 행동주와 대상이 반드시 동일한 착점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몰아 가다’의 행동주는 대상을 움직이게 하면서 이동하는 동시적 행위를 하는 개체로 행동주가 대상을 착점으로 이동하게 하는 V1의 전건과 행동주가 착점으로 이동하는 V2의 전건이 동시성을 나타내는 WITH에 의해 병렬적으로 합성되어 연쇄동사 구문의 전

건을 이루게 된다. V1의 후건과 V2의 후건은 동일한 처소 착점(z)으로 이동하는 결과 상태를 나타내므로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데 이때 전건에 도입된 동시성을 나타내는 연산자 WITH에 의해 행동주(x)와 대상(y)은 함께 처소 변화를 겪는 개체로 ‘⊕’로 연결되어 후건의 하위 사건의 BECOME 함수의 논항으로 삽입된다.

(51b)는 V1 ‘몰다’가 행동주에 의해 대상이 착점을 향해 단순히 움직이게 되는 즉 처소 변화의 결과 상태를 하위 사건 구조 내에 내포하고 있지 않은 경우이다. 이때는 V1의 후건이 V2의 후건과 같이 결과 상태를 내포하고 있지 않지만 동일한 착점(z)으로 이동하는 사건으로 V1의 후건이 V2의 후건으로 통합되어 연쇄동사 구문의 후건으로 실현된다. 그리하여 이동의 방향을 나타내는 ‘-로’만 허용하던 ‘몰다’도 V2 ‘가다/오다’와 결합하면서 착점으로 이동하게 되는 사건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2.2.2. 부가적 병렬 합성

‘끌어 가다(오다)’¹²¹⁾의 V1 ‘끌다’는 2항 술어이면서 단순 사건을 나타내는 행위 동사로 V1만으로는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로 인해 어떠한 상태나 처소의 변화가 야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나타낼 수 없다. 이러한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V2 ‘가다/오다’와 결합하게 되면 이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복합 사건 구조로 확장된다.

- (52) a. 철수가 창문 앞에|앞으로 의자를 끌어 갔다.
 b. 철수가 의자를 창문 앞에|앞으로 끌어 갔다.
 c. 철수가 창문 앞에|앞으로 의자를 끌어서 갔다.
 d. 철수가 의자를 창문 앞에|앞으로 끌어서 갔다.

121) ‘끌다’와 같은 동사는 그 행위로 인해 어떠한 결과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 과정이나 지속을 나타내는 행위 동사이다. 그런데 ‘끌다’가 ‘철수가 십분 동안 자동차를 끌었다’와 같이 끄는 행위가 십분 동안 지속되었음을 나타낼 수도 있고 ‘(너무 무거워서 보통 사람은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자동차를) 철수가 십분 만에 자동차를 끌었다’의 문장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다른 상적 특성을 나타내는 부사구와의 결합 양상을 볼 때 ‘끌다’가 행위 동사뿐만 아니라 완성 동사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53) ‘끌어 가다(오다)’

V1: [x ACT<PULL> y]

V2: [[x GO [TO z]] CAUSE [x BECOME <BE-AT z>]]

V1+V2: [[[x ACT<PULL> y] WITH [x GO [TO z]]]

CAUSE [x⊕y BECOME <BE-AT z>]]

‘끌어 가다’는 ‘걸어 가다’와 같이 V1과 V2의 사건 함수 간에 함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V1의 전체 사건과 V2의 전건이 통합될 수 없다. ‘끌어 가다’의 V1 ‘끌다’의 행동주는 대상을 ‘끄는 행위’를 하는 주체이고, V2 ‘가다’의 행동주는 이동을 하는 주체로 행동주의 속성이 동일하지 않다. ‘몰아 가다(오다)’와 마찬가지로 V1과 V2가 결합하면서 행동주가 V1의 행위를 하면서 착점으로 이동하는 사건을 나타내게 되므로 동시성을 나타내는 연산자 WITH에 의해 V1과 V2의 전건의 하위 사건이 병렬적으로 결합된다. ‘끌다’는 단순 사건 구조를 갖는 동사로 V2의 결과 상태를 내포한 하위 사건이 연쇄동사 구문의 후건으로 실현되고 ‘몰아 가다(오다)’와 마찬가지로 대상(y)이 행동주(x)와 함께 이동하여 처소 변화를 겪는 개체로 ‘⊕’로 연결되어 후건의 하위 사건의 BECOME 함수의 논항으로 삽입된다. 그리하여 ‘끌어 가다(오다)’는 행동주에 의한 대상의 이동을 나타내던 V1의 단순 사건이 행동주와 대상이 함께 착점으로 이동한 복합 사건을 나타내게 된다. 이와 같이 행동주와 함께 이동하는 대상이 후건의 하위 사건 내에 ‘x⊕y’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V1에 의해 허가되는 대상 논항과 V2 ‘가다/오다’에 의해 도입되는 착점 논항이 서로 ‘자리 바꾸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V1과 V2의 하위 사건이 병렬적으로 합성된 연쇄동사 구문은 (52c)-(52d)에서와 같이 ‘-(어)서’ 구문과도 교체가 가능하다. 이때는 V1의 사건이 행동주가 대상을 이동시킨 방식 또는 양태(manner)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잡아 가다(오다)’, ‘만들어 가다(오다)’, ‘실어 가다(오다)’ 등과 같이 상태 변화나 처소 변화 등과 같은 결과 행위를 나타내는 결과 동사와 ‘가다/오다’가 결합하여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경우에도 ‘끌어 가다(오다)’와 동일한 방식으로 두 동사의 사건 구조가 합성된다.

‘잡아 가다(오다)’의 V1 ‘잡다’는 행동주에 의해 대상이 행동주에게 있게 되는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결과 동사이다. ‘만들어 가다(오다)’의 V1 ‘만들다’는 행동주에 의해 어떠한 결과물이 존재하게 되는 산출 동사로 결과 동사에 포함되는 부류이다. 이러한 V1 ‘잡다’나 ‘만들다’는 V2 ‘가다/오다’와 결합하면서 처소 변

화를 나타내는 결과 상태가 포함된 하위 사건을 사건 구조 내에 도입하게 된다.

- (54) a. 이 형사가 경찰서에|경찰서로 범인을 잡아 갔다.
 b. ?이 형사가 범인을 경찰서에|경찰서로 잡아 갔다.
 c. 이 형사가 경찰서에|경찰서로 범인을 잡아서 갔다.
 d. ?이 형사가 범인을 경찰서에|경찰서로 잡아서 갔다.

(55) ‘잡아 가다(오다)’

V1: [x CAUSE [y BECOME <BE-AT x>]]
 |
V2: [[x GO [TO z]] CAUSE [x BECOME <BE-AT z>]]

 V1+V2: [[[x CAUSE [y BECOME <BE-AT x>]]
 WITH [x GO [TO z]]] CAUSE [x⊕y BECOME <BE-AT z>]]

- (56) a. 영희가 친구네 집에 빵을 만들어 갔다.
 b. ?영희가 빵을 친구네 집에 만들어 갔다.
 c. 영희가 친구네 집에 빵을 만들어서 갔다.
 d. ?영희가 빵을 친구네 집에 만들어서 갔다.

(57) ‘만들어 가다(오다)’

V1: [[x ACT] CAUSE [y BECOME <STATE>]]
 |
V2: [[x GO [TO z]] CAUSE [x BECOME <BE-AT z>]]

 V1+V2: [[[x ACT] CAUSE [y BECOME <STATE>]]
 WITH [x GO [TO z]]] CAUSE [x⊕y BECOME <BE-AT z>]]

이들은 ‘끌어 가다(오다)’와 마찬가지로 V1과 V2가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면서 행동주가 V1의 행위와 이동의 행위를 동시에 하는 주체로, WITH에 의해 V1의 사건과 V2의 전건이 병렬적으로 결합되고 대상 논항(y)은 행동주와 함께 처소 변화를 겪는 개체로 ‘⊕’에 의해 결합되어 후건의 하위 사건의 BECOME 함수의 논항으로 삽입된다. 이들은 V1의 사건 전체와 V2의 전건이 병렬적으로 합성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찾아 가다1(오다)’나 ‘몰아 가다

(오다)'와 다르다. '몰아 가다(오다)'는 V1과 V2의 결과 상태가 동일한 한 착점으로 이동하는 사건을 나타내기 때문에 행동주에 의해 대상이 착점으로 이동한 결과 상태가 일어난 상태에서 행동주가 그 착점으로 이동하는 사건은 상충되어 전건 내에 병렬적으로 결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들은 V1의 사건으로 인해 변화 상태를 겪게 된 대상과 함께 행동주가 이동하는 사건으로 V1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하위 사건이 포함된 사건 전체와 V2의 전건과 병렬적으로 합성되어 연쇄동사 구문의 전건으로 실현된다. '잡아 가다(오다)', '만들어 가다(오다)'도 행동주와 함께 이동하는 대상이 후건의 하위 사건 내에 'x⊕y'로 실현되며 행동주와 대상이 함께 착점으로 이동한 사건을 나타내게 된다. 그런데 이때는 (55b)-(56b)에 서와 같이 V1에 의해 허가되는 대상 논항과 V2 '가다/오다'에 의해 도입되는 착점 논항이 '자리 바꾸기'가 일어나게 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행동주와 대상이 함께 동시에 이동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끌어 가다(오다)'와 동일하다. 그러나 '잡아 가다', '만들어 가다'는 V1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다시 말해 행동주가 '잡은 범인'과, '만든 빵'과 함께 이동하는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지, '범인을 잡으면서' 또는 '빵을 만들면서' 착점으로 이동하는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부류들이 '-(어)서' 구문과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은 행동주가 V1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결과물인 대상과 함께 이동하는 계기적 사건으로 해석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어 가다(오다)'는 V1 '실다'와 V2 '가다/오다'가 하위 사건 내에 착점으로 이동한 처소 변화를 나타내는 결과 상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몰아 가다(오다)'의 합성 방식이 아닌 '잡아 가다(오다)', '만들어 가다(오다)'의 합성 방식을 따른다.

- (58) a. 철수가 트럭에 짐을 실었다.
b. 철수가 새 집에|집으로 갔다.

- (59) a. 철수가 새 집에|집으로 트럭에 짐을 실어 갔다.
b. ?철수가 트럭에 새 집으로 짐을 실어 갔다.
c. 철수가 새 집에|집으로 트럭에 짐을 실어서 갔다.
d. 철수가 트럭에 새 집으로 짐을 실어서 갔다.

(60) '실어 가다(오다)'

V1: [[x ACT<LOAD> y] CAUSE [y BECOME <BE-AT w>]]

|

V2: [[x GO [TO z]] CAUSE [x BECOME <BE-AT z>]]

V1+V2: [[[[x ACT<LOAD> y] CAUSE [y BECOME <BE-AT w>]]

WITH [x GO [TO z]]] CAUSE [x⊕y BECOME <BE-AT z>]]

V1 ‘싣다’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하위 사건 내에 내포된 착점은 대상이 이동하는 처소이고 V2 ‘가다/오다’의 전건의 착점은 행동주가 이동하게 되는 처소이다. ‘실어 가다(오다)’는 V1 ‘싣다’의 사건으로 행동주에 의해 대상이 착점으로 이동하고 다시 그 이동한 대상과 함께 행동주가 착점으로 이동하게 되는 사건을 나타낸다. 이러한 시간적 순서가 반영된 ‘실어 가다(오다)’의 사건 구조는 계기적 사건을 나타내는 ‘-(어)서’와 교체가 가능하다. 동일한 처소 변화를 나타내는 결과 상태를 내포하는 하위 사건을 갖는 V1과 V2가 결합하여 연쇄동사 구문을 이룰 때에는 ‘실어 가다(오다)’와 같이 V1의 사건으로 인해 대상이 착점으로 이동하고 그 착점이 다시 V2 ‘가다/오다’에 의해 이동이 가능한 사건인 경우에만 V1의 사건 전체와 V2의 착점이 병렬적으로 합성된다.

‘가져 가다(오다)’의 경우에 V1 ‘가지다’는 어떠한 대상을 ‘가지고 있는’ 단순 상태(state)나 ‘가지게 된’ 결과 상태(result state)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가져 가다(오다)’는 대상이 행동주에 있게 된 상태로 행동주와 대상이 동시에 착점으로 이동하게 되는 사건으로, 대상과 착점이 서로 ‘자리 바꾸기’가 가능하며 ‘-(어)서’ 구문과 교체가 불가능하다.

- (61) a. 철수가 학교에 우산을 가져 갔다.
 b. 철수가 우산을 학교에 가져 갔다.
 c. *철수가 학교에 우산을 가져서 갔다.
 d. *철수가 우산을 학교에 가져서 갔다.

(62) ‘가져 가다(오다)’

V1: (i) [x CAUSE [y BECOME <BE-IN POSSESSION-OF x>]]

(ii) [y BECOME <BE-IN POSSESSION-OF x>]

V2: [[x GO [TO z]] CAUSE [x BECOME <BE-AT z>]]

V1+V2: (i) [[[x CAUSE [y BECOME <BE-IN POSSESSION-OF x>]]
WITH [x GO [TO z]]] CAUSE [x⊕y BECOME <BE-AT z>]]

(ii) [[[x WITH [y BECOME <BE-IN POSSESSION-OF x>]]
 GO [TO z]] CAUSE [x⊕y BECOME <BE-AT z>]]

‘가져 가다(오다)’의 V1 ‘가지다’가 (62)-(i)와 같이 결과 행위를 나타내는 사건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잡아 가다(오다)’, ‘만들어 가다(오다)’ 등과 마찬가지로 V1의 사건 전체와 V2 ‘가다/오다’의 전건이 연쇄동사 구문의 전건으로 합성되고 V2의 처소 변화를 나타내는 하위 사건이 연쇄동사 구문의 후건으로 합성된다. 또한 V1의 대상은 행동주의 소유가 된 상태로 이동하여 V2에 의해 도입된 처소 변화를 나타내는 하위 사건 내에 있게 되는 대상으로, ‘x⊕y’로 후건의 하위 사건의 BECOME 함수의 논항으로 삽입된다. 그런데 (62)-(ii)와 같이 단순 상태를 나타내는 ‘가지다’와 V2 ‘가다/오다’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V1의 전건의 행동주와 WITH에 의해 병렬적으로 합성된다.

‘찾아 가다1(오다)’, ‘끌어 가다(오다)’와 같이 행위 동사와 V2 ‘가다/오다’의 사건 구조가 합성되는 방식을 앞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행위 동사의 경우에 V1의 행위가 행동주와 대상이 물리적으로 접촉하여 이동하는 경우이냐 아니면 V1의 행위의 결과가 행동주에 내재된 상태에서 이동하는 경우이냐에 따라 V2 ‘가다/오다’의 사건 구조와 결합하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구체물을 대상 논항으로 취하는 ‘끌어 가다(오다)’는 행동주가 구체적인 대상과 물리적으로 접촉한 상태에서 이동을 하는 사건을 나타낸다. 그러나 ‘읽어 가다(오다)’의 경우는 V1의 대상 논항이 물리적인 접촉이 아닌 행동주 내에 내재된 상태에서 이동하는 사건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우에는 V1의 사건 전체와 V2의 전건이 아니라 V2의 행동주 논항(x)과 어떠한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추가 연산자 ‘IN STATE-OF’에 의해 병렬되어 합성된다.

- (63) a. 철수가 학교에 논문 한 편을 읽어 갔다.
 b. ?철수가 논문 한 편을 학교에 읽어 갔다.
 c. *철수가 학교에 논문 한 편을 읽어서 갔다.
 d. *철수가 논문 한 편을 학교에 읽어서 갔다.

(64) ‘읽어 가다(오다)’

V1: [x ACT<READ> V]

↓

V2: [[x GO [TO z]] CAUSE [x BECOME <BE-AT z>]]

V1+V2: [[[x IN-STATE-OF [x ACT<READ> V]] GO [TO z]]

CAUSE [x BECOME <BE-AT z>]]

위와 같이 단순 사건을 나타내는 행위 동사 ‘읽다’가 V2 ‘가다/오다’와 결합하면서 행동주가 V1의 행위의 결과가 내재된 상태에서 착점으로 이동한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복합 사건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읽어 가다(오다)’의 V1의 사건은 V2 ‘가다/오다’와 결합하면서 대상의 물리적 이동이 아닌 행동주의 내재된 상태를 나타내게 되므로 V1과 V2의 사건이 분리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어)서’ 구문과 교체될 수 없으며 대상 논항과 착점이 ‘자리 바꾸기’가 일어난 문장도 어색하다.

앞서 논항 구조의 합성 유형에서 ‘찾아 가다2(오다)’, ‘받아 가다(오다)’ 등과 같이 V1이 행동주와 대상 논항뿐만 아니라 기점 논항을 취하는 3항 술어의 경우에는 V2 ‘가다/오다’와 기점 논항을 공유하며 그것을 하나로 통합시켜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통합적 합성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사건 구조는 ‘잡아 가다(오다)’, ‘만들어 가다(오다)’ 등과 같은 방식으로 V1과 V2의 사건 구조가 합성된다.

- (65) a. 철수가 유실물센터에서/경찰에게서 지갑을 찾아 갔다.
 b. 철수가 지갑을 유실물센터에서/경찰에게서 찾아 갔다.
 c. 철수가 유실물센터에서/경찰에게서 지갑을 찾아서 갔다. - 어디로?
 d. 철수가 지갑을 유실물센터에서/경찰에게서 찾아서 갔다.

- (66) a. 철수가 엄마에게서 용돈을 받아 갔다.
 b. 철수가 용돈을 엄마에게서 받아 갔다.
 c. 철수가 엄마에게서 용돈을 받아서 갔다. - 어디로?
 d. 철수가 용돈을 엄마에게서 받아서 갔다.

(67) ‘찾아 가다2(오다)’^{122), ‘받아 가다(오다)’}

V1: [x CAUSE [[y BECOME <BE-AT x>] [FROM z]]]

V2: [[x GO [FROM z]] CAUSE [x BECOME [OUT-OF z]]]

V1+V2: [[[x CAUSE [[y BECOME <BE-AT x>] [FROM z]]]

WITH [x GO [FROM z]]] CAUSE [x⊕y BECOME [OUT-OF z]]]

‘찾아 가다2’, ‘받아 가다’의 경우에는 V1과 V2의 사건 함수가 동일하거나 함의 관계에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위 사건 간에 내포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도 않으며, V1과 V2의 행동주는 각각 행위의 주체와 이동의 주체로 그 속성이 동일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행동주(x)가 기점(z)으로부터 대상(y)을 취한’ V1의 사건 전체와 이동을 나타내는 V2 ‘가다/오다’의 전건이 WITH에 의해 병렬적으로 합성되어 연쇄동사 구문의 전건으로 합성되고 대상(y)은 행동주(x)와 함께 처소 변화를 겪는 개체로 ‘⊕’에 의해 결합되어 후건의 하위 사건의 BECOME 함수의 논항으로 삽입된다. 그리하여 ‘행동주(x)가 기점(z)으로부터 대상(y)을 취해 그 대상과 함께 행동주가 그 기점(z)으로부터 이동한 사건’을 나타내게 된다. V1의 사건과 V2의 사건이 시간적 순서대로 일어난 것은 사실이나 시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두 사건의 결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찾아 가다2(오다)’, ‘받아 가다(오다)’는 (65c)-(65d)와 (66c)-(66d)에서와 같은 ‘-(어)서’ 구문에서만 ‘어디로?’라는 별도의 착점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들은 V1과 V2가 행동주와 기점 논항을 공유하며 결합한 연쇄동사 구문으로 접속 구문과는 구분되는 부류임을 알 수 있다.

5.2.3. 혼합적 합성 유형

앞서 논항 구조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처소 변화를 함의하지 않는 행로 논항을 취하는 동사들은 V2 ‘가다/오다’와 연쇄동사 구문을 이룰 수 없다. ‘돌아 가다2(오다)’의 V1 ‘돌다2’와 같이 처소 변화를 함의하지 않는 행로를 취하는 동사들은 변화된 결과 상태를 하위 사건 구조 내에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처소 변화가 일어난 결과 상태를 내포하고 있는 V2 ‘가다/오다’의 하위 사건의 속성

122) 여기서 ‘찾아 가다2’는 ‘받아 가다’와 동일하게 전건이 개체로만 이루어진 사건으로 제시하였다. 이때는 ‘찾아 가다1’의 V1의 ‘찾다’와 달리 ‘찾는’ 행위가 드러나는 사건이라기보다 행동주가 기점으로부터 대상을 획득하게 되는 사건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과 상충되어 사건 구조도 하나로 통합될 수 없다.

- (68) a. 철수가 운동장을 돌았다.
b. *철수가 운동장을 돌아 갔다.

- (69) a. V1: [x GO [AROUND z]]
V2: [[x GO [TO z]] CAUSE [x BECOME <BE-AT z>]]
⇒ V1+V2: [[x GO [AROUND z]] CAUSE [x BECOME <BE-AT z>]]

- b. [x GO [AROUND z]]: ‘돌다2’

‘떠 가다(오다)’의 V1 ‘뜨다’의 경우도 다른 대부분의 동사들이 V2 ‘가다/오다’와 결합하면서 변화가 일어난 결과 상태를 사건 구조 내에 도입하여 변화 사건을 나타내게 되는 것과는 달리 V2 ‘가다/오다’와 결합한 이후에 처소 변화가 일어난 하위 사건을 내포하지 않게 된다.

- (70) a. 종이배가 물 위에|물 위로|*물 위를 떴다.
b. 종이배가 물 위에|물 위로|물 위를 떠 간다.

- (71) a. V1: [[x GO [ONTO z]] CAUSE [x BECOME <BE-AT z>]]
V2: [[x GO [TO z]] CAUSE [x BECOME <BE-AT z>]]
⇒ V1+V2: [[x GO [ONTO z]] CAUSE [x BECOME <BE-AT z>]]

- b. [x GO [ONTO z]]: ‘떠 가다(오다)’

(70a)의 ‘뜨다’는 대상이 착점에 있게 된 사건을 나타내는 (71a)와 같은 사건 구조를 갖는다. 그러나 (70b)의 V1 ‘뜨다’는 앞서 논항 구조 합성 유형에서도 밝혔듯이, V2 ‘가다/오다’와 결합하면서 착점 논항이 행로 논항으로 의미역이 달라진다. 이때의 ‘떠 가다’는 대상의 처소 변화가 아닌 ‘종이배가 뜬 상태로 행로를 따라 이동하는 사건’만을 나타낸다. 동일한 속성의 변화 사건을 나타내는 V1과 V2 ‘가다/오다’가 결합하더라도 이렇게 논항의 의미역이 처소 변화를 함의하지 않는 의미역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V2 ‘가다/오다’가 사건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내리다’는 (72b)에서와 같이 ‘내려 가다(오다)’의 형태로만 ‘-를’로 실현되는 처소 논항을 취할 수 있다. 이때 ‘내려 가다(오다)’의 논항 구조상에 ‘-를’로 실현된 처소는 단순한 행로를 나타낼 수도 있고 처소 변화를 함의하는 경로를 나타낼 수도 있다.

(72) a. *철수가 비탈길을 내렸다.

b. 철수가 비탈길을 내려 갔다.

(73) a. 철수가 30분 동안 비탈길을 내려 갔다.

b. 철수가 30분 만에 비탈길을 내려 갔다.

(74) ‘내려 가다(오다)’

(i) [x GO [DOWNWARD z]]

(ii) [[x GO [DOWNWARD z]] CAUSE [x BECOME <AT-END-OF z>]]

(73)에서와 같이 ‘내려 가다(오다)’는 행위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동안’과 주어진 시간 내에 그 행위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만에’와 모두 공기할 수 있다. ‘-동안’과 공기하는 경우에는 (74)-(i)와 같이 행로를 따라 이동하는 의미를 나타내며 ‘-만에’와는 (74)-(ii)와 같이 행동주가 ‘비탈길’을 따라 이동하여 ‘비탈길’이 끝나는 지점에 도착하게 된 사건을 나타낸다.

‘다녀 가다1(오다)’는 논항 구조상에서는 V1 ‘다니다’가 착점을 나타내는 ‘-에’를 취할 수 있으며 이때는 V2 ‘가다/오다’가 취하는 착점 논항 ‘-에’와 하나로 통합되어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통합적 합성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그런데 ‘다니다’와 ‘다녀 가다(오다)’가 나타내는 의미가 다름을 앞서 지적하였듯이, ‘다니다1’이 ‘가다/오다’와 결합하면서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의 유형이 달라진다.

(75) a. 철수는 허리 때문에 병원에 다닌다.

b. 철수는 허리 때문에 병원에 다녀 갔다.

(76) a. ‘다니다’: [x GO<REGULARLY> [TO z]]

b. ‘다녀 가다(오다)’

: [[[x GO [TO z]] & [x GO [FROM z]]]

CAUSE [x BECOME NOT <BE-AT z> (ANY MORE)]]

‘다니다’는 특정한 장소를 주기적으로 드나드는 사건을 나타내는데 ‘가다/오다’와 결합하게 되면 (76b)와 같이 행동주가 그 착점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이동하여 이제 더 이상 그 착점에 있지 않게 되는 일회적인 사건을 나타내게 된다.

‘-를로’로 실현되는 행로를 취하는 ‘다니다’의 경우에는 ‘가다/오다’와 결합할 수 없다.

(77) a. 철수는 지하철을 타러 이 길을|길로 자주 다닌다.

b. *철수는 지하철을 타러 이 길을|길로 자주 다녀 갔다.

이는 앞서 살펴본 ‘돌다’와 마찬가지로 V1과 V2 ‘가다/오다’가 취하는 처소 논항의 속성이 서로 상충되어 하나로 통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몰려 가다(오다)’도 논항 구조상에서는 V1 ‘몰리다’와 V2 ‘가다/오다’가 취하는 착점을 나타내는 ‘-에로’ 논항이 하나로 통합되어 연쇄동사 구문을 이룬 통합적 합성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그런데 ‘몰리다’가 ‘가다/오다’와 결합하면서 본래 동사가 나타내는 변화 사건의 유형이 달라진다. ‘몰리다’는 행동주의 이동에 의해 처소의 상태가 변화된 사건을 나타내는데 V2 ‘가다/오다’와 결합한 이후에는 행동주가 착점으로 이동하는 사건을 나타내게 된다.

(78) a. 학생들이 매점에|매점으로 몰렸다.

b. 학생들이 매점에|매점으로 몰려 갔다.

c. 학생들이 매점에|매점으로 몰려서 갔다.

(79) a. ‘몰리다’: [[[x GO [TO z]] CAUSE [z BECOME <STATE>]]]

상태 변화

b. ‘몰려 가다(오다)’

: [[[x GO<TOGETHER> [TO z]] CAUSE [x BECOME <BE-AT z>]]]

처소 변화

(78a)의 ‘몰리다’는 처소 논항인 ‘매점’이 상태 변화를 겪는 대상으로 해석되는데

(78b)의 ‘몰려 가다’의 문장에서는 주어 자리에 실현된 행동주 논항이 처소 변화를 겪는 대상으로 해석되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처소 이동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하위 사건은 V2 ‘가다/오다’에 의해 연쇄동사 구문의 후건으로 결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1 ‘몰려-’는 (78c)에서와 같이 ‘몰려서 가다’와도 교체 가능하다는 점을 볼 때, V2 ‘가다/오다’와 결합한 이후에 ‘사람들이 여럿이 한꺼번에 무리를 지어 가는’ 이동의 방식이나 양태(manner)를 나타내는 수식어로 통합되게 된다.

피동형이 결합된 ‘밀려 가다(오다)’의 경우는 V1 ‘밀리다’만으로도 (80)에서와 같이 대상이 행동주나 외부에 의해 힘을 받아 움직이게 된 사건을 나타낸다. 그런데 (81)과 같이 ‘가다/오다’와 결합한 이후에는 주어 자리에 실현된 대상 논항을 밀리게 한 원인인 ‘-에게’로 실현되는 행동주 논항을 허용하지 않게 된다. ‘밀려 가다(오다)’는 (82)와 같이 이동의 방향을 나타내는 ‘-로’만 허용한다. 그런데 ‘밀리다’가 취하는 ‘-로’는 (80a)에서와 같이 ‘앞/뒤(쪽)’ 또는 ‘오른쪽/왼쪽’과 같은 방향을 나타내는 명사가 아닌 (82a)에서와 같이 처소를 나타내는 단순 명사와는 공기하지 않아 (82a)와 같은 문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82b)의 ‘밀려 가다(오다)’의 문장에서 ‘-로’의 실현이 가능한 것은 (82c)의 문장이 성립되는 것으로 볼 때, ‘가다/오다’에 의해 실현되는 이동의 방향을 나타내는 처소 논항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때 V1 ‘밀려-’는 이동의 방향을 나타내는 동사로 합성되는 것이 아니라 ‘몰려 가다’와 같이 V2 ‘가다/오다’와 결합하면서 ‘사람들이 여럿이 한꺼번에 무리를 지어 가는’ 이동의 방식이나 양태(manner)를 나타내며 사건 구조상에서 논항이 아닌 수식어로 합성된다.

- (80) a. 차가 갑자기 서는 바람에 승객들이 전부 앞쪽으로|앞으로 밀렸다.
 b. 차가 갑자기 서는 바람에 승객들이 전부 앞쪽으로|앞으로 밀려 갔다.

- (81) a. 나는 수많은 인파에 밀려 길을 잃어 버렸다.
 a'. *나는 수많은 인파에 밀려 가 길을 잃어 버렸다.
 b. 만원 버스에서 철수는 사람들에게 밀려 저절로 안쪽으로 들어갔다.
 b'. *만원 버스에서 철수는 사람들에게 밀려 가 저절로 안쪽으로 들어갔다.

- (82) a. *한국의 월드컵 4강 진출 소식을 접하고 환호에 찬 사람들은 정신없이 시청 광장으로 밀렸다.

- b. 한국의 월드컵 4강 진출 소식을 접하고 환호에 찬 사람들은 정신없이 시청 광장으로 밀려 갔다.
- c. 한국의 월드컵 4강 진출 소식을 접하고 환호에 찬 사람들은 정신없이 시청 광장으로 갔다.

(83) (i) ‘밀려 가다’: (80b)

V1: [[x ACT<PUSH> y] CAUSE [y GO [TOWARD]]]

V2: [[y GO [TO z]] CAUSE [y BECOME <BE-AT z>]]

V1+V2: [[[x ACT<PUSH> y] CAUSE [y GO [TOWARD]]]

CAUSE [y BECOME <BE-AT z>]]

(ii) ‘밀려 가다’: (82b): [y GO<TOGETHER> [TO z]]

5.2.4. 정리: [V1+어+V2{가다/오다}]의 사건 구조 합성 유형

‘가다/오다’가 다른 동사들과 결합하여 연쇄동사 구문을 이룰 때, 두 동사의 사건 구조가 합성되는 방식을 (1) 병렬적 합성 유형: 부분적 병렬 합성, 부가적 병렬 합성, (2) 통합적 합성 유형: 완전 통합, 내포 통합 (3) 혼합적 합성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병렬적 합성 유형은 V2 ‘가다/오다’와 결합하면서 하위 사건 내에 ‘이동하게 된 결과 상태’ <BE-AT z>를 새로이 도입하게 되는 유형이다. 그런데 V1과 V2의 하위 사건 간에 함의 관계가 성립되어 하나로 통합되는 성분이 있는 경우는 ‘부분적 병렬 합성’으로, 통합되는 요소가 없이 V1과 V2가 원래 가지고 있던 하위 사건들이 한 하위 사건이 다른 하위 사건으로 부가되어 결합되는 경우는 ‘부가적 병렬 합성’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걸어 가다’, ‘따라 가다’, ‘찾아 가다1’, ‘몰아 가다’ 등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끌어 가다’, ‘잡아 가다’, ‘만들어 가다’, ‘실어 가다’, ‘찾아 가다2’, ‘가져 가다’, ‘읽어 가다’ 등이 있다.

통합적 합성 유형은 V1이 하위 사건 내에 V2와 동일한 속성의 처소 변화를 나타내는 결과 상태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로, 그러한 V1과 V2의 하위 사건을 하나로 통합하여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경우이다. 통합적 합성 유형은 ‘완전 통합’과 ‘내포 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들어 가다’, ‘건너 가다’, ‘올라 가다’,

‘떠나 가다’ 등과 같이 V1과 V2의 하위 사건이 완전히 일치하거나 사건 함수 간에 함의 관계가 성립되어 전건-전건, 후건-후건이 각각 대응되어 연쇄동사 구문의 사건 구조를 구성하는 경우는 ‘완전 통합’ 유형에 해당된다. ‘들여 가다’, ‘보내 오다’, ‘불러 가다(오다)’ 등과 같이 V2의 하위 사건과 V1 전체 사건 간에 내포적 관계를 맺고 있어 하나가 다른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는 ‘내포 통합’ 유형으로 분류된다.

마지막 혼합적 합성 유형은 ‘돌다2’, ‘다니다2’와 같이 V1과 V2의 사건 구조 내에 포함된 하위 사건의 [±처소 변화]의 속성이 상충되어 하나의 사건 구조로 통합될 수 없거나 ‘떠 가다’, ‘내려 가다’와 같이 V1이 취하는 처소 논항과 V2가 결합된 연쇄동사 구문에서 취하는 처소 논항의 의미역이 달라져 사건 구조가 하나로 통합되지 않는 경우들이 해당된다. 또한 ‘다녀 가다1’, ‘몰려 가다’, ‘밀려 가다’와 같이 V1이 V2 ‘가다/오다’와 결합하면서 연쇄동사 구문의 사건 구조 내에 방식이나 양태(manner)로 사건 통합 방식이 변하는 부류들도 혼합적 합성 유형에 해당된다.

5.3. [V1+어+V2{주다}] 연쇄동사 구문의 사건 구조 합성 유형

‘주다’가 구성하는 연쇄동사 구문의 사건 구조의 합성 유형도 V1의 하위 사건과 V2의 하위 사건이 일대일로 대응되어 하나로 통합되는 통합적 합성 유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5.3.1. 통합적 합성 유형

5.3.1.1. 완전 통합

‘입혀 주다’, ‘먹여 주다’, ‘건네 주다’, ‘보내 주다’, ‘알려 주다’, ‘던져 주다’ 등은 V1이 V2와 동일한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복합 사건 구조를 갖는 경우로, 사건 구조 내에 원인 사건과 결과 사건이 일대일로 대응되어 하나로 통합되는 ‘완전 통합’ 유형에 해당된다.

(84) V1: [[x/x ACT] CAUSE [y BECOME <BE-AT z>]]

| |

V2: [x CAUSE [y BECOME <BE-AT z>]]

V1+V2: [[x/x ACT] CAUSE [y BECOME <BE-AT z>]]

[[[x/x ACT] CAUSE [y BECOME <BE-AT z>]]

BECOME BENEFACTIVE TO z/w]

‘입혀 주다’, ‘먹여 주다’와 같이 V1이 사동동사인 경우에는 행동주에 의해 대상이 착점 논항 ‘-에게’로 반드시 이동하게 된 결과 상태를 나타내며, V2 ‘주다’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하위 사건과 하나로 통합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대로 ‘-(어)서’에 의해 두 동사의 사건이 분리되어 해석될 수 없다.

(85) a. 아빠가 아이에게 옷을 입혀 주었다.

b. *아빠가 아이에게 옷을 입혀서 주었다.

c. *아빠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으나, (아이가) 입지 않았다.

d. *아빠가 아이에게 옷을 입혀 주었으나, (아이가) 입지 않았다.

e. 아빠가 엄마를 위해/엄마 대신 아이에게 옷을 입혀 주었다.

(86) a. 아빠가 아이에게 밥을 먹여 주었다.

b. *아빠가 아이에게 밥을 먹여서 주었다.

c. *아빠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으나, (아이가) 먹지 않았다.

d. *아빠가 아이에게 밥을 먹여 주었으나, (아이가) 먹지 않았다.

e. 아빠가 엄마를 위해/엄마 대신 아이에게 밥을 먹여 주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85e)-(86e)와 같이 행동주가 대상을 착점에 이동시킨 V1의 사건이 착점이나 ‘-(를) 위해’ 또는 ‘대신’으로 문장 내에 실현될 수 있는 개체에 수혜가 되는 사건을 나타낼 수도 있다.

‘건네 주다’, ‘보내 주다’와 같이 전달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는 V1만으로는 그 행위의 결과를 반드시 함의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어)서’ 구문과는 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입혀 주다’, ‘먹여 주다’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87) a. 철수가 영희에게 명함을 건네 주었다.

- b. *철수가 영희에게 명함을 건네서 주었다.
- c. 철수가 영희에게 명함을 건넸으나, 영희가 받지 않았다.
- d. *철수가 영희에게 명함을 건네 주었으나, 영희가 받지 않았다.

- (88) a. 철수가 영희에게 편지를 보내 주었다.
 b. *철수가 영희에게 편지를 보내서 주었다.
 c. 철수가 영희에게 편지를 보냈으나, 영희가 받지 못했다.
 d. *철수가 영희에게 편지를 보내 주었으나, 영희가 받지 못했다.

(89) ‘건네 주다’, ‘보내 주다’

V1: (i) [x CAUSE [y BECOME <BE-AT z>]]

(ii) [x CAUSE [y GO [TO z]]]

|

V2: [x CAUSE [y BECOME <BE-AT z>]]

V1+V2: [x CAUSE [y BECOME <BE-AT z>]]

(89)-(ii)와 같이 V1만으로는 그 결과 상태를 반드시 함의하지 않는 사건 구조를 가질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V1의 후건이 V2의 결과 상태를 내포하고 있는 후건으로 통합된다. 그리하여 V1이 V2 ‘주다’와 결합하여 행동주에 의해 대상이 착점에 있게 된 결과 상태를 나타내게 된다.

‘알려 주다’는 V1이 추상물을 대상 논항으로 취하는 경우로, 앞서 후행절에서 선행절의 결과 상태를 번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알려 주다’도 V1의 하위 사건이 V2 ‘주다’의 하위 사건 내로 통합되는 방식으로 사건 구조가 합성된다고 볼 수 있다.

- (90) a. 철수가 영수에게 결혼 소식을 알려주었다.
 b. *철수가 영수에게 결혼 소식을 알려서 주었다.
 c. *철수가 영수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으나, 영수는 알지 못했다.
 d. *철수가 영수에게 결혼 소식을 알려 주었으나, 영수는 알지 못했다.

(91) ‘알려 주다’

V1: (i) [[x ACT] CAUSE [y BECOME <BE-AT AWARENESS-OF z>]]

(ii) [[x ACT] CAUSE [y MOVE [ON AWARENESS-OF z]]]

|

V2: [x CAUSE [y BECOME <BE-AT z>]]

V1+V2: [[x ACT] CAUSE [y BECOME <BE-AT AWARENESS-OF z>]]

위와 같이 ‘건네 주다’, ‘알려 주다’ 등이 V1만으로는 결과 상태를 내포하지 않는 하위 사건을 갖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해도 V2 ‘주다’와 결합하여 구체물 또는 추상물의 대상이 착점에 있게 된 결과 상태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모두 ‘-(어)서’에 의해 두 동사가 분리된 사건으로 해석될 수 없는 동시적 사건을 나타낸다.

5.3.1.2. 내포 통합

‘주다’의 ‘내포 통합’ 유형은 V1과 V2의 하위 사건 내에 결과 상태가 ‘부분-전체’의 관계로, ‘부분’이 ‘전체’로 내포되어 통합되는 경우이다.

앞서 논한 구조에서 V1의 착점 논항 ‘-에’와 V2 ‘주다’의 착점 논항 ‘-에게’가 ‘부분-전체’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는 사건 구조상에서도 V1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하위 사건이 V2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하위 사건의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상되며 V1의 결과 상태가 V2의 결과 상태로 내포되어 통합된다.

(92) a. 철수가 영희에게 목걸이를 걸어 주었다.

b. *철수가 영희에게 목걸이를 걸어서 주었다.

(93) a. 엄마가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 주었다.

b. *엄마가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서 주었다.

(94) a. 엄마가 아이에게 연고를 발라 주었다.

b. *엄마가 아이에게 연고를 발라서 주었다.

(95) ‘걸어 주다’, ‘덮어 주다’, ‘발라 주다’

V1: [[x ACT<ROOT>] CAUSE [y BECOME <BE-AT PART-OF z>]]

|

V2: [x CAUSE [y BECOME <BE-AT z>]]

V1+V2: [[x ACT<ROOT>] CAUSE [y BECOME <BE-AT z>]]

이러한 ‘내포 통합’ 유형에 속하는 ‘걸어 주다’, ‘덮어 주다’, ‘발라 주다’ 등도 ‘완전 통합’의 유형들과 마찬가지로 ‘-(어)서’ 구문과 교체가 불가능하다. 즉 이들이 V1과 V2의 사건이 분리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3.1.3. 부분 흡수 통합

‘내포 통합’ 방식은 의미적으로 포함 관계가 성립되는 V1과 V2의 하위 사건이 통합되는 방식이라면, ‘부분 흡수 통합’은 V1의 사건과 V2의 사건의 유형이 어떠한 의미적 함의 관계도 맺고 있지 않으나 V1의 사건이나 그 결과가 V2 ‘주다’에 의해 착점에 전달되는 사건을 나타내는 경우의 통합 방식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V1의 사건 전체나 후건의 하위 사건이 V2의 후건의 대상 의미항(y)으로 합성된다.

‘웃어 주다’의 V1 ‘웃다’는 몸짓이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로 개체로만 이루어진 단순 사건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우에는 V1과 V2 ‘주다’가 서로 행동주 외에는 공유하는 논항이 없고 V2 ‘주다’에 의해 결과 상태를 내포한 하위 사건을 도입하게 된다.

(96) a. 아이가 엄마에게 웃어 주었다.

b. *아이가 엄마에게 웃어서 주었다.

(97) ‘웃어 주다’

V1: [x ACT<SMILE>]

↓

V2: [x CAUSE [y BECOME <BE-AT z>]]

V1+V2: [x CAUSE [[x ACT<SMILE>] BECOME <BE-AT z>]]

‘웃어 주다’는 V1의 ‘웃는’ 행위 자체가 V2 ‘주다’와 결합하면서 착점으로 이동

되는 대상으로 V1의 사건 전체가 V2의 하위 사건 내에 대상(y)으로 통합되어, V1의 ‘읽어 주다’ 행위의 결과물이 ‘행동주(x)에 의해 착점(z)에 전달되는 사건을 나타낸다.

‘읽어 주다’와 ‘열어 주다’는 논항 구조상에서 ‘-를’로 실현되는 대상 논항을 공유하지만 V1의 논항 구조와 V2의 논항 구조의 단순한 합에 의해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가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앞서 언급하였다.

(98) a. 철수가 동생에게 책을 읽어 주었다.

b. *철수가 동생에게 책을 읽어서 주었다.

(99) ‘읽어 주다’

V1: [x ACT<READ> y]

↓

V2: [x CAUSE [y BECOME <BE-AT z>]]

V1+V2: [x CAUSE [[x ACT<READ> y] BECOME <BE-AT z>]]

‘읽어 주다’가 나타내는 사건은 ‘철수가 책을 소리 내어 읽음과 동시에 그 읽은 행위로 인해 산출되는 내용물이 철수에 의해 동생에게 전달되는 사건’으로 V1의 사건 전체가 V2 ‘주다’의 사건에서 전달 대상이 되는 대상(y)으로 통합되어 합성된다. V1과 V2가 나타내는 각각의 사건이 분리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기 때문에 (98b)와 같이 ‘-(어)서’ 구문과도 교체가 불가능하다.

‘열어 주다’도 ‘읽어 주다’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구체물이 아닌 V1의 사건의 결과물이 행동주에 의해 착점에 전달 또는 이동되는 사건을 나타내며 ‘읽어 주다’와 동일한 방식으로 V1과 V2의 사건 구조가 합성된다.

(100) a. 철수가 영희에게 문을 열어 주었다.

b. *철수가 영희에게 문을 열어서 주었다.

(101) ‘열어 주다’

V1: [[x ACT] CAUSE [y BECOME <OPEN>]]

↓

V2: [x CAUSE [y BECOME <BE-AT z>]]

V1+V2: [x CAUSE [[[x ACT] CAUSE [y BECOME <OPEN>]]
 BECOME <BE-AT z>]]

‘열어 주다’는 행동주 ‘철수’에 의해 V1의 ‘문을 연’ 사건의 결과로 ‘문이 열린 상태’가 착점으로 실현된 ‘영희’가 그 사건의 결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희에게’ 주어지게 되는 사건을 나타낸다.

‘갈아 주다2(기저귀를)’는 행동주에 의해 대상이 단순히 다른 것으로 바뀐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으로 바뀔과 동시에 그 대상이 착점에 있게 되는 사건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우에도 V1의 행위의 결과가 착점 논항에 전달되는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

- (102) a. 아빠가 아이에게 기저귀를 새 것으로 갈아 주었다.
 b. *아빠가 아이에게 기저귀를 새 것으로 갈아서 주었다.
 c. 아빠가 엄마 대신/엄마를 위해 아이의 기저귀를 새 것으로 갈아 주었다.

(103) ‘갈아 주다2’

V1: [[x ACT<CHANGE>] CAUSE [y BECOME <CHANGED> [INTO w]]]
 V2: [x CAUSE [y BECOME <BE-AT z>]]]

V1+V2: (i) [[x ACT<CHANGE>] CAUSE [[y BECOME <CHANGED> [INTO w]] BECOME <BE-AT z>]]
 ⇒ (ii) [[x ACT<CHANGE>] CAUSE [[y BECOME <CHANGED> [INTO w]] & [y BECOME <BE-AT z>]]]
 ⇒ (iii) [[[x ACT<CHANGE>] CAUSE [y BECOME <CHANGED> [INTO w]] BECOME BENEFACTIVE TO z]

‘갈아 주다2’는 행동주에 의해 대상이 다른 상태의 대상으로 바뀌고 그것이 단순히 착점으로 이동하는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3)-(ii)에서와 같이 별개의 두 하위 사건이 시간의 순서대로 이어진 계기적 사건으로 해석될 수 없다. V1의 행위를 나타내는 전건이 연쇄동사 구문의 전건으로 실현되고 여기에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V1의 후건이 V2의 후건의 대상(y)으로 통합되어 연쇄동사 구문의 후건으로 실현된다. 그런데 (102c)와 같이 V1의 사건으로 대상이 다른 것으로 바뀌는 사건이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잠재적 수용자 ‘아이의’나

‘-(를) 위해’ 또는 ‘대신’으로 문장 내에 도입될 수 있는 개체에 수혜가 되는 사건을 나타낼 수도 있다.

앞서 ‘나눠 주다’는 V1 ‘나누다’가 대칭 동사로 쓰인 경우(‘나누다2’)에 V2 ‘주다’와 결합하면서 배분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고 하였다.

(104) a. 철수가 동생과/친구들과 빵을 나누었다.

b. *철수가 친구들에게 빵을 나누었다.

c. 철수가 친구들에게 빵을 나눠 주었다.

d. ?철수가 친구들에게 빵을 나눠서 주었다.

(105) a. 홍보 직원이 사람들에게 기념품을 나눠 주었다.

b. *홍보 직원이 사람들에게 기념품을 나눠서 주었다.

(106) ‘나눠 주다2’

V1: [[x ACT<DIVIDE> y] CAUSE [y BECOME [BETWEEN/AMONG z]]]

V2: [x CAUSE [y BECOME <BE-AT z>]]]

V1+V2: [[x ACT<DIVIDE> y] CAUSE

[[y BECOME [AMONG z]] BECOME <BE-AT z>]]

이러한 ‘나눠 주다2’는 ‘-(어)서’에 의해 분리가 가능한 두 동사의 단순한 합에 의해 도출된 의미가 아니다. 먼저 V2 ‘주다’는 전건이 개체로만 이루어져 행위를 나타내는 유표적인 V1의 전건으로 통합되어 연쇄동사 구문의 전건으로 실현된다. V1의 후건의 하위 사건은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V2의 하위 사건 내의 대상(y)으로 통합되어 ‘행동주에 의해 대상이 사람들에게 나눠어져 각 사람에게 있게 된’ 사건을 나타내게 된다.

이와 달리 ‘나누다’가 아래와 같이 대상의 형태 변화를 야기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V1과 V2 ‘주다’의 결과 상태를 내포하는 각각의 하위 사건이 병렬적으로 합성된다. 즉 행동주가 대상 ‘빵’을 반으로 나누고 난 다음에 그것을 착점에게 이동 또는 전달한 사건을 나타낸다. 이러한 병렬식 합성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절에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다.

(107) a. 철수가 빵을 반으로 나누었다.

- b. 철수가 동생에게 빵을 주었다.
- c. 철수가 동생에게 빵을 반으로 나눠 주었다.
- d. 철수가 동생에게 빵을 반으로 나눠서 주었다.

(108) ‘나눠 주다1’

V1: [[x ACT<DIVIDE> y] CAUSE [y BECOME <INTO w>]]

V2: [x CAUSE [y BECOME <BE-AT z>]]

V1+V2: [[x ACT<DIVIDE> y] CAUSE [[y BECOME <INTO w>]
& [y BECOME <BE-AT z>]]]

5.3.2. 병렬적 합성 유형: 부분적 병렬 합성

‘주다’가 단순 사건의 행위 동사와 결합하거나 또는 V1이 변화된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더라도 그러한 결과 상태를 내포한 하위 사건이 V2 ‘주다’의 하위 사건과 서로 통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건은 하나로 통합하되 후건의 하위 사건은 병렬적으로 통합되어 연쇄동사 구문의 사건 구조를 구성한다.

‘밀어 주다’의 V1 ‘밀다’는 단순 사건을 나타내는 행위 동사로, 다른 곳으로 이동이 가능한 속성의 대상을 취하는 경우에는 V2 ‘주다’와 결합하면서 행동주에 의해 대상이 착점으로 이동한 사건을 나타낸다.

- (109) a. 철수가 카트를 밀었다.
 b. 철수가 영희에게 카트를 주었다.
 c. *철수가 영희에게 카트를 밀었다.
 d. 철수가 영희에게 카트를 밀어 주었다.
 e. 철수가 영희에게 카트를 밀어서 주었다.

(110) ‘밀어 주다(카트를)’

V1: [x ACT<PUSH> y]

V2: [x CAUSE [y BECOME <BE-AT z>]]

V1+V2: [[x ACT<PUSH> y] CAUSE [y BECOME <BE-AT z>]]

이때의 ‘밀어 주다’는 ‘걸어 가다(오다)’의 경우와 동일한 양상으로 두 동사의 사건 구조가 합성된다. 행위를 나타내는 유표적인 V1의 전건이 V2의 개체와 통합되고 V2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하위 사건이 병렬적으로 합성되어 연쇄동사구문의 사건 구조를 구성한다. 이때의 V1 ‘밀다’는 V2 ‘주다’와 결합하면서 대상을 착점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109e)에서와 같이 ‘-(어)서’와도 교체가 가능하다.

그런데 앞서 제시하였듯이, ‘밀다’가 대상 논항으로 취하는 구체물이 제한된 범주 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가능하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때는 ‘밀다’가 ‘주다’와 결합하여도 그 대상이 다른 착점으로 이동하였다는 의미를 나타낼 수 없으며 결과 상태를 내포한 ‘주다’의 하위 사건과 통합되지 않는다.

- (111) a. 아빠가 아이의 그네를 밀었다/밀어 주었다.
 b. *아빠가 아이에게 그네를 밀었다/밀어 주었다.
 c. *아빠가 아이의 그네를 밀어서 주었다.
 d. 아빠가 엄마를 대신해/엄마를 위해 아이의 그네를 밀어 주었다.

(112) ‘밀어 주다(그네를)’

V1: [x ACT<PUSH> y]

V2: [x CAUSE [y BECOME <BE-AT z>]]

V1+V2 ⇒ (i) [[x ACT<PUSH> y] CAUSE [y BECOME <BE-AT z>]]

⇒ (ii) [[x ACT<PUSH> y] BECOME BENEFACTIVE TO z]

이때에는 문장 내에 속격(genitive)으로 실현된 개체나 ‘-(를) 위해’ 또는 ‘대신’으로 문장 내에 도입될 수 있는 개체에 수혜가 되는 사건만을 나타낼 수 있다.

‘던져 주다’는 앞서 제시한 ‘완전 통합’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어)서’ 구문과 교체가 가능하며 V1만으로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어났음을 반드시 함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V1과 V2의 사건 구조가 다른 방식으로 합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113) a. 철수가 영희에게/영희를 향해 공을 던졌다.
 b. 철수가 영희에게 공을 던져 주었다.

- c. 철수가 영희에게 공을 던져서 주었다.
- d. 철수가 영희에게 공을 던졌으나, 영희가 받지 못했다.
- e. ?철수가 영희에게 공을 던져 주었으나, 영희가 받지 못했다.

(114) ‘던져 주다’

V1: [x ACT<THROW> y (TOWARD z)]
 V2: [x CAUSE [y BECOME <BE-AT z>]]

 V1+V2: [[x ACT<THROW> y (TOWARD z)] CAUSE
 [y BECOME <BE-AT z>]]

‘던지다’는 ‘완전 통합’ 유형에 속하는 다른 부류들과 달리 ‘-(를) 향해’와도 공기가 가능하며 결과 상태를 내포하지 않는 사건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101)과 같은 사건 구조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때는 앞서 살펴본 ‘밀어 주다’와 같이 행위를 나타내는 유표적인 V1의 전건이 V2의 개체와 통합되고 V2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하위 사건이 병렬적으로 합성되어 연쇄동사 구문의 사건 구조를 구성한다. 그리하여 ‘행동주가 착점을 향해 대상을 ‘던진’ 행위가 착점에 있게 하는’ 사건을 나타낸다. 이때는 ‘밀어 주다’와 마찬가지로 V1이 V2 ‘주는’ 행위의 방식이나 양태(manner)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만들어 주다’, ‘깎아 주다’는 어떠한 대상을 산출하거나 대상의 상태 변화를 야기하는 동사로 V2 ‘주다’와 동일한 복합 사건 구조를 갖는다. 그러나 후건의 하위 사건 내의 결과 상태가 동일한 속성의 것이 아니므로 하나로 통합될 수 없다.

- (115) a. 철수가 영희에게 빵을 만들어 주었다.
- b. 철수가 영희에게 빵을 만들어서 주었다.

(116) ‘만들어 주다’

V1: [[x ACT] CAUSE [y BECOME <EXIST>]]
 V2: [x CAUSE [y BECOME <BE-AT z>]]

 V1+V2: [[x ACT] CAUSE [[y BECOME <EXIST>]
 & [y BECOME <BE-AT z>]]

- (117) a. 아빠가 아이에게 연필을 깎아 주었다.
 b. 아빠가 아이에게 연필을 깎아서 주었다.

(118) ‘깎아 주다’

V1: [[x ACT<CARVE>] CAUSE [y BECOME <CARVED>]]

V2: [x CAUSE [y BECOME <BE-AT z>]]

V1+V2: [[x ACT<CARVE>] CAUSE [[y BECOME <CARVED>]
 & [y BECOME <BE-AT z>]]]

‘만들어 주다’는 ‘행동주(x)에 의해 어떠한 구체물(y)이 존재하게 되고 그 구체물(y)이 착점(z)에 있게 된 사건’을 나타내게 된다. ‘깎아 주다’는 ‘행동주(x)에 의해 구체물(y)이 깎인 변화 상태를 겪고 그러한 구체물이 착점(z)에 있게 된 사건’을 나타내게 된다. ‘만들어 주다’, ‘깎아 주다’ 모두 V1의 결과 상태로 인해 존재나 상태 변화를 겪은 후에 V2에 의해 이동하게 된 결과 상태를 나타내므로 V1의 하위 사건과 V2의 하위 사건이 ‘&’에 의해 나란히 병렬적으로 합성된다. 이렇게 두 동사의 사건 구조가 병렬적으로 합성되는 경우는 두 개의 사건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일어난 계기적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어)서’ 구문과도 교체가 가능한 것이다.

‘담아 주다’, ‘꺼내 주다’와 같이 V1이 행동주에 의해 구체물이 착점으로 이동하거나 기점에서 이동한 사건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병렬적 합성 방식으로 ‘주다’의 사건 구조와 결합한다.

- (119) a. 철수가 영희에게 바구니에 과일을 담아 주었다.
 b. 철수가 영희에게 바구니에 과일을 담아서 주었다.

(120) ‘담아 주다’

V1: [x CAUSE [y BECOME <BE-AT INSIDE-OF w>]]

V2: [x CAUSE [y BECOME <BE-AT z>]]

V1+V2: [x CAUSE [[y BECOME <BE-AT INSIDE-OF w>]
 & [y BECOME <BE-AT z>]]]

‘담아 주다’의 V1 ‘담다’는 앞서 언급한 대로 ‘행동주(x)에 의해 구체물(y: 내용

물 containee)이 착점(w: 용기 container) 안으로 이동하여 있게 된 사건'을 나타낸다. 이러한 V1의 사건이 V2 '주다'의 처소 이동 사건과 결합하여 V1의 사건으로 착점(w) 안에 있게 된 구체물(y)이 다시 또 다른 착점(z)으로 이동하여 있게 된 사건을 나타내게 된다.

- (121) a. 철수가 조카에게 지갑에서 돈을 꺼내 주었다.
 b. 철수가 조카에게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주었다.

(122) '꺼내 주다'

V1: [x CAUSE [y MOVE [FROM INSIDE-OF w]]]

V2: [x CAUSE [y BECOME <BE-AT z>]]

V1+V2: [x CAUSE [[y MOVE [FROM INSIDE OF w]]
 & [y BECOME <BE-AT z>]]]

'꺼내 주다'의 V1 '꺼내다'는 '행동주(x)에 의해 구체물(y)이 기점(w)으로부터 이동한 사건'을 나타낸다. '꺼내다'는 행동주(x)에 의해 대상(y)이 어떠한 결과 상태 <BE-AT z>를 겪게 되는 종결적(telic) 사건이 아니라 단순히 이동한 비종결적(atelic) 사건을 나타내므로 후건이 [y MOVE [FROM INSIDE-OF w]]와 같이 주어진다. 이러한 '꺼내다'의 사건 구조는 <BE-AT z>라는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하위 사건을 가진 '주다'와 결합하여 '행동주(x)에 의해 대상(y)이 기점(w)으로부터 이동하여 착점(z)에 있게 된' 사건을 나타낸다. 이러한 병렬적 합성 유형에 해당하는 '담아 주다'와 '꺼내 주다'는 V1의 '-에서'와 V2의 '-에'가 병렬적으로 실현되는 논항 구조가 가능하고 '-(어)서' 구문과도 교체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5.3.3. 혼합적 합성 유형

5.3.3.1. V1의 사건 구조 유지, V2 '주다'의 수혜 사건

위에서 살펴본 부류들과 달리 V1이 V2 '주다'와 결합할 때 '주다'의 '처소 이동'의 사건과 병렬적 또는 통합적으로 합성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부류들과 V2 '주다'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V2 '주다'의 수혜적인 사건으로 합성된다.

타내는 경우에도 ‘실어 주다’와 같이 V2 ‘주다’의 수혜 구문과만 결합이 가능하다.

‘치워 주다’의 V1 ‘치우다’는 앞서 살펴본 ‘꺼내 주다’의 V1 ‘꺼내다’와 같이 대상을 기점에서 이동시키는 사건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치우다’는 후건의 하위 사건에 처소 변화의 결과 상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 (126) a. 철수가 영희의 책상에서 책을 치웠다.
 b. 철수가 영희의 책상에서 책을 치워 주었다.
 c. *철수가 영희에게 책상을 치워 주었다.
 d. *철수가 영희의 책상에서 책을 치워서 주었다.
 e. 철수가 영희를 위해/영희 대신 책상에서 책을 치워 주었다.

(127) ‘치워 주다’

V1: [[x ACT<REMOVE>] CAUSE [y BECOME NOT <BE-AT z>]]

‡

V2: [x CAUSE [y BECOME <BE-AT z>]]

V1+V2: [[x ACT<REMOVE>] CAUSE [y BECOME NOT <BE-AT z>]]

⇒ [[[x ACT<REMOVE>] CAUSE [y BECOME NOT <BE-AT z>]]

BECOME BENEFACTIVE TO w]

⇒ [[x ACT<REMOVE>] CAUSE [[y BECOME NOT <BE-AT z>]]

& [y BECOME <BE-AT z>]]]

(128) a. ‘꺼내다’: [y MOVE [FROM INSIDE-OF w]]

b. ‘치우다’: [y BECOME NOT <BE-AT z>]

앞서 논항 구조상에서 동일한 기점 논항 ‘-에서’를 취하는 동사들 간에도 동사가 나타내는 종결성(telicity)의 정도에 차이가 존재함을 밝혔다. ‘치워 주다’의 V1 ‘치우다’는 이미 대상이 이동하여 더 이상 기점에 존재하지 않게 된 결과 상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기점에서 완전히 없어진 대상을 다른 착점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V2 ‘주다’와 결합한다고 해도 그러한 다른 착점으로 이동한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하위 사건과 통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V2 ‘주다’가 (126e)에서와 같이 ‘-(를) 위해’ 또는 ‘대신’으로 문장 내에 실현되는

개체에 수혜적인 사건만을 나타낼 수 있다.

‘벗겨 주다’, ‘풀어 주다’의 V1들도 ‘치우다’와 같이 행동주에 의해 대상이 더 이상 기점에 있지 않게 된 결과 상태를 나타낸다.

- (129) a. 아빠가 아이의 외투를 벗겼다.
b. 아빠가 아이의 외투를 벗겨 주었다.
c. *아빠가 아이에게 외투를 벗겨 주었다.
d. *아빠가 아이의 외투를 벗겨서 주었다.

- (130) a. 교도관이 죄수의 수갑을 풀었다.
b. 교도관이 죄수의 수갑을 풀어 주었다.
c. *교도관이 죄수에게 수갑을 풀어 주었다.
d. *교도관이 죄수의 수갑을 풀어서 주었다.

(131) ‘벗겨 주다’, ‘풀어 주다’

V1: [[x ACT<TAKE OFF>] CAUSE [y BECOME [NOT <BE-AT z>]]]

V2: [x CAUSE [y BECOME <BE-AT z>]]

V1+V2: [[[x ACT<TAKE OFF>] CAUSE [y BECOME [NOT <BE-AT z>]]]

BECOME BENEFACTIVE TO z]

‘벗겨 주다’, ‘풀어 주다’도 ‘치워 주다’와 마찬가지로 V1의 대상이 기점에서 존재하지 않게 된 결과 상태와 V2 ‘주다’의 대상이 착점으로 이동한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하위 사건이 통합될 수 없고 ‘주다’의 수혜적 사건과 결합하게 된다.

‘도와 주다’도 V1 ‘돕다’가 V2 ‘주다’의 처소 이동 사건과 결합할 수 없는 경우이다. ‘도와 주다’의 V1 ‘돕다’가 취하는 대상 논항 ‘영희를’은 V1 ‘돕다’의 행위를 받는 대상이며 V2 ‘주다’와 결합한다고 해도 다른 착점으로 이동이 가능한 대상물이 아니다. 그렇다고 ‘밀어 주다’, ‘던져 주다’와 같이 V1의 행위가 V2 ‘주는’ 행위의 방식으로 합성될 수도 없다.

- (132) a. 철수가 영희를 도왔다.
b. 철수가 영희를 도와 주었다.
c. *철수가 영희에게 도와 주었다.

d. *철수가 영희를 도와서 주었다.

(133) ‘도와 주다’

V1: [x ACT<HELP> y]

V2: [x CAUSE [y BECOME <BE-AT z>]]

V1+V2: (i) [[x ACT<HELP> y] BECOME BENEFACTIVE TO y]

(ii) [[x ACT<HELP> y] BECOME BENEFACTIVE TO w]

⇒ [[x ACT<HELP> y] CAUSE [y BECOME <BE-AT z>]]

이러한 ‘도와 주다’는 대상 논항으로 실현된 ‘영희’에게 수혜적인 사건이거나 ‘-(를) 위해’ 또는 ‘대신’으로 실현될 수 있는 제3자에게 수혜가 되는 사건을 나타낸다.

‘도와 주다’가 V1의 행위를 받는 대상에 긍정적인 수혜 사건을 나타내는 구문이라면 ‘혼내 주다’, ‘때려 주다’ 등은 ‘-를’로 실현된 대상 논항에 부정적인 영향을 입히는 사건을 나타내는 V1과 ‘주다’가 결합한 경우이다.

(134) a. 형이 (나를 위해/나 대신) 철수를 혼냈다.

b. 형이 (나를 위해/나 대신) 철수를 혼내 주었다.

(135) ‘혼내 주다’

V1: [x ACT<PUNISH> y]

V2: [x CAUSE [y BECOME <BE-AT z>]]

V1+V2: (i) [[x ACT<PUNISH> y] BECOME MAL-BENEFACTIVE TO y]

(ii) [[x ACT<PUNISH> y] BECOME BENEFACTIVE TO w]

⇒ [[x ACT<PUNISH> y] CAUSE [y BECOME <BE-AT z>]]

그런데 ‘혼내 주다’는 V1의 사건이 (135)-(i)와 같이 대상 논항에게는 부정적인 사건이지만 (135)-(ii)와 같이 제3자에게는 긍정적인 수혜가 돌아가는 사건을 나타내기도 한다.

‘달려 주다’와 ‘자라 주다’의 V1과 같이 행동주 개체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단순 사건인 경우에도 ‘주다’의 처소 이동 사건과 결합되지 않는다.

- (136) a. 철수가 나를 위해/나 대신 계주로 달렸다.
 b. 철수가 나를 위해/나 대신 계주로 달려 주었다.
 c. *철수가 나에게 계주로 달려 주었다.
 d. *철수가 나를 위해/나 대신 계주로 달려서 주었다.

(137) ‘달려 주다’

V1: [x ACT_{<Manner>}]

V2: [x CAUSE [y BECOME <BE-AT z>]]

V1+V2: [[x ACT_{<Manner>}] BECOME BENEFACTIVE TO w]

⇒ [[x ACT_{<Manner>}] CAUSE [y BECOME <BE-AT z>]]

- (138) a. 철수가 엄마의 바람대로 잘 자랐다.
 b. 철수가 엄마의 바람대로 잘 자라 주었다.
 c. *철수가 엄마에게 잘 자라 주었다.
 d. *철수가 엄마의 바람대로 잘 자라서 주었다.

(139) ‘자라 주다’

V1: [x <STATE>]

V2: [x CAUSE [y BECOME <BE-AT z>]]

V1+V2: [[x <STATE>] BECOME BENEFACTIVE TO w]

⇒ [[x <STATE>] CAUSE [y BECOME <BE-AT z>]]

‘달려 주다’의 V1 ‘달리다’는 이동의 방식을 나타내는 양태 동사(manner verb)이고 ‘자라 주다’의 V1 ‘자라다’는 행동주의 내적인 변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동이 가능한 대상을 하위 사건 내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착점으로 이동하여 있게 되는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주다’의 처소 이동 사건과 결합되지 않고 수혜 사건으로만 통합될 수 있다.

5.3.3.2. ‘-(어)서’ 구문

‘닭아 주다’, ‘저어 주다’의 V1은 단순 사건의 행위 동사인데 부분적 병렬 합성 유형에 속하는 다른 행위 동사들과 다른 방식으로 V2 ‘주다’와 결합한다.

- (140) a. ??철수가 영희에게 구두를 닦아 주었다.
 b. 철수가 영희의 구두를 닦았다/닦아 주었다.
 c. 철수가 영희에게 구두를 닦아서 주었다.

- (141) a. ??철수가 영희에게 커피를 저어 주었다.
 b. 철수가 영희의 커피를 저었다/저어 주었다.
 c. 철수가 영희에게 커피를 저어서 주었다.

(142) ‘닦아 주다’, ‘저어 주다’

V1: [x ACT<ROOT> y]

V2: [x CAUSE [y BECOME <BE-AT z>]]

V1+V2: (i) [[x ACT<ROOT> y(of z)] BECOME BENEFACTIVE TO z]

⇒ (ii) [[x ACT<ROOT> y] CAUSE [y BECOME <BE-AT z>]]

⇒ (iii) [[x ACT<ROOT> y] & [x CAUSE [y BECOME <BE-AT z>]]]

: ‘-(어)서’ 구문

‘닦아 주다’, ‘저어 주다’가 다른 행위 동사들과 같이 V1과 V2의 하위 사건이 병렬적으로 합성되는 (142)-(ii)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방식이다. 그러나 문제는 ‘닦아 주다’나 ‘저어 주다’가 ‘행동주(x)가 대상(y)에 행한 행위가 방식이나 원인이 되어 그 대상(y)을 착점(z)에 있게 한 사건’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병렬적 합성 방식으로 두 동사가 결합된 구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두 동사 사이에 발화상 휴지(pause)나 ‘-(어)서’ 의해 분리된 경우에만 ‘-에게’가 실현이 가능한 것은 (142)-(iii)과 같이 V1과 V2의 사건 전체가 단순히 접속되어 연결된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소절(small clause) 내에서 ‘-에게’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두 동사의 사건 구조가 어휘 의미 구조상에서 합성된 것이 아니라 두 절이 표면 구조상에서 재구조화 등을 통해 도출된 구문으로 볼 수 있다. ‘닦아 주다’, ‘저어 주다’는 (142)-(i)에 제시된 대로 행동주의 V1의 행위로 인해 그 대상의 소유주나 또는 ‘-(를) 위해’, ‘대신’으로 실현 가능한 제3자에게 수혜가 되는 사건을 나타낸다.

는 하위 사건이 V2의 대상 논항(y)으로 내포되어 통합된다. V1의 후건의 하위 사건이 V2의 대상 논항(y)으로 내포되어 통합된다는 점에서 부분 흡수 통합 유형에 해당하는 ‘읽어 주다’, ‘갈아 주다’ 등과 유사하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V1의 행동주가 V2의 착점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구분되므로 혼합적 합성 유형으로 분류한다.

‘팔아 주다’는 앞서 밝힌 대로 V1 ‘팔다’와 V2 ‘주다’가 동일하게 착점 논항 ‘-에게’를 취하나 하나로 통합되지 않는 경우로 사건 구조상에서도 두 동사의 하위 사건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V1의 사건이 ‘대신’, ‘-(를) 위해’와 같은 별도의 개체에 수혜가 되는 사건을 나타낸다.

- (147) a. 철수가 사람들에게 과일을 팔았다.
 b. 철수가 사람들에게 과일을 주었다.
 c. *철수가 사람들에게 과일을 팔아 주었다.
 d. *철수가 사람들에게 과일을 팔아서 주었다.
 e. 철수가 가게 주인 대신 사람들에게 과일을 팔아 주었다.

(148) ‘팔아 주다’

V1: [x CAUSE [[y BECOME <BE-AT z>] [FROM x]]]

V2: [~~x~~ CAUSE [~~y~~ BECOME <BE-AT z>] (~~FROM x~~)]

[[x CAUSE [y BECOME <BE-AT z>]]

BECOME BENEFACTIVE TO w]

V1+V2 ⇒ [x CAUSE [y BECOME <BE-AT z>]]

⇒ [[x CAUSE [y BECOME <BE-AT z>]]

BECOME BENEFACTIVE TO w]

‘팔아 주다’의 V1 ‘팔다’와 V2 ‘주다’는 (148)에서와 같이 동일한 사건 구조를 갖는다. 앞서 이와 같이 두 동사가 동일한 사건 구조를 경우에는 ‘건네 주다’, ‘보내 주다’ 등과 같이 ‘완전 통합’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147c)와 같이 V1 ‘팔다’가 V2 ‘주다’와 결합하면서 착점 논항 ‘-에게’가 실현된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팔아 주다’의 V1 ‘팔다’와 V2 ‘주다’의 행위로 인해 이득을 얻는 개체가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147a)의 ‘팔다’가 나타내는 사건은 행동주인 ‘철수’가 물건을 팔으로써 이득을 얻게 되는 사건이라면

(147b)의 ‘주다’는 대상이 착점인 ‘손님에게’로 이동하여 손님에게 이득이 되는 사건을 나타낸다. 이렇게 두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에서 이득을 얻게 되는 개체가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두 동사가 결합할 때 ‘-에게’로 실현된 착점 논항의 속성이 일치하지 않아 ‘팔아 주다’의 문장 내에서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행동주와 동등하게 V1의 ‘파는’ 행위로 이득을 얻는 것이 가능한 ‘대신’, ‘-(를) 위해’와 같은 별도의 개체에 수혜가 되는 사건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149) a. 철수가 노점상 주인에게서 인형을 샀다.

b. 철수가 영희에게 인형을 주었다.

c. 철수가 영희에게 인형을 사 주었다.

(150) ‘사 주다’

V1: [x CAUSE [[y BECOME <BE-AT x>] [FROM w]]]

V2: [x CAUSE [y BECOME <BE-AT z>](FROM x)]

V1+V2: (i) [x CAUSE [[[y BECOME <BE-AT x>] [FROM w]]

& [y BECOME <BE-AT z>]]]

(ii) [x CAUSE [[y BECOME <BE-AT z>] [FROM w]]]

‘물건을 파는 사건’과 ‘물건을 사는 사건’을 비교해 보면, 물건을 판 것은 물건을 파는 동시에 그 소유권이 모두 착점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런데 물건을 사는 것은 그 물건이 행동주에게로 이동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러한 대상은 다른 착점에게로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사 주다’는 ‘만들어 주다’와 같은 ‘부분적 병렬 합성’ 유형에 해당한다. ‘팔아 주다’와 ‘사 주다’ 두 구문의 V2 ‘주다’와의 사건 구조 합성 방식의 차이는 ‘팔다’와 ‘사다’가 지닌 사건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야기되는 차이로 볼 수 있다.

5.3.4. 정리: [V1+어+V2{주다}]의 사건 구조 합성 유형

V1과 V2 ‘주다’가 결합할 때, ‘주다’의 하위 사건 내에 있는 착점으로 이동한 결과 상태를 내포한 하위 사건을 연쇄동사 구문의 사건 구조 내에 도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처소 이동의 사건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맥락이나 상황적 함축에 의해 수혜적 사건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나 V2 ‘주다’와 결합하면서 그러한 처소 변화를 나타내는 결과 상태를 하위 사건 내에 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의 직접적인 처소 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V1의 행위의 결과나 사건으로 인해 사건 참여자가 수혜를 받게 되는 단순 수혜 사건만을 나타낸다.

V1과 V2 ‘주다’의 사건 구조가 합성되는 방식을 (1) 병렬적 합성 유형: 부분적 병렬 합성, (2) 통합적 합성 유형: 완전 통합, 내포 통합, 부분 흡수 통합 (3) 혼합적 합성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주다’의 사건 구조 합성 유형에서는 ‘가다/오다’와 다르게 V1과 V2의 하위 사건이 통합되는 요소가 없이 병렬적으로만 합성되는 부가적 병렬 합성 유형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V1의 사건 전체가 V2 ‘주다’와 결합하면서 전달되는 사건으로 통합되는 부분 흡수 통합 유형이 추가된다.

먼저 병렬적 합성 유형의 ‘부분적 병렬 합성’은 V1이 단순 사건의 행위 동사이거나 존재 변화, 상태 변화, 처소 변화 등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와 결합할 때, V1과 V2의 전건의 하위 사건은 하나로 통합되고, V1과 V2 ‘주다’의 결과 상태를 내포한 하위 사건이 병렬적으로 결합되어 연쇄동사 구문의 사건 구조를 구성한다. ‘만들어 주다’, ‘깎아 주다’, ‘답아 주다’, ‘꺼내 주다’, ‘밀어 주다’, ‘던져 주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V1이 행위 동사인 경우에는 V2 ‘주다’와 결합하여 ‘주는’ 방식 또는 양태(manner)를 나타내며 V1이 결과 동사인 경우에는 V1과 V2 사건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연결된 계기적 사건으로 해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통합적 합성 유형은 ‘완전 통합’, ‘내포 통합’, ‘부분 흡수 통합’으로 세분화된다. ‘완전 통합’은 V1과 V2 ‘주다’가 동일한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복합 사건 구조를 갖는 경우로, 사건 구조 내에 원인 사건과 결과 사건이 일대일로 대응되어 하나로 통합되는 유형이다. ‘입혀 주다’, ‘먹여 주다’, ‘건네 주다’, ‘보내 주다’, ‘알려 주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내포 통합’ 유형은 ‘걸어 주다’, ‘덮어 주다’, ‘발라 주다’ 등과 같이 V1과 V2의 하위 사건 내에 결과 상태가 ‘부분-전체’의 관계로, ‘부분’이 ‘전체’로 합성되는 경우이다. ‘내포 통합’ 방식은 의미적으로 포함 관계가 성립되는 V1과 V2의 하위 사건이 통합되는 방식이라면, ‘부분 흡수 통합’은 V1의 사건과 V2의 사건의 유형이 어떠한 의미적 함의 관계도 맺고 있지 않으나 V1의 사건이나 그 결과물이 V2 ‘주다’의 대상 의미항(y)으로 흡수 통합 되어 착점에 전달되는 사건을 나타내는 경우의 통합 방식이다. ‘웃어 주

다’, ‘읽어 주다’, ‘열어 주다’, ‘갈아 주다2’, ‘나뉘 주다2’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혼합적 합성 유형에는 ‘도와 주다’, ‘혼내 주다’, ‘달려 주다’, ‘자라 주다’ 등과 같이 V1이 V2 ‘주다’와 공유할 수 있는 대상 논항을 취하지 않는 경우, ‘놓아 주다’와 같이 V1의 착점이 이동이 불가능한 속성의 것이거나 ‘치워 주다’와 같이 V1의 결과 상태를 내포한 하위 사건의 속성 때문에 ‘주다’의 ‘처소 이동’ 사건이 아닌 수혜적 사건 구조와만 합성되는 경우들이 해당된다. 또한 ‘뉘어 주다’, ‘저어 주다’ 등과 같이 두 동사 사이에 발화상 휴지(pause)나 ‘-(어)서’ 의해 분리된 경우에만 ‘-에게’가 실현이 가능한 구문도 있다. ‘바뀌 주다’, ‘팔아 주다’ 등과 같이 V1의 하위 사건 내의 의미항의 속성이 ‘주다’와 결합하면서 착점으로 전환되거나 또는 의미항 속성의 일치 여부에 따라 사건 구조의 합성 방식이 결정되는 경우들이 혼합적 합성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V1과 V2 ‘주다’의 사건 구조 합성시, ‘주다’는 자신과 공유할 수 있는 대상 논항을 취하는 동사들, 산출 동사(‘만들어 주다’), 대상의 상태 변화를 야기하는 동사(‘깎아 주다’), 수여 동사(‘건네 주다’), 이동 동사(‘담아 주다’, ‘꺼내 주다’) 등과 결합하는 경우에, 행동주에 의한 대상의 처소 이동이 일어난 사건을 나타내게 된다. 구체물의 대상 논항뿐만 아니라 추상물이나 V1의 행위의 결과가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읽어 주다’, ‘열어 주다’와 같은 경우에도 ‘주다’의 처소 이동 사건과 결합된다. 이러한 처소 이동 사건은 맥락이나 상황적 함축에 따라 착점으로 실현된 사건 참여자에 수혜가 되는 사건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동일한 의미 부류에 속하는 동사들이라고 해서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담아 주다’, ‘실어 주다’, ‘놓아 주다’와 ‘꺼내 주다’, ‘치워 주다’의 경우만 보더라도 동일한 착점 논항과 기점 논항을 취하는 이동 동사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동일하게 ‘주다’의 처소 이동의 사건 구조와 결합하지는 않는다.

‘담아 주다’는 V1에 의해 대상이 이동하여 있게 된 착점이 이동이 가능한 속성을 지닌 경우로, ‘주다’의 처소 이동 사건 구조와 합성되어 ‘주다’의 착점 ‘-에게’ 논항으로 다시 이동을 겪게 되는 처소 이동 사건을 나타낸다. 그러나 ‘실어 주다’의 경우에는 그것이 취하는 착점 논항이 처소 이동과 함께 소유 이전까지 가능한 것인 경우에만 ‘주다’의 처소 이동 사건과 합성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V1의 행위가 착점의 소유주에 수혜가 되는 사건으로만 해석이 가능하다. ‘놓아 주다’와 같이 이동이 불가능한 속성의 착점 ‘-에’를 취하는 경우에도 ‘주다’의 수혜 사건 구조와만 결합이 가능하다.

‘꺼내 주다’와 ‘치워 주다’는 동일하게 기점 논항을 취하는 부류들이나 V1의 종결성(telicity)의 정도에 따라 결합하게 되는 ‘주다’의 사건 구조가 달라진다. 비종결적(atelic) 사건을 나타내는 ‘꺼내 주다’는 V1에 의해 이동한 대상이 V2 ‘주다’와 결합하면서 다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로 이때는 처소 이동 사건과 합성된다. 그러나 ‘치워 주다’의 경우에는 V1에 의해 대상이 사라지게 된, 종결적(telic) 사건으로 이때는 ‘주다’와 의미상 공유하며 이동 시킬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수혜 구문과만 결합이 가능하다.

사동적 행위를 나타내는 ‘입혀 주다’나 수여 동사에 해당하는 ‘건네 주다’는 V2 ‘주다’와 동일하게 행동주에 의해 대상이 착점에 있게 된 사건을 나타내는 V1이 결합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맥락이나 상황적 함축에 따라 착점 논항이나 ‘대신’, ‘-(를) 위해’로 추가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개체에 수혜적인 사건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갈아 주다’와 같이 V1이 대상이 착점으로 ‘이동’하여 그로 인해 동시에 착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나타내는 결과(행위) 동사인 경우에는 ‘주다’의 처소 이동 구문, 수혜 구문 모두와 합성이 가능하다. ‘밀어 주다’의 경우에는 그것의 대상이 착점으로 이동이 가능한 것인 경우에는 ‘주다’의 처소 이동의 사건과 결합하지만 일정한 범주 내에서 움직임만 가능한 것인 경우에는 처소 이동이 아닌 수혜 구문과만 결합이 가능하다. ‘주다’와 결합하여도 공유할 대상 논항이 없는 2항 술어의 행위 동사나 1항 술어들과는 ‘주다’의 수혜 사건 구조와만 합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로 논항 구조의 합성 방식에서도 ‘주다’와 결합하여도 착점 논항 ‘-에게’를 취할 수 없는 경우들이다.

‘주다’가 결합하는 동사 유형은 단순히 동사의 의미 부류에 따라 구분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사 각각의 의미적 속성에 따라 ‘주다’의 사건 구조와의 결합 여부와 양상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6. 한국어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의 상관성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동사가 문장을 구성할 때, 동사의 의미가 그 문장의 구조 다시 말해 논항들의 통사적 실현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며, 동사의 의미 구조와 통사 구조 간에 일정한 대응 관계가 두 동사가 결합하여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경우에도 유효함을 보이고자 한다.

6.1.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의 대응 관계

동사가 구성하는 문장의 통사 구조가 어휘부로부터 투사된다는 Chomsky(1981)의 ‘투사 원리(Projection Principle)’가 제시된 이후에 의미 구조와 통사 구조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한 의미 구조와 통사 구조의 연결 관계를 보이고자 한 연구들을 소위 ‘연결 이론(Linking Theory)’이라 부른다. 그중 통사 구조와 의미 구조상의 논항들의 위계(hierarchy)와 사상(mapping) 관계를 중심으로 밝히고자 한 대표적인 연구로 앞서 Grimshaw(1990)의 논의를 제시하였다. Jackendoff(1990)¹²³⁾에서는 개념 의미론(Conceptual Semantics)을 통해 어휘 의미 구조를 문법적 의미뿐만 아니라 개념적 의미까지 포함한 어휘 개념 구조(Lexical Conceptual Structure)로 제시하고 그것이 통사 구조와 어떠한 대응 관계를 맺으며 실현되는지를 밝히고 있다. 그는 논항 자리와 통사 자리 간에 모든 연결(linking)은 머릿속의 어휘 항목(lexical entry) 내에서 규정된다고 주장하며 통사 구조 내의 논항과 개념 구조 내의 논항에 지표(index)를 표시하여 동지표화된(coindexed) 관계에 있는 논항들끼리 이른바 ‘논항 융합(Argument Fusion)’에 의해 연결되는 것으로 본다.

123) Jackendoff(1990, 2002)와 Culicover & Jackendoff(2005)에서는 통사부 중심의 생성문법의 구조적 복잡성을 비판하며 ‘언어의 삼분지 평행 구조(tripartite parallel architecture)’를 제시하였다. 이는 음운부, 의미부, 통사부가 모두 대등하게 독립적으로 자율적인 생성 능력을 지닌 영역으로 존재하며, 각각의 층위는 연결/대응 규칙(linking/correspondence rules) 또는 접면 제약(interface constraint)을 통해 상호적으로 연결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에는 의미 구조와 통사 구조 간의 대응 관계를 전제한 Jackendoff(1983, 1990)의 개념 의미론(Conceptual Semantics)이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한정한 2004, 김신희 2009 등).

(1) 논항 융합(Argument Fusion: Jackendoff 1990:264)

: To form the conceptual structure of a syntactic phrase that has been linked with an LCS, fuse the conceptual structure of each indexed syntactic position into the coindexed conceptual constituent in the LCS.

(2) a. 통사 구조(Syntactic Structure)

[_S [_{NP} Bill]_i [_{VP} opened [_{NP} the door]_j]]

b. 어휘 개념 구조(Lexical Conceptual Structure)

[CAUSE ([_{Thing} BILL]_i, [GO ([_{Thing} DOOR]_j, [TO [OPEN]])]]]

Jackendoff(1990)에 따르면, (2)의 통사 구조상의 주어 'Bill'과 개념 구조상의 CAUSE의 첫 번째 논항 'BILL'은 동일한 'i' 지표에 의해, 목적어 'the door'와 CAUSE의 두 번째 논항 'DOOR'는 동일한 'j' 지표에 의해 서로 대응 관계에 있음이 확인된다. 이렇게 개념 구조상의 지표화된 논항과 동일한 지표를 지닌 통사 구조상의 논항이 (1)의 '논항 융합'의 원리에 따라 연결되어 대응되는 것으로 분석한다.¹²⁴⁾

이러한 Jackendoff(1990)식의 연결 이론(Linking Theory)을 따라 한국어의 의미 구조와 통사 구조 간의 대응 관계를 보이게 한 논의로는 양정석(1995), 유형식(1998), 한정환(2004), 김신회(2009), 조경순(2014)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앞서 살펴본 대로 Rappaport Hovav & Levin(1998; 2010)의 사건 도식을 활용하여 동사가 갖는 의미 구조 즉, 사건 구조를 표상하여 제시하였다. 동사의 의미를 '술어 분해(predicate decomposition)' 방식으로 형식화하여 나타낸다는 점에

124) Jackendoff(1990)에서는 이러한 통사 구조와 개념 구조 간의 연결 관계뿐만 아니라 'buy'와 같이 주어가 행동주인 동시에 착점이기도 한, 즉 하나의 통사 논항이 다중 의미역을 갖게 되는 경우에 개념 구조 내의 논항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α , β 를 지표로 도입하기도 한다. 그렇게 지표화된 논항들은 '동지표화된 명사구가 갖는 다른 모든 의미역들은 그 지표화된 개념 성분에 결속된 논항들에 의해서만 실현되어야 한다'는 '연결 조건(Linking Condition: Neo- Θ -Criterion(Jackendoff 1990:64))'에 따라 서로 연결되고 '우세 의미역 원리(Dominant Θ -Role Principle(Jackendoff 1990:249))'에 따라 'buy'의 주어에는 행동주(Actor) 또는 착점(Goal)의 의미역 중에 의미역 위계상 가장 상위에 있는 행동주(Actor)의 의미역이 주어 통사 구조상에 주어로 실현된다고 설명한다.

(i) 'buy' (Jackendoff 1990:6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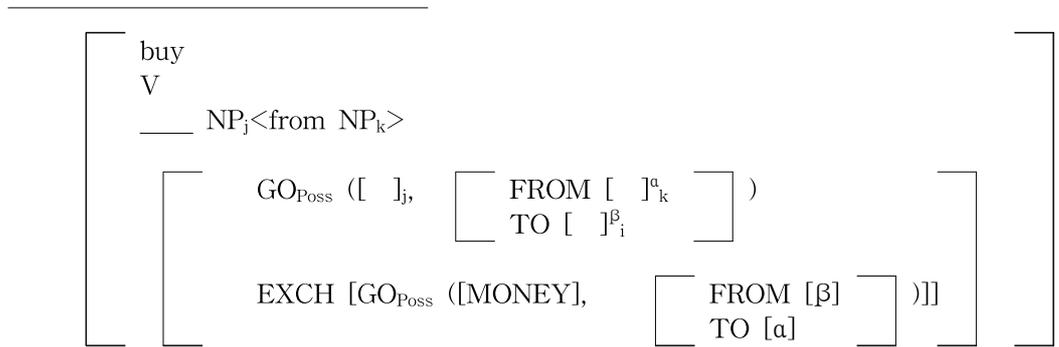
서는 동일하나 Jackendoff(1990)와 같이 통사 구조와 의미 구조 간의 연결을 지표(index)를 이용하여 나타내지는 않는다. Rappaport Hovav & Levin(1998; 2010)의 사건 구조 표상 방식은 그들이 제시한 ‘논항 - 하위 사건 대응 조건 (Argument-Per-Subevent Condition: L&RH 1999:202; RH&L 2001:779)’에 따라 하위 사건마다 통사적으로 대응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논항이 변항(x, y, ...)으로 나타나고 사건 구조 내에 이들의 실현 위치와 연결되는 함수에 의해 외부 논항(주어)과 직접 내부 논항(목적어)과 대응되는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의미 구조와 통사 구조 간의 논항 간에 대응 관계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별도의 지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는 사건 구조(Event Structure)와 논항 구조(Argument Structure) 간에 다음과 같은 대응 관계를 전제로 한다.

(3) 사건 구조(ES)와 논항 구조(AS)의 대응 관계

(i) 사건 구조에서 하위 사건 내의 의미 성분의 변항 ‘x’는 논항 구조의 외부 논항(주어)에, ‘y’는 직접 논항(대상)에, ‘z’는 ‘-에(에게)|에서|로’ 등의 처소 논항에 연결된다.

(ii) 두 동사의 사건 구조가 결합하여 하나의 사건을 이룰 때, 그 사건 구조 내에 동일한 변항은 하나로 결속되어 (i)에 따라 논항 구조의 해당 논항으로 실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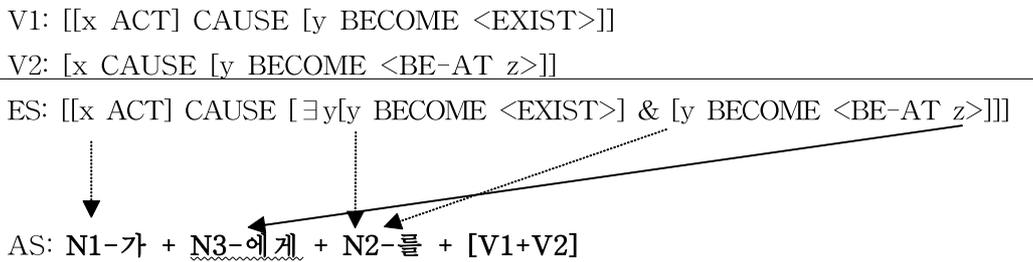
(iii) 추가 연산자(operator)에 의해 의미 해석을 위해 사건 구조 내에서만 결합되는 성분 내의 변항은 전체 사건 구조 내의 동일한 변항에 결속되며 통사 구조의 논항으로 직접적으로 투사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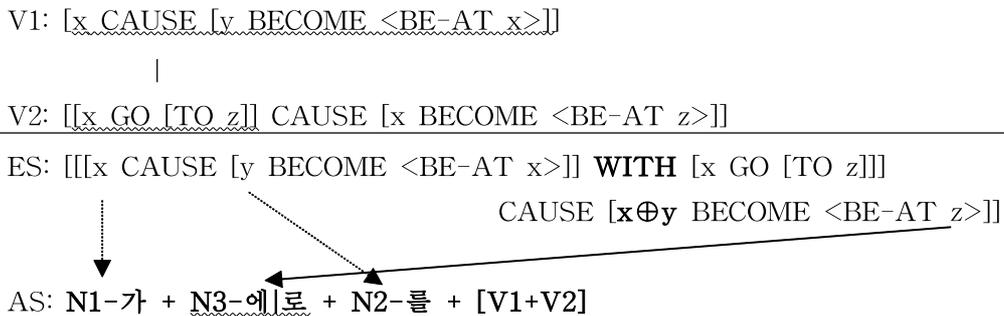
‘주다’의 연쇄동사 구문 중에 ‘만들어 주다’와 같이 V1과 V2의 사건 구조가 결합할 때 V1의 대상의 존재 변화를 나타내는 하위 사건과 V2의 처소 변화를 나타내는 하위 사건이 병렬적으로 합성되면서 V1의 대상 논항과 V2의 대상 논항이 동일한 변항으로 후건의 하위 사건 내에 존재하게 된다. 이때 동일한 변항으로 표상되는 대상 논항은 하나로 결속되어 논항 구조의 해당 논항으로 실현된다.

‘가다/오다’가 결과 행위 동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행동주가 V1의 행위를 하면서 V2의 이동을 동시에 하는 주체로 두 하위 사건이 동시성을 나타내는 WITH에 의해 병렬적으로 합성되어 연쇄동사 구문의 전건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WITH와 같은 추가 연산자에 의해 도입되는 하위 사건은 의미 해석을 위해 사건 구조 내에서만 결합되는 성분이다. WITH에 의해 결합되는 하위 사건 내의 변항은 전체 사건 구조 내의 동일한 변항에 결속되며 통사 구조의 논항으로 직접적으로 투사되는 대상은 아니다.

(4) ‘만들어 주다’



(5) ‘잡아 가다(오다)’



이러한 사건 구조와 논항 구조의 논항 간에 대응 관계뿐만 아니라 논항들이 합성되는 방식에 따라 구분한 합성 유형을 통해서도 사건 구조와 논항 구조 간에

상관성이 존재함을 포착할 수 있다.

6.2. [V1+어+V2{가다/오다}]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의 상관성

‘가다/오다’가 다른 동사들과 결합하여 연쇄동사 구문을 이룰 때,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가 합성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병렬적 합성 유형’, ‘통합적 합성 유형’, ‘혼합적 합성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병렬적 합성 유형’은 V1이 V2 ‘가다/오다’와 결합하면서 논항 구조에 착점 논항을 도입하게 되고 그러한 논항이 사건 구조 내에 <BE-AT__>라는 결과 상태가 포함된 하위 사건으로 도입된다. 다시 말해 V1이 V2 ‘가다/오다’와 결합하면서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가 확장되므로 연쇄동사 구문을 구성하는데 V2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통합적 합성 유형’은 V1과 V2가 결합할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속성의 논항은 하나로 통합시키고 이때 V1의 논항 구조가 V2와 결합한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사건 구조상에서도 V1과 V2의 하위 사건 내에 처소 변화를 나타내는 결과 상태가 하나로 통합되는데 V2보다는 V1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혼합적 합성 유형’에는 V1과 V2의 처소 논항의 속성이 상충되어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상에서 하나로 통합되지 않거나 V2가 결합된 형태로만 쓰이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6) I. 병렬적 합성 유형

⇒ AS: ‘-에|로[착점]’ - ES: 결과 상태 <BE-AT __ > 도입

I-1. 부가적 병렬 합성

(i) AS: N1-가 + N2-를 + V1

⇒ N1-가 + N3-에/로 + N2-를 + V1+어+V2

ES: A'(xy) + [A(x(z)) + B(x<z>)] ⇒ [[A'(xy) • A(x(z))] + [B(x⊕y<z>)]]

[A'(x) + B(y<z'>)] + [A(x(z)) + B(x<z>)]

⇒ [[[A'(x) + B(y<z'>)] • A(x(z))] + [B(x⊕y<z>)]]

I-2. 부분적 병렬 합성

(i) AS: N1-가 + V1 ⇒ N1-가 + N2-에|로 + V1+V2

ES: A'(x) + [A(x(z)) + B(x<z>)] ⇒ [A'(x) + B(x<z>)]

$$\begin{aligned}
& [A'(xy) + B(x<y>)] + [A(x(z)) + B(x<z>)] \\
& \Rightarrow [[A'(xy) \circ A(x(z))] + [B(x<y>)] \\
& [A'(x) + B(y<z>)] + [A(x(z)) + B(x<z>)] \\
& \Rightarrow [[A'(x) \circ A(x(z))] + [B(x\oplus y<z>)]]
\end{aligned}$$

II. 통합적 합성 유형

⇒ AS: '-에|로[착점]', '-를[경로]', '-에서[기점]'

ES: 결과 상태 <BE-AT __ > 통합, 유지

II-1. 완전 통합 - II-1. 완전 통합

$$\begin{aligned}
(i) \text{ AS: } & \text{N1-가} + \text{N2-에|를/에서} + \text{V1} \\
& \Rightarrow \text{N1-가} + \text{N2-에|를/에서} + \text{V1+어+V2} \\
\text{ES: } & [A(x'(z)) + B(x<z>)] + [A(x(z)) + B(x<z>)] \\
& \Rightarrow [A(x'(z)) + B(x<z>)]
\end{aligned}$$

II-1. 완전 통합 - II-2. 내포 통합

$$\begin{aligned}
(i) \text{ AS: } & \text{N1-가} + \text{N3-에|로} + \text{N2-를} + \text{V1} \\
& \Rightarrow \text{N1-가} + \text{N3-에|로} + \text{N2-를} + \text{V1+어+V2} \\
\text{ES: } & [A'(x) + B((x\oplus y)<z>)] + [A(x(z)) + B(x<z>)] \\
& \Rightarrow [A'(x) + B(x\oplus y<z>)]
\end{aligned}$$

$$\begin{aligned}
(ii) \text{ AS: } & \text{N1-가} + \text{N3-에게} + \text{N2-를} + \text{V1} \\
& \Rightarrow \text{N1-가} + \text{N3-에게} + \text{N2-를} + \text{V1+어+V2} \\
\text{ES: } & [A(x) + B(y<z>)] + [A'(y(z)) + B(y<z'>)] \\
& \Rightarrow [A(x) + B(y<z'>)]
\end{aligned}$$

III. 혼합적 합성 유형

⇒ AS: '-를|로[행로]' - ES: 결과 상태 <BE-AT __ > 도입 불가

AS: '-에[착점]' - ES: 수식어 → 논항, 논항 → 수식어

(사건 구조 내 통합 방식 변화)

$$\begin{aligned}
(i) \text{ AS: } & \text{N1-가} + \text{N2-를|로} + \text{V1} \rightarrow \text{N1-가} + \text{N2-*를|로} + [\text{V1+V2}] \\
& \text{N1-가} + \text{N2-에|를|로} + \text{V1} \rightarrow \text{N1-가} + \text{N2-*에|*를|*로} + [\text{V1+V2}] \\
\text{ES: } & [A(x'(z))] + [A(x(z)) + B(x<z>)] \Rightarrow [A(x(z))]
\end{aligned}$$

- (ii) AS: N1-가 + N2-에 + V1 → N1-가 + N2-에|로|를 + [V1+V2]
 ES: [A(x) + B(x<z>)] + [A(x(z)) + B(x<z>)] ⇒ [A(x(z)) + B(x(z/<z>))]
- (iii) AS: N1-가 + N2-에|로|*를 + V1 → N1-가 + N2-에|로|를 + [V1+V2]
 ES: [A(x'(z)) + B(x<z>)] + [A(x(z)) + B(x<z>)] ⇒ [A(x'(z))]
- (iv) AS: N1-가 + N2-를|로|에 + V1 → N1-가 + N2-를|로|에 + [V1+V2]
 ES: [A(x(z))] + [A(x) + B(x<z>)] ⇒ [A'((x(z)) ◦ (x(z)))+ B(x<z'>)]
 [A(x(z)) + B(z<z'>)] + [A(x(z)) + B(x<z>)] ⇒ [A(x'(z)) + B(x<z>)]

이러한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의 합성 유형을 통해 두 동사가 결합하면서 논항 구조에 새로이 도입된 논항은 사건 구조 내에서도 하나의 하위 사건으로 도입되기도 하고 반대로 논항 구조에 변화가 없으면 사건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서로 상관성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의 합성 방식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치하는 경우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6.2.1. 합성 방식이 일치하는 부류

‘걸어 가다’, ‘따라 가다’, ‘찾아 가다1’, ‘끌어 가다’, ‘읽어 가다’, ‘잡아 가다’, ‘만들어 가다’, ‘가져 가다’, ‘실어 가다’ 등은 V1이 V2 ‘가다/오다’와 결합할 때, 사건 구조상에 처소 변화를 나타내는 하위 사건을 도입하게 되며 착점 논항 ‘-에’를 취하게 된다. 그런데 사건 구조상에서는 ‘걸어 가다’, ‘따라 가다’ 등의 경우에는 V2의 전건이 V1의 전건에 함의되는 관계로 V1의 전건으로 통합되어 실현되므로 ‘부분적 병렬 합성 유형’으로 분류되고, ‘끌어 가다’, ‘잡아 가다’ 등은 그러한 함의 관계에 따라 통합되는 요소 없이 V2의 전건에 V1의 사건 전체가 추가 연산자에 의해 병렬적으로 부가되어 결합되는 ‘부가적 병렬 합성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V1의 논항 구조나 사건 구조에는 존재하지 않던 논항이나 하위 사건이 V2와 결합하면서 병렬적으로 결합된다는 점에서 논항 구조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합성되는 부류에 해당된다.

‘건너 가다’, ‘들어 가다’, ‘올라 가다’, ‘떠나 가다’ 등과 같이 V1이 처소 논항을 취하는 경우에 V2 ‘가다/오다’와 동일한 착점 논항 ‘-에’를 취하는 동사이거나 V2 ‘가다/오다’의 착점 논항과 동일한 처소 변화의 속성을 지닌 경로 논항을 취하는 동사인 경우에는 V1과 V2의 처소 논항이 하나로 통합된다. 이러한 경로

동사들은 V2 ‘가다/오다’와 동일하게 이동의 과정과 그로 인한 이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하위 사건으로 구성된 ‘이동(GO)’을 나타내는 사건 구조를 갖는다. 또한 결합하기 이전에 이미 사건 구조 내에 처소 변화가 일어난 결과 상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처소 변화를 나타내는 결과 상태를 내포한 하위 사건이 V1과 V2가 결합할 때 하나로 통합되어 논항 구조의 논항으로 할당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들여 가다(오다)’, ‘옮겨 가다(오다)’ 등도 V2 ‘가다/오다’와 동일한 착점 논항 ‘-에’를 취하며 동일한 처소 변화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하위 사건을 갖는 경우이다. 그런데 V1이 나타내는 사건이 행동주에 의해 단순히 대상만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주가 대상을 이동시킬 때 행동주도 대상과 함께 이동하는 사건을 나타내며 행동주의 이동을 나타내는 V2 사건 전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사건 구조상에서는 V2의 사건이 V1의 하위 사건으로 내포되어 통합되는 유형으로 보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내 오다’, ‘불러 가다(오다)’와 같이 V1의 목적어(대상)와 V2의 주어(대상)가 공유되며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부류들도 V1의 사건과 V2의 사건이 내포되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내포 관계에 있으며 하나로 통합되는 유형도 통합적 합성 유형으로 사건 구조와 논항 구조 간에 동일한 유형의 합성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돌다2-돌아가다2’, ‘다니다2-*다녀가다2’, ‘뜨다-떠 가다’, ‘내리다-내려 가다’와 같이 혼합적 합성 유형에 속하는 부류들도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에서 동일하게 혼재된 방식을 보인다. 논항 구조상에서 V1과 V2의 처소 논항이 [±처소 변화]의 속성이 상충되거나 V1이 취하는 처소 논항이 V2와 결합한 이후에 다른 의미역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어 하나로 통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건 구조상에서도 V1과 V2의 하위 사건이 통합되지 않고 V1의 사건으로만 실현되거나 아니면 V1과 V2가 결합된 형태로만 하나의 사건을 나타내는 부류들이 포함된다.

6.2.2. 합성 방식이 일치하지 않는 부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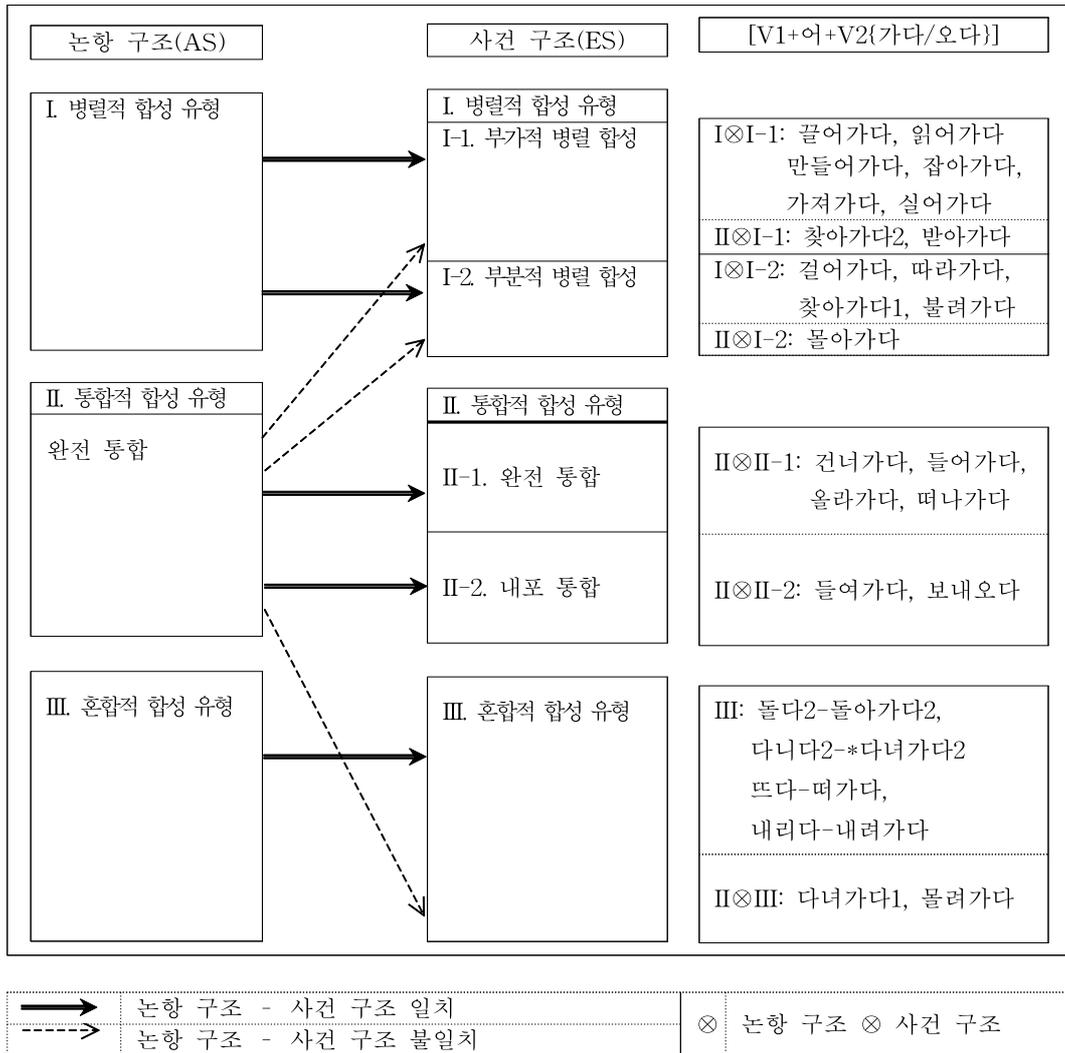
논항 구조상에서는 V1이 V2와 동일한 속성의 처소 논항을 취하며 그러한 처소 논항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통합적 합성 유형에 속하나 사건 구조상에서는 다른 통합적 합성 유형들과 달리 하위 사건이 결합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찾아 가다2’, ‘받아 가다’, ‘몰아 가다’, ‘다녀 가다1’, ‘몰려 가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찾아 가다2’, ‘받아 가다’의 V1은 기점 논항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동사로 논항 구조상에서는 V1의 기점과 V2 ‘가다/오다’가 취하는 기점 논항 ‘-에서’를 하나로 통합시켜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통합적 합성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그런데 사건 구조는 ‘잡아 가다(오다)’, ‘만들어 가다(오다)’ 등과 같이 행동주가 V1의 행위와 이동의 행위를 동시에 하는 주체로, WITH에 의해 V1의 사건과 V2의 전건이 병렬적으로 결합되는 ‘부가적 병렬 합성’ 유형에 속한다.

‘몰아 가다(오다)’도 논항 구조상에서는 V1이 V2 ‘가다/오다’와 동일한 속성의 착점 ‘-에’ 또는 ‘-로’를 처소 논항으로 취하며 V2의 착점 논항과 하나로 통합시켜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으로 실현시키는 통합적 합성 유형에 속한다. 그런데 사건 구조상에서는 V1의 전건과 V2의 전건이 동일한 사건 함수로 이루어 있지 않으며 사건 함수 간에 함의 관계도 성립되지 않으므로 하나로 통합될 수 없다. 그리하여 V1의 사건이 V2의 전건에 내포되어 추가 연산자에 의해 병렬적으로 결합된다. 그런데 ‘몰다’는 ‘-로’와 공기하는 경우에는 이동의 결과 상태를 나타낼 수 없는 사건도 가능하므로 이때는 V1의 후건이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V2의 후건으로 내포되어 연쇄동사 구문의 후건으로 합성되므로 ‘부분적 병렬 합성’으로 분류된다.

‘다녀 가다1’, ‘몰려 가다’의 V1도 V2 ‘가다/오다’와 동일하게 착점 논항을 취하는 동사로 논항 구조상에서는 통합적 합성 유형에 속하나 사건 구조상에서는 V2 ‘가다/오다’와 결합하면서 방식이나 양태(manner)를 나타내는 수식어(modifier)로 결합하여 사건 구조에 통합되는 방식이 변하는 부류로 혼합적 합성 유형에 해당된다.



6.3. [V1+어+V2{주다}]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의 상관성

‘주다’가 다른 동사와 결합하여 연쇄동사 구문을 이룰 때,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가 합성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병렬적 합성 유형’, ‘통합적 합성 유형’, ‘혼합적 합성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논항 구조에서 ‘병렬적 합성 유형’이면서 사건 구조에서 ‘부분적 병렬 합성 유형’에 속하는 부류들은 V1과 V2 ‘주다’가 대상 논항을 공유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두 부류 모두 V2 ‘주다’에 의해 착점 논항 ‘-에게’

를 취하게 되며 처소 변화를 나타내는 결과 상태를 내포한 하위 사건을 새로이 도입하게 된다. 논항 구조에서 ‘통합적 합성 유형’은 V2 ‘주다’와 동일한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를 갖는 V1이 사건 구조 내의 동일한 결과 상태를 내포한 하위 사건을 하나로 통합하며 공유하는 착점 ‘-에게’ 논항을 하나로 통합하여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완전 통합’과 ‘내포 통합’으로 나뉘는데 사건 구조에서는 ‘부분 흡수 통합’이 추가된다. ‘혼합적 합성 유형’에 속하는 부류들은 주로 V1의 논항 구조를 유지하며 사건 구조 합성시에는 V2 ‘주다’의 수혜 사건 구조로 통합된다.

(7) I. 병렬적 합성 유형

I-2. 부분적 병렬 합성

⇒ AS: ‘-에게[착점]’ - ES: 결과 상태 <BE-AT __ > 도입

(i) AS: N1-가 + N2-를 + V1 ⇒ N1-가 + N3-에게 + N2-를 + V1+V2

ES: A'(xy) + [A(x) + B(y<z>)] ⇒ [A'(xy) + B(y<z>)]

[A'(x) + B(y<z'>)] + [A(x) + B(y<z>)] ⇒ [A'(x) + [B(y<z'>) & B(y<z>)]]

II. 통합적 합성 유형

II-1. 완전 통합

⇒ AS: ‘-에게[착점]’ - ES: 결과 상태 <BE-AT __ > 통합, 유지

(i) AS: N1-가 + N3-에게 + N2-를 + V1

⇒ N1-가 + N3-에게 + N2-를 + V1+V2

ES: [A(x) + B(y<z>)] + [A(x) + B(y<z>)] ⇒ [A(x) + B(y<z>)]

II-2. 내포 통합

⇒ AS: ‘-에’ ⊂ ‘-에게[착점]’

ES: V1의 결과 상태 ⇒ V2의 결과 상태 <BE-AT __ >

(i) AS: N1-가 + N3-에 + N2-를 + V1

⇒ N1-가 + N3-에게 + N2-를 + V1+V2

ES: [A'(x) + B(y<z'>)] + [A(x) + B(y<z>)] ⇒ [A'(x) + B(y<z>)]

II-3. 부분 흡수 통합(AS: I. 병렬적 합성 유형)

⇒ AS: ‘-에게[착점]’ - ES: 결과 상태 <BE-AT __ > 도입

(i) AS: N1-가 + N2-를 + V1 ⇒ N1-가 + N3-에게 + N2-를 + V1+V2
 ES: A'(xy) + [A(x) + B(y<z>)] ⇒ [A(x) + B((A'(xy))<z>)]

(ii) AS: N1-가 + N2-를 + N3-로 + V1
 ⇒ N1-가 + N4-에게 + N2-를 + N3-로 + V1+V2
 ES: [A(x) + B(y<w>)] + [A(x) + B(y<z>)]
 ⇒ [A(x) + B((A(x)+B(y<w>))<z>)]

III. 혼합적 합성 유형

⇒ AS: '-에게[착점]' 도입 × - ES: V2의 결과 상태 <BE-AT __ > 도입 ×

(i) AS: N1-가 + N3-에/에서 + N2-를 + V1
 ⇒ N1-가 + N3-에/에서 + N2-를 + V1+V2
 ES: [A(x) + B(y<z'>)] + [A(x) + B(y<z>)]
 ⇒ [A(x) + B(y<z'>)]

(ii) AS: N1-가 + N2-를 + V1 ⇒ N1-가 + N2-를 + V1+V2
 ES: [A(xy)] + [A(x) + B(y<z>)] ⇒ [A(xy)]

6.3.1. 합성 방식이 일치하는 부류

먼저 V1이 V2 '주다'와 결합하면서 논항 구조상에 착점 논항 '-에게'를 도입하며 사건 구조상에 처소 변화를 나타내는 하위 사건으로 도입하게 되는 부류는 '병렬적 합성 유형'으로 분류된다. '만들어 주다', '깎아 주다'는 V1과 V2가 공유하는 대상 논항이 V1의 사건에 의해 존재나 상태 변화를 겪고 V2 '주다'에 의해 착점으로 처소 변화를 겪게 되는 사건으로, V1의 하위 사건과 V2의 하위 사건이 '&'에 의해 나란히 병렬적으로 합성된다. '답아 주다', '꺼내 주다'와 같이 V1이 주어(행동주)와 목적어(대상) 외에 착점 '-에'나 기점 '-에서'를 취하는 3항 술어인 경우에도 V1과 V2의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 모두 병렬적으로 합성되는 유형에 속한다. 이때는 V1의 사건으로 처소 이동을 겪은 대상이 V2 '주다'에 의해 다시 또 다른 유정물 착점(z)으로 이동하여 있게 된 사건을 나타내게 된다. '밀어 주다'의 V1 '밀다'와 같이 단순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와 V2 '주다'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V1이 취하는 대상 논항의 속성에 따라 '-에게' 논항의 실현 여부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동이 가능한 구체물을 대상 논항으로 취하는 경우

에는 V2 ‘주다’에 의해 착점 ‘-에게’를 도입하고 처소 변화를 나타내는 결과 상태를 하위 사건으로 도입하게 되는 병렬적 합성 유형에 해당된다.

V1이 V2 ‘주다’와 동일하게 주어(행동주), 목적어(대상) 그리고 착점 논항 ‘-에게’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3항 술어인 경우에는 V1과 V2가 모든 논항을 공유하며 공통된 논항들을 하나로 통합시켜 연쇄동사 구문을 형성한다. 이들은 V1이 V2와 동일한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복합 사건 구조를 갖는 경우로, 사건 구조 내에 원인 사건과 결과 사건이 일대일로 대응되어 하나로 통합되는 ‘완전 통합’ 유형에 해당된다. ‘입혀 주다’, ‘먹여 주다’, ‘건네 주다’, ‘보내 주다’, ‘알려 주다’ 등이 이러한 완전 통합 유형에 속한다.

‘걸어 주다’, ‘덮어 주다’, ‘발라 주다’ 등과 같이 V1의 착점 논항 ‘-에’와 V2 ‘주다’의 착점 논항 ‘-에게’가 ‘부분-전체’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는 사건 구조 상에서도 V1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하위 사건이 V2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하위 사건의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상되며 V1의 결과 상태가 V2의 결과 상태로 내포되어 통합된다. 이들도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의 합성 방식이 일치하는 부류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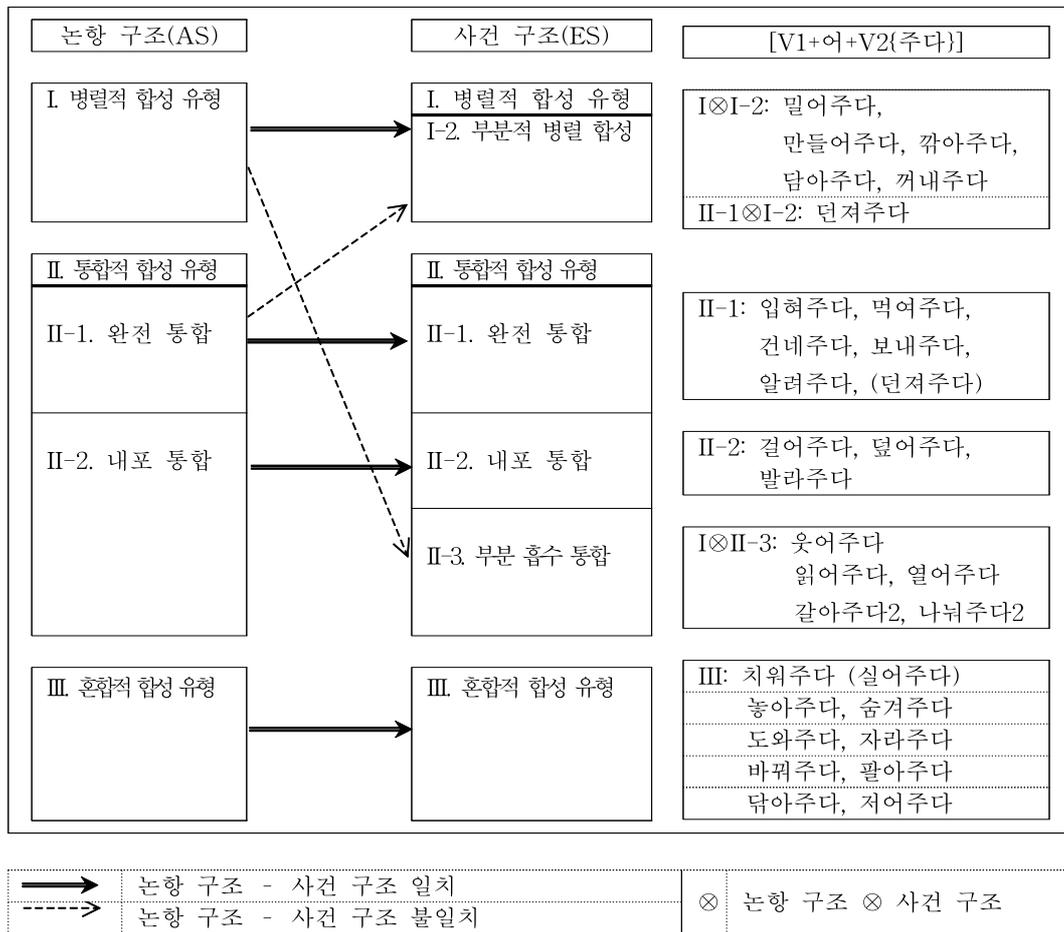
혼합적 합성 유형 중에 V2 ‘주다’와 결합하여도 착점 논항 ‘-에게’를 도입하지 않으며 V1의 구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들도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 간에 상관적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V2 ‘주다’와 공유할 수 있는 대상 논항을 취하지 않는 1항 술어나 2항 술어의 경우는 그러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이동시킬 착점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V2 ‘주다’와 결합하여도 사건 구조와 논항 구조 내에 그러한 착점 논항과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하위 사건을 도입하지 않는다. V1의 구문을 유지하는 3항 술어의 경우에는 대상 논항의 이동이나 소유 변화의 가능성 여부에 따라 ‘-에게’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실어 주다’의 경우에는 소유 이전의 가능성까지 포함된 경우에만 V1의 착점이 대상과 함께 이동이 가능하며 착점 논항 ‘-에게’를 도입하게 된다. ‘치워 주다’의 경우는 기점에서 없어진 대상을 다시 이동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사건 구조상에서 V2 ‘주다’의 착점으로 이동한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하위 사건을 도입하지 않으며 착점 논항 ‘-에게’도 도입할 수 없다. ‘닭아 주다’, ‘저어 주다’의 경우에는 대상 논항의 이동이나 소유 변화의 가능성 여부에 덧붙여 V1의 행위가 대상의 소유주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따라 착점 ‘-에게’의 실현 여부가 달라진다.

6.3.2. 합성 방식이 일치하지 않는 부류

사건 구조와 논항 구조 간에 합성 방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웃어 주다’, ‘읽어 주다’, ‘열어 주다’, ‘갈아 주다2’, ‘나뉘 주다2’, ‘던져 주다’가 있다.

‘웃어 주다’, ‘읽어 주다’, ‘열어 주다’는 논항 구조상에서는 V1이 V2 ‘주다’와 결합하면서 착점 논항 ‘-에게’를 도입하게 되는 ‘병렬적 합성 유형’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사건 구조상에서는 이들이 단순한 구체물을 공유하는 경우가 아니라 V1의 사건의 결과물이 행동주에 의해 착점에 전달 또는 이동되는 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V1 사건 전체가 V2의 후건의 대상 의미항(y)으로 통합되는 ‘부분 흡수 통합 유형’으로 합성 방식이 달라진다. ‘갈아 주다2’도 V1이 V2 ‘주다’와 결합하면서 착점 논항 ‘-에게’를 도입하지만 V1의 행위의 결과가 착점 논항에 전달되는 사건으로 V1과 V2의 하위 사건이 ‘부분 흡수 통합’ 방식으로 합성되는 경우이다. ‘나뉘 주다2’도 논항 구조상에서는 V2 ‘주다’와 결합하여 착점 논항 ‘-에게’를 취하게 되는 병렬적 합성 유형으로 분류되지만 사건 구조에서는 대상이 V1의 사건의 결과로 V2의 결과 상태에 있게 된 사건을 나타내며 ‘부분 흡수 통합’ 방식으로 합성된다.

‘던져 주다’의 경우는 ‘완전 통합 유형’에 속하나 V1의 결과 함의 정도나 ‘-(어)서’ 구문과의 교체 여부에서 완전 통합 유형에 속하는 다른 경우들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던져 주다’는 사건 구조에서는 V2 ‘주다’에 의해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하위 사건을 병렬적으로 사건 구조 내에 도입하게 되는 병렬적 합성 유형으로도 합성이 가능하다.



6.4. 정리

지금까지 앞서 살펴본 [V1+어+V2{가다/오다, 주다}] 구문의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의 합성 유형을 토대로 통사 구조와 의미 구조의 합성 유형 간에 일정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동사가 이루는 하나의 동사 구성 또는 구문은 기존에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접속 구문, 보조동사, 합성동사 등의 범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의미적 합성성의 원리를 준수하며 통사적으로도 분리가 가능한 투명한 구조를 지닌 것에서부터 단순한 두 동사의 합으로 볼 수 없는 어휘적 합성동사에 이르기까지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V2에 ‘가다/오다’, ‘주다’가 오는 경우를 중심으로 [V1+어+V2] 구문을 이루

는 두 동사 간에 결합의 정도성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라는 체계적이고 형식적인 틀을 가지고 두 동사가 결합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합성 유형들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는 전통적인 동사 구문의 범주와의 대응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V2에 의해 논항 구조에 착점 논항을 취하게 되며, 사건 구조상에도 처소 변화를 나타내는 결과 상태를 내포한 하위 사건을 도입하게 되고, ‘(어)서’ 구문과의 교체도 비교적 자유로우며, 의미적으로도 V1이 본래 가지고 있던 의미로 합성되어 주로 방식이나 양태(manner)를 나타내거나 V1과 V2의 사건이 시간적 순서에 따른 계기적 사건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병렬적 합성 유형’에 속하는 부류들은 주로 기존의 접속에 의한 통사적 구성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병렬적 합성 유형’은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의 합성 방식에 따라 ‘병렬적 합성 유형 ⊗ 부가적 병렬 합성’, ‘병렬적 합성 유형 ⊗ 부분적 병렬 합성’, ‘병렬적 합성 유형 ⊗ 부분 흡수 통합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의 합성 유형 간에 일치를 보이는 부류들이 그렇지 않은 ‘병렬적 합성 유형 ⊗ 부분 흡수 통합 유형’ 부류와 비교했을 때, 통사적으로 좀 더 투명한 구조를 지닌 구문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합적 합성 유형’은 어휘부상에서는 V1과 V2가 취하는 동일한 의미역의 논항들뿐만 아니라 [±처소 변화]라는 동일한 속성의 처소 논항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V1과 V2 두 동사가 합성하는 데에 동등하게 개입하나 표면상으로는 V1의 논항 구조를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 부류들이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부류들은 통사적 구성과 어휘적 합성동사의 중간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혼합적 합성 유형’의 경우에는 명칭대로 혼질적인 합성 유형을 보이는 부류들로, V2 ‘가다/오다’, ‘주다’와 결합하여도 착점 논항을 취하지 않거나 의미적 합성성 원리를 준수하지 않는 부류들은 기존의 보조동사 구문이나 어휘적 합성동사에 가까운 부류들로 볼 수 있다.

두 동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동사 구성 또는 구문을 이룰 때, 통사론에서 상정하는 통사 구조상에서의 다양한 레벨 혹은 층위에서 동사들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 가능하다(Barker 1989, Collins 1997, Stewart 2001, Ko & Sohn 2015 등). 그러나 본고에서 다룬 합성 유형은 현대 통사 이론에서 각각 어떤 통사 구조로 기술되어야 할지는 다루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 분류한 연쇄동사 구문을 서로 다른 통사 구조로 기술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았다. 여기서는 기존의 통사적 측면에 치중하여 설명될 수 없었던 현상들을 의

미론적 관점에서 풀어내고자 [V1+어+V2{가다/오다, 주다}]를 중심으로 V1과 V2의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가 합성되는 방식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제시하였다. 앞으로 엄밀한 통사적 기술에 따라 각 부류에 대응되는 통사 구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고에서 이루어진 의미론적 기술들이 심층적인 통사적 구조를 상징하는 통사론 연구에 밑바탕이 되는 연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7. 결론

지금까지 한국어의 ‘V-어 가다/오다’, ‘V-어 주다’가 생성 기제면에서 범언어적으로 나타나는 연쇄동사 구문(Serial Verb Construction)의 특성을 지닌 구문임을 밝히고, ‘가다/오다’, ‘주다’가 다른 동사들과 결합하여 [V1+어+V2] 구문을 이룰 때, 두 동사가 합성되는 패턴을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라는 체계적인 생성 기제를 기반으로 유형화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언어 유형론적 관점에서 Sebba(1987)와 Aikenvald(2006)가 제시하는 연쇄동사 구문의 특성들을 중심으로 한국어 [V1+어+V2{가다/오다, 주다}] 구문의 특성을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형태적으로 보면, 한국어에서는 두 동사가 연결 표지 ‘-아/어’에 의해 연결되어 나타나므로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두 동사는 명시적 표지(marker) 없이 연결되어 나타나야 한다(Sebba 1987, Stewart 2001, Haspelmath 2016 등)’는 전형적인 연쇄동사 구문(SVC)의 엄밀한 정의에서는 벗어나 있다. 하지만 ‘하나의 운율 단위를 이룬다(Sebba 1987:62, Aikenvald 2006, Hellwig 2006, Kilian-Hatz 2006, 정태구 1993 등)’는 점에서 두 동사 사이에 휴지(pause)가 주어지거나 절 경계를 나타내는 ‘-(어)서’가 포함된 구문과는 다른, 넓은 의미의 연쇄동사 구문(SVC)의 특성을 지닌 구문으로 보았다. 또한 통사적, 의미적 측면에서는 V1과 V2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논항을 공유하며 시제 또는 상, 부정소, 극성 등을 공유하는 단일절 속성(monoclausality)을 지닌 구문으로 ‘하나의 동질적인 행동주에 의해 행해지는’ ‘하나의 사건’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언어 유형론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연쇄동사 구문(SVC)의 특성을 지닌 구문임을 밝혔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가다/오다’, ‘주다’가 다른 동사들과 결합하여 연쇄동사 구문(SVC)을 이룰 때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가 합성되는 방식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심층적인 통사 구조를 상징하지는 않지만 동사가 갖는 의미 구조를 반영하는 표면적 통사 구조로, ‘논항 구조(argument structure)’의 합성 방식을 먼저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술어 분해(predicate decomposition)’ 방식을 이용한 Rappaport Hovav & Levin(1998; 2010)식의 ‘사건 구조(event structure)’를 통해 동사가 갖는 의미 구조를 표상하여 두 동사가 연쇄동사 구문(SVC)을 이룰 때, 두 동사의 하위 사건들이 어떻게 하나의 사건으로 합성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가다/오다’, ‘주다’는 각각 ‘-에’와 ‘-에게’로 실현되는 착점 논항을 필수 성분

으로 취하며 ‘처소 변화’라는 결과 상태를 하위 사건으로 갖는 처소 이동 사건을 나타낸다. 그런데 ‘가다/오다’는 처소 논항의 [\pm 처소 변화 <BE-AT__>]의 속성에 따라 다른 동사와의 합성 여부가 결정되거나 합성 양상이 달라진다. ‘주다’는 V1의 착점 논항 여부 또한 그것의 대상 논항이 ‘구체물’ 또는 ‘추상물’인가, 그것이 이동 가능성 또는 소유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에 따라 ‘-에게’ 논항의 실현 여부와 합성 유형이 달라진다. 또한 ‘가다/오다’는 V1과 주어(행동주/대상) 논항만을 공유하고, ‘주다’는 행동주, 대상, 착점 논항을 취하는 3항 술어로 V1과 주어(행동주)와 대상(목적어) 논항을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가다/오다’, ‘주다’가 다른 동사들과 결합하여 [V1+어+V2{가다/오다, 주다}] 구문을 이룰 때, 논항 구조의 합성 방식은 크게 (1) ‘병렬적 합성 유형(Summation Type)’, (2) ‘통합적 합성 유형(Unification Type)’, (3) ‘혼합적 합성 유형(Mixed Composition Type)’으로 나눌 수 있다. (1) ‘병렬적 합성 유형’은 V1과 V2가 결합하면서 각기 가지고 있던 논항들을 모두 포괄하여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 내에 실현시키는 합성 방식으로 이 유형에 속하는 부류들은 V2에 의해 착점 논항을 새로이 도입하게 된다. 그러므로 V2에 의해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가 주도적으로 결정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2) ‘통합적 합성 유형’은 V1과 V2가 완전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속성의 논항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그것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으로 실현시키는 유형이다. 이때 표면적으로는 V1의 논항 구조가 V2와 결합한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V2보다는 V1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3) ‘혼합적 합성 유형’은 V1의 논항 구조에서는 허용하던 논항을 V2와 결합한 이후에는 허용하지 않게 되거나 V2와 결합하여도 착점 ‘-에’나 ‘-에게’를 취하지 않고 V1의 논항 구조를 유지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V1+어+V2{가다/오다, 주다}] 구문의 사건 구조의 합성 유형도 (1) 병렬적 합성 유형 (2) 통합적 합성 유형 (3) 혼합적 합성 유형으로, 큰 범주는 동일하나 ‘병렬적 합성 유형’은 (1-1) ‘부가적 병렬 합성(Adjunctive Summation)’과 (1-2) ‘부분적 병렬 합성(Partial Summation)’으로, ‘통합적 합성 유형’은 (2-1) ‘완전 통합(Total Unification)’, (2-2) ‘내포 통합(Embedding Unification)’, (2-3) ‘부분 흡수 통합(Partial Absorption)’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먼저 ‘병렬적 합성 유형’의 (1-1) ‘부가적 병렬 합성’은 V1의 사건과 V2의 사건의 의미 유형이 ‘행위’와 ‘이동’으로 동일하지 않아 V1의 전건과 V2의 전건이 하나로 통합되지 않고 추가 연산자에 의해 병렬적으로 합성되며 V2의 후건이

연쇄동사 구문의 후건으로 실현되는 경우이다. (1-2) ‘부분적 병렬 합성’은 V1과 V2의 전건이 동일한 개체로만 이루어져 단순 통합되거나 아니면 전건 내의 사건 함수 간에 함의 관계에 따라 통합되거나 또는 사건 함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무표적 전건이 유표적 전건으로 통합되어 연쇄동사 구문의 전건을 구성하고 V1의 후건과 V2의 후건은 병렬적으로 합성되는 경우이다.

‘통합적 합성 유형’의 (2-1) ‘완전 통합’은 V1과 V2의 사건 의미 유형과 사건 함수가 동일하며 두 동사의 하위 사건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와 ‘무표적-유표적’ 관계에 따라 V2의 무표적 경로 함수가 V1의 유표적 경로 함수로 통합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2-2) ‘내포 통합’은 V1의 사건과 V2의 사건 간에 의미적으로 하나의 하위 사건이 다른 하위 사건으로 내포되는 관계를 맺고 있어 통합되거나 V1과 V2의 하위 사건 내에 <결과 상태>가 ‘부분-전체’ 관계로 ‘부분’이 ‘전체화’되어 합성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때는 V2의 사건을 함의하는 V1의 전건이나 사건 전체가 연쇄동사 구문의 전건으로 실현되고 V1의 후건과 V2의 후건은 하나로 통합되어 결합된다. 이와 달리 (3-3) ‘부분 함수 통합’은 V1의 사건과 V2의 사건의 유형이 어떠한 의미적 함의 관계도 맺고 있지 않고 V1의 사건이 V2의 대상 의미항(y)으로 통합되는 경우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의 합성 유형을 통해 통사 구조와 의미 구조 간에 대응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병렬적 합성 유형’은 V1이 V2와 결합하면서 논항 구조에 착점 논항을 도입하게 되는데 그러한 논항은 사건 구조 내에 <BE-AT__>라는 결과 상태가 포함된 하위 사건으로 도입된 것이다. ‘통합적 합성 유형’은 V2와 동일한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를 갖는 V1이 사건 구조 내의 동일한 결과 상태를 내포한 하위 사건을 하나로 통합하고 공유하는 착점 논항을 하나로 통합하여 연쇄동사 구문을 이루는 경우이다. ‘혼합적 합성 유형’에 속하는 부류들은 V1과 V2의 처소 논항의 속성이 상충되어 하나로 통합되지 않거나 V2가 결합된 형태로만 쓰이는 등 사건 구조상에서 통합되지 않는 논항들은 논항 구조상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들이다. 그러나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의 합성 방식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다/오다’의 경우에는 논항 구조상에서는 통합적 합성 유형에 속하는 부류들 중에 사건 구조에서는 V1과 V2의 전건의 사건이 ‘행위’와 ‘이동’으로 하나로 통합될 수 없어 병렬적으로 합성되거나 V2 ‘가다/오다’와 결합하면서 V1이 사건 구조상에서 양태(manner)를 나타내는 것으로 합성되어 사건의 유형이 변하게 되는 부류가 있다. ‘주다’의 경우에는 주로 논항 구조상에서는 V1과 V2 ‘주다’가 주어와 대상

논항을 공유하며 착점 ‘-에게’를 도입하는 병렬적 합성 유형에 해당하지만 사건 구조상에서는 이들이 단순한 구체물을 공유하는 경우가 아니라 V1의 사건의 결과물이 행동주에 의해 착점에 전달 또는 이동되는 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V1 사건 전체가 V2의 후건의 대상 의미항(y)으로 통합되는 ‘부분 흡수 통합’ 유형으로 합성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류들이 나타난다고 해도 두 동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연쇄동사 구문을 이룰 때, 논항 구조에 새로이 도입된 논항은 사건 구조 내에서 동일하게 하나의 하위 사건으로 도입되며 반대로 논항 구조에 변화가 없으면 사건 구조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등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 간에 상관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어에서 두 동사가 연쇄되어 나타나는 구문을 제한적으로 다루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여러 언어들에서 나타나는 연쇄동사 구문과 한국어 [V1+어+V2{가다/오다, 주다}] 구문의 특성을 비교하여 고찰함으로써 범언어적으로 포착되는 한국어의 특성을 밝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인간 언어에서 ‘이동’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가다/오다’, ‘주다’를 중심으로 동사의 필수 논항 구조(통사 구조)와 형식화된 사건 구조(의미 구조) 그리고 그 합성 유형을 제시한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의미 부류의 동사들의 연구에 확대 및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현화(1998) 『국어의 동사연결 구성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회 [편], 서울 한국문화사.
- 강홍구(2002) 국어 보조동사 구조 유형과 구문적 특성 연구, 『언어학』 6, 5-26.
- 고영근(2010) 『표준중세국어문법론(개정판)』, 집문당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구본관(2002) 동사 어간+아/어+동사 어간 합성동사 형성의 원리, 『문법과 텍스트』, 서울대학교출판부, 173-194.
- 구종남(2013) 『보조용언의 의미와 문법』, 도서출판 경진.
- _____ (2013) 어미 ‘-어’의 성격과 기능, 『한민족어문학』 63, 5-40.
- 구현정(2003) 한국어 ‘주다’류 동사의 문법화 양상, 『언어학』 37, 3-24.
- 권재일(1985) 『국어의 복합문 구성 연구』, 집문당.
- 김건희(2012) 연결 어미 ‘-고서, -아서/어서, -(으)면서’에 나타나는 ‘서’의 의미 기능, 『국어학』 64, 9-155.
- 김경학(2005) 결과구문의 통사의미특성과 사건구조, 『어학연구』 41(3), 517-541.
- _____ (2013) 양태-결과동사의 상보성과 동사 cut에 대해, 『언어』 38(1), 67-86.
- 김기혁(1994) 문장 접속의 통어적 구성과 합성동사의 생성, 『국어학』 24, 403-465.
- _____ (1996) 국어 합성동사 생성의 통사·의미학적 해석, 『국어국문학』 116, 1-37.
- 김명희(1984) 국어 동사구 구성에 나타나는 의미관계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6) 문법화의 틀에서 보는 보조동사구문, 『담화와 인지』 2, 129-146.
- 김미희(2014) 연결 어미 ‘-다(가)’와 ‘-어다(가)’의 문법 체계상 위치에 대하여 -‘다가’류 문법 요소와의 공시 통시적 비교를 통하여, 『국어학』 71, 189-227.
- 김윤신(2005) 한국어 대상 이동 동사의 두 가지 의미 구조: 교체형과 비교체형, 『한국어 의미학』 17, 207-229.
- _____ (2006) 한국어 동사의 사건구조와 어휘상, 『한국어학』 30, 31-61.
- _____ (2008) 상 보조 용언 구성 ‘-어 가다’/‘-어 오다’의 의미, 『언어학』 52, 57-78.
- 김석득(1992) 『우리말형태론: 말본론』, 탐출판사.
- 김성화(1990) 『현대국어의 상 연구』, 한신문화사.
- 김신희(2009) 동사 ‘가다’의 통사·의미부 대응에 관한 연구, 『국어학』 54,

251-273.

- 김지은(1998) 『우리말 양태용언 구문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김재윤(2000) Argument Licensing in Serial Verb Construction, 『언어과학』 7(2), 71-84.
- 김창섭(1994) 국어의 단어 형성과 단어 구조,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_____ (1996) 『국어의 단어 형성과 단어 구조 연구』, 서울 태학사.
_____ (1998) 『국어 어휘자료 처리를 위한 단어와 구의 형태 · 통사론적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 김효진(2015) 한국어 복합 이동동사 [V1+아/어+V2{가다/오다}]의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 합성 유형, 『한글』 309, 5-64.
- 남미혜(1996) 국어의 연속 동사 구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남승호(2003) 한국어 이동 동사의 의미구조와 논항교체, 『어학연구』 39(1), 111-145.
_____ (2004) 한국어 술어의 사건 구조와 상적 의미, 『인문논총』 52, 75-124.
_____ (2007) 『한국어 술어의 사건 구조와 논항 구조』, 서울대학교 출판부.
- 노대규(1998) ‘-어다’ 형태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2, 215-235.
- 노채환(2006) 보조동사 ‘-아/-어 주다’의 기능적 특성 연구, 『언어와 문화』 2(3), 67-82.
- 박용배(2014) 기능동사 ‘나다’의 통사·의미적 분석,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2014년 겨울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51-161.
- 류시중(1995) 한국어 ‘-어 주다’ 구문에 대한 연구, 『언어학』 17, 99-114.
- 목정수(2002) 숨겨진 (보)조동사를 찾아서: ‘의무’의 {(어)야-}를 중심으로, 『형태론』 4(2), 215-237.
_____ (2008) 보조동사 ‘-(어)주다’의 統辭的 特性과 機能 - 與格 標識로서의 분석 가능성, 『어문연구』 36(4), 73-101.
_____ (2013) 한국어 방향격 표시의 세분화 기제 - 보조동사 ‘-(어)가다/오다’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63, 161-188.
- 박소영(2014) 한국어 동사 연쇄 구성과 형태-통사론의 접면, 『언어』 39(4), 773-795.
- 박승윤(2003) 국어 수혜격 구문의 문법화, 『담화와 인지』 10(1), 105-120.
- 박양규(1987) ‘보내오다’류의 유표적 복합동사들, 『국어학』 16, 459-486.
- 박철우(2002) 국어의 보충어와 부가어 판별 기준, 『언어학』 34, 75-111.
- 박형익(1989) 동사 ‘주다’의 3가지 용법, 『한글』 203, 145-164.
- 방운규(1994) 보조동사 “주다”에 대한 연구, 김일근 교수 고희송수(古稀頌壽) 기념호, 『겨레어문학』 18, 181-203.
- 백정민(2012) ‘-주다’ 구문의 양태적 고찰: 의지의 양태 의미를 중심으로, 언어와 『언어학』 54, 155-174.

- 서정수(1990) 『국어 문법의 연구 II』, 한국문화사.
- 성태수(2000) 한국어 '-어(서)' 구문, 『언어학』 8(1), 59-85.
- 손세모돌(1996) 『국어 보조용언 연구』, 한국문화사.
- 송홍규(2006) 연속 동사 구문과 단형 부정의 구조 분석, 『한국어학』 31, 195-214.
- 시정곤(1998) 『국어의 단어 형성 원리(수정판)』, 한국문화사.
- _____ (2003) 단어결합과 의미역 위계 구조, 『언어연구』 19(2), 271-287.
- 신현숙(1982) 관형형 어미의 의미 분석 (/은/, /는/, /던/, /을/), 『상명대학교 논문집』 10, 93-116.
- 안병희 · 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 양정석(1995) 『국어 동사의 의미 분석과 연결이론』, 박이정.
- 우형식(1996) 『국어 타동 구문 연구』, 박이정.
- _____ (1998) 『국어 동사 구문의 분석』, 태학사.
- 유세진, 최윤희, 이정민(2008), 한국어 동사 '찾다'의 상적 의미- 사건 구조를 통해 본 언어 표현과 인지의 문제, 『국어학』 52, 153-187.
- 유현경(2003) '주다' 구문에 나타나는 조사 '에게'와 '에', 『한국어학』 20, 155-174.
- _____ (2010) 동사 '두다'와 '놓다' 구문의 논항 배열 연구, 『우리말글』 50, 55-81.
- _____ (2011) 접속과 내포, 『국어학』 60, 389-410.
- 윤재학(2007) '다시'와 '또', 『언어와 정보』 11(2), 1-22.
- 이기동(1979) 주다의 문법, 『한글』 166, 159-187.
- 이기동(2001) 통합에 의한 이동동사 합성, 『어학연구』 37(1), 25-40.
- 이기문(1998) 『국어사개설』, 태학사.
- 이관규(1992) 대등 구성의 요건과 유형, 『한글』 217, 63-82.
- _____ (1994) 합성동사의 구성에 대한 고찰, 『한국어학』 1, 365-387.
- 이민우(2012) 유의어 동사 '놓다'와 '두다'의 사용 양상 비교 분석, 『어문론집』 51, 59-89.
- 이상규(1980) '-을/-를'의 범주(範疇)와 기능, 『문학과 언어』 1, 123-139.
- 이선웅(2011) 언어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의 연속동사구문, 『언어연구』 27(1), 165-182.
- _____ (2016) 보조동사 구문과 연속동사 구문의 언어유형론-한국어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 언어유형론 학회 학술 대회.
- 이익섭(2005) 『한국어 문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영현(1996) 한국어 사슬동사의 몇 가지 특성, 『언어』 21(4), 137-157.
- 이정민(1990) '-에'와 '-에서'의 (통사)의미 구조: 생성어휘부이론적 접근, 오늘의 문법-이홍배교수 회갑기념논문집, 한신문화사.

- _____ (2013) 경동사 구문-한국어와 영어의 ‘-하다’/do의 논항 구조와 관련하여,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and Language Pedagogy*, 손성옥, 조성대, 유석훈 편, 고려대출판부, 501-521.
- 이정민, 김영화 외(2000) 『의미구조의 표상과 실현』, 도서 출판 소화.
- 이정식(2010) 국어 연쇄동사 반복 현상, 『생성문법연구』 20(3), 445-471.
- 이정훈(2006) ‘V-어 V’ 합성동사 형성 규칙과 범주통용, 『어문학』 91, 129-161.
- _____ (2010) 보조용언 구문의 논항 실현과 술어-논항 관계, 『어문론집』 45, 175-192.
- 이현희(2009) 보조용언의 범주 분화와 접미사로의 이동, 『국어학』 54, 165-196.
- 이호승(2001) 국어의 상 체계와 보조용언의 상적 의미, 『국어학』 38, 209-239.
- _____ (2007) 복합서술어의 특성과 범위, 『어문연구』 55, 51-72.
- 이흥식(2000) 『국어 문장의 주성분 연구』, 서울 월인.
- 임지룡(2000) 한국어 이동 사건의 어휘화 양상, 『현대문법연구』 20, 23-45.
- 장은숙(2005) 의미 자질을 고려한 의미역 설정, 『새한영어영문학』 47(2), 213-234.
- 전수태(1987) 『국어 이동동사 의미 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 _____ (2009) 『국어 이동동사 의미 연구』, 박이정.
- 전종섭(1998) The English Benefactive Constructions and their Conceptual Structures(영어의 수혜 구문과 개념 구조), 서울대 석사 학위 논문.
- 정주리(2005) ‘가다’ 동사의 의미와 구문에 대한 구문문법적 접근, 『한국어 의미학』 17, 267-294.
- _____ (2006) ‘주다’ 형식의 구문과 의미, 『한국어 의미학』 19, 181-207.
- 정태구(1995) 논항구조 이론과 연쇄동사: 영어와 한국어를 중심으로, 『생성문법 연구』 5(1), 63-95.
- 정혜권(2012) 한국어 조사 ‘에게’의 인지의미론적 접근, 『담화와 인지』 19(2), 133-152.
- 조경순(2008) 국어 수여동사 연구: 소유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27, 267-289.
- _____ (2009) 국어 발화동사 구문 연구, 『한국어 의미학』 30, 289-312.
- _____ (2013) 상호작용성 발화동사 구문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66, 279-308.
- _____ (2014) 『동사의 의미 구조와 문장 구성 연구』, 태학사.
- 조인희(2007) The Serial Verb Construction and Constructional Polysemy, 『영어영문학 연구』 49(1), 277-299.
- 주지연(2008) 한국어 ‘V1어V2’ 구성의 사건 유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차가영(2015) Syntax of Applicatives and Their Kin: The Case of cwu- ‘to give’ in Korean,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희락(1999) 이동동사의 정의와 분류, 『현대문법연구』 15, 79-100.
- _____ (2015가) 한국어 [...V...V] 표현의 종합적 통사 분석 I- 보조용언류 구문과 격 교체 현상, 『언어』 40(3), 543-578.
- _____ (2015나) 한국어 [...V...V] 표현의 종합적 통사 분석 II- 부동사 구문과 공백의 유형, 『언어』 40(4), 703-746.
- _____ (2016) 한국어 [...V...V] 표현의 종합적 통사 분석 III- 관용표현 구문과 합성어, 『언어』 41(1), 119-163.
- 최현배(1961) 『우리말본』 (세 번째 고침), 정음문화사.
- _____ (1975) 『우리말본』 (다섯 번째 펴냄), 정음문화사.
- 한정환(2004) 연결 이론과 연결 규칙, 『한국어학』 23, 49-71.
- 함희진(2010) 동사 연결 구성의 통합과 합성동사 형성, 한국문법교육학회 제13차 전국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1-9.
- 허윤숙(2007) ‘주다’의 의미-기능적 변화: 담화-전략적 관점,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25-232.
- 홍기선(1995) 이동동사와 장소명사 표지, 『어학연구』 31(3), 461-480.
- 홍달오(2013) ‘가다, 오다, 들다, 나다’의 의미 합성에 관한 인지의미론적 고찰, 『어문론집』 55, 63-90.
- 홍재성(1987) 『현대 한국어 동사구문의 연구』, 탐출판사.
- 황병순(1986) 국어 복합동사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 13, 191-203.
- 황화상(2002) 국어 합성 동사의 의미-‘[V+어+{오다, 가다}]’ 형태의 합성동사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15, 307-324.
- Aikenvald, Alexandra Y.(2006) Serial Verb Constructions in Typological Perspective. In *Serial verb constructions: A cross-linguistic typology Vol. 2*, Aikenvald, Alexandra Y., & Dixon, Robert M.(eds.), 1-68. Oxford University Press.
- Awoyale, Yiwola(1987) Perspectives on verb serialisation. In *Niger-Congo Syntax and Semantics*, V. Manfredi. Dordrecht(eds.), 3-36. Kluwer Academic Publishers.
- Baker, Mark C.(1989) Object sharing and projection in serial verb constructions. *Linguistic inquiry* 20(4): 513-553.
- Bamgbose, Ayo(1974) On serial verbs and verbal status. *Journal of West African Languages* 9(1): 17-48.
- Beavers, John & Koontz-Garboden, Andrew(2012) Manner and Result in the Roots of Verbal Meaning. *Linguistic inquiry* 43(3): 331-369.
- Beavers, John, Levin, Beth & Tham, Shiao Wei(2008) The Typology of Motion Expressions Revisited. Draft.

- Beck, Sigrid & Johnson, Kyle(2004) Double objects again. *Linguistic Inquiry* 35(1): 97-123. MIT press.
- Bisang, Walter(1995) Verb serialization and converbs-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Converbs in Cross-Linguistic Perspective*, M. Haspelmath & E. König(eds.). Mouton de Gruyter, Berlin · New York.
- Bohnemeyer, Jürgen & Pederson, Eric(2011) Event Representation in Language and Cognition. Cambridge: CUP.
- Bruce, Les(1988) Serialization: from syntax to lexicon. *Studies in Language* 12(1): 19-49.
- Carter, Richard(1976) Some linking regularities, *On Linking: Papers by Richard Carter Cambridge MA: Center for Cognitive Science(Lexicon Project Working Papers 25)*. MIT.
- Choe, Hyon Sook(1988) Restructuring parameters and complex predicates: A Transformational Approach. Ph. D. dissertation, MIT.
- Choi, Youngju(2010) Semantic Principles of Prediction of Korean Serial verb Constructions. *English 21* 23(4): 243-261.
- Chung, Chan & Kim, Jong-Bok(2008) Korean Serial Verb Constructions-A Construction-Based Approach.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18(4): 559-582.
- Chung, Tae Goo(1993) Argument structure and serial verbs in Korean.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ustin.
- Collins, Chris(1997) Argument sharing in serial verb constructions. *Linguistic inquiry* 28(3): 461-497.
- Coupe, Alexander R.(2006) Converbs. In *Encyclopedia of Language & Linguistics*. Elsevier Ltd.
- Croft, William(2012). *Verbs: Aspect and causal structure*. Oxford.
- Culicover, Peter W. & Jackendoff, Ray S.(2005) *Simpler syntax*. Oxford University Press on Demand.
- Dixon, Robert M.(2006) Serial Verb Constructions: Conspectus and Coda. In *Serial verb constructions: A cross-linguistic typology Vol. 2*, Aikhenvald, Alexandra Y. & Dixon, Robert M.(eds.), 338-350. Oxford University Press.
- Dowty, David R.(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The Semantics of Verbs and Times in Generative Semantics and in Montague's PTO. Dordrecht: Reidel.
- _____ (1991) Thematic proto-roles and argument selection. *Language* 67(3): 547-619.

- Durie, Mark(1997) Grammatical structures in verb serialization. In *Complex predicates*, Alex Alsina, Joan Bresnan & Peter Sells(eds), 289-354. Stanford: CSLI.
- Foley, William A., Van Valin Jr. & Robert D.(1984) Functional syntax and universal grammar. *Cambridge Studies in Linguistics London 38*.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oley, William A.(2010). Events and serial verb constructions. In *Complex predicates: Cross-linguistic perspectives on event structure*, Mengistu Amberber, Brett Baker & Mark Harvey(eds.), 79-109.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ldberg, Adele E.(1995) *Constructions: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98) Semantic principles of predication. *Discourse and Cognition: Bridging the Gap*, 41-54. CSLI Publications,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
- Grimshaw, Jane(1990) *Argument structure*. the MIT Press.
- Gruber, Jeffrey S.(1965) *Studies in lexical relations*. Ph. D. dissertation. MIT.
- Hale, Kenneth L. & Keyser, Samuel J.(2002) *Prolegomenon to a theory of argument structure* Vol. 39. MIT press.
- Harley, Heidi(2002) Possession and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 *Linguistic variation yearbook* 2(1): 31-70.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Haspelmath, Martin(1995) The converb as a cross-linguistically valid category. In *Converbs in Cross-Linguistic Perspective*, Martin Haspelmath & Ekkehard König(eds.), 1-55. Mouton de Gruyter, Berlin · New York.
- _____ (2016). The serial verb construction: Comparative concept and cross-linguistic generalizations. *Language and Linguistics* 17(3): 291-319.
- Hellwig, Birgit(2006) Serial Verb Constructions In GOEMAI. In *Serial verb constructions: A cross-linguistic typology Vol. 2*, Aikhenvald, Alexandra Y. & Dixon, Robert M.(eds.), 88-107. Oxford University Press.
- Jackendoff, Ray S.(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MIT press.
- _____ (1983) *Semantics and cognition*, Vol. 8. MIT press.
- _____ (1990) *Semantic structures*, Vol. 18. MIT press.
- _____ (2002) *Foundations of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 Jarkey, Nerida(1991) Serial Verbs in White Hmong: A functional approach.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ydney.
- _____ (2015) *Serial Verbs in White Hmong*, Brill.
- Jayaseelan, K. A.(1988). Complex Predicates and Theta-Theory in Thematic Relations. In *Syntax and Semantics 21, Thematic Relations*, Wendy Wilkins(eds.), 91-111. Academic Press, San Diego.
- Jo, In-Hee(1990) Multi-verb constructions in Korean. In *When Verbs Collide: Papers From the 1990 Ohio State Mini-Conference on Serial Verbs*, B. D. Joseph and A. M. Zwicky(eds.), Dept. of Linguistics, Ohio State University, 265-287.
- Jung, Yeun-Jin & Miyagawa, Shigeru(2004) Decomposing Ditransitive Verbs. In *Proceedings of the 6th 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nerative Grammar: Minimalist Views on Interface*, 97-116.
- Jung, Yeun-Jin(2005) Specificity and Obligatory Object Shift in Korean Ditransitive Verb Constructions. *SaeHa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7(3): 277-301.
- Kang, Sun-Young(1993) Serial Verb Constructions in Korean and their Implications.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3(1): 79-109.
- Kim, Byong-Kwon(1993) The Structure and the Argument-linking Convention of V-V Compounds in Korea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5: 180-192.
- Kim, Meesook(2005) The interaction between Complex Predicates and Verb Argument Structures. *Studies o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7(4): 73-92.
- Kim, Jeongdal(1993) The serial verb construction in Korean. Ph. D. Dissertation, USC.
- Kim, Jin-Young & Oh, Seong-Rok(2013) Korean Serial Verb Constructio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1(3): 199-229.
- Kim, Jong-Bok(2010) Argument Compositions in Korean Serial Verb Constructions. *Studies in Modern Grammar* 61: 1-24.
- Kilian-Hatz, Christa(2006) Serial verb constructions in Khwe (Central-Khoisan). In *Serial verb constructions: A cross-linguistic typology Vol. 2*, Aikhenvald, Alexandra Y. & Dixon, Robert M.(eds.), 108-123. Oxford University Press.
- Kittilä, Seppo(2005) Recipient-prominence vs. beneficiary-prominence. *Linguistic Typology* 9(2): 269-297.
- _____ (2006) On distinguishing between recipient and beneficiary in Finnish.

AMSTERDAM STUDIES IN THE THEORY AND HISTORY OF
LINGUISTIC SCIENCE SERIES 4, 129–152.

- Ko, Heejeong & Sohn, Daeyoung(2015) Decomposing complex serialization: The role of v. *Korean Linguistics* 17(1): 78–125.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Krifka, Manfred(1999) Manner in dative alternation. Paper presented at *West Coast Conference in Formal Linguistics* 18: 260–271, Tucson.
- _____ (2004) Semantic and pragmatic conditions for the dative alternation.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4: 1–32.
- Larson, Richard(1991) Some issues in verb serialization. In *Serial verbs: grammatical, comparative and cognitive approaches*. Lefebvre, Claire(eds.), 185–210.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Lee, Chung-min(1973) Abstract syntax and Korean with reference to English. Thaeaksa.
- _____ (2008) Motion and state: verbs *tul-/na*-(K) and *hairu/deru*(J) ‘enter’/‘exit’. In *Japanese/Korean Linguistics 13*, M. E. Hudson, S-A Jun, P. Sells, P. M. Clancy, S. Iwasaki, & S. O. Sohn(eds.), 293–307. Stanford: CSLI.
- _____ (2013) Change of Location and change of state. *In Advances in Generative Lexicon Theory*. 291–310. Springer Netherlands.
- Lee, Doo-Won(2015) Causative Cwu-Construction Revisited. *Studies in Linguistics* (35), 227–246.
- Lee, Sook Hee(1992) The Syntax and Semantics of Serial Verb Construction.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 Lefebvre, Claire(1991) Take serialization construction please. In *Serial verbs: grammatical, comparative and cognitive approaches*, Lefebvre, Claire (eds.), 37–79.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Levin, Beth(1993) English Verb Classes and Altern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_____ (2007) Dative Verbs: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Linguisticae Investigationes* 31(2): 285–312.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Levin, Beth & Rappaport Hovav, Malka(1999) Two structures for compositionally derived events. In *Semantics and linguistic theory Vol. 9*, 199–223.
- _____ (2004). The semantic determinants of argument expression: A view from the English resultative construction. MIT Press, Cambridge, MA.

- _____ (2005) Argument re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 Yafei(1990) On V-V compounds in Chinese. *Natural language & linguistic theory* 8(2): 177-207.
- _____ (1991) On deriving serial verb constructions. In *Serial verbs: grammatical, comparative and cognitive approaches*. Lefebvre, Claire (eds.), 103-136.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Lichtenberk, Frantisek(2002) The possessive-benefactive connection. *Oceanic Linguistics* 41(2): 439-474.
- Melis, Ludo(1998) From Form to Interpretation: building up the 'Dative'-Roles. *The Dative, Vol. 2*, 261-291.
- Marantz, Alec(1984) On the Nature of Grammatical Relations. *Linguistic Inquiry Monographs* 10. MIT Press, Cambridge, MA.
- Nam, Seunggho(1995) Semantics of Locative Prepositional Phrases in English. Ph. D. dissertation, UCLA.
- _____ (2005) 'Directional Locatives in Event Structure: Asymmetry between Goal and Source'. *Eoneohag(Linguistics)* 43: 85-117. Linguistic Society of Korea.
- _____ (2013) Symmetric Paths: Their Structures and Relations. *Language and Information* 17(1): 1~16. Korean Society for Language and Information.
- _____ (2015) Lexical Semantics: lexicon-syntax interface. In *Handbook of Korean Linguistics*. L. Brown and J. Yeon(eds.), 155-178. John Wiley & Sons, Ltd.
- Newman, John(1998) Recipients and 'give' constructions. *The Dative. Vol. 2 Theoretical and Contrastive Studies*, Willy Van Langendonck & Willian Van Belle(eds.), 1-28.
- _____ (2005) Three-place predicates: A cognitive-linguistic perspective. *Language Sciences* 27(2): 145-163.
- Nolan, Brian & Diedrichsen, Elke(2017) Argument Realisation in Complex Predicates and Complex Event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Parsons, Terence(1990) Events in the semantics of English. Cambridge, MA: MIT Press.
- Pinker, Steven(1989) Learnability and cognition. The acquisition of argument structure. Cambridge, Mass.: MIT Press.
- Rapold, Christian J.(2010) Beneficiary and other roles of the dative In Tashelhiyt. In *Benefactives and malefactives: Typological perspectives and case studies*, Zúñiga, Fernando & Kittilä,

- Seppo(eds.), 315-376.
- Rappaport Hovav, Malka & Levin, Beth(1998) Building verb meanings. *The projection of arguments: Lexical and compositional factors*, 97-134.
- _____ (2001) An Event Structure Account of English Resultatives. *Language* 77: 766-797.
- _____ (2008) The English dative alternation: The case for verb sensitivity. *Journal of Linguistics* 44(1): 129-167.
- _____ (2010) Reflections on manner/result complementarity. In *Syntax, lexical semantics, and event structure*. Rappaport Hovav, Malka, Doron, E., Sichel, I.(eds.), 21-3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obert D. & Van Valin, JR.(2006) Some universals of Verb semantics, In *Linguistic universals*, Ricardo Mairal & Juana Gil(eds.), 155-178. Cambridge.
- Sebba, Mark(1987) *The Syntax of Serial Verb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Sells, Peter(1991) Complex verbs and argument structures in Korea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4: 395-406.
- Shibatani, Masayoshi(1994) Benefactive constructions: A Japanese-Korean comparative perspective. *Japanese/Korean Linguistics* 4: 39-74.
- _____ (1996) Applicatives and benefactives: A cognitive account. *Grammatical constructions: Their form and meaning*, 157-194.
- _____ (2009) On the form of complex predicates: toward demystifying serial verbs. *Form and function in language research: Papers in honour of Christian Lehmann*, 255-282.
- Smith, Tomoko Y.(2010) Cross-linguistic categorization of benefactives by event structure. In *Benefactives and malefactives: typological perspectives and case studies*. Zúñiga, Fernando & Kittilä, Seppo(eds.), 71-93.
- Sohn, Ho-min(1976) Semantics of Compound Verbs in Korea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1(1): 142-150.
- _____ (1999) *The Korean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ong, Jae Jung(2010) Korean benefactive particles and their meanings. In *Benefactives and malefactives: typological perspectives and case studies*. Zúñiga, Fernando & Kittilä, Seppo(eds.), 393-418.
- Song, Hong-kyu(2009) Some restrictions on the formation of V-V constructions. *The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20: 307-337.

- Stahlke, Herbert(1970) Serial verbs. *Studies in African linguistics* 1(1): 60-99.
- Stewart, Osamuyimen T.(2001) The serial verb construction parameter. Routledge.
- Talmy, Leonard(2000)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Vol. 1. MIT press.
- Van Valin, JR. & Robert D.(1990) Semantic parameters of split intransitivity. *Language* 66(2): 221-260.
- Vendler, Zeno(1967), *Linguistics in Philosoph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Yoon, Soyeon(2013) The Korean Serial verb Construction “V1-eta V2”.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38(2): 413-449.
- You, Seok-Hoon(1998) *Argument licensing in complex verbal constructions in Korean*. Hanguk munhwasa.
- Zubizarreta, Maria L. & Oh, Eunjeong(2007) *On the syntactic composition of manner and motion*. MIT Press.
- Zwarts, Joost(2013) PPs, paths, and resultatives. *Secondary Predication in Formal Frameworks*. Utrecht.

Appendix

‘가다/오다’, ‘주다’는 다양한 술어들과 결합하여 [V1+어+V2] 동사 구성을 이루는 매우 생산성이 높은 어휘들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목록화하여 제시하기 어려울뿐더러 V1과 V2가 결합할 때 작용하는 생성 기제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한 작업이라 여겨진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V1+어+V2] 동사 구성을 이룰 때 더 다양한 제약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 ‘주다’의 경우만을 「21세기 세종 계획 최종 성과물(2011 수정판, 국립국어원)」의 말뭉치 검색을 통해 추출한 어휘들을 중심으로 간추려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이들을 합성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고 각각의 합성 유형의 하위 범주는 V1의 의미 부류와 주어를 제외한 단순 격구조에 따라 분류한다. 동사의 의미 부류는 「21세기 세종 계획 최종 성과물(2011 수정판, 국립국어원)」의 용언 상세 검색기와 Levin(1993)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미 부류들을 기준으로 공통된 의미 부류에 맞춰 분류하고자 하였다.

I. 병렬적 합성 유형

**【I. 병렬적 합성 유형(AS)
I-2. 부분적 병렬 합성(ES)】**

(i) 산출행위

<-를>

- 그려 주다
- 끓여 주다
- 넣어 주다
- 담가 주다
- 만들어 주다
- 지어 주다
- 짜 주다
- 차려 주다
- 타 주다

(ii) 결과행위

<-를>

- 구입해 주다
- 꾸려 주다
- 끓여 주다
- 따 주다
- 마련해 주다
- 모아 주다
- 발급해 주다
- 사 주다
- 떨어 주다
- 잘라 주다
- 잡아 주다

장만해 주다

주워 주다

준비해 주다

집어 주다

찾아 주다

챙겨 주다

<-에 -를>

새겨 주다

써 주다

적어 주다

<-에 -를/-로 -를>

감싸 주다

감아 주다

싸 주다

(iii) 행위(사동적이동행위)

<-를>

밀어 주다

(iv) 이동

<-에 -를>

넣어 주다

담아 주다

따라 주다

부어 주다

실어 주다

<-에서 -를>

건져 주다

골라 주다

꺼내 주다

털어 주다

떠 주다

때어 주다
 뜯어 주다
 뽑아 주다
 퍼 주다
 <-에/에서 -를>
 내려 주다

(v) 상태변화/변형 행위

<-를>
 갈아 주다¹
 구워 주다
 깎아 주다
 꺾어 주다
 다듬어 주다
 데워 주다
 말아 주다
 벗어 주다
 볶아 주다
 비벼 주다
 익혀 주다
 찢어 주다
 튀겨 주다
 <-를 -로>
 나뉘 주다¹

**【I. 병렬적 합성 유형(AS)
 II-3. 부분 흡수 통합(ES)】**

(i) 인지적 행위/소통 행위/수행동사

<-를>
 깨우쳐 주다
 넓혀 주다
 노래해 주다
 높여 주다
 돋우어 주다
 복돋아 주다
 불러 주다
 세어 주다
 읊어 주다
 읽어 주다
 쳐 주다(피아노를)
 키워 주다
 풀이해 주다
 해석해 주다
 해설해 주다

(ii) 비언어적표현/몸짓및동작

<-가>
 웃어 주다

(iii) 산출 행위
 <-를>
 지어 주다(이름을)

(iv) 결과 행위

<-를>
 비켜 주다
 열어 주다
 틀어 주다
 퍼 주다
 <-를 -로>
 갈아 주다²

(v) 대칭적 행위

<-와 -를>
 나뉘 주다²

II. 통합적 합성 유형

**【II-1. 완전 통합(AS)
 II-1. 완전 통합(ES)】**

(i) 수여/전달
 <-에게 -를>

건네 주다
 날라 주다
 남겨 주다
 넘겨 주다
 보내 주다
 부쳐 주다
 선물해 주다
 선사해 주다
 송금해 주다
 안겨 주다
 전달해 주다
 전송해 주다
 전해 주다
 지급해 주다

(ii) 결과 행위(사동성)

<-에게 -를>
 끼워 주다
 들러 주다
 먹여 주다
 물려 주다
 보여 주다
 신겨 주다
 씌워 주다
 입혀 주다

- 채워 주다
- (iii) 인지적 행위/소통 행위**
 <-에게 -를>
 가르쳐 주다
 걸어 주다(말을)
 귀뜸해 주다
 기울여 주다
 대답해 주다
 말해 주다
 밝혀 주다
 베풀어 주다
 설명해 주다
 소개해 주다
 심어 주다
 알려 주다
 약속해 주다
 양보해 주다
 일깨워 주다
 일러 주다
 증명해 주다
 축복해 주다
 축하해 주다
 충고해 주다
 칭찬해 주다
 통보해 주다
 허가해 주다
 허락해 주다
- (iv) 비언어적 표현/몸짓및동작**
 <-에게 -를>
 벌려 주다
 뺀어 주다
 외쳐 주다
 쳐 주다(박수를)
 흔들어 주다
- (v) 결과 행위**
 <-에게 -를>
 공급해 주다
 맡겨 주다
 물어 주다
 배상해 주다
 배정해 주다
 변상해 주다
 보상해 주다
 안내해 주다
 알선해 주다
 인도해 주다
 제공해 주다

- 제시해 주다
 지불해 주다
 지원해 주다
 치러 주다
 <-를 -와 → -를 -에게>
 연결해 주다
 이어 주다
 <-에/에게>
 보태 주다
- (vi) 상태**
 <-에/에게>
 가져 주다(관심을)

**【II-2. 내포 통합(AS)
 II-2. 내포 통합(ES)】**

- (i) 착용 행위**
 <-에>
 걸어 주다
 걸쳐 주다
 둘러 주다
- (ii) 결과 행위**
 <-에>
 꽃아 주다
 달아 주다
 덮어 주다
 매어 주다
 묶어 주다
 발라 주다
 쥐어 주다

**【II-1. 완전 통합(AS)
 I-2. 부분적 병렬 합성(ES)】**

- (i) 행위/대상성 몸짓**
 <-를(/-에게)>
 던져 주다
 차 주다

III. 혼합적 합성 유형

[V1구문 유지]

- <-에서/에게서 -를>
(i) 결과 행위(제거)
 걷어 주다

벗겨 주다
비워 주다
빼 주다
없애 주다
제거해 주다
치워 주다
털어 주다
풀어 주다

<-에 -를>

(i) 결과행위(이동)

감추어 주다
놓아 주다
뚫어 주다
버려 주다
붙여 주다
설치해 주다
세워 주다
숨겨 주다
실어 주다
쏟아 주다
없어 주다
올려 주다
옮겨 주다
칠해 주다

(-에 '-를':수혜자)

가입시켜 주다
눅혀 주다
묻어 주다
앉혀 주다
업어 주다
초대해 주다
태워 주다

<-를 -로>

(i) 결과행위

(-로: 도구격)

가려 주다
막아 주다
받쳐 주다

(-로: 자격)

밀어 주다
뽑아 주다

(ii) 인지적 행위/추상적 행위

(-로: 자격)

삼아 주다
여겨 주다

인정해 주다
평가해 주다
활동해 주다

(iii) 방향성 행위

(-로: 자격)

대접해 주다

[-를]: 2항 술어

(1) '-를'(유정물): 수혜자

① 유정물/신체부위

(i) 방향성 행위

간호해 주다
기다려 주다
다스려 주다
도와 주다
만나 주다(-와)
맞아 주다
맞이해 주다
배웅해 주다
응대해 주다
환영해 주다

(ii) 결과행위

감겨 주다
구제해 주다
구조해 주다
깨워 주다
부축해 주다
살려 주다
씻겨 주다
이끌어 주다
일으켜 주다
재워 주다
쫓아 주다
치료해 주다
키워 주다

(iii) 심리술어

격려해 주다
귀여워해 주다
달래 주다
돌봐 주다
반겨 주다
보살펴 주다
사랑해 주다
아껴 주다
안심시켜 주다
예뻐해 주다

(iv) 단독 행위

붙들어 주다
붙잡아 주다
장식해 주다
지탱해 주다
품어 주다

(v) 몸짓및동작/접촉동사

간질여 주다
긁어 주다
껴안아 주다
다독거리 주다
두드려 주다
두들겨 주다
만져 주다
매만져 주다
문질러 주다
보듬어 주다
비벼 주다
쓰다듬어 주다
쓸어 주다
안아 주다
어루만져 주다
웃겨 주다
주물러 주다
토닥여 주다
활아 주다

(vi) 장식행위

가꾸어 주다
깎아 주다
꾸며 주다
땅아 주다
빚겨 주다
잘라 주다

② ‘-를’: 유정물, 추상물

(i) 심리술어

걱정해 주다
만족시켜 주다
믿어 주다
안정시켜 주다
염려해 주다
위로해 주다
존중해 주다
충족시켜 주다

(ii) 인지적행위

기억해 주다
배려해 주다
봐 주다

생각해 주다
알아 주다
옹호해 주다
용서해 주다
이해해 주다
지지해 주다
포용해 주다

(iii) 행위(방식행위)

대신해 주다

(iv) 결과행위

보호해 주다
지켜 주다
통과시켜 주다
합격시켜 주다

③ ‘-를’: 추상물/사태

(i) 결과행위

<주어: 부정물>

감면해 주다
강조해 주다
거두어 주다
구성해 주다
기술해 주다
끝내 주다
나타내 주다
늦추어 주다
다루어 주다
다해 주다
달아 주다
둔우어 주다(입맛을)
드러내 주다
면제해 주다
발휘해 주다
밝혀 주다
보완해 주다
보존해 주다
분석해 주다
비취어 주다
빛내 주다
사해 주다
생성해 주다
선택해 주다
수락해 주다
수용해 주다
스쳐 주다
승인해 주다
시정해 주다

식혀 주다
 연장해 주다
 예약해 주다
 유예해 주다
 유지시켜 주다
 유지해 주다
 이루어 주다
 정리해 주다
 정해 주다
 조정해 주다
 주도해 주다
 중지시켜 주다
 지내 주다(장사를)
 처리해 주다
 취소해 주다
 해결해 주다
 해소시켜 주다
 해소해 주다
(ii) 상태변화
 가라앉혀 주다
 강화해 주다
 강화시켜 주다
 고양시켜 주다
 고조시켜 주다
 깨뜨려 주다
 녹여 주다
 늘려 주다
 불려 주다
 정정해 주다
 좁혀 주다
 줄여 주다
 진작시켜 주다
 촉진시켜 주다
 풀어 주다(긴장을)
 향상시켜 주다
 확대해 주다
(iii) 방향성 행위
 거들어 주다
 들어 주다
 맞추어 주다(비위를)
 받아 주다
(iv) 인지적 행위
 결정해 주다
 고려해 주다
 묵인해 주다
 양해해 주다
 헤아려 주다

(v) 심리술어
 고민해 주다(함께)
 기뻐해 주다(함께)
④ ‘-를’: 부정물
 (‘대신’/‘-(를) 위해’)
(i) 행위
 들어 주다
 먹어 주다
 (사동적이동 행위)
 끌어 주다
 눌러 주다
 당겨 주다
(ii) 결과행위
 생산해 주다
⑤ ‘-를’(유정물/무정물/추상물)
(i) 결과행위
 맡아 주다
 살펴 주다
 적서 주다

[-를’: 부정적 수혜]
(i) 몸짓및동작/접촉동사
 갈겨 주다
 꼬집어 주다
 때려 주다
(ii) 심리술어
 끌려 주다
 눌러 주다
 비웃어 주다
 약올려 주다
(iii) 방향성 행위
 꾸짖어 주다
 빈정거리 주다
 손봐 주다
 혼내 주다

[1항 술어/2항 술어]
<-가 -에>
(i) 이동
 나가 주다
 나와 주다
 들러 주다
 와 주다
(ii) 출현동사

나타나 주다
 참석해 주다
 참여해 주다
 (iii) 심리술어
 노력해 주다
 따라 주다(말에)

(iv) 방향성 행위
 나서 주다
 동의해 주다
 동조해 주다
 동참해 주다
 응해 주다
 호응해 주다
 (v) 인지적 행위
 수궁해 주다

<-가 - 에게>

(i) 결과행위
 잘해 주다
 쳐 주다

<-가 - 와>

(i) 지속적활동/대칭적 행위
 놀아 주다
 어울려 주다
 (ii) 존재동사/결과행위
 있어 주다(-에/와)

<-가>

(i) 상태변화
 걷혀 주다
 성장해 주다
 자라 주다
 피어 주다
 사라져 주다
 (ii) 이동행위
 달려 주다

(iii) 기상현상

불어 주다
 와 주다

(iv) 비언어적표현/소리내기

울어 주다

[-에게/대신 도입]

① <V1 행동주 → V2착점>

(i) 결과행위

<-를 -로>
 거슬러 주다
 바뀌 주다

<-를>

깎아 주다(값을)

② <-에게 대신>

(i) 수여

값아 주다
 팔아 주다

(ii) 소통행위

기도해 주다
 빌어 주다

[-(어)서 구문]

(i) 개선행위

고쳐 주다
 기워 주다
 꿰매 주다
 닦아 주다
 손질해 주다
 수리해 주다
 수정해 주다

(ii) 결과행위

빨아 주다
 저어 주다

(iii) 산출행위

찍어 주다

Abstract

The Argument and Event Structure Types of Serial Verb Constructions in Korean - The Case of '*V-e ka-ta/o-ta*', '*V-e cwu-ta*' -

Kim Hyojin

Department of Linguis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demonstrates that the Korean multi-verb constructions '*V-e ka-ta/o-ta*(go/come)' and '*V-e cwu-ta*(give)' have their syntactic and semantic behavior in common with the so-called Serial Verb Constructions(SVCs) that are found across a wide range of languages. Above all, this thesis aims to investigate the syntactic and semantic composition types of '*V-e ka-ta/o-ta*' and '*V-e cwu-ta*' according to their argument and event structures.

SVCs are distinct from other multi-verb constructions in that the two juxtaposed verbs represent a single unitary event, sharing at least one argument. In order to identify whether '*V-e ka-ta/o-ta*' and '*V-e cwu-ta*' can be classified as SVCs, this thesis focuses on how the argument and event structures of two individual verbs are combined to form one single predication. When the argument and event structures of two consecutive verbs(i.e. V1 and V2) are combined, a subject-AGENT argument is shared in the case of '*V-e ka-ta/o-ta*', while a subject-AGENT and an object-THEME

argument are shared in the case of ‘*V-e cwu-ta*’. Thus, the main concern in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how locative arguments, especially GOAL arguments, are combined in both constructions.

Although syntactically postulated deep structures are not a matter of concern in this thesis, argument composition types are investigated and proposed as surface structures to be projected from the semantic structure in the lexicon. With respect to semantic structure, Rappaport Hovav & Levin’s(1998; 2010) event structure based on ‘predicate decomposition’ is adopted to demonstrate how verbs contribute to the composition of the subevents of a unitary event described by the SVCs.

In Korean, both ‘*ka-ta/o-ta*’ and ‘*cwu-ta*’ require a GOAL argument, i.e. ‘*-ey*’ or ‘*-eykey*’, as their obligatory constituent, and denote an event of location change. In addition, both can be serialized with most other predicates, except for a few state predicates. However, the composition patterns of those verbs are somewhat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he case of ‘*ka-ta/o-ta*’, whether the two verbs(i.e. V1 and V2) can be combined, as well as their composition types, are determined by the property of [±Change of Location] within locatives. In contrast, the composition type of ‘*cwu-ta*’, specifically in relation to the realization of its GOAL argument ‘*-eykey*’, is determined by the following factors: i) whether V1 requires a GOAL as its argument; ii) whether the theme of V1 is a physical or abstract object; iii) the possibility of movement of GOAL argument; and iv)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possession.

The composition types of argument and event structure of the SVCs with ‘*ka-ta/o-ta*’ and ‘*cwu-ta*’ fall largely into three groups: (i) Summation Type, (ii) Unification Type, (iii) Mixed Composition Type. The first two event composition types can be further divided into the

following sub-groups: (i)-1 Adjunctive Summation and (i)-2 Partial Summation for Summation Type; as well as (ii)-1 Total Unification, (ii)-2 Embedding Unification, and (iii)-3 Partial Absorption for Unification Type.

In the Summation Type, the arguments and subevents of two verbs are summed in parallel. By combining with V2, the GOAL argument is realized in the argument structure, and at the same time the result-state subevent (i.e. <BE-AT___>) is introduced in the event structure. In contrast, Unification Type is an instance in which two verbs that require a locative argument with the identical property of [\pm Change of Location] are combined. In such a case, the two verbs' subevents that are associated with an identical result state are combined into one and their shared locative arguments are also unified. Since the argument structure of V1 stays the same after the two verbs are combined, the Unification type can be regarded as a construction determined by V1 rather than V2. Finally, in the Mixed Composition Type, an argument that cannot be unified in the event structure is not allowed in the argument structure as well. For example, when the locative argument of V1 is incompatible with the GOAL argument of V2 because of their conflicting semantic properties, the two arguments cannot be combined into one. In addition, some arguments which were not originally introduced by V1 are newly introduced into the argument and event structure by the verb form which is combined with V2.

This thesis identifies the syntactic and semantic composition types of SVCs with '*ka-ta/o-ta*' and '*cwu-ta*'. Furthermore, it is confirmed that the correspondence between syntax and semantics based on the composition types is valid for the SVCs.

keywords : Serial Verb Construction, Argument structure, Event
Structure, Change of Location, Summation Type,
Unification Type, Mixed Composition Type

Student Number : 2006-30727